


# 韓國日本文化學會 第66回 國際學術大會



<http://www.bunka.or.kr>

- 日 時：2024年9月27日(金)～28日(土) 11:00～18:10
- 場 所：東義大學校 人文社會科學大學
- 主 催：韓國日本文化學會, 東義大學校 人文社會研究所
- 主 管：韓國日本文化學會, 東義大學校 日本學科
- 後 援：東義大學校,

日本国際交流基金 ソウル文化センター JAPAN FOUNDATION  SEOUL  
(社)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 協力學會：日本比較文化學會, (日本)表現學會, (台灣)日本語文學會

## 韓國日本文化學會

The Japanese Culture Association of Korea  
(<http://www.bunka.or.kr>)



# 韓國日本文化學會 第66回 國際學術大會

‘地域消滅危機から考える韓国と日本の町おこし’

日時：2024年9月27日(金)～28日(土) 11:00～18:10

場所：東義大學校 人文社會科學大學

主催：韓國日本文化學會，東義大學校 人文社會研究所

主管：韓國日本文化學會，東義大學校 日本學科

後援：東義大學校

日本国際交流基金ソウル文化センター



(社)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協力學會：日本比較文化學會，(日本)表現學會，(台灣)日本語文學會

## 韓國日本文化學會

The Japanese Culture Association of Korea  
(<http://www.bunka.or.kr>)





## 韓國日本文化學會 第66回 國際學術大會

모시는 글

한국일본문화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지나고 파란 하늘이 더 높게만 느껴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높은 하늘만큼 기분도 더 청명해지는 이 계절에 제 66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으로 학회에 참석해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회는 회장인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의 동의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산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회원 여러분을 모실 수 있게 된 것 또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역소멸위기에서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의 町おこし」입니다. 한일 양국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사회, 대학 등은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된 점은 대단히 시의 적절하며, 한국일본문화학회라는 이름에도 부합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초청강연자로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 재직 중인 사이토 아유미(齊藤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이토 교수님은 제가 일본 유학시 학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아주 유능한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의 조성금 교부를 받아 개최됩니다.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의 원활한 학문교류에 늘 관심을 갖고 조성금을 지원해주는 일본국제교류기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학회라는 이유로 기꺼이 후원해 주신 이사장님, 회장님 이하 협회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조강연과 함께 주제에 맞는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자, 국내 각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4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기획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연구자 총 30팀의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발표자를 비롯하여 좌장, 사회, 토론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28일

한국일본문화학회  
회장 윤승민 배상

## 韓國日本文化學會 第66回 國際學術大會


日 時：2024年9月27日(金)～28日(土) 11:00～18:10

場 所：東義大學校 人文社會科學大學

主 催：韓國日本文化學會，東義大學校 人文社會研究所

主 管：韓國日本文化學會，東義大學校 日本學科

後 援：東義大學校

日本國際交流基金ソウル文化センター JAPAN FOUNDATION  SEOUL  
(社)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協力學會：日本比較文化學會，(日本)表現學會，(台灣)日本語文學會

### <總會・招請講演・學術發表會>

- 接受 吳 登録：11:00～12:00
- 總 會：12:00～12:30 (場所：東義大學校 第2人文館 210號)  
開 會 辭：尹勝玟 (韓國日本文化學會 會長)  
祝 辭：崔然柱 (東義大學校 人文社會科學大學長)  
十河俊輔 (ソウル日本國際交流基金ソウル文化センター所長)
- 研究者倫理教育：金學淳 (韓國日本文化學會 評價理事)
- 招請講演：12:30～13:20  
齊藤步 (ソウル大学アジア言語田文明学部)  
「韓国と日本の『町おこし』－人文学的見地から－」
- 企劃 發表：13:30～15:10
- 學術 發表會：15:30～18:10
- 懇 親 會：18:30～20:00

## ◀ 招請講演 ▶

順序	時 間	發 表 者	主 題
1	12:30~13:20	齊藤歩 (서울대 아시아언어 문명학부)	韓国と日本の『町おこし』 －人文学的見地から－

## ◀ 企劃發表 ▶

順序	時 間	發 表 者	主 題	討 論
1	13:30 ~ 15:10	류정훈 (전주대)	지방시대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방안 -HUSS 사업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김영찬 (창원대)  김영아 (한남대)
2		장유리 (경북대)	지역 문화 매개자로서의 대학의 역할	
3		김학순 (충남대)	근대도시 대전 지역의 활성화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 사례와 성과-	
4		박려옥 (제주대)	제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사례	

# ◀ 分科別 學術發表大會 ▶

## [日本語學・日本語教育 分科 I]

■ 場所 : 208號

座長 : 신민철(한남대)

順序	時 間	發 表 者	主 題	場 所
1	12:00~12:30		開會辭 및 總會	第2人文館 (210號)
			研究者倫理教育	
2	12:30~13:20		招 請 講 演	
3	企 劃 發 表			김영찬 (창원대)
	13:30~15:10	류정훈 (전주대)	지방시대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방안 -HUSS 사업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장유리 (경북대)	지역 문화 매개자로서의 대학의 역할	
		김학순 (충남대)	근대도시 대전 지역의 활성화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 사례와 성과-	
		박려옥 (제주대)	제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사례	
司 会：황운(대전대)				*
4	15:30~16:00	제갈현 (한남대)	조건표현의 비조건적 용법의 학습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염미란 (원광대)
5	16:00~16:30	이현정 (경북대)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통한 일본어 유의어 쌍의 의미적 차이 분석 -確認&チェック, 取り消し&キャンセル, 接続&アクセス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김원정 (우송대)
司 会：이현진(경북대)				*
6	16:40~17:10	大谷鉄平 (北陸大)	BCCWJにおけるカタカナ語「トレンド」の様相 -雑誌記事見出しとの比較を中心に-	신의식 (경기대)
7	17:10~17:40	김문희 (愛知淑徳大)	東京大学所蔵「斎藤文庫」の朝鮮語かな表記について	류신애 (신라대)
8	17:40~18:10	신의식 (경기대)	認識動詞構文の意味論	제갈현 (한남대)

# [日本語學・日本語教育 分科Ⅱ]

■ 場所：210號

座長：김창남(대전대)

順序	時 間	發 表 者	主 題	討 論 者
1	12:00~12:30		開會辭 및 總會	第2人文館 (210號)
			研究者倫理教育	
2	12:30~13:20		招 請 講 演	
3	企 劃 發 表			김영찬 (창원대)  김영아 (한남대)
	13:30~15:10	류정훈 (전주대)	지방시대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방안 -HUSS 사업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장유리 (경북대)	지역 문화 매개자로서의 대학의 역할	
		김학순 (충남대)	근대도시 대전 지역의 활성화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 사례와 성과-	
		박려옥 (제주대)	제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사례	
司會：김봉정(대구대)				*
4	15:30~16:00	류신애 (신라대)	초급 교과서의 일본어 지시어 문장 표현 분석	윤정훈 (부산외대)
5	16:00~16:30	松下由美子 (한남대)	韓国人学生と日本人交換留学生との協働的な活動の試み -合同授業の実践報告-	김봉정 (대구대)
司會：김의영(한밭대)				*
6	16:40~17:10	염미란 (원광대) 김영아 (한남대)	일본어 고교-대학 연계교육에 대한 대학교수자 인식조사 연구	김선영 (경북대)
7	17:10~17:40	황운 (대전대)	통감부 시기의 교과용 도서 검정과 일본어 교육	김의영 (한밭대)
8	17:40~18:10	김원정 (우송대)	한국의 일본·일본어 관련 비전공자의 일본어 학습 동기부여	이현정 (경북대)

# [日本文學 分科 I]

■ 場所 : 408號

座長 : 민병훈(대전대)

順序	時 間	發表者	主 題	討 論 者
1	12:00~12:30		開會辭 및 總會	第2人文館 (210號)
			研究者倫理教育	
2	12:30~13:20		招 請 講 演	
3	企 劃 發 表			
	13:30~15:10	류정훈 (전주대)	지방시대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방안 -HUSS 사업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김영찬 (창원대)  김영아 (한남대)
		장유리 (경북대)	지역 문화 매개자로서의 대학의 역할	
		김학순 (충남대)	근대도시 대전 지역의 활성화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 사례와 성과-	
		박려옥 (제주대)	제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사례	
司會：이혜인(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4	15:30~16:00	早澤正人 (인천대)	橫光利一「蠅」論 -映画的リアリズムの手法-	김미자 (부경대)
5	16:00~16:30	박수현 (우송대)	일본 추리소설에 나타난 가족 개념의 변용 -히가시노 게이코의 『희망의 실』을 중심으로-	최정기 (충남대)
司會：박유미(충남대)				*
6	16:40~17:10	최정기 (충남대)	다성사회(多声社会)와 번역자의 역할 -다와다 요코의 「동물들의 바벨 (動物たちのバベル)」을 중심으로-	박수현 (우송대)
7	17:10~17:40	이혜인 (충남대 인문과학 연구소)	완벽함을 표방한 폐쇄적 사회의 환영, 그 이면에 대한 고찰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街とその不確かな壁)』을 중심으로-	임수현 (경북대)

# [日本文學 分科Ⅱ]

■ 場所：409號

座長：윤혜영(충남대)

順序	時 間	發表者	主 題	討 論 者
1	12:00~12:30		開會辭 및 總會	第2人文館 (210號)
			研究者倫理教育	
2	12:30~13:20		招請講演	
3		企 劃 發 表		김영찬 (창원대)  김영아 (한남대)
	13:30~15:10	류정훈 (전주대)	지방시대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방안 -HUSS 사업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장유리 (경북대)	지역 문화 매개자로서의 대학의 역할	
		김학순 (충남대)	근대도시 대전 지역의 활성화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 사례와 성과-	
		박려옥 (제주대)	제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사례	
司會：이문호(전주대 융합인재양성사업단)				*
4	15:30~16:00	엄기권 (한남대)	다케다 도시히코의 소설 『레이진소』 연구 -전후 미디어 믹스와 과정과 민법개정을 중심으로-	이문호 (전주대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5	16:00~16:30	조현구 (경북대)	시맨틱 태그(Semantic Tag)를 활용한 「치료탑(治療塔)」의 다시 읽기 -오에의 텍스트에 보존된 시맨틱의 차이화를 중심으로-	이상혁 (충남대 인문과학 연구소)
司會：이은희(계명대)				*
6	16:40~17:10	이상혁 (충남대 인문과학 연구소)	<2000년대 한일SF 패러디 연구> -이토 게이카쿠와 김보영을 중심으로-	이은희 (계명대)
7	17:10~17:40	柴田葉子 (충남대) 윤혜영 (충남대)	『雪国』における「蛾」 一雪国の女たちの生を中心に一	조현구 (경북대)



# [日本文學分科Ⅲ・日本文化 分科Ⅲ]

■ 場所：213號

座長：김수희(한국체대)

順序	時 間	發 表 者	主 題	討 論 者
1	12:00~12:30		開會辭 및 總會	第2人文館 (210號)
			研究者倫理教育	
2	12:30~13:20		招 請 講 演	
3			企 劃 發 表	
	13:30~15:10	류정훈 (전주대)	지방시대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방안 -HUSS 사업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김영찬 (창원대)  김영아 (한남대)
		장유리 (경북대)	지역 문화 매개자로서의 대학의 역할	
		김학순 (충남대)	근대도시 대전 지역의 활성화 -일본사회문화 캠프톤디자인 수업 사례와 성과-	
		박려옥 (제주대)	제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사례	
司會：한정선(부산대)				*
4	15:30~16:00	임상민 (동의대)	근대 부산과 서일본 지역신문의 조선 <지역관> 연구 - 『후쿠오카일일신문』을 중심으로 -	장유리 (경북대)
5	16:00~16:30	길미현 (우송대)	일본유학체험 작가의 형상화된 여성상의 미학	임상민 (동의대)
司會：길미현(우송대)				*
6	16:40~17:10	이문호 (전주대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상경(上京)하는 괴이(怪異) -아즈키 료(朧月亮)의 『도쿄도시전설』(東京都市伝説)을 중심으로-	류정훈 (전주대)
7	17:10~17:40	윤희각 (부산외대) 이충호 (부산외대)	‘라인야후’ 사태를 바라보는 한일 언론 보도 분석 -양국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홍성준 (단국대)

# [日本文化 分科 I]

■ 場所 : 412號

座長 : 김영순(건양대)

順序	時 間	發 表 者	主 題	討 論 者
1	12:00~12:30		開會辭 및 總會	第2人文館 (210號)
			研究者倫理教育	
2	12:30~13:20		招 請 講 演	
3	企 劃 發 表			김영찬 (창원대)  김영아 (한남대)
	13:30~15:10	류정훈 (전주대)	지방시대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방안 -HUSS 사업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장유리 (경북대)	지역 문화 매개자로서의 대학의 역할	
		김학순 (충남대)	근대도시 대전 지역의 활성화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 사례와 성과-	
		박려옥 (제주대)	제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사례	
司會：엄교흠(한국외대)				*
4	15:30~16:00	홍성준 (단국대)	에도 3대 기근과 비정상 체험	박희영 (한밭대)
5	16:00~16:30	박희영 (한밭대)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활용한 도시활성화 정책의 방향성과 의미 연구	이충호 (부산외대)
司會：김영찬(창원대)				*
6	16:40~17:10	홍성목 (울산대)	이세계 전생물 유행에 관한 일고찰	박려옥 (제주대)
7	17:10~17:40	윤승민 (동의대)	영화 「HOKUSAI」와 우키요에	홍성목 (울산대)

# [日本文化 分科Ⅱ]

■ 場所：411號

座長：최장근(대구대)

順序	時 間	發表者	主 題	討 論 者
1	12:00~12:30		開會辭 및 總會	第2人文館 (210號)
			研究者倫理教育	
2	12:30~13:20		招請講演	
3	13:30~15:10	企 劃 發 表		김영찬 (창원대)  김영아 (한남대)
		류정훈 (전주대)	지방시대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방안 -HUSS 사업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장유리 (경북대)	지역 문화 매개자로서의 대학의 역할	
		김학순 (충남대)	근대도시 대전 지역의 활성화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 사례와 성과-	
		박려옥 (제주대)	제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사례	
司會：오수문(경북대)				*
4	15:30~16:00	이재훈 (동의대 동아시아 연구소)	외교문서 속의 모국방문단 -초기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오수문 (경북대)
5	16:00~16:30	이이슬 (부산외대) 이충호 (부산외대)	식민초기 경찰잡지의 어휘분석을 통해서 본 위생정책 연구 - 『경무회보』의 1910년대 위생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	이재훈 (동의대 동아시아 연구소)
司會：엄기권(한남대)				*
6	16:40~17:10	최장근 (대구대)	미즈사키 린타로의 수성못 증축 연구	김학순 (충남대)
7	17:10~17:40	이상진 (山梨英和大)	朝鮮美術展覽會と在朝鮮日本人美術家に関する考察	眞杉侑里 (동의대)

## ■ 학회장 오시는 길 ■



### ▪ 동의대학교 제2인문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10번 건물

### ▪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법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에서 하차 (부산역→서면(환승)→동의대역) 5번 출구로 나오신 후 셔틀버스 (6-1번) 이용, 동의대학교 본관 (종점)에서 하차

### ▪ 택시

부산역 : 20분 정도(12,000원~)

김해공항 : 30분 정도(17,000원~)

사상터미널 : 25분 정도(10,000원~)



# 目 次

---

## 【招請講演】

- ・韓国と日本の『町おこし』 ..... 齊藤歩(서울대) ... 21  
－人文学的見地から－

## 【企劃發表】

- ・지방시대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방안 ..... 류정훈(전주대) ... 35  
－HUSS 사업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 ・지역 문화 매개자로서의 대학의 역할 ..... 장유리(경북대) ... 62
- ・근대도시 대전 지역의 활성화 ..... 김학순(충남대) ... 66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 사례와 성과－
- ・제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사례 ..... 박려옥(제주대) ... 71

## 【日本語學・日本語教育 分科Ⅰ】

- ・조건표현의 비조건적 용법의 학습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제갈현(한남대) ... 77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통한 일본어 유의어 쌍의 의미적 차이 분석 ... 이현정(경북대) ... 82  
－確認&チェック, 取り消し&キャンセル, 接続&アクセス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BCCWJにおけるカタカナ語「トレンド」の様相 ..... 大谷鉄平(北陸大) ... 87  
－雑誌記事見出しとの比較を中心に－
- ・東京大学所蔵「斎藤文庫」の朝鮮語かな表記について ..... 김문희(愛知淑徳大) ... 94
- ・認識動詞構文の意味論 ..... 신의식(경기대) ... 96

## 【日本語學・日本語教育 分科Ⅱ】

- ・초급 교과서의 일본어 지시어 문장 표현 분석 ..... 류신애(신라대) ... 103
- ・韓国人学生と日本人交換留学生との協働的な活動の試み ..... 松下由美子(한남대) ... 108  
－合同授業の実践報告－
- ・일본어 고교-대학 연계교육에 대한 대학교수자 인식조사 연구 ..... 염미란(원광대)·김영아(한남대) ... 113
- ・통감부 시기의 교과용 도서 검정과 일본어 교육 ..... 황운(대전대) ... 118
- ・한국의 일본·일본어 관련 비전공자의 일본어 학습 동기부여 ..... 김원정(우송대) ... 122

## 【日本文学 分科Ⅰ】

- ・ 横光利一 「蠅」 論 ..... 早澤正人(인천대) ... 129  
- 映画的リアリズムの手法 -
- ・ 일본 추리소설에 나타난 가족 개념의 변용 ..... 박수현(우송대) ... 137  
- 히가시노 게이고의 『희망의 실』을 중심으로 -
- ・ 다성사회(多声社会)와 번역자의 역할 ..... 최정기(충남대) ... 142  
- 다와다 요코의 「동물들의 바벨 (動物たちのバベル)」을 중심으로 -
- ・ 완벽함을 표방한 폐쇄적 사회의 환영, 그 이면에 대한 고찰 이혜인(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147  
-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街とその不確かな壁)』을 중심으로 -

## 【日本文学 分科Ⅱ】

- ・ 다케다 도시히코의 소설 『레이진소』 연구 ..... 엄기권(한남대) ... 155  
- 전후 미디어 믹스화 과정과 민법개정을 중심으로 -
- ・ 시맨틱 태그(Semantic Tag)를 활용한 「치료탑(治療塔)」의 다시 읽기 조현구(경북대) ... 160  
- 오에의 텍스트에 보존된 시맨틱의 차이화를 중심으로 -
- ・ <2000년대 한일SF 패러디 연구> ..... 이상혁(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165  
- 이토 게이카쿠와 김보영을 중심으로 -
- ・ 『雪国』における「蛾」 ..... 柴田葉子(충남대)·윤혜영(충남대) ... 168  
- 雪国の女たちの生を中心に -

## 【日本文学分科Ⅲ・日本文化 分科Ⅲ】

- ・ 근대 부산과 서일본 지역신문의 조선 <지역판> 연구 ..... 임상민(동의대) ... 175  
- 『후쿠오카일일신문』을 중심으로 -
- ・ 일본유학체험 작가의 형상화된 여성상의 미학 ..... 길미현(우송대) ... 179
- ・ 상경(上京)하는 괴이(怪異) ..... 이문호(전주대 융합인재양성사업단) ... 180  
- 아즈키 료(亜月亮)의 『도쿄도시전설』(東京都市伝説)을 중심으로 -
- ・ ‘라인야후’ 사태를 바라보는 한일 언론 보도 분석 · 윤희각(부산외대)·이충호(부산외대) ... 185  
- 양국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

## 【日本文化 分科Ⅰ】

- ・ 에도 3대 기근과 비정상 체험 ..... 홍성준(단국대) ... 195
- ・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활용한 도시활성화 정책의 ..... 박희영(한밭대) ... 202  
방향성과 의미 연구

- 이세계 전생물 유행에 관한 일고찰 ..... 홍성목(울산대) ... 206
- 영화 「HOKUSAI」와 우키요에 ..... 윤승민(동의대) ... 211

## 【日本文化 分科Ⅱ】

- 외교문서 속의 모국방문단 ..... 이재훈(동의대 동아시아연구소) ... 219  
-초기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 식민초기 경찰잡지의 어휘분석을 통해서 본 · 이이슬(부산외대)·이충호(부산외대) ... 225  
위생정책 연구  
- 『경무회보』의 1910년대 위생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
- 미즈사키 린타로의 수성못 증축 연구 ..... 최장근(대구대) ... 230
- 朝鮮美術展覽會と在朝鮮日本人美術家に関する考察 ..... 이상진(山梨英和大) ... 235







## 招請講演



## 韓国と日本の町おこし —人文科学的見地から—

齊藤歩(ソウル大) \*

### はじめに

このたびお誘いにしたがって、「町おこし」に関してお話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もとより地域政策の専門家などではなく、それどころか社会科学の研究者でさえありません。多少韓国での生活体験がある日本人としての印象をお話するようにとのお考えであると理解して、進めてまいりたいと存じます。その前提として私自身について、自己紹介を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まず出身地ですが、この釜山広域市のお向かいと言ってよい福岡市です。大学で開講するときには、「朝、教授アパートを出発すれば昼にとんこつラーメンを食べることができます」と自己紹介しています。福岡は人口が 165 万 6221 人<sup>1</sup>、いわゆる「札幌・仙台・広島・福岡）」、東京・関西・名古屋という三大都市圏に次ぐ地方の中核都市であり、その中でも活気のある地域とみなされているようです。

もっとも、福岡に住んでいたのは小学校 3 年生から高校までです。それ以前は、父が道路会社に勤務していましたので転勤が多く、栃木県の宇都宮市というところで生まれて間もなく東京に移り、四国の香川県高松市を経て福岡に落ち着きました。父は熊本県水俣市、母は長崎県長崎市で生まれましたから一応九州の血が流れています。ですが、大学に入って東京の杉並区で 25 年間を過ごし、2012 年にソウルに赴任して韓国生活も 12 年になりますと、放浪者であり異邦人であるという気分も否定できません。

韓国に参りましてからは、もちろん行っていないところがたくさんあるのですが、それでも多少は見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まず最初は仁川空港に降り立ってソウル大学に模擬

---

\* ソウル大学校人文大学アジア言語文明学部助教授

<sup>1</sup> 福岡市 HP <https://www.city.fukuoka.lg.jp/soki/tokeichosa/shisei/toukei/jinkou/jinnkousokuhou.html>  
(参照 2024-09-10)。

授業をしに行ったのですが、永宗島の干潟と松島あたりの高層アパートが印象的でした。赴任してからは学生諸君が方案内してくれて、駱山から東大門、鐘路・乙支路・明洞を経て南大門、ソウル駅まで歩いたり、坡州の統一展望台、ヘイリ芸術村、出版都市を見てから弘大に帰ってきたりという小旅行を重ねました。地理教育科の学生さんだったので説明が詳しいですし、とにかくよく歩くのです。

大学でも踏査や学事協議会という研修旅行がありますので、いろいろな地を訪れました。済州島をはじめ仁川のチャイナタウン、江華島、江原道の寧越、全羅道の群山、木浦・新安・羅州などです。また、私はソウル俳句会という団体におりまして、ここでも一年に一度旅行をいたします。今まででは扶余・公州、慶尚道咸陽、忠清道丹陽に出かけています。その他、個人的に春川に行ったり、江陵にパラリンピックを観戦しに行ったりしました。釜山へも、7年前に慶州を見学してからフェリーで福岡に帰った際に寄らせて頂いて以来、3回目の訪問になります。

### 異邦人のみた韓国の地方都市

では、ようやく本題に入ります。今回のお話は、韓国と日本の状態をふまえて分析と提言があれば、というご注文だと思いますが、まず韓国の都市に関する印象を述べます。それを街の規模から分類すれば、ソウル特別市、仁川、釜山などの広域市、群山などの地方都市、寧越などのいわゆる「田舎」となるでしょうか。当たり前すぎますが、この基本条件にここ数年の変化をプラスすると各地域の状況というのは極めて多様な状況と言ってよいと思います。仁川新都市やソウルでも麻谷などには、未来都市のような光景が広がっている一方、ソウルの旧市街にはおそらく60年代から大きく変化していないだろうと思われる町並みがあります。広域市でも、今回こちらに参ります途中で大田では大規模な再開発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し、最近行く機会があった浦項でもKTXの駅の近くに新しい都市が建設されかかっていました。

日本でも東京の再開発、福岡でも「天神ビッグバン」なる都心のリモデリングが進行中ですが、韓国のスケールに比べれば「ビッグバン」どころかガスタンクの爆発くらいに思われてきます。この活発な建築のありさまを見ると、今回の学会の「地域消滅危機から考える韓国と日

本の町おこし」というテーマは意外なものでしょうか？いえ、それは一部の開発・再開発の盛んな状況と少しも矛盾しない、むしろ表裏一体の深刻かつ危機的な問題であると容易に理解されます。

ここで、基本的なデータ、行政区域別の人口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sup>2</sup>。

ソウル特別市が総人口の 18%を占め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さらに京畿道と仁川広域市を加えた「首都圏」として考えると、2603 万人となり（万人以下切り捨て）総人口の 50.7%が集中していることとなります。ついでに言えば、ソウルの人口はやや減少していて京畿道の人口が増大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韓国の方々には至極当たり前の数字かもしれませんが、人口の半分が首都周辺に、というのは

1)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수록기간 : 월, 년 1992 ~ 2024.08 / 자료갱신일: 2024-09-03 / 주석정보

시점 증감/증감을 행렬전환 열고정해제

행정구역(시군구)별	2024.06		
	총인구수 (명)	남자인구수 (명)	여자인구수 (명)
전국	51,271,480	25,532,696	25,738,784
서울특별시	9,366,283	4,524,862	4,841,421
2) 부산광역시	3,280,749	1,597,869	1,682,880
대구광역시	2,367,183	1,162,046	1,205,137
인천광역시	3,011,073	1,505,177	1,505,896
광주광역시	1,413,606	697,904	715,702
대전광역시	1,440,558	718,295	722,263
울산광역시	1,100,304	565,890	534,414
3) 세종특별자치시	387,940	193,149	194,791
경기도	13,661,438	6,868,886	6,792,552
강원특별자치도	1,522,542	765,760	756,782
충청북도	1,591,485	809,921	781,564
충청남도	2,134,817	1,094,922	1,039,895
전북특별자치도	1,745,885	869,197	876,688
전라남도	1,794,967	905,462	889,505
경상북도	2,544,174	1,286,551	1,257,623
경상남도	3,236,224	1,630,324	1,605,900
제주특별자치도	672,252	336,481	335,771

<sup>2</sup>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kosis.kr) (参照 2024-09-11)。

「東京一極集中」が叫ばれて久しい日本人にとっても驚きを禁じ得ない数字です。

京畿道の人口が増えているのは、ソウルの住宅費が高騰していることと新都市開発が進んだことによるのでしょう。

では、日本についても同様の統計を挙げてみましょう<sup>3</sup>。

東京都の人口は総人口の11%、ソウルよりかなり低くなっています。そして「首都圏」は「首都圏整備法」による定義によれば「東京都およびその周辺地域である神奈川県・千葉県・埼玉県・茨城県・群馬県・栃木県・山梨県の1都7県」というのですが広すぎるようです。狭義では、「東京・神奈川・千葉・埼玉」を指すことも多いようですのでそれに従えば、その合計は3679万人となり（万人以下切り捨て）、総人口に占める割合は29%となります。念のため法律上の定義の「首都圏」で計算すると、4427万人となり、これでも35%にしかありません。

試みに関西圏、名古屋圏を考えてみますと、関西圏（京都・大阪・兵庫・奈良）が1798万人（14%）、名古屋圏（愛知県）が750万人（6%）であり、首都圏（狭義）と

都道府県名	人	人	人
合計	60926351	63958824	124885175
北海道	2410304	2683679	5093983
青森県	571845	633733	1205578
岩手県	566194	606155	1172349
宮城県	1093624	1148765	2242389
秋田県	437767	486853	924620
山形県	498435	529074	1027509
福島県	882650	912569	1795219
茨城県	1439050	1426640	2865690
栃木県	959226	957561	1916787
群馬県	952484	966748	1919232
埼玉県	3680089	3698550	7378639
千葉県	3141283	3168875	6310158
東京都	6830918	7080984	13911902
神奈川県	4581796	4626892	9208688
新潟県	1040012	1097660	2137672
富山県	496416	522588	1019004
石川県	538216	571010	1109226
福井県	366747	385643	752390
山梨県	396452	409917	806369
長野県	993384	1034751	2028135
岐阜県	959742	1008120	1967862
静岡県	1784266	1822203	3606469
愛知県	3753465	3747417	7500882
三重県	862261	895266	1757527
滋賀県	696879	713655	1410534
京都府	1190865	1297210	2488075
大阪府	4220992	4554716	8775708
兵庫県	2596299	2830564	5426863
奈良県	623048	692159	1315207
和歌山県	432514	480783	913297
鳥取県	259098	281109	540207
島根県	313429	337195	650624
岡山県	894879	956246	1851125
広島県	1337049	1413491	2750540
山口県	624841	685268	1310109
徳島県	340557	369455	710012
香川県	459894	488691	948585
愛媛県	624255	688043	1312298
高知県	320208	355415	675623
福岡県	2427032	2668347	5095379
佐賀県	382007	419044	801051
長崎県	610067	679927	1289994
熊本県	822461	905637	1728098
大分県	531239	581588	1112827
宮崎県	502195	556515	1058710
鹿児島県	746966	829395	1576361
沖縄県	732951	752718	1485669

<sup>3</sup> 総務省 HP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daityo/jinkou/jinkoudoutai-setaisuu.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daityo/jinkou/jinkoudoutai-setaisuu.html)

合わせて 49%となります。つまり、韓国首都圏の人口集中は日本の三大都市圏全体への集中とほぼ同じです。

### 「日本の地方」成立と変遷に関する考察

こうして見てきますと、韓国と日本の人口集中はほぼ同程度の問題である、と言え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今回のお誘いは「韓国と比較して日本の人口集中は深刻ではない」、あるいは「日本には地方にも中核都市があり、それなりに経済的にも活発である」というイメージによるのかとも思われます。たしかに、冒頭自己紹介を致しました際に述べた「札幌広福」をはじめ、三大都市圏に続く中核都市があり、その他にも県庁所在地を中心として中規模の地方都市が点在しています。その状態は何に起因しているかといえ、やはり近世の日本の幕藩体制を背景としているだろうと思われるのです。

皆さまご存じの通り、江戸幕府は 260 年間日本を統治した強固な支配力を持っていましたが、地方には俗に「三百諸侯」と言われる地方分権が敷かれていました。その中で有力なものは「加賀前田百万石」（石川県金沢市）「肥後細川五十四万石」（熊本県熊本市）などと、統治者の家名とともに呼び習わされてきた記憶があります。これは幕藩体制が解体されたのちも地方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して今に受け継がれているといってもよいでしょう。その意識は、仮に首都圏で大学生活を送っても、「クニに帰って親のあとでも継ぐか」であったり「故郷に錦を飾る」というかたちで地方に U ターンするという行動に結びついています。韓国のみなさんはいかがでしょう？ここでの「クニ」は地方の故郷のことであって、「日本国」ではありません。

近代に入って、かつての「藩」が多少の紆余曲折を経て都道府県に再編されます。しかし、多くの場合藩庁所在地に都道府県庁が置かれ、城跡には軍隊が駐屯しあるいは高等教育の施設が位置することによって地方の中心地としての機能を担うことになりました。太宰治の『津軽』にこんな一節があります。

...いつたいこの城下まちは、だらしのないのだ。旧藩主の代々のお城がありながら、県庁を他の新興のまちに奪はれてゐる。日本全国、たいていの県庁所在地は、旧藩の城下まちである。青森県の県庁を、弘前市でなく、青森市に持つて行かざるを得なかつたところに、青森県の不幸があつたとさへ私は思つてゐる<sup>4</sup>。

太宰ほどでないにしても、特に城下町と言われる地方都市の市民には強い意識があつて栄華というほどでなくとも個性的な町並みを整備して他の地域に負けまいとする競争心、さらには東京にも劣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気概があつ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私は「気概があつた」と過去形で申し上げました。今現在でも誇り高い城下町は健在でしょうか。『幕藩制の成立と近世の国制』<sup>5</sup>で学位をとった山本博文氏（1957-2020）は2007年3月6日に掲載された国土交通省のオンライン講演会において、「江戸時代の地方都市にあつた活気を取り戻す首都機能移転」<sup>6</sup>と題する提言を行っています。〈要約〉には次のような内容があります。

- ・江戸幕府は、地方の大名に独立した権力を与えるという「地方分権」と、参勤交代や強い監視による「中央集権」という両面から非常に効果的な統治をしていたといえる。
- ・参勤交代などによる人の動きによって地方都市が栄えたことは、江戸時代の大きな特徴である。現代の地方の空洞化を首都機能移転に絡めてどう是正していくかについて、江戸時代の体制も参考になる部分があると思う。
- ・江戸時代には活気のあつた地方都市の衰退の問題、地方をどう元気にするかという問題を首都機能移転等の動きとあわせて考えていくことが必要なのではないか。たとえば、複数の地方都市持ち回りで国会を開くという試みも可能ではないか。

---

<sup>4</sup> 『定本 太宰治全集』第七巻 筑摩書房 1962年 p.18。

<sup>5</sup> 校倉書房、1990。

<sup>6</sup> 国土交通省 HP <https://www.mlit.go.jp/kokudokeikaku/iten/onlinelecture/lec112.html#pagetop> (参照 2024-9-13)。



「地方の空洞化」はそのまま、今学会のテーマ「地域消滅危機」と同義であると言えるでしょう。この問題は韓国のみならず日本でも深刻な問題であり、17年前にもこのような問いかけがなされていました。しかし、私の管見の限り有効な、少なくともダイナミックな取り組みがなされている印象はありません。そしてあたかも現在、日本では自由民主党の総裁選が行われ27日開票という局面を迎えています。

まず総理大臣が交代し、さらには政局も変動しようという流れです。候補者たちは表現の違いこそあれ「地方の創生」が日本の再生の重要課題であると訴えているようです。「地方創生」は少しスケールが大きい印象がありますが、各都市・地域で行われるのが「町おこし」であり、それらの集積または大きな社会改造によって地方全体が活性化することが「地方創生」ということでいいのでしょうか。それでは、具体的に何が問題に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おそらく、その全てが韓国と日本に共通する難題であるといつてよいと思われます。

### 地方の直面する問題

2024年、日本は大変な災害で年が明けました。16時10分に発生したマグニチュード7.6の能登半島地震です。発生以来8ヶ月が経過しましたが、復旧は思うように進んでいません。それは地震そのものによる被害はもとより、地域の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が脆弱だったことと地域の立て直しのための人的資本が乏しい、すなわち高齢者が多く若い人たちが少ないということが何よりも大きな原因になっています。

特に交通が途絶して「陸の孤島」状態になったことは絶望的でした。物流が滞り日々の暮らしが成立しなくなりました。また健康な方たちはまだしも障害を持っている人・自分で用を足すことのできないお年寄りを介護するひとも確保できないという報道もあります。日本は今のところ出生率の面で、韓国よりは若干高い数字が出ています。しかし、毎年毎年何らかの自然災害に見舞われている風土を考えると、深刻さは平常時だけを考えていては意味がないと言えます。

今回の地震ではそのような状況が極端に悪化しているのですが、実は災害が発生しなくてもこれに近い環境は日本各地で見られます。近年聞かれるようになった「限界集落」というのがそれです。過疎化などで人口の半分以上が65歳以上の高齢者になり、社会的共同生活の維持

が困難になった集落をいいます。また過疎集落だけではなく「消滅可能性都市」という語が生まれてからも 10 年が経ちました。

もう少し身近な状況としては「シャッター通り」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かつては住民生活の中心であった商店街が、高齢化によって閉店して店の機能を失っている状態です。このような地域には大規模なショッピングモールがあることが普通ですが、さらに過疎化が進むとそ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も撤退してしまい人々が日用品を買う場所が無くなるというケースが発生しています。そうすると、わずかに移動販売車が回ってくるだけという集落も珍しくありません。韓国では配達やクパンの宅配サービスが盛んですが、運送会社が人員を維持するのもこれからは難しくなっていくでしょう。

つまり、人口集中と過疎化は問題になって久しいのですが、その過疎化した地域の人々が高齢化することによって生活を営むことが困難になったのが次の段階、そしてその高齢者が他界して少子化が進んでしまえば地方社会自身が消えてしまう、すなわち「地域消滅」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つまりこの危機に最後の一撃を加えているのは少子化に他なりません。したがって必要な対策というのは、

①過疎状況下の社会をどのように生存可能に作り変えるか（自動化・省力化）

②少子化の流れを止めて持続可能な社会を作るか（出産・育児支援）

という二点だということになり、それを同時に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日本での試み—それは **BREAK THROUGH** になりうるのか—

では、日本での試みについて少し見てみようと思います。まず「町おこし」に関しては多くの挑戦があり、書籍でも紹介されています<sup>7</sup>。ピックアップしてみますと次のようなスタイルがあります。

---

<sup>7</sup> 椎川忍ほか編著『地域おこし協力隊 日本を元気にする 60 人の挑戦』学芸出版社 2015 年。

林業で起業する／地域おこし結婚式／アートを媒介にして出会いをつくる／伝統織物を次世代へ／エコツアー／米生産のブランド化／高齢者を寄り添うお惣菜屋／古民家改修でゲストと交流／地域おこしから定住へ／震災振興から地域支援／自治体と協力隊志望者のマッチング、移住・交流推進

地方の産業をきっかけにして人々の出会いの場をつくり、起業したり実際に移住・定住することで地域を活性化したり人々が協力し合う試みが多いようです。確かに新しい刺激であり TV 番組などでも、地域によい影響を与えている様子が紹介されています。おそらく韓国でも多くの事例があるでしょう。私も丹陽で知人が別荘地に「文化村」のようなものを作り、村長さんとして活動しているのを見ました。

しかし、これらの活動が「地域消滅」を完全にストップさせ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やや心細い気がいたします。上記の本も自治体との協力にふれています。国全体のすなわちダイナミックな動きにつながってるのだろうかという懸念があります。

それでは次に私が最近耳にしたものの中で、やや大規模で行政レベルにも広がっているケースをご紹介します。

ひとつは、東北大学の「産学連携機構」という試みです。今年の春頃に報道を見たのですがかなり大規模かつ多岐にわたる活動を視野に入れているようです<sup>8</sup>。

「学術指導」「共同研究」「共創研究所」「組織的連携」「地域連携」「ベンチャー起業支援」などの項目が並んでいて、自治体・企業と連携した学術研究を推進していくようです。まだ発足したばかりで具体的にどのように活動してゆくのか分かりませんが、地域と連携してゆくのであれば教職員・学生・大学院生との人的交流も拡大して卒業生が地域に就職して定着していくことも構想に入っているものと思われます。日本の大学は大昔の感覚で申しますと「象牙の塔」と呼ばれ、産学連携を潔しとしない風潮があったと思うのですが、これは大きな方向転換だと思われます。そして、今回の学会テーマから言えば、私たち大学関係者が直接コミットするあり方として、興味深い事例だと思われるのです。

---

<sup>8</sup> 東北大学産学連携機構 HP<https://www.rpip.tohoku.ac.jp/jp/>（参照 2024-09-15）。

2 例目は、私が生まれた栃木県宇都宮市の新しい交通システムについてです。芳賀・宇都宮 LRT「ライトライン」という「次世代型路面電車」ですが、HP<sup>9</sup>によると「少子高齢化に人口減少が加わる厳しい社会を生き抜くため」の「車が運転できなくても多くの人が市内を移動でき、健康で元気に生活していくための公共交通ネットワーク」として企図されたシステムだということです。先程、「シャッター街」問題にふれましたが、交通網の機能が安定していることは「地域消滅」を食い止めるために不可欠であり、逆に言えば交通網からの分断は「地域消滅」への「とどめ」に他なりません。私の故郷である福岡市も、新幹線があり、空港から都市部が近い、釜山へは高速船が就航しているなど「交通が充実している」と言われますが、それは「福岡市」を単位としての話です。市内の交通は西鉄バスに極端に依存させられており、最近では運転士の人材不足からバスの本数が減少しています。高齢者は小型バスのシャトルを利用していますが、これもいずれ十分ではなくなることでしょう。

国鉄時代末期から鉄道路線の「廃線」が相次ぎ、地域交通の空白地帯が広がっています。また、東日本大震災の例を見るまでもなく、「災害大国ニッポン」が少子高齢化する流れの中で、この宇都宮の新交通システムは一条の光と言えるのかも知れません。

### おわりに―素人の提案「新しい家族の街」―

今回のテーマは「地域消滅」ということで、とりあえずソウル・東京などの「首都圏」の問題については考えないことにしましょう。しかしながら、もちろん「地域消滅」の原因は「首都圏」への人口集中に他なりません。それでは、なぜソウル・東京に人が集まるのでしょうか、集まったのでしょうか。言うまでもないことです。ソウル・東京には仕事があり、多くの施設が集まり、にぎやかな街がありファッショナブルな生活ができるからでしょう。しかし、本当にそうなのか。数年前、サバティカルで東京に滞在していたときに母校で韓国からいらっしゃっている研究者にお会いしました。その方はやわらかく苦笑いしながら「ソウルですか。ソウルは人の住むところではありませんよ」とおっしゃいました。また私の学生、このひとは

---

<sup>9</sup> 宇都宮市 HP<https://www.city.utsunomiya.lg.jp/kurashi/kotsu/lrt/index.html>（参照 2024-09-15）。

故郷の済州島をこよなく愛しているのですが、しばしば「僕、ソウルがキライなんです」と言ってい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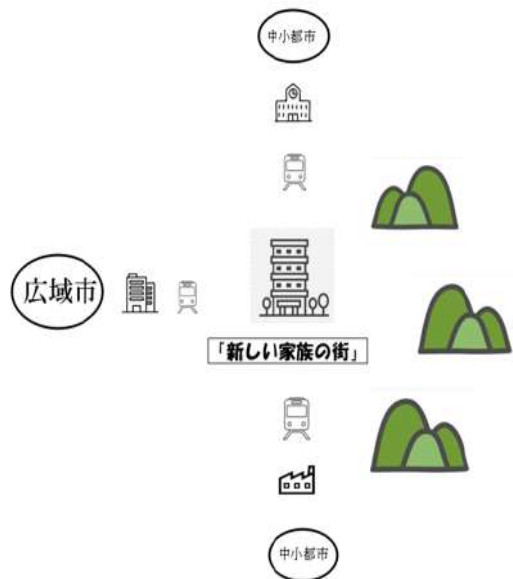
また、NHKの「クローズアップ現代」だったと思いますが、韓国の出生率の低さに関するレポートでソウルの住環境についての映像がありました。ちょうど映画『パラサイト』が関心を集めていた頃だったのでしょうか。しかし、それは東京でも同じです。日本で未婚者の割合が最も高く、出生率が最も低いのは、当然のように東京なのです。

ソウル・東京は韓国・日本で最も仕事が多く、文化的にも魅力的だ。このことを見直す必要があるのだと思います。「最も仕事が多い」首都圏で、私たちは2年前テレワークで仕事をしzoomで授業をしました。最もファッショナブルなアパート・マンションに住んでいるひとはごくわずかで、大多数の人はバス・電車の車窓から眺めているだけです。

「ソウル・東京では家族をつくれない」、それならばそのような環境を地方につくればい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例えば若い人たちが思い描く住宅を地方の都市から30分くらいの場所に建設します。それを思い切って大学の寄宿舎レベルの値段で提供する（5年くらいの期限をつけてもいいでしょう）。韓国では今でも日本よりも少子化対策に力を入れていると思います。3人目の子供には1億ウォンを支給するという自治体があると聞きますし、住宅ローンを軽減しているところもあるそうですね。しかし、「生まれたら」では積極的な生活設計に結びつか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そして住環境だけでなく交通の利便性、労働環境、そして子育て環境および教育環境も重要なファクターになるでしょう。ここに東北大学の事例（まだ始まったばかりのようですが）をあてはめます。ソウルでは子どもの世話をする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がいなくて大変だということですが、住宅にオリニチブと小学校を付属させれば安心でしょう。そして交通に関しては、KTXを大幅に増便して地域の新交通システムと連動させます。

ソウル―釜山は KTX で最短 2 時間 20 分で  
すね。これは日本で言えば東京―新大阪に相  
当します。その距離のあいだに位置する個性  
的な地方都市の周辺に、この「新しい家族の  
街（새가족 마을）」を散在させれば、ソウ  
ル近郊に負けない理想的な環境が作れるの  
ではないでしょうか。日本でこういうことを提  
案しますと、すぐ「財源はどうするの」とい  
う話になります。しかし差し迫った問題は  
「地域消滅」であり、「韓国は世界で一番、  
近い将来なくなってしまうかも知れない」と  
さえ言われている状態にあって、「金で済む  
問題」は、韓国らしいダイナミズムによって  
改善でき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 企画発表





# 지방시대의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방안

## - HUSS 사업의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류정훈(전주대)

01.

## 사업 개요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 H. U. S. S.

## Humanities - Utmost - Sharing System

- 대학 내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
- 3~5개 대학이 분야별로 연합체를 구성한 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등을 추진  
→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고, 자신의 전공에 상관 없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01.

## 사업 개요

### 기존 연합체(5개, 2023년~)

대주제	연합체(컨소시엄)	
	주관대학	참여대학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규범	고려대	숙명여대, 순천대, 영남대, 충남대
기후 위기 시대의 공존과 상생	국민대	덕성여대, 울산대, 인하대, 조선대
위험 사회에 대한 국가 전략 모색	선문대	세종대, 순천대, 순천향대, 한밭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세계의 대응	성균관대	가천대, 건양대, 충남대, 한동대
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예술 창신	단국대	동서대, 원광대, 청강문화산업대, 한서대

# 01.

## 사업 개요

### 신규 연합체(3개, 2024년~)

대주제	연합체(컨소시엄)	
	주관대학	참여대학
지방 시대에서의 지역가치 창출	전주대	경북대, 동국대, 한남대, 한림대
공동체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구조 변화 대응	서강대	단국대, 대전대, 상명대, 원광대
인류와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공생	광운대	국민대, 선문대, 영남대, 호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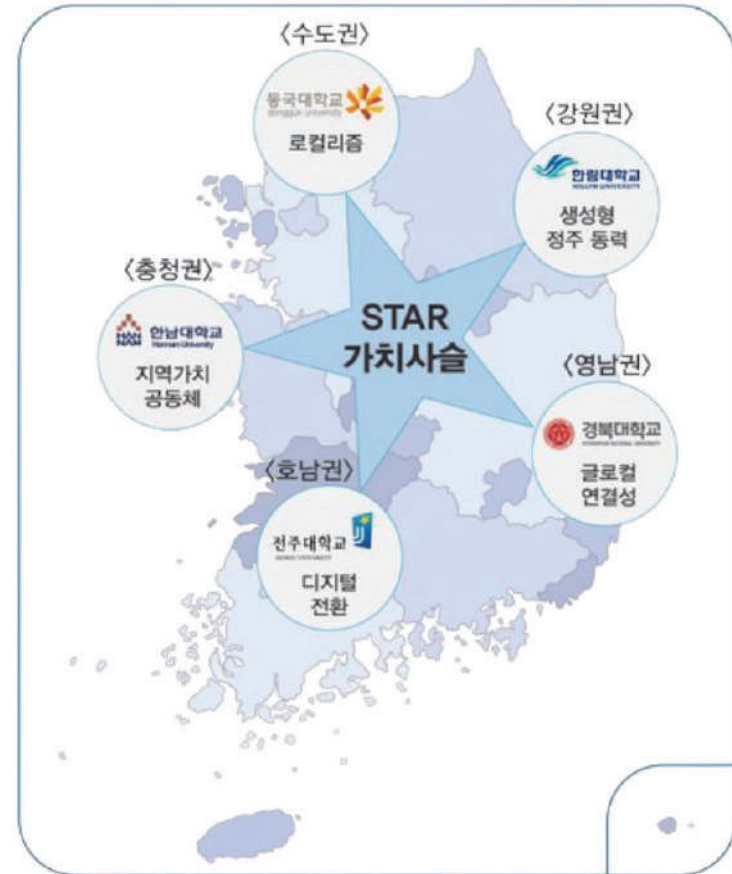
- 신규 선정된 연합체는 기존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3년간(2024년~2027년)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아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 01.

# 사업 개요

### 호남권 유일 주관 대학!

지역혁신과 상생을 도모하는  
'Local C-nergy'  
융합인재 양성





## 02 비전 및 목표

## 02.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가치 혁신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

인재상

지역혁신과 상생을 선도하는 'Local C-nergy' 융합인재 양성

목표

'Local C-nergy' 융합인재 6,000명 양성

핵심지표

융합인재 교과목 개발 48건, 운영건수 216건, 수강자 6,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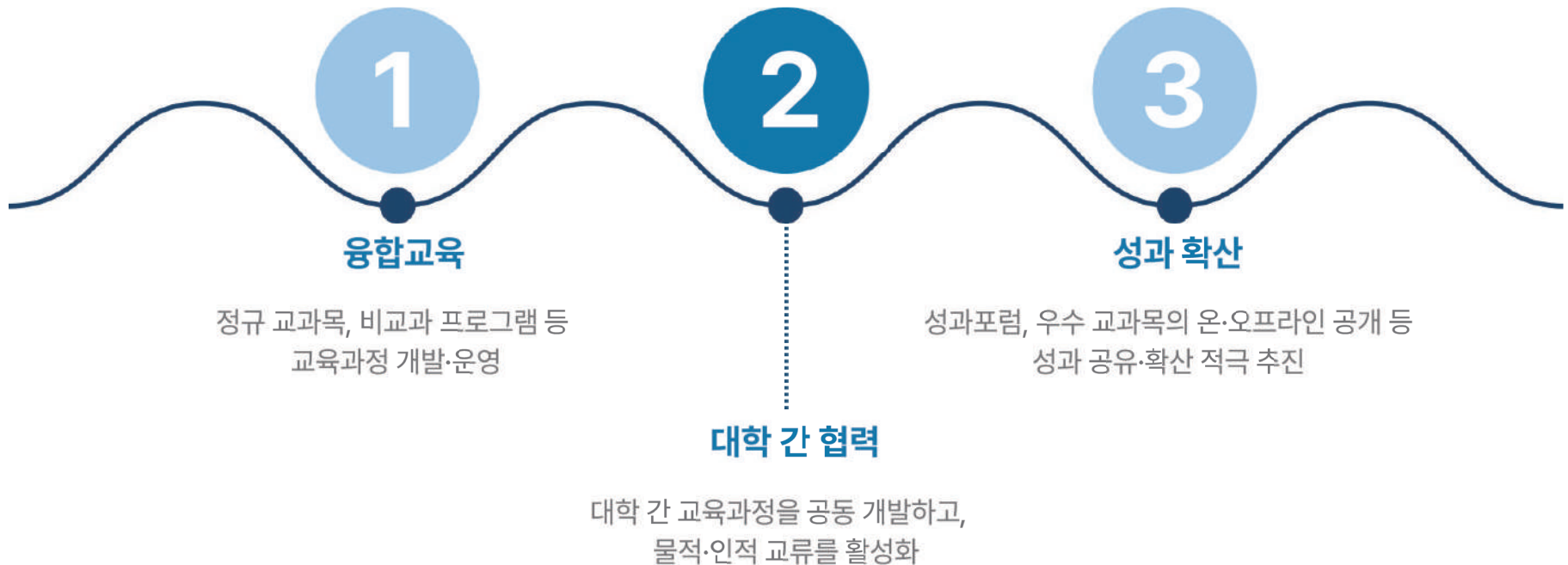
# 03

## 사업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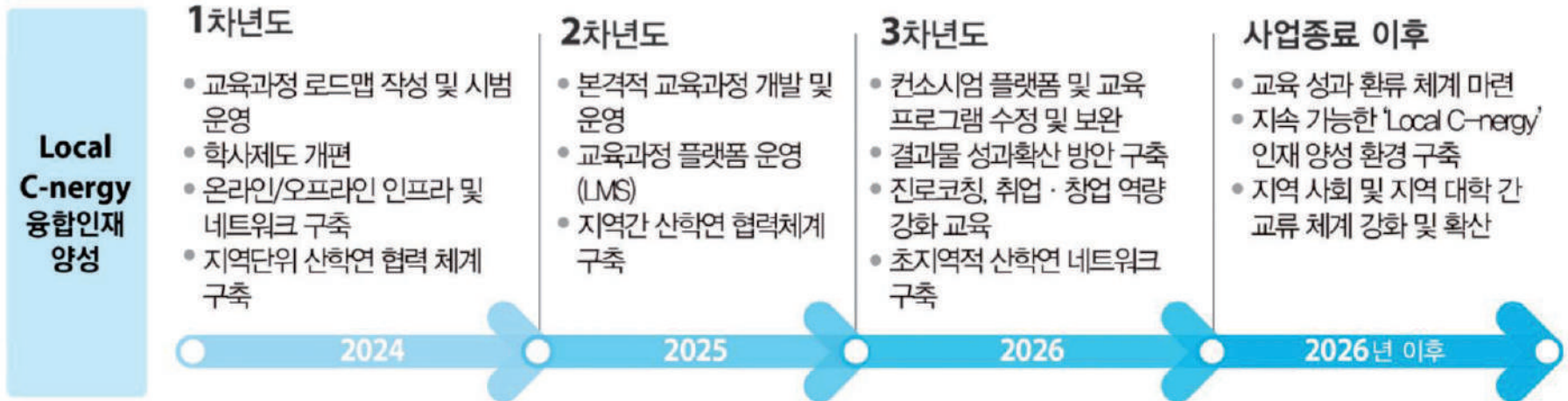
### 03. 사업 추진 내용

#### 가.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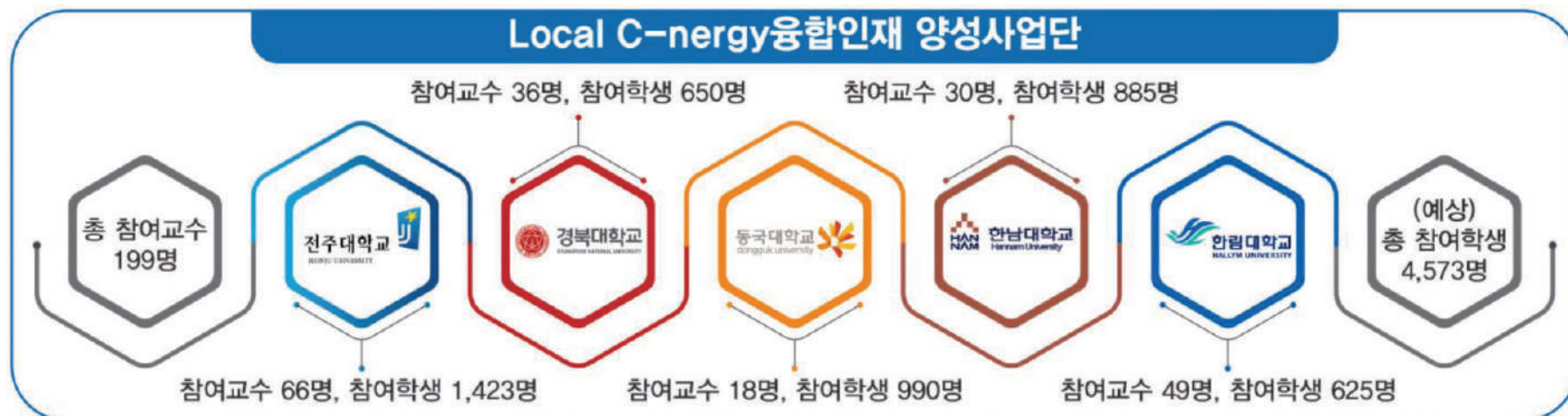
### 03. 사업 추진 내용

#### 나. 컨소시엄 교육모델 연도별 운영 추진 로드맵



### 03. 사업 추진 내용

#### 다. 컨소시엄 참여대학 학사조직 구성





# 03

## 사업 추진 내용

---

### 3-1 예산 편성

### 03. 사업 추진 내용

#### 3-1 예산 편성

#### 1차년도 사업 예산 배분 및 주요 역할

(단위: 백만 원)

구분	1차년도 사업 예산		주요 역할
	금액(A)	비율(A/B)	
전주대학교	1,150.00	40%	성과급, 연구지원비, LMS 관리 등
경북대학교	431.25	1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동국대학교	431.25	1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	431.25	1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한림대학교	431.25	1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합계(B)	2,875.00	100%	

# 03

## 사업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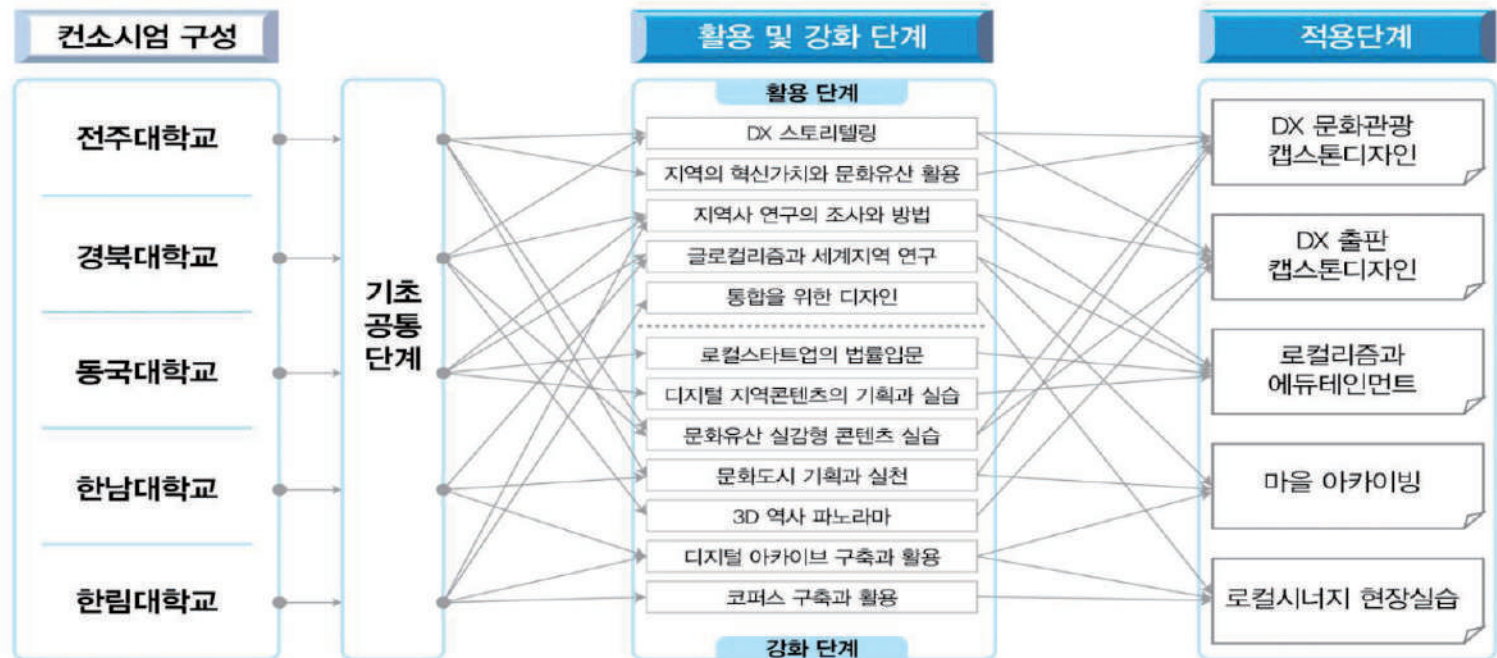
---

### 3-2 융합 교육과정

### 03. 사업 추진 내용

## 3-2 융합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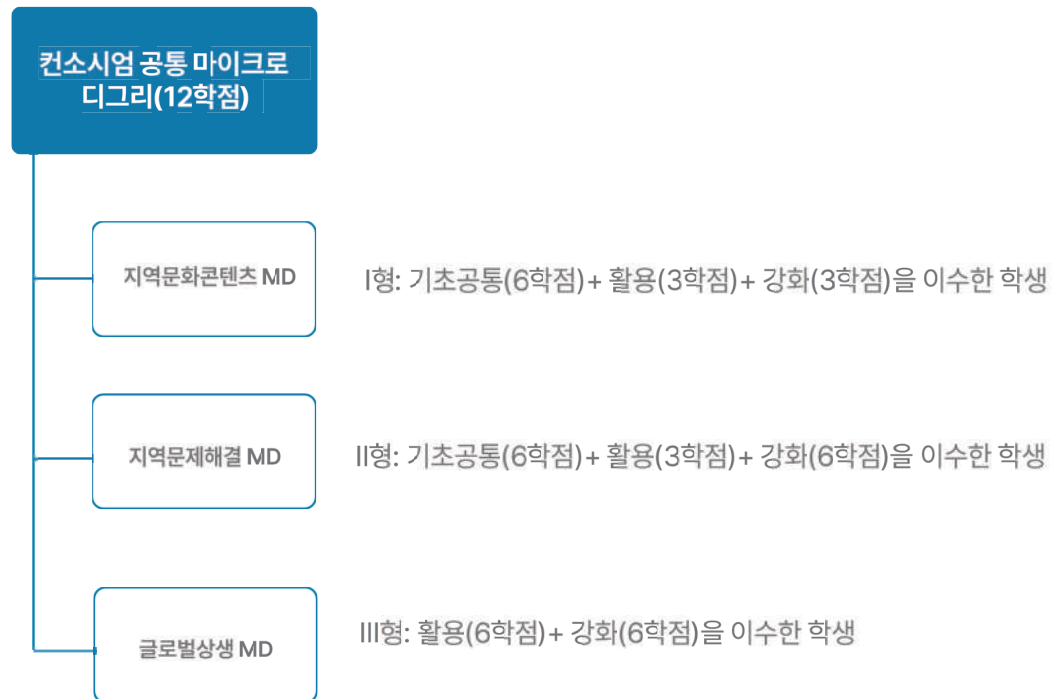
### 가. 컨소시엄 구성대학 교육과정 공유



### 03. 사업 추진 내용

## 3-2 융합 교육과정

### 나. 수준별 인증 방법에 따른 학위(인증)수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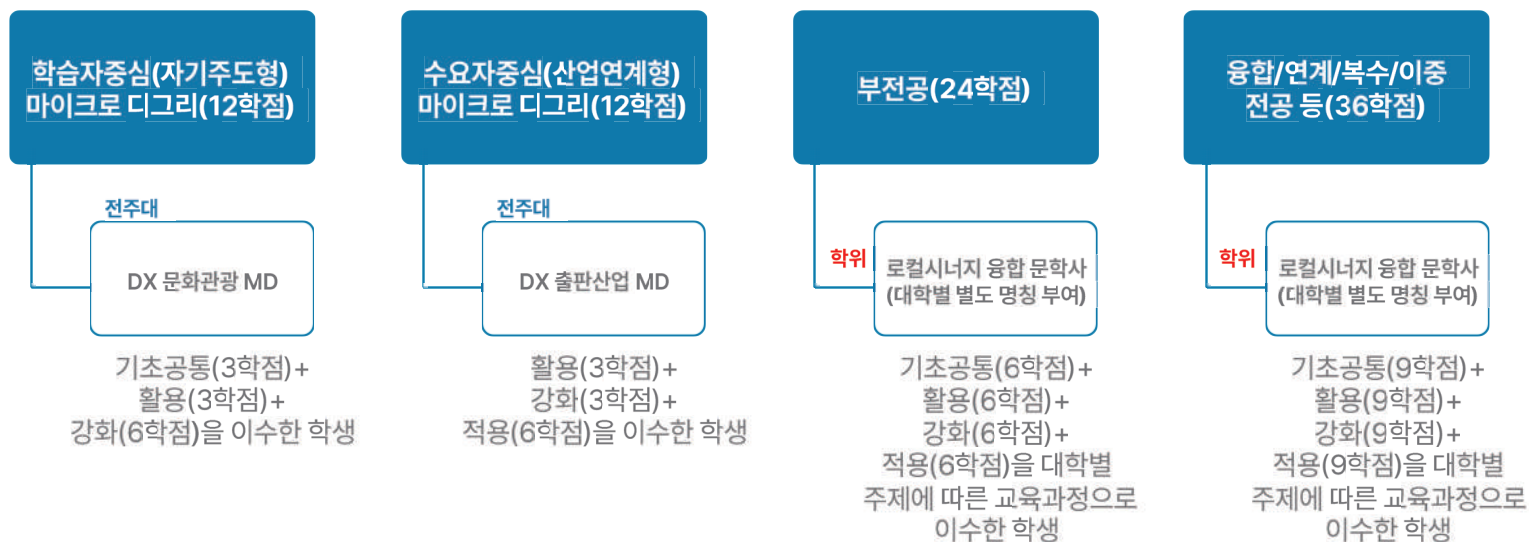




### 03. 사업 추진 내용

## 3-2 융합 교육과정

### 나. 수준별 인증 방법에 따른 학위(인증)수여명





# 03

## 사업 추진 내용

---

### 3-3 비교과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 03. 사업 추진 내용

## 3-3 비교과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 가. 비교과 프로그램 품질 제고

구분	주요내용
시드(C-EED) 프로젝트	비교과와 교과를 연결해 지역 문제해결 비교과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물을 10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제작 - 융합 교육과정의 기초공통과정에 <지역 문제 해결의 이해>(1학점) 과목 개설
시너지스쿨	매학기 방학기간을 이용한 2주간 대면 집중 교육 및 워크숍
시너지 맵 (C-nergy map)	자신의 진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 할 수 있도록, 수강자가 진로를 설정하면 관련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교과, 비교과를 추천

### 03. 사업 추진 내용

## 3-3 비교과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 나. 인프라 개선 계획

구분	주요내용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할 <시너지스쿨>	지역소멸 위험 지역의 폐교를 활용 - 지역 주민과 연계해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확대 등
공유대학 수업 전용 세미나실 <시너지클래스>	공유대학의 온라인 공유 수업 활용 - 각 대학별 2개 마련 등
공유대학 홍보 공간 <시너지스페이스>	공유대학의 결과물 전시 공간 - 공유대학의 정규교과 등의 상세 내용 열람 가능
LMS 통합 구축 및 운용	학교별 LMS를 통합할 수 있는 웹페이지 구축
공유대학 <시너지맵>	LMS와 연동해 수강자의 통합 관리 - 수강자는 <시너지 맵>을 통해 융합전공 수강신청 등의 모든 과정을 해결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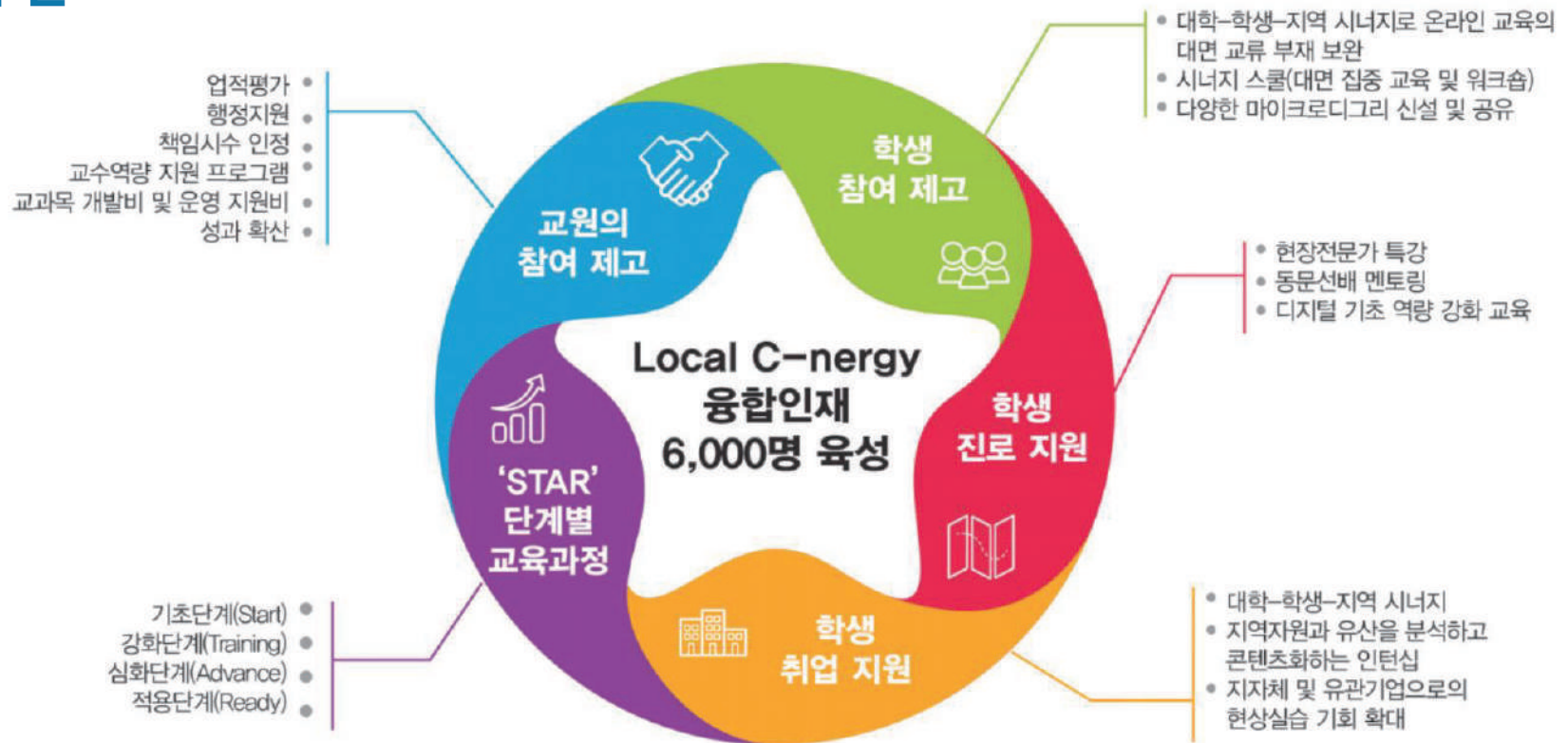
# 사업 추진 내용

---

## 3-4 교원 및 학생 지원 방안

### 03. 사업 추진 내용

## 3-4 교원 및 학생 지원 방안



## 04

#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 04.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 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타컨소시엄과 MOU 체결(8월 중 완료)

- 1) 디지털(주관대학 고려대) 컨소시엄
- 2) 글로벌 K컬처(주관대학 단국대) 컨소시엄
- 3) 실감미디어(주관대학 단국대) 컨소시엄: COSS
- 4) 지역, 실감미디어, 인공지능 공유대학 사업단의 협력 체계 구축

### 나. 성과 공유와 확산

- 1) 라디오 광고 및 홍보 리플렛 제작
- 2) 참여학과 교수 전체 교내 워크숍(2024년 8월 28일)
- 3) 사업설명회: 14개 참여학과 1, 2학년 재학생 대상(8월 말 계획)
- 4) 로컬시너지 인력양성 선포식(2024년 10월 중 계획)



## 04.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 다. 로컬시너지융합전공 설계 및 운영

- 1) 2025학년도 교과과정 구성(인문콘텐츠대학, 수퍼스타칼리지) 참여
- 2) 공유대학 LMS 구축
- 3) 로컬시너지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 개발

### 라. 로컬시너지 융합캠프(2025년 1월 중)

- 1) 집중이수제(2주)
- 2)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3) 예상 참여 인원: 100명

## 04.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 마. 로컬시너지 클래스 구축

- 1) 1차년도 1개 강의실 리모델링

### 바. 로컬시너지 스페이스 구축

- 1) 진리관 1층 로비 및 각 층 공유공간 리모델링

# 감사합니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





지역학은 그 이름의 공공학이다. 시군구의 지리적 공간이 수반되어야 할 공공성을 발간하고 나누어주는 것들이 제각각으로 주입될 수 있다. 시군구 이념의 관례와 시군구 제로써 결코 나사못이 아니다. 현실에서 시군구 발전이란 구한 국적을 향하여 공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학연구의 범위를 공간적 범위로 하느냐, 시군 단위로 하느냐의 문제이자 정찰학적 기법만 현실과 거대 다르지 않다. 시군과 기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시군을 연구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 모든 한 점을 제정하기는 것이다. 시군적 활동의 지평을 구국하는 것과 기본, 전념, 헌신 및 시군의 지역별로는 지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구가 왜 필요인지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은 실용적 학제 학문의 대명사를 할 수 있다. 현재로서 지역을 토대로 문제를 개발하는 등 지역에 있어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 문화적 풍요로움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지역학이 미래학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인 2005년 12월 대구부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제10차 결정)'를 통해 대학과 지역 연계 협업을 의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대학을 지역재생의 중요한 파트너로 포함하고, 지방공공단체, 주민, NPO 등과의 다차원적 연계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illegible][illegible]

- 지역문화 왜개? 지역 문화왜개?
  - 지역문화왜 개개하는 주체로서의 대학과 문화왜개자 양성 기관으로서의 대학
  - ▶ 대학교육의 『おもしろ』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역문화왜개성 성립
  - ▶ 지역문화왜개를 기원으로 하는 교육은 학생과 대학이 주도하여 지역문화왜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활동이 포함되어야 함
  - ▶ 지역문화왜개성 기원으로 하는 교육은 학생과 대학이 주도하여 지역문화왜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활동이 포함되어야 함
  - ▶ 기존의 교육으로는 지방가치를 발굴하고 재디자인하여 글로벌 사회에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부족함
  - ▶ 새로운 교육의 시도에서 지역문화왜개자로서 대학이 대두할 수 있는것이 사회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H-SSU 대두



· 경북대학교 L-HUSS 참여학과 : 국문, 한문, 지리, 지리교육, 물리, 중문, 일본

두 작품은 브랜드 앰버이라는 광고물의 형태와 함께 지역의 자원을 앰버이라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문화 향유를 위한 매개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문화 매개 역시 결과적으로 문화 자원을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이다.



〈대 각 지역 전통사찰을 방문〉

지역/명칭	일자	참석 인원
1. 천주교대구대교구	초대교구	2019
2. 불교전통사찰	초대교구	2019
3. 불교전통사찰	초대교구	2019
4. 불교전통사찰	초대교구	2019
5. 불교전통사찰	초대교구	2019
6. 불교전통사찰	초대교구	2019
7. 불교전통사찰	초대교구	2019
8. 불교전통사찰	초대교구	2019

이 중 <안동 선비의 레시피>는 2022년 11월 카카오라이저에 10개의 에피소드가 연재된 작품이다. 웹툰의 소재는 121종의 술과 음식 제조 비법이 담긴 보물 『수운잡방(需雲雜方)』으로 조선 시대 영민가의 잡객 음식을 선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수운잡방(需雲雜方)』은 조선 전기 안동 예안의 외내마을에 살았던 김유와 손자 김령이 지은 요리서로 조선 전기의 식생활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안동 선비의 레시피>는 이 『수운잡방(需雲雜方)』의 저자 중 한 명이 현대로 타임슬립한 후 조선 시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음식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에피소드 10개 분량이지만 평점 9.9점을 달성하며 호평을 얻었다. (p.199.)

##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웹툰 '안동 선비의 레시피' 체험 행사 개최

국립중앙도서관  
2023.04.14(금) 15:00

• HUSS컨소시엄을 이용한 각 대학의 협업으로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시도

안동 안동의 레시피 시공, 조선시대 조선서 '수운잡방' 소개본 제작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콘텐츠로 문화한 경북 만들기에 앞장



松原英仁(2017)『地方大学の地域貢献と社会人教育：高知大学の人材育成プログラムを中心に』に『教育総合研究叢書』第10号、関西国際大学教育総合研究所、p.128.

本研究の目的は、持続可能な地方大学の新たな価値創造に資する地域連携事業と運営のヒントの抽出であるが、高知大学の事例から見えてきたポイントをまとめると、以下の5項目だと考える。

1. 地域の課題と要請を的確につかむ。
2. 学内だけでなく県内外の研究機関等の多様な人的資源を活用する。
3. 移住者のネットワーク構築と展開の場を提供する。
4. 継続的な事業費の獲得を戦略的にこなす。
5. 自治体等と協力的な連携のすり合わせをおこなう。

• 2010년대 이후 계속 진행 중인 대학의 융합 교육과정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전공 교육과정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공 교육과정의 수립과 폐지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전공이 난립하여 대학 교육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저하시킨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경북대가 새로이 시작하는 L-HUSS 사업 역시 그러한 우려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지지개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 및 학생 주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색하여 인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학 교육의 전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융합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융합 교육의 새로운 창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근대도시 대전 지역의 활성화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 사례와 성과-

김학순(충남대)

### 1. 연구 목적 및 분석 대상

전국적인 출생률 저하로 인한 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과 그 지역의 경제, 사회, 교육 등에 큰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직결된 국가적인 문제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는 지역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재고와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목표로 지역을 특화하려는 라이즈(RISE) 사업과 글로벌대학 30과 같은 국가 주도형 정책을 내놓았다.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목표로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과 경쟁력 강화, 지역 전략 산업의 발전,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 등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선정 과정과 결과에 정부의 견해가 개입하는 경향이 강해 향후 지역이 필요로 하고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역소멸과 인구 감소,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전국 지역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지금, 일본 문학을 전공한 논자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지역 대학의 학생들 역시, 자신의 고향 및 대학을 부흥시킬 방안에 관심을 보이며 지역소멸 문제와 지역 활성화에 관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제는 젊은이들이 그 지역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지역과 상생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단체를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조금씩 그 방향성과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PBL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여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문제를 학생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학기에 개설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과 일본의 도시 재생

한국과 일본은 지역소멸과 지역 인재 이탈로 지역 경제와 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하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해결책들을 제시하며 지역 재생 및 활성화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지역소멸 문제와 도시재생 방안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한국보다 일찍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겪고 있는 일본의 지역 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도 접목가능한지 고민해 보고자 했다.

한국도 급격한 지역소멸로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리적 정주 환경의 개



선 등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도시재생이 지역소멸 해결책의 큰 목표이다. 무엇보다 구도심 쇠퇴와 정주 환경의 질적 저하,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외연적 확산,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한계는 모든 지역이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역의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함에 따라 도시에 집중되는 산업과 인구 도시형 사회로 전환되었다. 오랜 시간 출퇴근, 만성적인 교통 혼잡, 녹색 및 개방 공간 부족 등, 과거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20세기의 부정적 결과를 받게 되었다. 한편 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국제화 등 최근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 지역 경제 파탄과 지역 상권 붕괴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확장이 아닌 도시 안으로 눈을 돌려 21세기에 맞는 매력과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재생시키며 낙후된 도시 소멸 위기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도시형 산업으로의 전환과 같은 경제구조개선, 토지 유통화를 통해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1999년 내각에 설치된 ‘경제전략회의’에서는 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해 도시를 재생시키고 토지를 유통화시키는 것을 중요 전략 과제로 삼았다. 산하에 일본 경제 살리기 전략을 위한 도시 살리기 구체화를 목표로 ‘도시 살리기 위원회’ 설치했다. 1999년 건설부 장관의 사적 간담회가 도쿄권 및 교토, 오사카 지역에서 도시재생추진 간담회로 개최되어 도시재생의 기본적 시각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고안했다. 그 결과 도시재생 기본방침·지역 정비방침·도시재생 비상정비협의회가 정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1999)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관계대신을 본부원으로 하는 ‘도시재생본부’를 내각에 설치하고 제도화했다. 환경, 재난, 국제화 등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목표로 21세기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토지의 유효이용 등, 도시재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다.

2004년 도시재생을 위한 독립행정법인 ‘UR도시기구(UR都市機構)’가 기능적인 도시 활동과 풍요로운 도시 생활 영위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기반 정비가 사회경제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도시 및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도시 정비개선 및 임대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업무를



<그림 1> 밀집 시가지 정비 사업

중심으로 했다. 사회 및 경제 변화에 대응한 도시기능 고도화 및 주거환경 향상과 도시재생을 도모하며 도시기반 정비 공단에서 승계한 임대주택 등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과제로는 6가지를 선택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재성 향상, 2. 노화 시설 갱신, 3. 대지진의 재해 복구, 4. 대규모 이벤트, 5. 관광도시 만들기, 6. 대규모 미사용 토지 활용을 과제 주제로 정했다. 그중에서 방재공원 정비 사업을 살펴보면, 방재공원의 역할을 1. 긴급 피난 장소, 2. 일시적 피난 생활, 3. 구원활동 거점, 4. 복구활동 거점, 5. 화재 연소 방지로 구체화했다. 밀집 시가지 정비 사업에서는 1. 보텀업 : 도로 정비, 불연화 촉진, 2. 방재대책, 안정성 강화, 3. 볼륨업 : 시가지 특징 활성화, 일상생활 질 향상, 4. 시가지의 매력, 가치의 증진, 5. 재해에 강한 도로, 공원 정비, 6. 자연, 역사 계승, 다양한 세대의 주거촉진을 목표로 했다.

### 3. 한국과 일본의 도시 재생 성공 사례

한국의 도시 재생 성공 사례로는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청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경북 영주 구성마을 할매목 공장, 충남 아산 양성평등 포용도시 장미마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성공 사례로는 요코하마시(横浜市)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1989년 개최된 요코하마 박람회를 계기로 박람회장 및 박람회 시설물을 활용해 미래형 도시를 만든 이벤트형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이다. 낙후된 요코하마 항과 주변 지구를 활성화하고자 요코하마 항과 주변을 계획에 따라 재개발한 도시 주변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소와 관련 시설,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 임항파크를 비롯한 공원 녹지로 조성하여 업무·쇼핑·음악과 미술·엔터테인먼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을 창조했다.

다음의 사례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인 도쿠시마현(徳島県) 가미야마치(神山町)의 사례이다. 지역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많은 IT 관련 기업들이 ‘새틀라이트 오피스(satellite office)’를 개설하여 전 지역에 광섬유를 정비하여 고속통신망을 구축했다. 아트(art)를 콘셉트로 한 국제교류 ‘가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사업’으로 많은 해외 아티스트가 이주했다. 자연과 텔레워크(재택근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새로운 방법의 회사 스타일을 창조하여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한 코로나 이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과거와 공존하는 도시 교토시(京都市)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디자인하여, 기존 건축물과 장소를 개축하여 카페, 식당, 상점,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재활용했다. 도시재개발과 같은 높은 건축물을 세우기보다 도시와 건축물이 지닌 역사성과 환경에 맞추어 개발



<그림 2>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치

했다. 전통과 장인문화를 중시하며 교토만의 색깔을 가지게 되었고 원래의 것에 새로운 것을 입히며 자연스럽게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했다. 건축물, 거리, 유적지의 공간이 과거와 현재를 공존시킨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4. 일본사회문화 캡스톤디자인 수업

2021년과 첫 수업에서는 대전의 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진행했다. 대전의 음식과 공간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와 내용이 많았다.



<그림 3> 음식을 통한 대전 홍보



<그림 4> 대전 힐링 명소

2022년도 수업에서는 소수 계층을 위한 기여, 단순한 지역 재생이 아닌 거주민을 위한 구상과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목적의식을 명확히 하여 좀 더 대전이라는 지역과 거주민을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힘을 쏟고자 했다.



<그림 5> 낙후된 정자 활용



<그림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2023년도에는 일어일문학과 수업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일본이라는 소재를 넣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했다. 그것은 식민지 도시로서 성장한 대전의 역사적 기록과 장소를 통해 현재 대전의 지역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시도였다. 대전 소재동 답사, 강경 답사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조사와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림 7> 대전 소재동과 굿즈



<그림 8> 원 막걸리 팝업 스토어

한편 2024년 9월 초, <아시아 뉴워크 언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유성구, 지역혁신플랫폼, 충남대, 나가사키현립대, 웅원, 시티파머스, 공유를 위한 창조, 즐거운도시연구소, 日々研究所, sorriso riso 등의 한국과 일본의 지자체, 대학, 지역 기업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젊은 플레이어들의 정보 교류와 아이템 확산을 통해 지역과 지역 기업과의 상생, 대학생들의 교류를 통한 지역에 관한 인식 변화 등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으로는 <키노트 스피치: 지역소멸과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 소개>, <복지에 비즈니스를 더한 뉴워크 사례>, <행정과 민간의 경계를 움직이는 뉴워크 사례>, <교육으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뉴워크 사례>, <동네와 사람을 연결하는 뉴워크 사례>, <로컬과 세계를 넘나드는 뉴워크 사례>, <한일 플레이어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그림 9> 아시아 뉴워크 언컨퍼런스

한국일본문화학회  
제 66회 국제학술대회

제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사례

제주대학교 박려옥



캡스톤 디자인 교과 지도  
(2023/2)

참여인원: 16명(유학생 1명)

주제 선정: 4팀 가운데 3팀이 제주  
지역 관련 주제 선택

팀 구성  
주제 선정

신청서 내용  
점검 및 승인

과제 지도

교육결과 점검  
및 활용

## 팀 별 주 제

01

### 가치갑서

제주방언을 활용한  
일본인 대상 관광  
아이디어북 제작

▶ 전공기반형(자유 주제)/ 스마트관광 분야

▶ 최신 제주 관광 정보와 제주 방언이 들어간  
여행 안내 책자 제작  
표준어-일본어-제주 방언  
상황별 문장, 자주 사용하는 제주 방언 단어 및  
예문

▶ 사진 자료는 직접 촬영, 디자인 초안은 팀원들이  
스케치하여 자문인에게 의뢰

▶ 가이드북 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관광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에 활용

▶ 구역별 새로운 제주 관광코스 개발 및 제안  
소멸 위기인 제주 방언에 관한 관심 제고  
제주 방언과 한국어에 대한 학습 및 정보 제공

## 팀 별 주 제

02

### Enjoy jeju

제주&일본 설화를  
기반으로 한  
동화책 제작

▶ 전공기반형(자유 주제)/ 스마트관광 분야

▶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 이야기를 일본어로  
번역, 제주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산다시(三田市)의 <리키타로와 텐구>를 한국어로  
번역

▶ 그림책 및 오디오북 제작

▶ 한국어 및 일본어 번역, 그림책의 콘티부터 삽화,  
오디오북 제작은 팀원들이 직접 작업

▶ 해당 관광지 및 한일 아동 교육 시설에 비치,  
문화 교류 및 교육 자료 활용



## 팀 별 주제

03

### 어디가맨

홍보 기반  
'이브이웨이(EVWAY)'  
가이드 프로모션

- ▶ 기업연계형(지정주제)/ 스마트관광 분야
- ▶ '이브이웨이' 플랫폼 개선, 마케팅 향상 제안  
전기차 충전소 위치 표시 기능, 여행 코스 추천,  
리뷰 시스템을 통한 캐시 적립 기능
- ▶ 제주 여행객 대상 홍보 콘텐츠 제작
- ▶ '이브웨이' 이용 가이드 영상 및 '여행 코스 추천'  
기능을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유튜브 쇼츠)
- ▶ 기존 팸플렛에 제작한 영상의 QR코드를 삽입  
제주의 여행 코스 추천 및 다양한 여행 정보 제공

## 캡스톤 디자인 결과 발표회



### 2023-2학기 Invitation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

일시  
2023. 12. 4 (MON) 13:30 장소  
제주대학교 신학관4관

시간	주최/주최자	주최/주최자
13:30~14:00	주최: 제주대학교	주최: 제주대학교
14:00~14:30	주최: 제주대학교	주최: 제주대학교
14:30~15:00	주최: 제주대학교	주최: 제주대학교
15:00~15:30	주최: 제주대학교	주최: 제주대학교
15:30~16:00	주최: 제주대학교	주최: 제주대학교

주최: 제주대학교, 후원: 제주대학교, 후원: 제주대학교

- 134팀 평가, 69팀 선발
- 인문대학(13팀)
- 일어일문학과(2팀) 선발  
'가치갑서', 'Enjoy jeju'

‘가치갑서’



‘Enjoy jeju’



신진연구자 연구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 2024년 국립대육성사업/제주지역산업 발전

▷ 주제

제주의 인문학적 문화 자산 발굴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일제강점기 일본어 문헌 연구를 통해 -

▷ 과제책임자 1인, 참여연구원 3인  
'제주 장소사(史) 콘텐츠' 개발

▷ 제주 스마트관광 체계 구축 연계

▷ 지역사회 환원 및 확산







## 조건표현의 비조건적 용법의 학습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제갈현(한남대)

### 1. 들어가며

「ば」조건문에 관한 종래의 연구에서는 주로, 미래의 사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실현의 사태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가정적 용법을 가지는 것이 조건문의 가장 전형적·중심적 용법으로 볼 수 있다(松岡(1993), 前田(2009)). 또한, 그 인과관계는 전건과 후건의 내용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연결이 있으며(田中(2006)), 주로, “가설조건, 반사실적 조건, 일반조건, 반복조건, 사실조건용법”이 있다(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8)). 이와 같이 「ば」는 조건구를 구성하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래의 문법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조건구를 구성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은 경우는 주로 부정형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용례를 볼 수 있다.

- (1) 人間二カ月間も何もしないでプラプラしていると「このままではダメだ。何かやらなければ」という意識が必ず自然と芽生えてきます。  
(『すべての答えは自分にあった』2001)
- (2) どこからかカネが入ってきているのである。でなければ、こんな厳しい経済状態で、そんなことができるわけがない。  
(『これでも議員ですか』2001)

(1)「なければ」는 「なければ」의 주절이 생략된 형태로, 주로 조건절이 문말에서 사용되는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형식은 주절생략형의 고정된 형태로서, ‘의무’기능에 특화된 기능어로 간주된다. (2)「でなければ」는 문두에서 사용되며, 상접어(上接語)를 동반하지 않고 자립성을 가진 형태로서 접속어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なければ」, 「でなければ」는 모두 접속조사「ば」본래의 기능에서 멀어져, 문법적 의미가 희박화되어 있다. (1)은 접속조사 용법에서 종조사 용법으로, 부속적 기능어에서 새로운 부속적 기능어로의 변화, 즉 다기능화의 한 종류로 간주된다. 또한, (2)의 접속조사「ば」는 「でなければ」와 같은 형태로 일어화(一語化)되어 접속사적 용법을 획득한, 부속적 기능어에서 자립적 기능어로의 다기능화<sup>1)</sup>의 한 종류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ば」조건문에 있어서 부정조건형식 「なければ」는 조건적 용법만이 아닌 비조건적 용법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조건표현의 비조건적 용법에 대한 실제 언어 운용상의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 도입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小柳(2014:20)에서는 부속적 기능어에서 자립적 기능어로의 변화는 대부분 접속사 생산에 한정되며, 거의 18세기 이후에 보여지는 비교적 새로운 유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2. 실제 언어 운용상에 있어서 조건표현의 비조건적 용법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383)는 조건표현「ば」의 부정형「なければ」는 주로 동사의 부정형이나 부정표현을 동반하며, 어떤 사항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사항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건구「なければ」는 현대일본어의 대표적인 의무표현인「なければならない/なければいけない」등의 구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갈현(2023)은 관용적 의무표현을 구성하는 부정조건구 「なければ」「なくては」「ないと」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제 언어 운용상에 있어서 3자의 용법 양상을 고찰하였는데, 조사 결과<sup>2)</sup>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1>부정조건구 용법 분류<sup>3)</sup> 양상

	조건적 용법	비조건적 용법				합계
		평가적	종조사적	접속사적	병렬.열거	
なければ	217 (21.7)	762(76.2)	10(1.0)	1(0.1)	10(1.0)	1000
		783(78.3)				(100)
なきゃ	150 (17)	548(62.4)	159(18.1)	18(2.1)	3(0.4)	878
		728(83)				(100)
なくては	167 (8.6)	1580(81.5)	192(9.8)	1(0.1)	0	1940
		1773(91.4)				(100)
なくちゃ	15 (3.2)	278(59.7)	173(37.1)	0	0	466
		451(96.8)				(100)
ないと	1986 (69.6)	650(22.7)	184(6.4)	33(1.2)	0	2853
		867(30.3)				(100)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ないと」는 비조건적 용법보다는 조건적 용법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なければ(なきゃ)/なくては(なくちゃ)」의 경우는 비조건적 용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조건적 용법으로의 높은 비율은 「なければ」「なくては」의 축약형 「なきゃ」「なくちゃ」에 있어서 보다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의표현으로 알려진 3형식이 실제 언어 운용상에서는 그 사용 경향의 차이가 있고, 축약형의 경우 기본형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 용법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일본어의 조건표현은 그 형식과 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자에 있어서 오용 발생 빈도가 높은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조건표현 각 형식의 특화된 용법에

2) 국립국어연구소(2020)『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中納言版2.4.5』에서 용례를 수집하였다. 「출판·서적」장르에서 수집한 전체 용례를 분석하였으나, 「なければ」의 경우, 전체 15,642건 중 랜덤 1000건을 선별하였다. 또한, 「なければ」「なくては」의 축약형「なきゃ」「なくちゃ」도 포함하였다.

3) 前田(2009)의 조건문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

대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조건표현의 비조건적 용법에 대한 인지와 학습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필요가 있다.

### 3. 조건표현의 학습 도입 양상

분석 교재는 한국에서 출판된 일본어 교재 기본서 10권을 대상으로 한다. 10권의 기본서는 202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인터넷 서점<sup>1)</sup> 판매 상위 순위 순으로 선정하였다. 검색어 「일본어 상」 「일본어 하」 또는 「일본어1」 「일본어2」 「일본어3」 「일본어4」 등으로 하여 인기 순 10위 정도까지를 검색하였다. 이들 교재 중 조건표현 및 부정조건형식에 관한 설명이 출현하는 교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각 교재별 조건표현에 관한 도입 양상

	교재명	조건표현 도입 순서	부정조건형식 관련 도입 문형
A	NEWS쿠스쿠일본어 기초완성 下	「たら」->「ば」 「なら」->「と」	「なければならぬ(なりません)」
B	NEW다이스키일본어 下	「なら」->「ば」->「と」->「たら」	「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なければいけません」
C	NEW우키우키일본어 下	「ば」->「と」->「なら」->「たら」	「なければならぬ(なりません)」
D	좋아요 일본어 下	.	「ないといけません」
E	타노시이 일본어 下	「たら」->「ば」->「と」->「なら」	「なければなりません」
F	NEW도키도키 일본어초급下	「たら」->「ば」	「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なければだめです」
G	두 권으로 끝내는 일본어뱅크 톡톡 도모다찌 下	「たら」->「ば」	「なければならぬ」 「なければなりません」
H	NEW다이나믹일본어 STEP2	「と」->「たら」->「ば」->「なら」	「なければならぬ(なりません)」 「なくてはいけない(いけません)」
I	뉴코스 일본어 STEP3	「と」->「ば」->「たら」->「なら」	.
J	일본어뱅크 Open 일본어2	「ば」->「と」->「たら」->「なら」	「なければならぬ(なりません)」

1)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검색일:2023.10.30),  
예스24 <https://www.yes24.com>(검색일:2023.10.30)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권의 교재 중 D,F,G교재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에서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조건표현의 대표적인 4형식(「ば」「と」「なら」「た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각 형식의 접속 방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부정조건형식과 관련된 문형으로는 「なければならぬ(なりません)」표현이 가장 많이 기술되어 있다. 한편, 「なければ」의 유의표현인 「なくては」「ないと」와의 용법상 차이점이나, 축약형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 4. 나오며

본 발표에서는 조건표현의 비조건적 용법에 대한 실제 언어 운용상의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실제 언어 운용상에서 부정조건형식은 비조건적 용법에 특화된 용법을 가지고, 그 축약형에 있어서 비조건적 용법으로의 산여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의표현으로 알려진 부정조건형식 「なければ」「なくては」「ないと」는 실제 언어 운용상에서 비조건적 용법이 압도적으로 많고, 각 형식은 사용 경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축약형의 경우 비조건적 용법으로의 산여도가 더 높고, 각 형식의 기본형과 완전히 동일한 용법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일본어의 조건표현은 그 형식과 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자에 있어서 오용 발생 빈도가 높은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조건표현 각 형식의 특화된 용법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조건표현의 비조건적 용법에 대한 인지와 학습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출판된 일본어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조건표현에 대한 제시는 대표적인 4형식의 접속 방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정조건형식에 대한 언급은 「なければならぬ」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에 한정되어 있다. 비조건적 용법이나 축약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한 상태로 파악된다. 따라서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언어 운용상의 양상을 반영한 조건표현의 비조건적 용법 및 축약형에 대한 학습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언어 운용상의 양상을 반영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고, 문법 이론과 회화의 조화로운 학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의 교재 분석 대상이 문법 교재 위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회화 중심의 교재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의 범위를 넓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조건표현의 비조건적 용법의 효과적인 학습지도안을 제시하는 것을 금후 과제로 한다.

#### [참고문헌]

제갈현(2023) 「현대일본어 부정조건표현에 관한 구문구조적 연구」『일본어문학』97, 일본어문학 회, pp.61-78.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p.373-383.

- 小柳智一(2014)「言語変化の傾向と動向」『日本エドワード・サピア協力研究年報』28、日本エドワード・サピア協会 p.20.
- 田中寛(2006)「レバ条件文における文脈的機能-論理関係と節末・文末表現に注目して-」『語学教育研究論叢』23、大東文化大学語学教育研究所、pp.167-190.
-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8)『現代日本語文法6 第11部 複文』くろしお出版、pp.167-190
- 益岡隆志編(1993)『日本語の条件表現』くろしお出版、p.17.
- 前田直子(2009)『日本語の複文—条件文と原因・理由文の記述的研究—』くろしお出版、pp.38-40.
-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中納言2.4.5』<https://chunagon.ninjal.ac.jp/>(閲覧日:2022.01.02)

#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통한 일본어 유의어 쌍의 의미적 차이 분석

-確認&チェック, 取り消し&キャンセル, 接続&アクセス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현정(경북대)

## 1. 들어가기

일본어에서는 고유어와 외래어가 동시에 사용되며, 유의어로 기능하는 사례가 흔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確認과 チェック, 取り消し와 キャンセル, 接続과 アクセス 같은 어휘 쌍은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뉘앙스를 전달하며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구분된다. 상급 학습자들조차도 이러한 유의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나 쓰임의 구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전이나 교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명확한 경향성을 띠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래어와 일본어 유의어 쌍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이 어휘들이 단순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지, 또는 구체적인 의미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유의어 쌍의 의미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본어와 외래어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특정 상황에서 더 적합하게 선택되는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검색 및 소비 방식이 일본어 어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본어의 언어적 다양성과 경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유의어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대량의 코퍼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혜연(2024)은 NLT와 NLB 코퍼스를 통해 「必ず」와 「きっと」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두 단어의 사용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냈다. 한편, 보다 세밀한 의미 분석을 위해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박현수(2019)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大事」와 「大切」의 사용 패턴과 의미적 차이를 분석하였고, 강경완(2018)은 어법 분석을 통해 「改善」과 「改良」의 사용 맥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남길임(2014)과 도재학·강범모(2012)의 연구는 유의어 분석에 있어 더욱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남길임(2014)은 유의어의 변별이 단순한 의미나 어휘적 공기 관계를 넘어 문법적 범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도재학·강범모(2012)는 '관련어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장 이상의 단위에서 관련 어휘들 간의 관계를 시각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유의어 변별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의어의 의미나 사용 경향성을 분석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SNS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활용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이현정(2022)은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단도리」와 「단속」의 연관어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글 트렌드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유의어 변별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 3.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구글 트렌드는 특정 키워드가 여러 지역과 언어에서 얼마나 자주 검색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검색어의 인기를 시각화된 그래프를 통해 시간에 따른 검색량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도구는 검색어와 유튜브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며, 사용자는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도와 트렌드 변화를 시간 및 지역별로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글 트렌드가 제공해 주는 분석 데이터 중 ‘관련 검색어’ 항목을 중심으로 유의어를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구글 트렌드의 검색어 비교 기능을 통해 유의어 간의 의미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글 트렌드는 검색어를 다양한 대안과 비교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어, 유의어의 의미적 차이나 사용 패턴 분석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분석 및 고찰

#### 1.1 確認・チェック의 관련 검색어 분석

본 장에서는 確認・チェック의 관련 검색어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한다. 아래 그림1과 2는 確認・チェック와 관련된 검색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確認 관련 검색어



<그림 2> 체크 관련 검색어

## 1.2 取り消し・キャンセル의 관련 검색어 분석

본 장에서는 取り消し・キャンセル의 관련 검색어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한다. 아래 그림3과 4는 取り消し・キャンセル와 관련된 검색어를 나타낸 것이다.



### 1.3 接続・アクセス의 관련 검색어 분석

본 장에서는 接続・アクセス의 관련 검색어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한다. 아래 그림5과 6은 接続・アクセス와 관련된 검색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接続 관련 검색어



<그림 6> 액세스 관련 검색어

## 5. 나오기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유의어 변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구글 트렌드를 활용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기존의 정형화된 코퍼스 분석이나 사전적 정의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유의어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参考文献】(10pt・진하게)

- 金恵娟(2024)『コーパスを活用した類義語の意味比較-「必ず」と「きっと」の違いを中心に-』『日本語学研究』79, 韓国日本語学会, pp.23-38.
- 강경완(2014)『균형코퍼스를 이용한 유의어 분석-取消し・キャンセル・解約를 예로-』『일본어문학』65, 일본어문학회, pp.1-20.
- 강경완(2018)『어법분석을 통한 유의어 기술의 예-「改善」과「改良」의 경우-』『日本語教育』84,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7-31.

- 김원미(2013) 『일본어 유의어의 도식화 교수법 연구를 위한 어휘조사』『일어일문학연구』87(1), 한국일어일문학회, pp.307-329.
- 남길임(2014) 『언어 사용의 경향성과 유의어의 기술-인내동사를 중심으로-』『한국의 의미학』43, 한국어의미학회, pp.59-82.
- 도재학·강범모(2012) 『관련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의어 분석-‘책, 서적, 도서’를 중심으로-』『한국의 의미학』37, 한국어의미학회, pp.133-159.
- 박노순(2022) 『한자어·외래어 페어의 유의어 분석-接続·アクセス를 중심으로-』『일본어문학』96, 일본어문학회, pp.77-97.
- 박현수(2019)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유의어 『大事』와 『大切』의 사용 양상 비교』『일본어문학』84, 일본어문학회, pp.79-98.
- 辛碩基(2006) 『韓国 日本語 学習者の 類義語 使用 実態에 対하여』『일본문화학호』28, 한국일본문화학회, pp.131-145.
- 이현정(2022) 『포털 및 SNS 일본어 데이터의 감성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일본어 소비-일본어와 순화 한국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일본어문학』97, 일본어문학회, pp.175-203.
- 장혜선(2023) 『유의어 한일 번역을 통해 알아본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의 의미 관계성 인지 능력 연구』『일본어문학』100, 일본어문학회, pp.153-174.

# BCCWJにおけるカタカナ語「トレンド」の様相

—雑誌記事見出しとの比較を中心に—

大谷鉄平（北陸大）

## 1. はじめに

カタカナ語「トレンド」は「ブレイク」「ブーム」と同様「流行する・している／人気を博す・している」という意味的特徴を含み、<sup>1</sup>雑誌をはじめとした見出し文において多用される一方、当該3語の様相（対象となる事物、言い回しや文脈の傾向、指し示す時期、語形成）には異同が見られる（大谷2024a）。その一方、見出し文は「本文の内容に関する概要を（文言を取捨選択し）非常に短い文で表したもの」という点で、ある種特殊な文章であり、各々の語について、一般の文章中でのふるまいとの対照も押さえておく必要があり、大谷（2023）では「ブレイク」、同（2024b）では「ブーム」に焦点を当て、検討した。今回は「トレンド」に焦点を当て、見出し文中でのふるまいと文章中でのふるまいとを対照し、検討を行う。<sup>2</sup>

## 2. 調査概要

調査対象に関し、雑誌記事見出しについては大谷（2024a）で用いたOYAから収集した最新1000件であり、不適格な用例（「トレンド（経済用語）」、「トレンドマイクロ」など）は目視にて除外し。一方、BCCWJの用例は「トレンド」で文字列検索を行い抽出したもの（前後50語）を用いるが、検索の結果692件にとどまり、OYAでの件数との開きが見られた。<sup>3</sup>文章ジャンルは以下の通りである。

---

<sup>1</sup> 小学館『日本国語大辞典』（第2版、以下『日国』）によると語義に「①趨勢。動向。傾向 ②先端的な流行。最新流行。」とある。本研究での焦点は②であるものの、後述のように、これとは別に「経済用語」としての「トレンド」もある。

<sup>2</sup> 雑誌記事見出しについてはWeb OYA-bunko（以下、OYA）、文章については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以下、BCCWJ）。「中納言」を利用）をコーパスとして用いる。

<sup>3</sup> 「ブレイク」も、BCCWJでは「ブレイク：625件」「ブレイク：185件」と、合わせても1000件に満たなかった（さらに、不適格な用例を除くと計189件のみ）。一方、「ブーム」は1827件が抽出された。

表1 「ブーム」が出現する文脈を伴う文章のジャンルならびに書籍内でのジャンル

ジャンル	トレンド	レジスター	ジャンル	トレンド	レジスター	ジャンル	トレンド
法律	0	特定目的	教科書	0	図書館	書籍	102
知恵袋	33		広報誌	0		書籍	188
ブログ	119		国会議事録	2	出版	雑誌	209
ベストセラー	2		白書	34		新聞	3

レジスター・ジャンル：書籍（出版＋図書館＋ベストセラー）							
分類	トレンド	分類	トレンド	分類	トレンド	分類	トレンド
総記	11	社会科学	169	産業	39	文学	12
哲学	10	自然科学	6	芸術美術	6	分類なし	16
歴史	2	技術工学	20	言語	1	合計	292

調査内容は、OYA、BCCWJでの「トレンド」を伴う用例における「①『トレンド』の対象の傾向、②同語を伴う言い回し・文脈の傾向」の比較対照であり、①については仮設した分類枠（＝表2）を用い、目視による用例観察から分類を行った。また、②についてはKH Coderの頻出語機能、関連語機能を用いたテキストマイニングを行った（OYAについては大谷（2024a）等の結果を用いる）。<sup>4</sup>

表2 「トレンド」の対象となる事物の分類枠（右は2.2以降の分類枠の概要）

1. ヒト	1.1 +エンタメ	1.1.1 俳優	2. モノ	2.1 +マスメディア	2.1.1 テレビ・ラジオ	3. 場所
		1.1.2 歌手			2.1.2 映画	
		1.1.3 アイドル			2.2.1 楽曲	
		1.1.4 モデル			2.2.2 書籍・DVD	
		1.1.5 芸人			2.2.3 漫画・アニメ	
		1.1.6 MC			2.2.4 IT	
	1.2 -エンタメ	1.1.7 その他		2.2 -マスメディア	2.2.5 商品	4. 行為・活動
		1.2.1 アナウンサー			2.2.6 ファッション	
		1.2.2 スポーツ			2.2.7 飲食	
		1.2.3 有識者			2.2.8 動植物	
		1.2.4 その他				

分類枠	概要
ファッション	身につけるもの全般、美容品、コーディネートなど
飲食	ヒトが体内に取り入れるもの（薬やタバコ等も含む）
商品	雑貨、文具、玩具、自動車、日用品などの物品
動植物	ヒト以外の生き物や植物（キャラクターを含む）
場所	地域、店舗や各種施設など特定の場所
行為・活動	ヒトやヒト以外が動作をもつてすること
出来事	各種イベント、社会現象、事件・事故など

<sup>4</sup> 3. ではOYA、BCCWJを対象とした調査結果を併記しつつ議論を進めるが、紙幅の都合上、一部図表や用例を省略することがあることを予めお断りしておく。補足は、発表時、PPTにて行うこととする。

### 3. 調査結果

#### 3.1 BCCWJでの出現と見出し文での出現について

BCCWJにおける「トレンド」を伴う用例は692件にとどまったが、さらに目視にて不適格な用例を除外したところ、1) 経済用語としての「トレンド」<sup>5</sup>が315件、2) その他（「トレンドマイクロ」、人名、など）が48件認められ、雑誌記事見出しと対照可能な用例は329例にとどまった。1) については金融・ビジネス関連の書籍によるものが多く、当該意味での「トレンド」が一般に流通している実態を示唆する一方、全体的には（「ブレイク」と同様）「流行する・している／人気を博す・している」という意味合いでの使用は、より見出し文において顕著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よう。

#### 3.2 「トレンド」の対象の傾向

本文中（BCCWJ：329件）、雑誌記事見出し（OYA：1000件）を対象とした「『トレンド』の対象」に関する分類結果は、表3の通りとなった。<sup>6</sup>なお、割合としては、ほぼ同様の傾向であった。<sup>7</sup>

表3 「トレンド」の対象となる事物

1. ヒト	1.1 +エンタメ	1.1.1	0(7)	2. モノ	2.1 +マスメディア	2.1.1	1(10)	3. 8(65)
		1.1.2	0(0)			2.1.2	1(14)	
		1.1.3	0(0)		2.2 -マスメディア	2.2.1	1(3)	4. 27(41)
		1.1.4	0(0)			2.2.2	3(26)	
		1.1.5	0(2)			2.2.3	1(6)	5. 20(105)
		1.1.6	0(0)			2.2.4	15(25)	
		1.1.7	0(1)			2.2.5	26(85)	6. 70(85)
	1.2 -エンタメ	1.2.1	0(0)			2.2.6	160(469)	
		1.2.2	1(5)			2.2.7	3(64)	
		1.2.3	0(4)		2.2.8	0(3)		
		1.2.4	1(12)		合計：340 (1033)			

<sup>5</sup> 「長期的に見られる一定方向への価格の動き。相場の傾向、趨勢。（外国為替用語集 <https://www.moneypartners.co.jp/> 閲覧日：2024年8月10日）」など、株価・為替相場の動向や趨勢をさすことから、『日国』①の語義に近いと考えられる。

<sup>6</sup> 各分類項目名は表2の通りであり、各項目における左側の数値がBCCWJでの件数、カッコ内の数値は、OYAでの件数である。各々、合計数が件数より多いが、1例にふたつ以上の対象が含まれると判断した場合があったことによる。

<sup>7</sup> 「ファッション」が全体の5割弱を占める。注5の通り、紙幅の都合上、割合に関するグラフは、発表時、PPTにて示す。

「ファッション」に焦点を当てると、表1の文章ジャンルとしては、内訳は「出版・雑誌：137、出版・書籍：12、図書館・書籍：8、特定目的・ブログ：3」となり、雑誌では全用例の約66%を占める結果となった。一方、割合としてBCCWJに多く認められたのは「行為・活動（BCCWJ：8%、OYA：4%）」「その他（BCCWJ：21%、OYA：8%）」となったが、後者には「トレンド」自体が話題の対象となる（＝対象φ）文脈が含まれ、これが文章中の場合より多く観察される結果となった。

### 3.3 「トレンド」を伴う言い回し・文脈の傾向

関連語、「トレンド」と関連語との共起関係を調査した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

表4 「トレンド」関連語上位50語（左：BCCWJ、右：OYA）

	抽出語	Jaccard		抽出語	Jaccard		抽出語	Jaccard
1	スタイル	0.0698	18	スタイリスト	0.0301	35	注目	0.0243
2	ブランド	0.059	19	消費	0.0296	36	印象	0.0239
3	アイテム	0.0512	20	ブーツ	0.0296	37	素材	0.0236
4	カラー	0.0495	21	小物	0.0295	38	加える	0.0219
5	情報	0.0424	22	商品	0.0292	39	アップ	0.0218
6	ファッション	0.0413	23	高い	0.029	40	製品	0.0217
7	取り入れる	0.0408	24	ブーム	0.0272	41	メーカー	0.0217
8	デザイン	0.0396	25	中心	0.0271	42	価格	0.0216
9	今年	0.0369	26	社会	0.0269	43	春	0.0216
10	世界	0.0347	27	場合	0.0269	44	企業	0.0214
11	シーズン	0.0346	28	モデル	0.0267	45	自分	0.0214
12	バッグ	0.0338	29	コーディネート	0.0261	46	時代	0.0213
13	最近	0.0323	30	最新	0.0247	47	技術	0.0213
14	ピンク	0.0323	31	ベース	0.0245	48	言う	0.0212
15	スカート	0.0322	32	意識	0.0245	49	思う	0.0209
16	人気	0.0319	33	夏	0.0244	50	バンプス	0.0191
17	今季	0.0302	34	シンプル	0.0243			

	抽出語	Jaccard		抽出語	Jaccard		抽出語	Jaccard
1	春	0.1107	18	今年	0.0311	35	絶対	0.0224
2	最新	0.0972	19	着こなし	0.0311	36	速報	0.0224
3	夏	0.0894	20	仕事	0.0292	37	着こなす	0.0224
4	おしゃれ	0.0884	21	チェック	0.0282	38	シャツ	0.0214
5	アイテム	0.069	22	最前線	0.0282	39	トップ	0.0214
6	秋	0.0661	23	東京	0.0282	40	足す	0.0214
7	技術	0.0554	24	バッグ	0.0272	41	冬	0.0214
8	大人	0.0457	25	パンツ	0.0272	42	スカート	0.0204
9	カラー	0.0437	26	小物	0.0272	43	ニット	0.0204
10	スタイル	0.0428	27	ワード	0.0262	44	秋冬	0.0204
11	着る	0.0418	28	見学	0.0262	45	食べる	0.0204
12	買う	0.0398	29	スナップ	0.0253	46	切る	0.0194
13	ブランド	0.0369	30	先取り	0.0253	47	アップ	0.0185
14	世界	0.035	31	気分	0.0243	48	拓く	0.0185
15	リアル	0.034	32	時代	0.0243	49	徹底	0.0185
16	進化	0.034	33	選ぶ	0.0233	50	ショップ	0.0175
17	TOKYO	0.0311	34	コレクション	0.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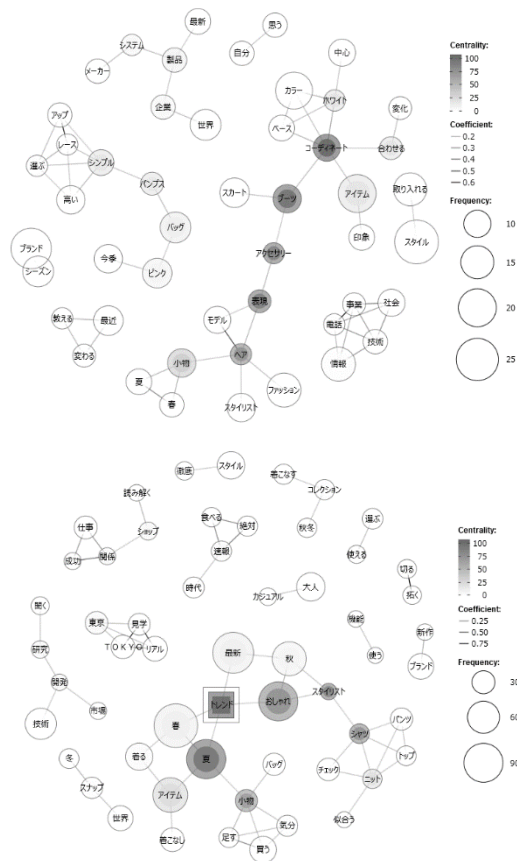


図1 「トレンド」関連語との共起ネットワーク（左：BCCWJ、右：OYA）

大谷（2024a）では、雑誌記事見出しにおける「トレンド」に特徴的として、「『春』『夏』といった季節を表わす語彙との関連度の高さ」「ファッション関連の語彙との関連度の高さ」を指摘した。これに対し、BCCWJでは前者に関しては「春」「夏」はともにOYAからの結果に比しJaccard係数は低い結果となる反面、【時期】を表す語彙としては「今年」「今季」のJaccard係数は高い結果となった。後者に関しては大谷（2024a）の結果とほぼ合致し、図1（左）の中央の大規模なネットワーク（「コーディネート」「ブーツ」「アクセサリ」など）や左側のネットワーク（「バッグ」「パンプス」など）からも確認できよう。一方、同図右下の「社会」「情報」などから構成されるネットワークでは、「トレンド」自体が話題の対象となる（＝対象 $\phi$ ）文脈が全体を占めた（「社会のトレンド」「トレンド情報」などの言い回し）。また、

同論では、「『新しい』トレンド」との文脈構成が多くなされ、「新シーズンにおける『最新かつそのシーズンで主流となる』」との提示の仕方が「暗に閲覧者をそれに沿う（＝同調する）よう誘引する効果をもつ場合がある」との仮説を示した。これに対し、BCCWJでは関連語として「最新」が11例認められたものの、全てにおいて「ある事物に関し『最新のトレンド』である、と称揚する」文脈は見られなかった。

なお、同論では、言い回し面で「ブレイク」「ブーム」では「大」の前接が自然であるのに対し、「大トレンド」とは極めて言いにくい<sup>8</sup>ことを指摘したが、BCCWJにおいても「大トレンド」は（不適格な用例を含む692件を対象としても）1件もヒットせず、見出し文との共通点となった。

### 3.4 その他一語形成面での特徴一

大谷（2024a）では、「ブレイク」「ブーム」を伴う見出し文において特定の対象の「流行／人気」が示される傾向にある一方、「トレンド」では後接する語として「アイテム、ワード、カラー etc.」といった、ある程度の意味範囲を網羅する上位語が認められ、その範疇の特定の下位語が「主流である」との文脈を構成していることを指摘した。一方、表4よりBCCWJにおいても「アイテム」「カラー」は関連語上位に位置しているが、「トレンドアイテム」「トレンドカラー」はいずれも5件にとどまり、当該「トレンド〇〇（上位語）」との合成語の使用は見出し文に多いことが確認された。ただし、直前の「ある程度の意味範囲を網羅する上位語が認められ、その範疇の特定の下位語が『主流である』との文脈を構成している」こと自体はBCCWJでも共通しており、結果的に、「トレンド〇〇」とのカタカナ語の使用は、字数制限やカタカナ語が有する語種的イメージからくる「閲覧者を惹きつける」といった要因<sup>9</sup>から、見出し文に多用されている可能性が示唆された。

対して表4の「社会」（社会トレンド：5件）、「技術」（技術トレンド：7件）など、関連語が前接する「〇〇トレンド」との合成語がBCCWJにおいて認められた。ただし、「『トレンド』

---

<sup>8</sup> 数値を付した「三大トレンド」「5大トレンド」などは散見されたが、カタカナ語を強調する「大」とはいえない。

<sup>9</sup> 発表時にも説明を補足するが、「カタカナ語効果」については、大谷（2023）（2024b）を参照されたい。

自体が話題の対象となる（＝対象φ）」文脈に限られ、雑誌記事見出しとの相違点が明らかとなった。

#### ◀参考文献▶

- 大谷鉄平（2023）「BCCWJにおけるカタカナ語「ブレイク」の様相—雑誌記事見出しとの比較を中心に—」『日本文化学報』99、pp. 365-382
- 大谷鉄平（2024a）「見出し文におけるカタカナ類語の異同—「ブレイク」と「ブーム」と「トレンド」—」第12回韓国日本研究総連合会（2024年4月20日、昌原大学校）発表予稿集
- 大谷鉄平（2024b）「BCCWJにおけるカタカナ語「ブーム」の様相—雑誌記事見出しとの比較を中心に—」（論文審査中）

## 東京大学所蔵「斎藤文庫」の朝鮮語かな表記について

김문희(愛知淑徳大)

### 1. 東京大学資料編纂所蔵「斎藤文庫」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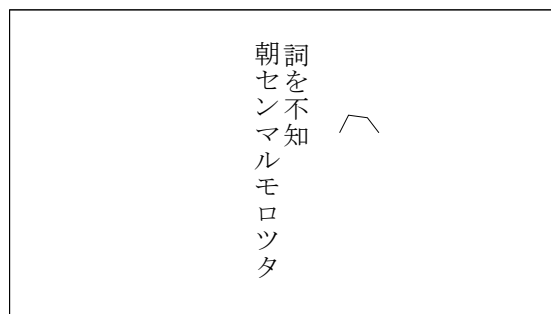
本研究は、東京大学資料編纂所蔵斎藤文庫に所蔵される「朝鮮信使御供衆書上並朝鮮語和解」の母音と子音の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調査・考察をおこなったものである。

研究対象である「朝鮮信使御供衆書上並朝鮮語和解」は『斎藤文庫（冊データ27）』に収められている。その書誌事項について簡単に述べると以下のとおりである。

東京大学蔵斎藤文庫〔図書番号：6171.93-65-27〕。1冊、写本。全21丁で、こより綴じになっている。外題は「朝鮮信使御供衆書上並朝鮮語和解」。外題の左横に「延享四年卯年九月」（1747年）と書いているが、外題の書いてある表紙の3分の1は欠落されている。

1丁表から3丁裏までは、日本語文を本文とし、その左横にカタカナで朝鮮語訳が付される。5丁表には日本語単語を本文とし、その右横にカタカナで朝鮮語訳が付される。

たとえば、



のごとく、まず、日本語で見出し文を示し、その左横にカタカナで朝鮮語の意味を説明するが、それを朝鮮語発音どおりに書いて説明した。単語の場合は、日本語で見出し語を示し、その右横にカタカナで朝鮮語の意味を説明してある。

7丁表からは、このときの朝鮮通信使に随行した人名録になっている。16丁裏の右端に「大通詞 荒川平八」、17丁裏には「平通詞」として17名の通詞の名前が列挙されていて、この時の朝鮮通信使に随行した通詞の名前も知ることができる。

一体カナで表記された朝鮮語の資料は、ハングルで表記された本国資料からは窺い知れない音声・音韻的情報を伝えることがあり、従来から「全一道人」、「朝鮮語訳」など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が朝鮮語および日本語の音韻史資料として利用されてきた。ここにとりあげる「朝鮮信使御供衆書上並朝鮮語和解」もそれらの既存資料に匹敵する資料的価値を有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が、本研究では、母音と子音部分の転写システムについて、カナ表記とハングル表記復元形とを対照しつつ検討する。なお、必要に応じて適宜、既存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とも比較する。

# 認識動詞構文の意味論

申義植(京畿大)

## 1. はじめに

本発表では認識動詞構文を中心に文法的な特徴を考察する。日本語の認識動詞は、次のように従属節の主語(1a)「田中が」が主節の目的語(1b)「田中を」のようにも現れる特徴を持つ。

- (1) a. 山田は田中が天才だと思っていた。
- b. 山田は田中を天才だと思っていた。

上記の文では、人間の認識を表す「思う」「考える」「信じる」などの動詞が用いられ、文中の「田中」は従属節の「天才だ」の主語の意味を持ちながらも、「思う」の目的語のようにも振る舞っている。この構文について生成文法では、次のような埋め込み構造を持った構文として扱っている。

- (2) 山田は[田中 天才だ]と思っていた。

一方、益岡(1987)などの日本語学では、次のような単文構造として捉えている。

- (3) 山田は 田中を 天才だと 思っていた。
- 主体 + 対象 + 属性叙述補語 + 認識動詞

特に、ここで議論になるポイントは「天才だ」の意味上の主体である「田中」の捉え方である。生成文法などでは、立場により、「田中」が従属節から主節へ繰り上げられた(raising)と主張するか(Kuno 1976)、例外的対格付与されたのか(竹沢 1998)<sup>1)</sup>、基底生成されたのか(Kishimoto 2018)に分けられる。ここでは、理論的な構造については深入りせず、「田中」に与えられた「を」格が主節動詞「思う」の目的語なのかを検討したい。

## 2. 先行研究

この認識動詞に関する先行研究は、元々次のような英文から始まったPostal(1974)などが取り上げられる。

---

1) これはECM(Exceptional Case Marking)と呼び、主節動詞は例外的に従属節の主体へ対格「を」を与えるシステムを主張しているが、ここで詳細までは深入りしない。

- (4) a. John believes that Mary is in the sky.  
b. John believes Mary to be in the sky.

Kuno(1976)では、このような現象が日本語でも(1)のように並行しており、次のように従属節から痕跡(t)を残し、主節への繰り上げられたこと(主語上昇(Subject Raising))が主張されている。

- (5) [<sub>S</sub>山田は [<sub>VP</sub>田中を<sub>i</sub> [<sub>S</sub> t<sub>i</sub> 天才だ] と思っていた]]

以降、例外的対格付与、基底生成分析などの様々な分析が主張されているが、ここでは構造的な位置の捉え方は深入りしない。一方、日本語学では、益岡(1987)により認識動詞構文を属性叙述文として捉えている。この議論では「天才だ」や次の「奇妙に」などは対象の属性叙述を表し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

- (6) a. 子供の私が虚無僧を奇妙に思ったのは、...。  
b. \*子供の私が奇妙に虚無僧を思ったのは、...。

(6b)では意味的に「虚無僧」を属性を「奇妙に」が叙述しているので、語順の置き換えができない。

以上の先行研究を簡単に概観した上で、本発表では認識動詞文における従属節の主体「田中」などが目的語であるか、他の要素であるかを検討したい。

### 3. 認識動詞構文における「を」の位置づけ

本発表で(1b)のような「田中を」が目的語であるか、他の要素なのかについて議論したい。この点については、三原(2022)では、次のような例示などが取り上げられ、「を」句が提示句<sup>2)</sup>であると述べられている。

- (7) \*山田は馬鹿だと、田中を思っていた。  
(8) \*山田は田中  $\emptyset$  馬鹿だと思っていた。  
(9) a. 太郎は花子を才媛だと思った。(状態述語)  
b. \*太郎は花子をギリシャに行くと思っている。(動作述語)

上記の用例を見ると、「馬鹿だと」が「田中を」の属性を叙述するので、(7)のように語順を変えない点、(8)のように格助詞「を」が省略できない点、(9b)のように属性を叙述する述語以外のものが現れない点を取り上げられる。したがって、上記の「を」は単なる目的語ではなく、aboutnessの関係を表す後置詞句(副詞句)を示すことになる。

まず、構造的に「を」句が主節要素であるということは三原の立場と同一である。ただし、ここでは

2) 三原(2022)では「Xについて言えば」のように、aboutness関係を示す後置詞句である。つまり、この「を」句は目的語ではない。

「を」句が文において必須要素であることを主張したい。

(10) \*山田は ~~の~~バカだと思っていた。

(10)のように「田中を」のような要素は随意的に省略できるものではなく、認識動詞構文の成立において必須要素である。基本的に「思う」「感じる」のような認識動詞構文は「主体＋ 対象＋属性叙述補語＋認識動詞」のような鋳型で成り立っている。したがって、(10)に続き、(11)のように「バカだ」などの属性叙述補語の部分が省略していても不自然な文になる。

(11) \*山田は田中を ~~を~~ 思っていた。

(12) 山田はいつも田中を大切に思っていた。

また、(8)のような格助詞「を」の省略についても、(13)、(14)のように格助詞「を」の省略が容認できる場合があることを取り上げたい。

(13) 俺、あいつまでバカだと思ったよ。

(14) 昨日の花子何かおかしく感じた。

(15) 彼の論理崩れていると考えている。

更に、次のように分裂文の焦点の位置に来るのも出来る。

(15) 俺がまじでバカだと思ったのはあいつの行動だった。

(16) 何かおかしいと感じたのは昨日の花子の様子だった。

上記の「あいつの行動」や「花子の様子」<sup>3)</sup>などのがこの位置に現れるのは、主節動詞「思う」などの必須要素であることに因ると考えられる。

これからも、これらの「を」格名詞句の文法的な位置を考察するためには様々な検討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 4. おわりに

本発表では認識動詞構文について、簡単に例示と先行研究を確認し、ここでの「を」句の文法的な位置について考えた。この文に関しては、様々な先行研究により、理論的な議論がなされており、記述的にも膨大なデータが揃っている。したがって、今後「を」句の文法的な位置づけを明確にするためには、実例などの検討し、意味論的な分析を付け加えた上での一般化が必要である。

---

3) 「俺がまじでバカだと思ったのはあいつだった」のような例文にすると、人を「の」で示すことになるので、「あいつの行動」などに変更した。



## 参考文献

- 竹沢幸一(1987)『格と語順と統語構造』John Whitman(共) 研究社.
- 三原健一(2022)『日本語構文大全 第2巻 提示機能から見る文法』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1987)『命題の文法』くろしお出版.
- Kuno, Susumu(1976) Subject Raising. In M. Shibatani (ed.) *Syntax and Semantics 5: Japanese Generative Grammar*. Academic Press.
- Kishimoto, Hideki(2018) On Exceptional Case Marking Phenomena in Japanese. *Kobe Papers in Linguistics* Vol.11.
- Postal, Paul M.(1974) *On Raising*. MIT Press.







# 초급 교과서의 일본어 지시어 문장 표현 분석

류신애(신라대)

## 1. 들어가기

일본어와 한국어 두 언어는 문법 구조, 어순과 어휘 등 많은 점에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와 한국어 지시어 「이・그・저」는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법상 유사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어 지시어는 주로 초급 단계에서 도입되는 문법 항목으로, 일본어 교재에는 <표 1>의 내용과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대응시켜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이상원 외(2023:52) 『오늘부터 일본어 STEP1』

	こ(근칭)	そ(중칭)	あ(원칭)	ど(부정칭)
사물	これ 이것	それ 그것	あれ 저것	どれ 어느것
장소	ここ 여기	そこ 거기	あそこ 저거	どこ 어디
방향	こちら 이쪽	そちら 그쪽	あちら 저쪽	どちら 어느 쪽
명사수식	この 이	その 그	あの 저	どの 어느

(1) A: あれはどうでしたか。→ 저것은 어땠나요?

B: 美味しかったです。

(1)의 예문의 일본어와 한국어의 지시어는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낮에 A와 B가 함께 먹은 것을 지시할 경우에는 (1)에 적혀 있는 '저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줄고(2013:32-35)에 따르면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를 한국인 학습자 237명 중 76%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コ・ソ・ア」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쉬운 문법이 아닌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지시어는 마찬가지로 3계열에서 유사성이 높게 느껴지지만, 용법을 대조하면 차이점이 많이 있고, 그 때문에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コ・ソ・ア」의 구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S대학교의 일본어입문 수업의 교재의 회화문에 나타나는 지시어 문장을 분석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지시어 습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일본어 지시어는 한국어 「이・그・저」처럼 「コ・ソ・ア」 3개 계열을 이루고 있다. 또

한 일본어 지시어 연구는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연구는 佐久間(1983)이다.

佐久間(1983)의 정의에 의하면, 「これ」은, 사물이나 일이 화자 자신의 손이 닿는 범위, 말하자면 그 세력권 내에 있는 것을 지시할 때에 사용한다고 말하고, 「それ」은 화자의 손이 닿는 범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구역 내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이외의 세력권 밖에 있는 모든 것은 「あれ」을 사용한다고 정의했다. 佐久間(1983)의 정의는 다양한 일본어 지시어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 이 정의는 눈앞에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는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화자 자신의 손이 닿는 범위에 있지 않은 어제 먹은 음식을 가리킬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시어를 사용하면 좋을까. 이와같이 지시어의 용법에는 佐久間(1983)의 정의와 같이 눈으로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지시하는 「현장 지시 용법」과 눈으로 자각할 수 없는 사람이나 물건을 지시하는 「비현장 지시 용법」이 있다.

「コ・ソ・ア」의 비현장 지시 용법의 규정으로는 久野(1992)를 들 수 있다. 久野(1992)의 비현장지시를 정리하면 지시대상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을 때에는 「ア」 계열을 사용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시대상에 대해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알지 못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지시대상에 대해 알지 못할 때에는 「ソ」 계열을 사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阪田(1992)는 용법별이 아닌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의 구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阪田(1992)에 의하면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영역 '안'과 '밖'으로 나누어 화자의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コ」를 사용하고, 영역 밖에서 인정한 경우는 「ソ」를 사용한다고 규정하면서 화자와 듣는 사람이 '우리'라는 같은 영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그 영역 안은 「コ」로, 영역 밖은 「ソ・ア」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 3. 초급 교과서 내 지시어 표현

조사 대상이었던 일본어 초급 교재는 입문 1,2권으로 이루어진 교재로 입문1에는 총 10과, 입문2에는 12과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의 문법적 설명은 입문1의 2과에 아래 표 2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표 2> 소명선 외(2019:60) 『단단일본어 입문1』

	こ	そ	あ	ど
명사수식	この 이	その 그	あの 저	どの 어느
사물	これ 이것	それ 그것	あれ 저것	どれ 어느것
장소	ここ 여기	そこ 거기	あそこ 저거	どこ 어디
방향	こちら 이쪽	そちら 그쪽	あちら 저쪽	どちら 어느쪽

분석 교재의 회화문에는 총 311문장의 일본어 문장이 탑재되어 있으며 그중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가 포함되어있는 문장은 총 60문장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コ・ソ・ア」별로 나누어 비율을 살펴보면, 「コ」는 15문장(25.0%), 「ソ」는 39문장(65.0%), 「ア」는 6문장(10.0%)가 나타났으며, 「ソ」를 포함한 지시어 문장이 많았다.

다음 아래의 <표3>은 「コ・ソ・ア」가 포함되어있는 문장을 정리한 표이며, 구분의 숫자는 <교재이름-단원-줄번호>를 의미한다.

<표 3> 초급일본어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문장

구분 (교재-과-줄)	문장	지시어
입문1-01-1	田中さん、 <u>こちら</u> はいさんです。	こ
입문1-01-5	<u>こちら</u> 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こ
입문1-01-9	あ、 <u>そう</u> ですか。	そ
입문1-02-2	<u>それ</u> はなんですか。	そ
입문1-02-3	<u>これ</u> ですか。	こ
입문1-02-4	<u>これ</u> は日本の雑誌です。	あ
입문1-02-5	<u>あれ</u> は何ですか。	あ
입문1-02-6	<u>あれ</u> は日本語の本です。	あ
입문1-02-7	<u>あの</u> 日本語の本は誰のですか。	あ
입문1-02-8	<u>あれ</u> は木村さんのです。	あ
입문1-02-9	<u>この</u> ボールペンも木村さんののですか。	こ
입문1-02-10	いいえ、 <u>その</u> ボールペンは木村さんのではありません。	そ
입문1-02-12	<u>これが</u> 私のです。	こ
입문1-03-4	<u>そう</u> ですね。	そ
입문1-04-1	金さん、 <u>これ</u> は誰の写真ですか。	こ
입문1-04-2	<u>これは</u> 私の友達の写真です。	こ
입문1-04-6	へえ、 <u>そう</u> ですか。	そ
입문1-05-8	<u>この</u> 店はおいしくて値段も高くありませんね。	こ
입문1-05-10	<u>それに</u> ケーキの種類も多くて、私は <u>この</u> 町のカフェの中で、ここが一番好きです。	そ/こ
입문1-06-3	<u>そう</u> ですか。	そ
입문1-06-5	<u>この</u> キャンパスには体育感が2つあります。	こ
입문1-06-7	第一体育館は <u>あの</u> 建物の後ろです。	あ
입문1-07-1	金さん、 <u>これ</u> から何をしますか。	こ
입문1-07-12	<u>それから</u> ジャズコンサートを見ます。	そ
입문1-09-5	<u>そう</u> ですか。	そ
입문1-09-8	<u>この</u> 店のそばは本当においしいですね。	こ
입문1-09-9	私も <u>この</u> そばが好きです。	こ
입문1-09-17	<u>そう</u> しましょう。	そ
입문1-10-11	<u>そこで</u> 夜景を見ながら、みんなでパーティーをしましょう。	そ
입문2-1-3	<u>そう</u> ですか。	そ
입문2-1-11	<u>それで</u> 学校を休みました。	そ
입문2-1-12	<u>そう</u> でしたか。	そ
입문2-2-9	<u>そう</u> ですか。	そ

입문2-2-11	いや、 <u>そんな</u> ことはありません。	そ
입문2-2-18	ええ、 <u>そんなに</u> 。	そ
입문2-2-20	<u>それ</u> は無理ですね。	そ
입문2-2-22	<u>それ</u> では。	そ
입문2-3-11	へえ、 <u>そう</u> ですか。	そ
입문2-4-2	ええ、 <u>そう</u> ですね。	そ
입문2-5-14	<u>それ</u> から、なるべく無理をしないで、ゆっくり休んでください。	そ
입문2-6-3	<u>それ</u> で、今すぐ眠いです。	そ
입문2-6-11	<u>そう</u> ですか。	そ
입문2-6-12	<u>それ</u> から、今日3時の会議、覚えていますか。	そ
입문2-6-13	あ、 <u>そう</u> だ。	そ
입문2-7-10	<u>そう</u> ですか。	そ
입문2-7-11	<u>これ</u> 、私が作っていましたが、よかったらどうぞ。	こ
입문2-7-19	<u>そう</u> ですか。	そ
입문2-7-20	<u>それ</u> では、今日は早く帰った方がいいですね。	そ
입문2-8-12	<u>それ</u> なら、今度の土曜日に一緒に新大久保に行って買い物をして、キムチチゲを作りましょうか。	そ
입문2-8-13	<u>それ</u> はいいですね。	そ
입문2-9-6	<u>そう</u> ですね。	そ
입문2-9-10	<u>それ</u> は楽しみですね。	そ
입문2-9-14	私、 <u>ここ</u> で降ります。	こ
입문2-10-8	でも、 <u>それ</u> だけではありません。	そ
입문2-10-10	<u>それ</u> から、帰りが遅かったので母にも叱られました。	そ
입문2-11-2	<u>そう</u> ですね。	そ
입문2-12-5	<u>そう</u> いえば、金さんの就職先が決まったそうですね。	そ
입문2-12-6	<u>そう</u> ですね。	そ
입문2-12-12	<u>そう</u> ですね。	そ

#### 4. 조사 결과

입문1과 입문2에서는 각각 30문장의 지시어 표현이 출현하였다. 용법별로 출현 비율을 살펴보면, 입문1에서는 현장지시 용법이 23개, 비현장지시 용법이 7개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입문2에서는 현장지시 용법이 2개, 비현장지시 용법이 28개가 출현하였다.

즉, 현장지시 용법의 경우 25개 중 92.0%가 입문1에서 나타났고, 비현장지시 용법의 35개 중 71.4%가 입문2에서 확인되었다.

아래는 입문1의 현장지시의 용법을 예문을 추출하여 나열한 것으로, 「そーこ」「こーそ」「あーあ」와 같이 대립형 예문과, 「こーこ」와 같은 융합형 예문이 혼재되어 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그러나, 교재 어느 곳에도 일본어 지시 용법에 관련된 설명은 없다.



<표 4> 현장지시 용법 예문

입문1-02-2	<u>それ</u> はなんですか。
입문1-02-3	<u>これ</u> ですか。
입문1-02-9	<u>この</u> ボールペンも木村さんのですか。
입문1-02-10	いいえ、 <u>その</u> ボールペンは木村さんのではありません。
입문1-02-5	<u>あれ</u> は何ですか。
입문1-02-6	<u>あれ</u> は日本語の本です。
입문1-04-1	金さん、 <u>これ</u> は誰の写真ですか。
입문1-04-2	<u>これ</u> は私の友達の写真です。
입문1-09-8	<u>この</u> 店のそばは本当においしいですね。
입문1-09-9	私も <u>ここ</u> のそばが好きです。

## 【参考文献】

- 柳信愛(2013)「韓国語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指示詞『コ・ソ・ア』の習得研究 -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から-」京都外国語大学大学院外国語科 修士論文、pp.32-35.
- 소명선·김대양·박진향·손영석·최희숙·이토 에미, 마쓰자키 미에코(2019)『단단일본어 입문1』시사일본어사 (2019)『단단일본어 입문2』시사일본어사
- 이상원·손동주·임태희·김옥선·서만식·손다운(2023)『오늘부터 일본어 STEP1』동양북스 p.52.
- 久野暲(1992)「コ・ソ・ア」金水敏・田窪行則(編)『指示詞』ひつじ書房、pp.69-73.
- 阪田雪子(1992)「指示詞『コ・ソ・ア』の機能について」金水敏・田窪行則(編)『指示詞』ひつじ書房、pp.54-68.
- 佐久間鼎(1983)『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増補版》』くろし出版、p.22.

# 韓国人学生と日本人交換留学生の協働的な活動の試み

## － 合同授業の実践報告－

松下由美子(韓南大)

### 1. はじめに

筆者は、2024年4月から1学期間、日語日文学科4年生専攻科目の「日本語プレゼンテーション」に日本人交換留学生を受け入れた授業を行った。日本人学生との授業により、韓国人学生の日本語力向上、日本人学生の母語・母文化の認識だけではなく、文化背景の異なる学生同士が共に話し合いやグループ活動・発表をすることで、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問題解決力、チームワーク等の能力を育てることが可能だと考えた。近年、韓国政府による2027年までに留学生30万人誘致という計画が掲げられており韓国の大学には外国人留学生が増加している。そのため、韓国語だけではなく学部科目を履修する留学生も増える傾向にある。以上を背景に、日本語の科目でも留学生が混在する授業の増加が予想される。最終的には日本以外の留学生との授業計画や教材開発を目標にしたい。そこで、その前段階として、韓国人学生と日本人留学生との合同授業の実践報告を行う。今回初めて行った合同授業とグループ活動の報告と、授業中・後に実施したアンケートの結果をもとに、授業を通じた学びや、授業評価、今後の希望について分析・考察する。

### 2. 先行研究

日本の大学における先行研究は多数ある。主に「日本語会話」(花見2006、館岡2015、末繁・ケーレブ・ジョン2016等)、「日本事情」(足立2008、佐藤・末松・曾根・他2011)や、近年は、多文化共生の社会で協働能力の育成を目的とした問題解決型(田中・杉山2008、多田2024)等の授業を行い、主に日本人学生の母語や母文化への気づきや新しい経験が得られたこと、留学生には会話練習や交流の機会が得られたことを報告している。

韓国の大学における先行研究はあまり多くない。遠隔授業ではなく対面授業での実践報告は次の2つである。松浦・小川(2009)は、1学期間、ビジュアラーセッションを行った会話授業を行った。その結果、学習者は話す相手との話題の配慮、日本語を話すことへの自信をつけた等心理的变化があったことを報告している。盧(2020)は大学の日本語専攻4年生対象の「韓日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て協働授業を行った結果、異文化に対する認識の変化等を報告している。しかし、日本人学生の控え目な態度が韓国人学習者に否定的に見える等も明らかになったという。韓国の実践報告は主に韓国人学生側の報告が中心である。以上をふまえ、本発表は、韓国人学生と日本人交換留学生の両方についての報告を行う。

### 3. 授業の概要

実施科目：2024年3月～6月 週2回、75分/回(3単位) 15週

日語日文学科の4年生・専攻選択科目「日本語プレゼンテーション」

受講学生：韓国人学生(中国人正規留学生1名含む)11名、女性8名、男性3名

日本人交換留学生7名、全員女性、合計18名

韓国人学生の日本語能力はN3～N1まで様々である。また、日本に半年から1年間の交換留学生経験がある者が3名、1年間のワーキングホリデー経験者が2名いた。日本人学生は2年生～4年生まで、韓国語力はTOPIC3～4級である。

日程	授業内容
1 週目	授業OT、グループ別に自己紹介
2 週目	1 週目にした自己紹介をPPT作成して発表（個別発表）
3 週目	PPTの基本的作成方法と、評価方法の確認（PPT発表 can-doシート）
4 週目	中間試験のグループメンバー決定、発表内容を検討・決定
5 週目	グループ別活動、質疑応答
6 週目	グループ別活動、質疑応答、中間報告
7 週目	グループ別の活動、現地取材（課外活動）、活動報告提出
8 週目	試験期間 グループ発表（大学周辺の店やお勧めの観光スポット紹介）
9 週目	中間試験のふりかえり、フリートーキングのテーマの検討（質問紙調査実施）
10週目	フリートーク、ふりかえりシート
11週目	フリートーク、ふりかえりシート
12週目	フリートーク、ふりかえりシート
13週目	フリートーク、ふりかえりシート
14週目	フリートーク、今学期の授業のふりかえり
15週目	試験期間 個人発表（最近気になる時事ニュースを報告する）

#### 3-1 グループ発表

中間試験は3人もしくは4人1グループにて、大学周辺のお勧めの店や市内の観光地を紹介する発表を行った。内容は、大学から徒歩、もしくはバスで行ける場所と限定した。韓国人学生は自分がよくいく店や、気に入っている場所を紹介し、日本人学生はまだ韓国に来たばかりでよくわからないため、韓国人学生から紹介してもらったり、自分の関心のあるものを一緒に調べたりして決定した。授業ではグループ別に集まり、話し合いや作成をした。また、試験前の授業の日は現地取材が必要なグループには外出を許可し、後で写真や報告書を提出してもらった。担当したものは自分が発表することとして、全員が発表するように周知した。

### 3-2 フリートーキング

中間試験終了後に、①これからフリートーキングで話したいテーマ、②韓国人学生（日本人学生）に聞きたいことの2点について質問紙調査を行った。教員が回収後、回答を文化、語学、生活、社会の4つの分野別にまとめてリスト化した。そのリストから、話したいテーマを学生達に選んでもらった結果、次の11テーマ①友人関係、②恋愛関係、③日韓のマナーの違い、④日韓で流行しているもの、⑤留学生生活で得たいこと、⑥日韓の学生生活、⑦日本語・韓国語の難しいところ、⑧日本語・韓国語の気になる・きれいだと思った言葉、⑨日韓の文化で好きなもの、⑩日本人・韓国人に対するイメージ、⑪日本語・韓国語を勉強する前後で変化したこと、が選ばれた。

フリートーキングは授業3回まで同一グループで行った。終了後は全体で各グループごとにどのようなことを話したのか発表し、最後にふりかえりシートを提出してもらった。シートには①その日に話し合ったテーマ、②グループ内で話した質問や疑問点、③話し合ったことについての感想等、という3つについて書くことを指示した。授業時間内に書けなかった場合は宿題とした。

②のグループ内で話した質問や疑問点は、各グループによって様々であり、そのテーマについてさらに個人の関心のある内容が話せ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しかし、恋愛のテーマに関しては、「みんなの恋愛観を聞くのは良かったが、自分の話をするばかりで、時には礼儀がない発言もあった」という回答があり、日本人学生に「彼女いますか」と聞かれた者もいたようである。他のふりかえりシートの内容、感想等の報告は、紙面のページが足りないため、発表のスライドにて行う。

## 4. おわりに

この授業は、互いの母語・母文化、学習言語と文化の認識や学びだけではなく、文化背景の異なる学生同士が共に話し合いや活動、発表をすることで、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問題解決力、チームワーク等の能力を育てることを目的として行ったものである。

グループ活動では、韓国人学生がリーダーとなり積極的に日本人学生と交流する者が多かった。意見の異なりで言い合いになった姿を喧嘩として捉えてしまった日本人学生がおり、韓国人学生には教室も公的な場所という認識の必要性を感じた。反面、日本人学生は非常に受け身であり、グループ活動以外は常に日本人だけで固まっていた。おそらく無意識であると思われるが、日本のやり方の主張や個人活動の主張、その日本語は自分は使わない・それは聞いたことがないという否定的な発言する者がおり、日本人学生には、ネイティブというだけでも権力作用があること、非母語話者に歩み寄るという認識をさせる必要性を感じた。また、日本人学生は、授業中の発言もぼろなかったため、今後は、ゲストではなく韓国人学生と同等であることを強く意識させ、積極的に参加してもらうことが課題である。しかし、以上のような出来事は、失敗ではなくむしろ異文化理解・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や、チームワークについて考えるきっかけにな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フリートーキングは楽しい雰囲気で盛り上がる事が多く、特に「双方の会話の参加者が異なる文化に属することを意識した話題選択」である「異文化成員話題」（三牧2016：10）といった、両国の比較や言

語に関するテーマは、非常に盛り上がり、日本語力が不足している学生でも一緒に話せることがわかった。その学生からは「自分が考えたテーマを皆で話すことが嬉しかった」という回答があった。また、両国比較の話題は、どちらかの国の文化を評価することにも繋がりがねないが、そういうことはなく文化や習慣の違いとして捉えていた者が多いことがわかった。

授業後の感想として18名中17名(1名欠席により無回答)が満足したという回答が得られた。しかし韓日各1名ずつに「あまり交流ができなかった」、他に「相手が話してくれなかった」という回答もあった。また、今後授業でどのような協働活動を希望するかについては、日本人学生と一緒に課外の施設訪問等をしたいという回答が多く、韓国人学生と同等に何かをするという回答が少なかった。

今後の課題としては、自分から交流したいと思っても積極的に関わるのが難しい学生が交流ができるような仕組みを工夫する必要がある。また、今回の授業のように協働活動やフリートーキングだけではなく、田中・杉山(2008)や多田(2024)のようなケース学習・問題解決型の課題も取り入れて、異なる文化背景を持つ学生同士が協働で活動する際の葛藤にどう乗り越えるのか、このような場合はどう振舞えばいいかを考える必要性も感じた。今後も様々な方法を取り入れて、韓国人学生・日本人交換留学生が共に学びのある授業を行っていきたい。

## 【参考文献】

- 足立恭則(2008)「留学生・日本人学生合同の日本事情授業－留学生から学ぶ日本事情－」『人文；・社会科学論集 25』東洋英和女学院大学 学術リポジトリ pp.103-114
- 佐藤勢紀子・末松和子・曾根原理・桐原健真・上原聡・福島悦子・虫明美喜・押谷祐子(2011)「共通教育課程における「国際共修ゼミ」の開設－留学生クラスとの合同による多文化理解教育の試み－」『東北大学高等教育開発推進センター紀要 6』東北大学教育開発推進センター pp.143-156
- 多田苗美(2024)「ケース学習による共修授業の可能性－留学生と日本人学生の学び合いに注目して－」『学苑 昭和女子大学紀要976』昭和女子大学 pp.14-28
- 舘岡洋子(2015)「留学生と日本人学生がともに学ぶ「日本語クラス」－グローバル化する大学の学習環境のデザインとして－」『早稲田日本語教育学 19』早稲田大学大学院日本語教育研究科 pp.61-71
- 田中亜子・杉山ますよ(2008)「外国人留学生と日本人学生との交流を目的とした合同授業の試み－「住宅トラブル解決」ロールプレイ活動－」『日本語教育方法研究会誌 15-1』日本語教育方法研究会 pp.26-27
- 盧姪鉉(2020)「韓日異文化理解力を育てる大学授業の試み－ピア・ラーニングを取り入れた教室活動－」『日本語教育研究50』韓国日語教育学会 pp.89-103
- 花見慎子(2006)「留学生と日本人学生の合同授業の創出」『三重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紀要 1』三重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 pp.67-81
- 松浦恵子・小川靖子(2011)「日本人ゲストを招いた会話授業の試み－韓国の大学における接触場面での学生心理の変化－」『日本文化学報 49』韓国日本文化学会 pp.149-164
- 三牧陽子(2016)「初対面接触場面における話題管理－接触場面経験豊富な社会人データをもとに－」三牧洋子・村岡貴子・吉永未央子・西口光一・大谷晋也編『インターカルチュラ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理論と実践』くろしお出版 pp.3-20

교육부유학생유지부리자료(2023.8.16)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85568>

謝辞 この発表を行うにあたり韓南大学校の김영아교수님からは大変参考になるご意見を頂きました。感謝を致します。

# 일본어 고교-대학 연계교육에 대한 대학교수자 인식조사 연구

염미란(원광대)·김영아(한남대)

## 1. 들어가기

2024년 6월 18일,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소통게시판(ne.go.kr/opinion)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 교양 영역 교과 분리 및 필수 이수 단위 지정"이라는 제목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이 올라왔다. 교과군을 분류하여 교과별 학점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생활 교양 영역은 교과 구분을 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생활 교양 영역에 속하는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의 교사들을 교양 교과 상치 교사로 내몰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의 해명을 촉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 요청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 소통 게시판 웹사이트를 통하여 30일<sup>1)</sup> 동안 2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최종 동의 수 1,781명에 그쳐 불수리 종결로 끝나고 말았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일본어 교과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고, 한국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는 다수의 학회에서도 회원들에게 이 요청에 동의해 줄 것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일본어 교과의 위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2외국어 지위가 축소되면서 일본어 교과에 대한 존폐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본 연구자들 사이에서 미래 지향적 교육 목표에 대한 논의의 부재, 중등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1)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제2외국어(일본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2)2025년 2022 개정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의 일본 관련 교수자들이 일본어 고교-대학 연계 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가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의 전공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대학과 교수자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접수번호 24A000007, 동의기간 2024년 6월 18일~7월 17일.

[https://www.ne.go.kr/opinion/board.es?mid=a10202000000&bid=0002&list\\_no=17&act=view&act2=agree&currTab=1](https://www.ne.go.kr/opinion/board.es?mid=a10202000000&bid=0002&list_no=17&act=view&act2=agree&currTab=1)(검색일:2024년 8월 27일)

## 2. 선행연구

### 2.1 제2외국어(일본어) 교육과정의 변천

[표1] 제2외국어(일본어) 중심 교육과정의 변천<sup>2)</sup>

시기	제2외국어(일본어) 단위	특이사항
제3차 교육과정	2,3학년 선택/12단위	*영어 I (공통), 영어 II,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에스파니아어, 일본어 (선택) *일본어 도입(1973) *제2외국어 용어 사용
제4차 교육과정	계열별 선택과목/14-16단위	영어 I, II (공통)/6-8단위
제5차 교육과정	제2외국어 1개 선택/10단위	기술·가정 교과 신설
제6차 교육과정	외국어 I, II 중 선택/각 6단위(12단위)	러시아어 도입
제7차 교육과정	I (일반선택), II (심화선택) /각 6단위(12단위)	*10개 공통 필수 교과 선정 *아랍어 도입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외국어 I, II는 일반과목 회화 I·II, 독해 I·II, 작문과 문화는 심화과목/12-16단위	*제2외국어 '생활·교양' 교과군 편제 *베트남어 도입
2015 개정 교육과정	생활·교양 교과(군)에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포함/16단위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16단위	*생활·교양 교과(군) 명칭 삭제, '정보' 포함 *고교학점제

제2외국어(일본어)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 영역에서 '생활·교양'영역으로, 외국어 I, II '각각 6단위(12단위)'에서 여러 교과가 하나로 묶여 '16단위 분할'로 그 지위가 축소(신선균, 2024)되었음을 확인<sup>3)</sup>할 수 있다.

2)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new/mobile.index2.do>)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실시되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본어교과 편제 방향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3)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가 새롭게 포함되었고 교양 10개 과목(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삶과 종교, 보건,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포함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16학점을 이수하게 되기 때문에 중등교육 현장에서는 (1안) 영어교과를 외국어 교과로 바꾸고, 영어를 8학점으로, 제2외국어를 6학점으로 편제하는 것, (2안)음악, 미술, 교양을 10학점으로,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를 16학점으로 편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신선균, 2024). 또한, 김태정(2010:130)은 사회/도덕, 과학/기술·가정, 예술(음악/미술) 등의 교과군으로 영역을 나누는 것에 대해 결국 교과의 통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제2외국어가 기술·가



## 2.2 고등학교 제2외국어(일본어) 교육의 현황 및 문제

2022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은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사 운영의 체제가 변화하게 된다.

[표2]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사운영 체제 변화<sup>4)</sup>

구분	현행(단계적 이행)		⇒	2022 개정	
	'21-'22	'23-'24		'25-	
수업량 기준	단위	학점		학점	
1학점 수업량	50분 17(16회+1)회	50분 17(16회+1)회		50분 16회	
총 이수학점	204단위	192학점		192학점	
교과·창의적	교과 180/	교과 174/		교과 174/	
체험활동 비중	창의적 체험활동 24	창의적 체험활동 18		창의적 체험활동 18	

현재 고등학교 제2외국어(일본어) 교육은 대다수 2학년 때 선택하게 되고, 학교에 따라 개설되는 언어도 다르고 I, II 과정이 모두 개설되기도 하지만 3학년 입시로 인해 I 과정만 개설되는 곳도 적지 않다. 고교 내신 시험의 난이도도 높지 않아 학교 수업과 복습만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주요 교과에 비교해 중위권 학생층이 얇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sup>5)</sup>.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고등학교 제2외국어(일본어) 교육과정도 변화될 것이며 그 변화는 대학 교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고등학교 제2외국어(일본어)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최근 일본어 교육의 수요도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한 연구, 둘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연구, 셋째, 대학 교육, 특히 전공 교육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안으로 고교-대학 교육 연계의 중요성을 제안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주 외(2020:660)의 교과목 수요 조사(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소속 일반고 160개교 1학년 29,046명 응답자료 활용)에서는 일본어는 총 117,299명(한문 77,720명/독일어 14,314명/프랑스어 18,444명/스페인어 15,869명/중국어 64,171명/러시아어 7,911명/아랍어 4,640명/베트남어 2,482명)으로 한문이나 다른 외국어에 비해 수요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정, 한문, 교양과 하나로 묶여 생활·교양 영역에 편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각 교과가 어떤 가치 철학을 공유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5) 내일교육(<https://naeiledu.co.kr/27354>)(2024년9월 11일 검색)

다. 홍원표 외(2019:67)은 서울소재 4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대상으로 운영사례를 분석했는데, 일본어1은 203명(58.7%),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홍원표 외, 2019:86) 128명(57.7%)이 수강 신청을 해서 실제 일본어 교육의 수요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일본어 교육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의 문제(한주 외, 2020:660), 소인수·심화 과목 교육에 대한 문제(김영은, 2019)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김영은(2019:17)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원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에 한해 공동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고등학교 일본어교과 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로 신선균(2024)를 들 수 있는데 대학에서의 일본어 교육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모든 관계자와 위원회에 대학의 교수자가 관여하고 있으므로, 일본어 관련 학회 차원에서 교육과정 문제와 대입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와 참여의 필요성, 둘째, 일본어관련 학과에 대한 입학 조건 개선의 필요성(수시의 어학특기자 전형 등), 셋째, 대학과 고등학교의 연계교육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pp.34-36)고 제시하고 있다.

고교-대학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주 외(2019), 최정희(2019), 김영은(2019:17)등이 있는데, 이는 현장의 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 제2외국어(일본어)교육과정에 대해 대학의 일본 관련 전공 교수자를 대상으로 제2외국어(일본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고교-대학 교육 과정 연계에 대해 인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내용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교육부자료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영역,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 2) 고교-대학교육 연계에 대한 인식
  - 고등학교의 2022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대학의 일본 관련 학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고교-대학 교육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현재 진행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 3) 고교-대학 교육 연계 시 대학 및 교수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인식

#### 3.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 대상은 현재 4년제 대학 소속의 일본 관련 전공 교수자를 대상으로, 구글(Goole) 설문지를 이용하여 2주간(2024년8월26일~9월 9일까지) 교수자들에게 링크를 전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8명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4. 나가며

### 【参考文献】(一部のみ)

- 김태정(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비평』 제27호, 교육비평, pp.119-136.
- 김영은, 백경선, 이광우, 이미숙, 이주연, 정재훈(2019).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 개선 방향 탐색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9-3
- 신선균(2024)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의 방향 및 대학에의 제언」 『日本語教育』 106.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27-36.
- 한 주, 김선희, 박보람, 이경옥(2019). 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사례 연구: 강원 중소도시 공립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9-2-2.
- 홍원표, 조복희, 한은경, 김용진, 오창민, 고석영(연구조원)(2019). 2019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 사례 연구: 서울 대도시 국·공·사립 고등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9-2-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new/mobile.index2.do>)
- 내일교육(<https://naeiledu.co.kr/27354>)(2024년9월 11일 검색)

## 통감부 시기의 교과용 도서 검정과 일본어 교육\*

황운(대전대)\*\*

hwangwoon@daum.net

### 1. 들어가며

본 연구에서는 1908년 8월 28일 공포된 「교과용 도서검정 규정」이 근대 한국의 일본어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876년 일본과 맺은 조약을 시작으로 1882년 이후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강국들과 수호통상 조약을 맺으며 문호가 개방되어 부산, 원산, 인천을 시작으로 개항이 되었으며 이로부터 한국의 개화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국가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1891년 7월에 한성에 일어학당<sup>1)</sup>을 개설하고 일본어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정부가 운영하는 관공립학교 뿐 아니라 각종 사립학교에서도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었다.<sup>2)</sup>

개화기 초기에는 일본에서 발행된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화기 후기에는 한국에서도 일본어 교과서 편찬에 착수하여 1907년에 『日語讀本』이 학부<sup>3)</sup>에 의해 발행되었다. 또한 1905년 통감부 설치 이후 한국 지식인들은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저술, 편찬하였다.

그러나 통감부<sup>4)</sup>는 한국인의 교육열을 비롯해 반일 또는 민족 감정을 고취할 수 있는 사

---

\*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262)

\*\* 대전대학교 강사, 일본어교육학 / 전북대학교 일본·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1) 한국 정부가 일본인 교사 岡倉由三郎(1868~1936)를 초빙하여 한성에 세운 근대 최초의 일본어 교육 기관이다. 일어학당은 1894년에 관립 일본어학교로 개칭, 1895년 6월 2일에 외국어학교 관제가 공포됨에 따라 관립 일어학교가 되었다.

2) 한국 개화기에 설립된 근대적 학교들은 관공립과 사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립학교는 다시 일반 민간인 설립의 민족계 사학과 서양 선교사 설립의 미션계 사학으로 나뉜다. (한용진 2005:185)

3) 조선 말기 학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1895년 4월에 설치되어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1894년 예조의 소관업무를 계승하였던 학무아문을 개칭한 것으로 오늘날의 교육부에 해당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학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95%99%EB%B6%80&ridx=0&tot=125> (검색일 2024.09.01.))

4)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던 식민 통치 준비기구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통감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86%B5%EA%B0%90%EB%B6%80&ridx=0&tot=5729> (검색일 2024.09.01.))

상, 정보를 통제하고자 1907년 보안법, 신문지법, 1908년 교과용 도서검정 규정, 1909년 출판법 등의 일련의 법령을 통해 반일적 기사를 실은 신문과 잡지를 정간시키거나 교과서를 비롯한 출판물을 압수하고 금서로 지정하였다. 그 때문에 그 동안 사립학교에서 자체 편찬하여 사용하던 교과서나 민간에서 제작하여 사용하던 모든 교과용 도서와 함께 일반출판물도 검정에 앞서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는 「학부편찬 교과용 도서」·「학부검정 교과용 도서」·「학부인가 교과용 도서」로 제한되었으며, 「학부불인가 교과용 도서」나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 교과용 도서」, 그리고 출판법에 의거한 「내부대신 발매/반포 금지 도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학부편찬 교과용 도서」에는 학부가 발행한 『日語讀本』(1907)이 있으며, 사립학교 등에서 사용되던 일본어 교재 중 『高等日文讀本』(1910)과 『日語大成』(1910)의 2종만이 「학부검정 교과용 도서」로 허가를 받았다. 또한, 「학부인가 교과용 도서」로는 『明治書翰文大全』(1898), 『實業補習讀本』(1902), 『日本文典大綱』(1902), 『普通日本語典』(1906)의 4종이 지정되었다.

일본어 교재 중 10종에 달하는 『日韓通話』(1893), 『再訂中等国文典』(1899), 『修正日本文法教科書』(1900), 『独習日語雜誌』(1905), 『独習新案日韓対話』(1905), 『中学作文教科書』(1906), 『日語独習』(1907), 『独習日語正則』(1907), 『精選日語大海』(1909), 『精選日韓言文自通』(1909)은 「학부불인가 교과용 도서」로 지정이 되어 교육기관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이 중 『独習日語正則』(1907)과 『精選日語大海』(1909)는 1909년에 제정된 출판법에 의해 「내부대신 발매/반포 금지 도서」가 되었다.

교과용 도서검정 제도는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 도서검정에서 학부의 인가를 받은 6종의 일본어 교과서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10종의 일본어 교과서를 분류하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감부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일본어 교육에 있어 학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통제하고자 하였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 자료

1910년 조선총독부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교과용 도서 일람」에는 당시의 교과서를 학부편찬 교과용 도서, 학부검정 교과용 도서, 학부인가 교과용 도서 및 불인가 도서와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 교과용 도서, 내부대신 발매/반포 금지 도서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다. 「학부편찬 교과용 도서」는 관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사립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일본어 교과서 중 「학부편찬 교과용 도서」 『日語讀本』(1907)이 유일하다. 「학부검정 교과용 도서」는 사립학교에서 사

용할 경우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으나 사립학교 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 신고가 필요했는데, 이에 속하는 도서가 <표1> 의 2종이다.

<표1> 학부검정 교과용 도서

	발행일	서명	편저자	자료 출처 및 소장지
1	1910.6.18	高等日文讀本(3)	朴重華	한밭교육박물관
2	1910.6.20	日語大成	鄭雲復	한밭교육박물관

「학부인가 교과용 도서」는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령에 의거하여 학부에 사용인가를 청원한 것 중 인가된 도서이다. 그러나 인가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은 인가를 받은 학교에만 있으므로 다른 사립학교가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도서명은 아래의 <표2> 와 같다.

<표2> 학부인가 교과용 도서

	발행일	서명	편저자	자료 출처 및 소장지
1	1898.11.3	明治書翰文大全	內山正如	런던대학 SOAS도서관
2	1902	実業補習讀本(6)	文学社編集所	일본 히로시마대학도서관
3	1902.2	日本文典大綱(5)	鈴木忠孝	일본 국회도서관
4	1906.11.18	普通日本語典	崔在翊	『역대한국문법대계』

「학부불인가 교과용 도서」는 대부분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부터 교과용 도서검정 제도가 실시되기 직전까지 개인이 저작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많은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도서들이며 여기에는 일본인이 저작한 도서도 포함되어 있다. 1908년 사립학교령이 발표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 사용규정이 만들어 지자 이에 의거하여 그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교과서의 사용허가를 청원한 것인데 불허한 것이다. 이들 도서들은 어느 학교든지 절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았으며, 일본어 교재 중 아래 <표3> 의 10종의 교재가 이에 속한다.

<표3> 학부불인가 교과용 도서

	발행일	서명	편저자	자료 출처 및 소장지
1	1893.10.8	日韓通話	国分国夫	일본 국회도서관
2	1899.4.16	再訂中等国文典(3)	三土忠造	일본 히로시마대학도서관
3	1900.11.10	修正日本文法教科書(2)	大槻文彦	국립중앙도서관
4	1905	独習日語雜誌(8)	日語雜誌社	국립한글박물관
5	1905	独習新案日韓對話	日語雜誌社	일본 국학원대학도서관
6	1906.1.15	中学作文教科書(5)	古谷知新	일본 기후대학도서관
7	1907.6	日話独習	孫鵬九	국립중앙도서관
8	1907.9.20	独習日語正則	鄭雲復	국립중앙도서관
9	1909.2.15	精選日語大海	朴重華	『역대한국문법대계』
10	1909.2.18	精選日韓言文自通	宋憲奭	호남대학교 도서관

통감부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통제는 검정 제도의 시행과 함께 내부대신의 이름으로 출판법을 제정하여 모든 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면서 이중으로 진행되었다. 출판법 시행 전에 이미 출판한 저작물을 재판하고자 할 때도 적용되었으며 내부대신은 출판법 시행 전에 출판된 저작물로서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어지럽힐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발매 또는 반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판본을 압수하게 되었다. 이 출판법에 의해 「학부불인가 교과용 도서」에 속하던 위의 <표3>의 『独習日語正則』(1907)과 『精選日語大海』(1909)가 「내부대신 발매/반포 금지 도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 도서검정에서 학부의 인가를 받은 6종의 일본어 교과서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10종의 일본어 교과서를 분류하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감부 시기에 이루어진 일본어 교육에 있어 학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통제하고자 하였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 고찰 내용에 대해서는 ppt를 통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문헌은 지면관계상 생략합니다.

# 한국의 일본·일본어 관련 비전공자의 일본어 학습 동기부여

김원정(우송대)

## 1. 들어가기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학습 동기부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강제성 등이 영향을 주는지, 학습자 스스로의 자발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지는 학습의 만족감과 성취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학습 동기부여에는 Deci&Ryan(1985, 2002)이 제안한 “자기 결정이론의 단계성”이 있으며, 이것은 무동기부여, 외발적 학습 동기부여, 내발적 학습 동기부여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심리학 입장에서 보면, Deci(1980, 安藤·石田 번역)에 의하면 ‘외발적 동기부여’는 보수의 획득, 칭찬, 벌에 대한 회피 등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동기부여이고, ‘내발적 동기부여’는 외적 보수가 전혀 없고 그 활동 자체가 목적에 있고, 그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끌어내고 있는 동기부여이다. 이러한 자기 결정이론의 단계성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의 분석 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대학에서는 전공자 이외에도 교양 수업을 포함해서 일본어를 학습하려는 비전공자들이 많다. 졸업, 학점 등의 외발적 동기부여로 수강을 하는 경우와 일본에 흥미, 관심이 있어서 내발적 동기부여로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또, 취업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KOSIS<sup>1)</sup>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의 고용률은 63.5%, 실업률은 3.0%로 취업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이유로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층들도 늘어나고 있다.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sup>2)</sup> 「한국산업인력공단\_해외취업 통계정보」의 통계의 최근 10년간 일본의 한국 취업자를 살펴보면, 2014년 338명, 2015년 632명, 2016년 1103명, 2017년 1427명, 2018년 1828명, 2019년 2469명, 2020년 1220명, 2021년 586명, 2022년 1154명, 2023년 1292명으로 일본 취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코로나 시점 제외). 이와 같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의 취업난으로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한국 국내 취업 외에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일본어 관련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는 어떠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일본어 학습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밝히고자 한다.

1) KOSIS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2024.8.17)

2)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산업인력공단\_해외취업 통계정보」

<https://www.data.go.kr/index.do> (검색일:2024.8.17)



## 2. 선행연구

우선, 학습 동기부여는 Deci&Ryan(1985, 2002)가 제안하고, Noels et al.,(2000), 최소영(2014)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작성되어져 있는 “자기 결정이론의 단계성과 제2언어 학습 동기”를 참고해서 재정리하고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채택한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기 결정의 조절단계는 무동기, 외발적 동기, 내발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일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자신을 조절하는 단계로서 무동기부여는 학습을 하고싶다는 의지와 생각이 없는 상태로 자기 결정의 조절단계에 있어서도 ‘무조절’이 된다. 외발적 동기부여에서 외적 조절은 자신의 자발적 의지라고 하기보다는 외부에서의 자극이나 기대감, 또는 의무 등으로 자신을 조절하고 있다. 부과된 조절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무적인 상태와 외국어를 못하면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학습한다라고 하는 조절이다. 동일시 조절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장래에 필요하니까라고 하는 적극적인 이유로 자아 성장과 자기계발로 이어진다. 통합적 조절은 학습을 하고 싶으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내발적 동기부여에서 내발적 조절은 학습을 하면 즐겁고 재미있으며 흥미를 가지고 있고 좋으니까 설레는 마음도 있는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조절이다.

학습 동기부여에 관한 선행연구는 金元正(2018), 上田章子·滝口恵子·永野亜季·山田幸子(2014), 田中洋子(2012), 石塚健(2007)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金元正(2018)은 한국의 대학생의 일본어 관련 전공자(이하,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 동기부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본어 학습을 시작한 이유”로서 전공자와 비전공자 양쪽 모두 가장 많았던 답변 1위는 ‘애니메이션, 만화, J-POP, 연예인에게 흥미’였고, 2위는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였다’가 공통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서의 1위는 전공자는 ‘전공이니까’, 비전공자는 ‘일본어·일본문학·일본문화에 흥미와 관심’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크게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어를 학습해서 장래에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1위는 ‘취업을 위해서’가 전공자 59.8%, 비전공자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石塚健(2007)는 한국인 대학생(일본어 전공자 71명, 비전공자 13명)의 일본어 학습 동기와 자율성이라고 하는 연구의 결과, “일본어 학습개시의 동기”로서는 일본 관련 동기(일본, 일본인, 일본어, 일본문화의 흥미)이고, “현재의 학습 동기”는 실용 관련 동기(성적, 자격, 취직, 진학을 위해)이고, “자기 결정의 단계”에서는 동일시적 조절단계가 가장 많았다. 田中洋子(2012)는 한국인 대학생의 일본어 학습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로서 외발적·내발적 동기부여와 통합적·도구적 동기부여를 모두 다룬 연구이다. 그 결과, 성적 상위군은 외발적·내발적 동기부여를, 성적 중위군은 통합적·도구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일본어 학습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어 학습자는 외발적 동기부여가 자율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고, 통합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일수록 일본어 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上田章子·滝口恵子·永野亜季·山田幸子(2014)는 한국의 대학교의 일본어 전공자의 일본어 학습 의식에 관해 연구한 결과, “일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서는 일본에 흥미가 있어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된 이유”는 일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에서 가장 어렵거나 간단한 항목”에 대해서는 문법과 듣기가 가장 많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일본어 학습을 하고 있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고 여기에 자기 결정이론의 단계성을 참고로 하여 분석을 한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자기 결정이론의 단계성의 장점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조절을 통해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먼저 일본어 학습 동기부여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자기 결정이론의 단계성에 입각해서 분석과 고찰을 하고자 한다.

### 3. 연구 개요 및 분석 방법

연구 개요는 대전의 W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일본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일본·일본어 관련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 동기부여”에 대해서 구글 폼을 이용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4월 9일~4월 25일이고, 조사 대상자는 총 152명으로 남자 104명(68.2%), 여자 48명(31.8%) 이다. 학습자의 일본어 레벨은 입문 95명(62.5%), 초급 39명(25.7%), 중급 19명(12.5%), 고급 7명(4.6%)이고, 학습 기간은 1년미만 82명(53.9%), 2년미만 31명(20.4%), 3년미만 17명(11.2%), 4년미만 5명(3.3%), 4년이상 14명(9.2%), 무응답 3명(2.0%)이다. 질문항목은 金元正(2018)을 참고로 하였고, 일본어 학습 동기부여의 선택지 질문 25개 항목과 자유 기술식 질문 4개 항목(Q1. 처음 일본어 학습을 시작한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 Q2. 현재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3. 일본어를 공부해서 장래에 어떻게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Q4. 현재 일본어 학습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로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은 선택지 질문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어느 쪽도 아니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5단계로 구글 설문지 폼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먼저 표로 작성을 한다. 자유 기술식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같은 답변에 대해 카테고리화를 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는 그래프로 작성한다. 그리고, 각 결과에 대해서 자기 결정이론의 단계성에 입각하여 비전공자들이 어떻게 본인의 상황을 조절하여 일본어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4. 결과와 고찰

일본어 학습 동기부여의 결과는 자기 결정이론의 단계성에 있어 자기 결정의 조절단계를 토대로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자기 결정의 조절단계는 “내발적 동기부여”의 ‘내발적 조절’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어가 좋다.’, ‘일본어를 학습하는 것이 즐겁다.’, ‘한국어와 비슷해서 배우기 쉽다’, ‘한일관계 (정치·역사 등)에 관계없이, 일본어 학습이 좋다.’, ‘일본인과 교류하고 싶다. (친구 사귀기 등)’, ‘일본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음악(J-POP)이 좋다.’, ‘일본 음식이 좋다.’, ‘일본에 여행 가고 싶다’, ‘친구와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일본어 수업시간이 즐겁다.’의 11개 항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일본과 일본인, 일본어, 일본 문화, 일본어 수업, 일본 음식 등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의무감이나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괴감(부과된 조절), 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감(외적 조절), 의무 등의 외발적 동기부여와는 다른 즐겁고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발적 동기부여의 내발적 조절로 자발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좋다’, ‘어학습득을 위해서이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싶다 (단기유학, 교환학생 등)’, ‘장래에 일본에 살고 싶다 (취직, 이민, 결혼 등)’의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의 조절단계의 “외발적 동기부여”의 ‘동일시 조절(자신에게 중요, 장래에 필요, 자아 성장과 자기계발)’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처음 일본어 학습을 시작한 이유(동기)”에 대해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J-POP’ 36명(23.7%)과 뒤를 이어 ‘일본, 일본어에 흥미·관심’이 33명(21.7%)은 자기 결정의 조절단계에 있어 일본과 일본문화, 일본어 등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일본어를 학습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학습한다고 하는 학습자의 내발적 동기부여의 내발적 조절로 분석이 된다. “현재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일본, 일본어 흥미·관심’ 38명(25%)과 뒤를 이어 ‘일본어 능력향상’ 32명(21%)은 자기 결정의 조절단계에 있어 흥미와 관심이 있고 좋으니까 학습한다고 하는 내발적 동기부여의 내발적 조절로 분석이 된다. “일본어를 학습해서 장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취업’ 32명(21.1%)과 뒤를 이어 ‘여행’ 28명(18.4%)은 일본어 학습의 시작과 계속의 동기부여와는 다르게 결론적으로 일본어 학습의 장래 활용은 결국 취업으로 연결되어 장래에 필요하니까라고 하는 외발적 동기부여의 동일시 조절과 취업을 고려하고 해야한다라고 하는 외적 조절을 함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여기에서 선행연구의 金元正(2018)에서는 ‘취업’이라는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자기 결정이론의 단계성에 있어 자기 결정의 조절단계를 토대로 분석·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과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일본어 학습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152명 중 ‘만족한다’라고 답한 학생은 137명(90.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13명(8.6%)으로 불만족에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불만족인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어렵다’, ‘수업 진도가 빨라 따라가기 벅차서 반 포기함’,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거 같지 않음’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기 결정의 조절단계인 내발적 동기부여의 내발적 조절을 통해 일본어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함으로써 학습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교수법이 될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즉, 자기 결정이론의 단계성에 있어 자기 결정의 조절단계의 ‘내발적 조절 또는 동일시 조절, 외적 조절’을 토대로 비전공자들에게 일본어 학습 시에 필요한 학습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일본어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参考文献】

- 최소영(2014)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상급 학습자에 대한 태도－제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의 관점에서－」 『日語日文学研究』 89집, pp.391-411
- 石塚健(2007) 「韓國人大学生の日本語学習動機と自律性－学年別の動機づけと自己決定の段階性を中心に－」 『日語日文学』 第36輯, pp.141-157
- 上田章子・滝口恵子・永野亜季・山田幸子 (2014) 「韓国における日本語専攻者の日本語学習意識－大邱(テグ)・慶北地域の大学生を対象に－」 『徳島大学国語国文学』 27, pp.87-103
- 金元正(2018) 「韓国における大学生の日本語学習動機づけの検討－日本語関連専攻者と非専攻者の比較－」 『日本文化学報』 第79輯, pp.279-298
- 田中洋子(2012) 「韓國人大学生の日本語学習動機づけに関する研究」 韓國外国語大学校大学院, 博士学位論文
- Deci, E. L. & Ryan, R. M.(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OSIS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2024.8.17.)
- DATA.GO.KR공공데이터포털 「한국산업인력공단\_해외취업통계정보」 <https://www.data.go.kr/index.do>(검색일:2024.8.17.)



## 日本文学 分科 I



## 横光利一「蠅」論

－ 映画的リアリズムの手法－

早澤正人(仁川大)

### 1. はじめに

東浩紀は、その著書『ゲーム的リアリズムの誕生』（講談社現代新書 2007）において、最近のライトノベルなどの日本の小説の傾向を分析して「ゲーム的リアリズム」と呼び、それ以前の「自然主義的リアリズム」と区別した。

ここで東が「自然主義的リアリズム」と呼んでいるのは、坪内逍遙以降、日本文学が目指して来た〈現実を忠実に再現したリアリズム〉の事をいう。いわば、徳富蘆花「自然と人生」（民友社、1900）や、国木田独步「武蔵野」（「国民之友」1898.1～2）などで描かれたような、現実世界をそのまま模写し、読者がそれを追体験できるようなリアティーのことである。耽美派や白樺派などという反自然主義運動もあるが、原則的には現実世界を基盤としている。

これに対し「ゲーム的リアリズム」というのは〈漫画やゲームなどの世界を再現したリアリズム〉をいう。たとえば、「All You Need Is Kill」というライトノベルでは、主人公のキラヤがギタイとの戦いに勝利するまで、何度も同じ毎日がループされる世界にタイムスリップしてしまう話が描かれているが、このように何度も話がリセットされる設定は、ゲーム的な世界観の反映であるという。もちろん、この作品だけではない。他にも話がセーブされたり、リセットされたり、複数の選択肢が登場したりするRPGのような世界観をベースにした小説は、特に80年代以降、ポストモダンといわれる現代において、増えてきているという。

もっとも、メディア媒体を小説の再現の対象とするという試みは「ゲーム的リアリズム」が初めてではない。大正モダニズム期の日本においても、既に存在していた。結論からいえば、映画（活動写真）というメディアを再現したような「映画的リアリズム」とでも呼ぶべき作品である。具体的には、芥川龍之介の「浅草公園」（「文芸春秋」1927）や、川端康成の「招魂祭一景」（新思潮）1921）などがあげられるが、なかでも、特に横光利一の「蠅」（「文芸春秋」1923）は、その最初期のものの一つであり、「映画的リアリズム小説」の代表格といえるだろう。

実際「蠅」は映画のような作品だといわれている。早くに小林秀雄（1931）は「蠅」の視線が「肉眼」ではなく、「擬眼」であると説き、由良君美（1977）は、「横光は映画のもつ広大な未来に対して、鋭い理解を示していた。」としたうえで、「新感覚派時代の彼の文体の秘密の多くは、この、作者がカメラとなって、客体を感じし、それを稀有の言語形式に凝集せしめたことに、その大体の秘密はあった」と述べている。そして、その「カメラ・アイ」の手法を分析したことで、「蠅」は映画的手法を取り入れた作品であるとの認識を示した。その流れを受けて、小森陽一（1983）は「蠅」の視線の運動が「緊張」と「弛緩」を繰り返すというパターンになっている事を指摘し、「蠅」は「文体のドラマ」であると帰結。カメラ・アイを駆使した映画的作品であるという認識は、今では定説となっている。

もちろん、筆者も横光利一の「蠅」が、映像的手法によった作品であるという上記の定説に異議を唱えるつもりはない。しかし、先行研究への不満があるとすれば、映像的手法が「カメラ・アイ」や「モニター・ジュ的技法」の言及程度に留まっていて、それ以上の展開が、あまりみられないことである。田口律男（2008）も述べており「『蠅』という言葉テキストが映画的にみえたとすれば、それはなんらかの『語り』（物語行為）の操作がそうさせている」のである。

では、「蠅」では、どのような「操作」が行われているのか。本稿は「蠅」のもつ映画のリアリティーが、一体どのような手法によって生み出されているのか、考察するものである。

## 2. 無声映画的な演出

「蠅」は、全十章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る。このうち「一」と「九」「十」に蠅が登場してくるが、もっぱら「一」（冒頭）と「十」（結末）が照応的な関係になっていて、額縁のような形式になってい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すなわち「一」（冒頭）が、空虚な厩の隅で、蜘蛛の巣につかまっていた蠅が、豆のようにぼたりと落ちるシーンであるのに対し、「十」（結末）は崖から落下していく人馬と対照的に、蠅だけ空に向かって飛んでいくというシーンになっており、「落下（一）／飛翔（十）」という形の対応関係になっている。そこでまずは額縁となる「一」と「十」の場面について見てみよう。

「一」（冒頭）の書き出し部分は次のようになっている。短いので、全て引用してみたい。

真夏の宿場は空虚であつた。ただ眼の大きな一疋の蠅だけは、薄暗い厩の隅の蜘蛛の巣にひつかゝると、後肢で網を跳ねつゝ暫くぶら／＼揺れてゐた。と、豆のようにぼたりと落ちた。さうして、馬糞の重み斜めに突き立つてゐる藁の端から、裸体にされた馬の背中まで這い上がつた。

この場面では、まず「空虚」という言葉で〈静寂〉が強調され、その後、蠅が「ぶら／＼揺れてゐた」とあり、また〈静寂〉を思わせる描写になっている。

蠅の動きについては、かなり詳細に描かれている。すなわち「ぶら／＼揺れてゐた」→「ぼたりと落ちた」→「馬の背中まで這い上がつた」といった具合に、静かではあるが、動作それ自体には、かなりの変化がある。小森陽一は、この場面に「広角のロングショット」→「クローズアップ」→「フルショット」→「一定のショットサイズ」という「カメラ・アイ」の動きを指摘しているが、そうした視点の運動によって描出されているものは、蠅の忙しい動きであろう。

つまり、聴覚的なレベルでは「静」であるのに対し、視覚的レベルでは「動」なのである。そのことから、冒頭部は音のない世界で蠅の動きを目だけで追う「無音のドラマ」（蜘蛛の巣にとらわれた蠅の生還のドラマ）になっていると指摘出来る。

次に「十」をみよう。

馬車は崖の頂上へさしかかった。（略）突然、馬は車体に引かれて突き立った。瞬間、蠅は飛び上っ



た。と、車体と一緒に崖の下へ墜落して行く放埒な馬の腹が眼についた。そして、人馬の悲鳴が高く一声発せられると、河原の上では、押し重なった人と馬と板片との塊りが、沈黙したまま動かなかった。が、眼の大きな蠅は、今や完全に休まったその羽根に力を籠めて、ただひとり、悠々と青空の中を飛んでいった。

これは「蠅」のラストシーンになる。ここでは一応、「人馬の悲鳴が高く一声発せられる」などという聴覚表現があるが、「語ること (telling)」(G・ジュネット) という叙法で、説明的に語られているため、場面喚起力がない。(この場面を描写しようとするなら、もっと人々の断末魔(会話)や人馬が崖から落ちていく様子や騒動が、より迫真的に詳細に描かれる筈である。)ここでの情景も、やはり無音とっていい。

しかし、冒頭部と同様に、視覚的レベルでは、人馬が崖から落ちていくという大きなアクションがあり、動作自体には変化がある。つまり、この場面も聴覚的なレベルは「静」であるのに対し、視覚的レベルでは「動」である。音のない世界で、墜落する人馬と飛んでいく蠅の動きを目だけで追う「無音のドラマ」である。

以上、「一」(冒頭)と「十」(結末)を見てきたが、両者に共通するのは、「無音性」であり、またそのような点に、読者が「無声映画(サイレントムービー)」的な印象を受ける原因の一端があるのだと考える。

### 3. 〈地の文／話の文〉の交換

前章では「蠅」の冒頭部分と結末部分が「無音」であり、無声映画(サイレントムービー)のような印象になっている事を指摘したが、続く「二」以降になると、人物の会話や音の描写も入ってくるようになる。「種蓮華を叩く音」や「牛の泣き声」などがそれである。ここは若干トキー的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また、地の文による語り手の説明などが入る箇所もあるので、弁士の存在も多少考慮にいたれた方がいいのかもしれない。が、それでも「蠅」は、原則的に「無声映画(サイレントムービー)」の世界観で展開されていると考える。どうしてか。以下、その考察に入ろう。

次に引用するのは「三」の場面である。

「馬車はまだかのう？」

彼女は馭者部屋を覗いて呼んだが返事がない。

「馬車はまだかのう？」

盥んだ畳の上には湯飲みが一つ転っていて、中から酒色の番茶がひとり静に流れていた。農婦はうろと場庭を廻ると、饅頭屋の横からまた呼んだ。

「馬車はまだかの？」

「先刻出ましたぞ。」

答えたのはその家の主婦である。

「出たかのう。馬車はもう出ましたかのう。いつ出ましたな。もうちと早よ来ると良かったのじゃが、もう出ぬじゃるか？」

農婦は性急な泣き声でそういう中に、早や泣き出した。が、涙も拭かず、往還の中央に突き立って  
てから、街の方へすたすたと歩き始めた。

「二番が出るぞ。」

ここで注意したいのは、会話におけるリフレインの多用である。すなわち「馬車はまだかのう？」→「馬車はまだかのう？」→「馬車はまだかの？」という同じフレーズのリフレイン——また、「出たかのう」→「もう出ましたかのう」→「いつ出ましたな」→「もう出ぬじゃろか？」という韻律（リズム）をもった言葉のリフレインが、この場面の特徴といっている。

同じ言葉を反復させる技法は、詩歌などでよくみられるもので、音楽的に調子を整えたりする効果を持ってい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が、この場面でも、同じセリフを何度も反復させることによって、芝居の掛け合いのような対話となっている。もっとも、それだけではない。〈地の文〉を合間合間に挟みこむことによって、〈地の文/話の文〉の交換によって生まれるリズムもある。（ちなみに、本作の〈地の文〉は少し変更すれば、容易にト書きになりうるものである）

こうした場面は「自然らしさ」に乏しい。作者による人為的なデフォルメを施した痕跡がみられるからであり、それによって芝居の掛け合いのような人工的に作られた場面の印象となるからである。もう一つ例をあげる。

宿場の場庭へ、母親に手を曳かれた男の子が指を銜えて這入って来た。

「お母ア、馬々。」

「ああ、馬々。」男の子は母親から手を振り切ると、厩の方へ馳けて来た。そうして二間ほど離れた場庭の中から馬を見ながら、「こりゃッ、こりゃッ。」と叫んで片足で地を打った。

馬は首を擡げて耳を立てた。男の子は馬の真似をして首を上げたが、耳が動かなかった。で、ただやたらに馬の前で顔を顰めると、再び、「こりゃッ、こりゃッ。」と叫んで地を打った。

馬は槽の手蔓に口をひっ掛けながら、またその中へ顔を隠して馬草を食った。

「お母ア、馬々。」

「ああ、馬々。」

この場面も、先ほどと同様である。「お母ア、馬々。」「ああ、馬々。」→「お母ア、馬々。」「ああ、馬々。」というリフレイン、「こりゃッ、こりゃッ。」→「こりゃッ、こりゃッ。」という同じセリフのリフレイン。——また、「馬は首を擡げて耳を立てた」→「男の子は馬の真似をして首を上げた」という同じ文型のリフレインも、文章を韻律的に整える効果がある。

このような文章によって想起される世界は、少なくとも「話すように書く」文体で、自然らしさ・現実らしさを再現しようとするリアリズム世界とは、性質が異なってしまう。これもやはりデフォルメの施された人工的な場面とみるべきである。

いったい、大正時代の「活動写真」（映画）というのは、人物のセリフや梗概などは、文字（文章）を映像で写す形で表現していたので、会話シーンがあるからといって、直ちに音声と結びつくわけではな

い。〈地の文〉と〈話の文〉を映像化させて交互にテンポよく交換させる手法によって、場面に音楽性（リズム）を生み出すことも可能である——「蠅」における場面の音楽（リズム）性も聴覚というより、そのような視覚（映像の交換）を利用した方が効果的に機能すると考える。

以上のように、「蠅」の登場人物の〈話の文〉は反復表現が多く、自然らしさに乏しい。芝居の掛け合いのような形にデフォルメされており、作品世界を「異化」し、人工的な印象を与える。また、登場人物の会話は聴覚的というより、字幕的（視覚的）でもある。無声映画で、映像と文字（セリフ）とが交互に写される時、〈地の文〉と〈話の文〉の交換による場面のテンポが生まれるのである。この作品は原則として「無音」と考える。

#### 4. 無機質な視線

ところで、ここで少し内容に目を向けてみたい。——周知の通り「蠅」という物語は、様々な事情を抱えた人達が、馬車に集まってくる話である。具体的にいうと、農婦、若者と娘、母親とその子、田舎紳士である。彼らはみな何らかの事情を抱えている。すなわち、農婦は「危篤の息子」の元へ行くという事情、若者と娘は駆け落ちという事情、田舎紳士は商売で設け未来を夢みるという事情などである。

こうした事情は「物語（ドラマ）」と言い換えてもいい。馬車に駆けつける人達は、それぞれの物語（ドラマ）を抱えているのである。そうして、次のようなセリフが盛んにリフレインされる。

「馬車はまだかのう？」→「馬車はまだかのう？」→「馬車はまだかのう？」→「出たかのう」→「もう出ましたかのう」→「いつ出ましたな」→「もう出ぬじゃろか？」→「出るかの。」→「直ぐ出るかの。」→「いつ出しておくれるのう」→「馬車はもう出たかしら」→「馬車はいつ出るのございんしょうな」→「もう出るのございんしょうな」→「出ませんか」→「出ませんの」→「出ませんぞな」→「馬車はまだなかなか出ぬじゃろか？」→「馬車はいつになったら出るのだろう」

何度も同じ言葉を繰り返すのは、心理学的には無意識から来る強迫観念的な衝動といえようが、E・K・ブラウンも述べているように、反復とは「力の増幅」でもある。「馬車はまだ出ないのか」という内容のフレーズを反復することによって、「馬車を早く出してくれ」という緊張と圧力が増幅していく。

もともと、こうした人々に対して、馭者はまったく同情しない。まるで「他人事」のように、饅頭の出来るのを待っている。ちなみに、この馭者のもつ「非情さ」は、本作の語り手も持ち合わせているものである。

「乗客の誰に対しても語り手は感情移入をしたり、寄り添うような語り方をしない」（丸山義昭）といわれるように、この語り手は登場人物の心理については殆ど語らず、ただ、淡々と、人工的に整序された映像的世界（台詞含む）を語るのみである。——さらにいうと、この後、再び登場してくる蠅も同じである。この後、居眠りして崖下に落下していく人馬の惨劇に対して、虫である蠅はまったく拘泥する様子をみせない。

従って「「出発を訴える乗客」に感情移入しない馭者」に感情移入しない蠅」に感情移入しない語り手」といった具合に、本作は情動的にメタ・レベルにあるものが冷淡である。こうした冷淡さ——出来事を他人事のように眺める視線が、本作に対する、どこか無機質で機械（カメラ・アイに代表される）に似た

印象を生む一因になっているのだろう。「蠅」の語りは、少なくとも現実を生き生きと描きとる「臨場感あふれる表現」（片山礼子）などとは異質なものである。そして、こうした無機質で人工的な語りの形式は、そのまま内容の問題にも重なってくる。最後に「蠅」の主題について考えてみよう。

## 5. 「他者」としての蠅

見てきたように「蠅」という作品は、冒頭と結末部における無音性や、中盤部におけるリフレインを駆使して音律を整えた人工的場面、作品世界に対して感情移入しない無機質な語り手の視線などによって、「自然らしさ」とは異なる世界が展開されている。本作の無機質なまなざしは、どちらかというと映画のカメラに近いものとして、作品世界の「自然らしさ」を「異化」しているともいえる。

では、このような形式によって語られる作品世界は、最終的にどのような結末を迎えるのかというと、先に少し述べてしまったが、馭者の居眠りによって人馬もろとも崖下に転落していくことになる。ただ、蠅だけは飛び立っていくというむすびになる。

こうした本作の結末をめぐるのは、ずいぶん様々な論が提出されている。いくつか紹介すると「人間と非人間の主客の逆転」（高橋幸平）、「人間の生命の不安と未知」（岩上順一）、「人間の存在というものが、いかに不安な、〈みじめな〉ものであるかが、この作に〈象徴〉」されている（保昌正夫）、「次の瞬間にはどのようなことが起こってゆくかわからない不可知な人生の姿」（長谷川泉）というように、「不条理な運命」や「生命の不安」を指摘するものが多い。

こうした読みは、人馬と蠅を対照化して、そこに意味付けをしていく作業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あろうが、実際、ここで蠅は人馬（特に人間）の世界を相対化していく機能をもっ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居眠りする馭者の馬鹿げた失策のために、一瞬のうちに最悪の災難に見舞われる結末」という「不条理」（菅野昭正）、「初期的な作品世界からの跳躍を試みた横光利一の精神的位相」（梶木剛）、「中身を欠いた〈空虚〉さだけが浮かび出る」（二瓶浩明）などという定説も、崖下に転落していく人馬を蠅が相対化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可能になる。

では、人間の世界に蠅を対置させることによって、本作が描こうとしているものは何か。筆者なりの見解を先に述べてしまうと、それは無感情的・無価値的な蠅という存在のもつ「他者」性ではないだろうか。ここでいう「他者」とは我々と言語ゲームを共有しないもの——理解不能な外部の意味である。あるいは無意味（ナンセンス）的な視線とっていいかもしれない。なぜなら、我々（人間）は、常に意味（センス）にとらわれているから。

野毛啓一の言を俟つまでもなく、人間は物語化したがる生き物である。歴史も人生も物語であり、そこに何らかの意味付けをしたがる。それが人間であり、人間的な営みでもある。本作で馬車を待つ人たちもまた、皆、それぞれの人生に物語（ドラマ）を抱え、「馬車はまだ出ないのか」と、何度も強調していた。しかし、そのような人間の物語（ドラマ）は成就することなく、偶然によって崩壊してしまう。そして、それとは対照的に、無感情・無価値と思える蠅だけが生き残るのである。

もともと、そのように蠅が生き残って、人間たちが死んでいくことに「意味」を求めてはいけなのだろう。強いて意味を問うならば、この「無意味さ」こそが、本作のもつ「意味」である。——いったい、人間がどのような物語（ドラマ）を抱えていようと、そこに「意味」があると思込もうと、それは人間たちが勝手に価値のあるものと思込んでいるだけであって、我々の外側（他者）の視点から相対化し、折り返して眺めてみれば、そのようなものに価値はない。無意味（ナンセンス）である。人間が生きたり、死んだりすることに、はじめから「意味」はない。それは蠅が生きたり死んだりする事と等価である。

本作は人間と対峙させることによって、我々（人間）の意味づけ（物語化）しようとする欲動を拒絶する、無意味（ナンセンス）な——あるいは、言語化すら超えた、不思議な存在としての「他者」（＝蠅）が立ち上がってくるテキストなのだろう。

## 6. むすびに

今回、筆者は「映画的小説」をキーワードにして、その代表格ともいえる横光利一の「蠅」を分析した。内容を簡単に確認すると、映画のカメラのような無機質な視点によって「異化」された、人工的で無音の世界——リフレインを駆使して音律を整えた「自然らしさ」と異なる世界において、本作は人間的な意味付け（物語化）を拒絶する「他者」としての不思議な蠅の姿を描いたテキストになっているという事であった。

さて、最後にこのような文学が生まれて来た文学史的背景と、筆者の今後の展望を述べて、むすびにかえよう。そもそも、大正時代の文学というのは、反自然主義文学運動から始まった。それは官能美や幻想を重視する耽美派であったり、道徳や理想主義を重視する白樺派であったり、理知や技巧を重んじる新思潮派であったりしたわけであるが、そのような反自然主義運動も、結局は自然主義の延長である私小説や心境小説という方向で収斂され、落ち着こうとしていた。

筆者の理解では、そうした従来の文学を一新すべく、新しいスタイルの文学が待望されていたなかで、登場してきたのが、「新感覚派」になる。彼らはヨーロッパの前衛芸術（未来派、構成派、ダダイズム、超現実派）の影響を受け、〈自然に従属する個人〉ではなく、〈個人の意志を超えたもの〉の立場から自然を新たに再構成するような文学を目指していた。〈個人の意志を超えたもの〉とは、具体的には、無意識であったり、オートポイエーシスであったりするわけであるが、そのような創作意識の中で、「映画」とか「カメラ」といったものが、現実を「異化」し、新しく表現するために適した表現媒体だったことは想像にかたくない。

今回、発表した「蠅」にみられるのも、人間の心の内奥にある「無意識」の領域から出てきて、強迫観念のように反復（リフレイン）される台詞や、〈地の文／話の文〉をテンポよく交換させることで作り出す音楽的な構成、登場人物の内面をほとんど語らずに、淡々と語っていく無機質でカメラ的な視線など——従来の「自然らしさ」を重視した文学とは、一線を画す作品となっている。

もともと、こうした創作意識は、横光利一だけに限ったものではない。同時代でいえば、芥川龍之介や

川端康成なども持っていた。たとえば、芥川は「保吉物」という私小説を書く一方で「浅草公園」のような、フロイトの自由連想法を利用したような「映画」を媒体とする新しい現実を表現しようとしていた。しかし、芥川が〈個人の意志を超えたもの〉を前にして、「歯車」のような強迫観念や激しい虚無に襲われ、自殺していったのに比べ、横光利一や川端康成は、なぜ芥川とは異なり、死や狂気へと向かわなかったのか。この問題に、筆者の現在の関心はある。

今後は「映画」だけでなく、前衛時代の横光利一の他の手法や新感覚派の他の同人のスタイルについて、もっと考察の裾野を広げつつ、モダニズム時代の文学について探求しながら、芥川から横光への文学史的な流れについて再検討を加えてみたい。

## 【参考文献】

- 東浩紀 (2007) 『ゲーム的リアリズムの誕生』 講談社現代新書  
岩上順一(1956) 『横光利一』 東京ライフ社 p.16  
片山礼子 (2010) 「横光利一『蠅』論」 『旭川国文 21・22』 p.22  
梶木剛 (1979) 『横光利一の軌跡』 国文社 p.17  
小森陽一 (1983) 「横光利一『蠅』」 『国語通信 258』 pp14-17  
菅野昭正(1991) 『横光利一』 福武書店 p.45  
高橋幸平 (2008) 「横光利一『蠅』の主題」 『国語国文 77-11』 p.50  
田口律男 (2008) 「語り VS カメラアイ」 『国文学解釈と鑑賞 73-7』 pp.54-61  
二瓶浩明(1991)「『蠅』の『構図』——横光利一、『眼の大きな』『饅頭は』『空虚であつた』——」 『文芸研究 126』 p.54  
長谷川泉 (196) 「蠅(2) —横光利一—」 『国文学 13-5』 pp.156-157  
保昌正夫 (1966) 『横光利一』 明治書院 p.65  
丸山義昭 (2009) 「横光利一『蠅』の語りをどう読むか」 『日文協国語教育 39』 p.49  
由良君美 (1977) 「『蠅』のカメラ・アイ」 『横光利一の文学と生涯』 桜楓社 pp.15-30  
G・ジュネット(1985)『物語のディスコース』 花輪光・和泉涼一訳, 書肆風の薔薇 pp.187-196  
E・K・ブラウン(1969)『小説をどう読むか』 米田一彦訳, ダヴィッド社

## 일본 추리소설에 나타난 가족 개념의 변용

-히가시노 게이코의 『희망의 실』을 중심으로-

박수현(우송대)

### 1. 들어가기

2019년 2월 14일, “성별을 불문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률상 성별이 같은 커플이 결혼할 수 없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첫 소송<sup>1)</sup>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호적법과 민법에 따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이성애 간 ‘혼인’과 ‘혈연’을 소위 정상 가족이자 표준가족 담론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온 사회 인식에 균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를 포착하여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히가시노 게이코(東野圭吾, 1958~ 이하 히가시노)의 『희망의 실(希望の糸)』(講談社, 2019)이다.

가가 교이치로(加賀恭一郎, 이하 가가) 시리즈 11번째 작품이자 레와(令和)시대 첫 장편 소설인 본 작품은 의사의 실수로 인해 하나즈카 야요이(花塚弥生, 이하 야요이) 부부의 수정란을 이식받아 비혈연의 아이를 낳게 된 시오미 유키노부(汐見行伸, 이하 유키노부) 부부의 삶과 수정란의 주인인 야요이가 살해당한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이 사건의 담당자는 가가 교이치로(加賀恭一郎, 이하 가가) 형사와 그의 사촌동생이자 후배 형사인 마쓰미야 슈헤(松宮脩平, 마쓰미야)인데, 특히 시리즈 6편에서 처음 다루어졌던 마쓰미야의 가정사가 친부와 이복 누나의 등장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나타난다.

작품에 대한 학술 논문은 부재하여 기사, 서평 등을 통해서만 평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족의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입장<sup>2)</sup>과 가족, 혈연, 사랑, 유대를 키워드로 하여 가족의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시각<sup>3)</sup>으로 통분된다. 이러한 평은 표준가족 형성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혼인’과 ‘혈연’에 집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에는 혈연/비혈연으로 이루어진 부모-자식 및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이성애 혼인하여 이룬 가정 등 기존에 정상 가족으로 여겼던 유형과는 다른 형태의 설정이 등장하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모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지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품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 가족 조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품에 내포된 메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裁判情報 <https://www.marriageforall.jp/plan/lawsuit/> (검색일 : 2024.03.15.)

2) 사회과 미스터리의 대부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코, 최근작 ‘희망의 끈’으로 역대급 반전과 치밀한 인간 내면 심리 선보여 - CIVICNEWS(시빅뉴스) [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15](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15) (검색일 : 2023.08.10.)

3) 『希望の糸』東野圭吾著「人と人の絆」問う物語

<https://www.sankei.com/article/20190818-XKNC2LAG45JQLACHCDMDXFZBVA/> (검색일 : 2023.11.25.)

## 2. 작품에 투영된 히가시노의 ‘가족’에 대한 인식

패전 후 일본사회는 1950년대 후반 무렵부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변동은 ‘가족’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1차에서 2차로 산업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대거 유입되었고, 이들이 이룬 핵가족이 사회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즉 성별 분업된 부부와 두 명 정도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일본 사회에서 표준적인 가족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사회학자인 야마다 마사하루(山田昌弘)가 ‘전후가족 모델’<sup>4)</sup>이라고 명명한 이 핵가족은 일본의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버블 경제의 붕괴와 그 후의 장기 불황, 2000년대의 신자유주의 정책 등 우상향 하던 경제의 흐름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면서 표준 가족 형태에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sup>5)</sup>이 굳건히 자리했던 일본 사회는 변형된 가족의 증가 현상을 ‘가족의 붕괴’이자 ‘가족의 위기’라는 부정적인 언설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히가시노는 작품에서 편부모 가족, 조손(祖孫) 가족, 사실혼 부부, 1인 가족 등 표준가족에서 벗어난 형태 및 가족 구성원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그리며 사회 분위기와는 다른 시각으로 담아냈다. ‘가족’에 대한 히가시노의 생각은 2019년, 작가 생활 35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족의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전략) 처음에 언급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외롭다고 말하는 건 난처합니다. 혼자서 즐겁다, 혼자서 편하다, 그럼 OK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양이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부류도 괜찮다고 봅니다.<sup>6)</sup>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의 범주를 넘어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는 히가시노의 생각은 가족의 형태 및 그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희망의 실』에도 투영되어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는 작가의 생각이 “시대를 진단하고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는 하나의 틀이자 장으로서 기능하고 위치”<sup>7)</sup>하는 ‘가족’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이러한 핵가족 형태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가족의 전후체제’라고 한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恵美子), ‘근대가족’이라고 한 시부야 아쓰시(渋谷敦司), 그리고 야마다 마사하루는 ‘전후가족 모델’이라고 언급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야마다가 주장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5) 김희경(2022)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아시아, p.14.

6) 東野圭吾作家生活35周年祭)実行委員会(2020) 『作家生活35周年ver.東野圭吾公式ガイド』 講談社, pp.298-299.

7) 이행미 외(2022) 『재난 시대의 가족』 한국학술정보, p.214.



### 3. ‘혈연’의 굴레를 넘는 가족

유키노부의 아내인 레이코(玲子)는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설정이기에 주로 유키노부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데 그는 부모와 자식을 잇는 ‘혈연’을 가치의 우위에 두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체외 수정으로 임신을 시도한다. 그런데 아내가 힘겹게 임신에 성공한 어느 날, 실수로 타인의 수정란을 이식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고백을 듣게 된다. 유키노부는 검사 후 혈연이 아닐 경우 낙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레이코의 굳은 의지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딸 시오미 모나(汐見萌奈, 이하 모나)를 출산하기에 이른다. 그는 타인의 수정란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줄곧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진심으로 모나의 행복과 건강을 빌며 지극 정성으로 키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은 친자식과 모나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마음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거나, 혼인 중에 아내가 낳은 딸이니 모나는 자신의 친자식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모습을 보인다.<sup>8)</sup> 작품은 유키노부가 딸과 시간, 공간, 경험을 축적하며 형성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부모와 자식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를 ‘혈연’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유키노부에게 딸과의 가교 역할을 하던 아내가 죽자 모나의 생물학적 친부모를 찾아 돌려보내는 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고민 끝에 출생에 얽힌 비밀을 밝힌 유키노부에게 전한 모나의 대답은 그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이었다. 즉 모나는 수정란, 유전자 등 혈연과 관련된 요소들을 본인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전한다. 작품은 부모와 자식이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았더라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강한 연대를 맺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음을 모나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본 작품 이전에 발표된 『빠꾸기 알은 누구의 것(カッコウの卵は誰のもの)』(『バーサス』2004년10月号~2005년12月号, 2006년2月号, 3月号, 『小説宝石』2006년12月号~2008년2月号)에서도 죽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인줄 알았으나 사실은 비혈연 관계였음을 알게 된 아버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출생의 비밀을 밝히려다가 결국에는 함구하게 되는 설정이기에 가족 관계에 일말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으며, 사실을 알게 된 자녀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렵다. 그러나 『희망의 실』은 출생에 얽힌 사연을 알게 된 모나가 그 사실을 해석하고, 수용하여, 자신의 가족을 가족으로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에 대해 새롭게 정의 내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비혈연 확대 가족’, ‘가족의 개방화’와 같은 새로운 가족관이 확산 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흐름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가족 개념에 대한 변화를 여실히 반영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up>8)</sup> 일본에서는 혼인 중인 아내가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면 혈연관계의 증명을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적출추정제도(嫡出推定制度)에 따른다고 민법으로 정하고 있다.嫡出推定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東京都府中市ホームページ (city.fuchu.tokyo.jp) 참고 (검색일 : 2024.07.30.)

#### 4. ‘성(性)’의 굴레를 넘는 가족

히가시노는 한 인터뷰에서 “사회파를 의식한 건 아니지만, 리얼리티를 추구하다 보면 현대성이나 사회성이 작품에 반영되는 건 당연하다”<sup>9)</sup>고 밝혔다. 여기에서 그가 일본 사회의 ‘현재’가 녹아있는 ‘리얼리티’를 작품에 담아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2006년 『붉은 손가락(赤い指)』(2006, 講談社)에 처음 등장했던 마쓰미야의 가정사를 13년 만에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은 과거와 비교하여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가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마쓰미야의 이복 누나인 요시하라 아야코(芳原亜矢子, 이하 아야코)의 시선을 따라 이들 가족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아야코는 요시하라 마사쓰구(芳原真次, 이하 마사쓰구)와 마사미(正美)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동성 연인이 있었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및 후계자를 들여 가업을 계승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기에 마사쓰구와 결혼했다. 마사미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혼인’과 ‘출산’을 했지만, 세상의 눈을 피해 연인과의 관계를 지속했고 결국 마사쓰구에게 자신의 비밀을 밝히며 이혼을 청했다. 아야코는 이러한 사실을 어머니 연인의 여동생에게서 받은 커플 교환 일기를 통해 알게 된다. 어머니의 비밀을 처음으로 알게 된 아야코는 마사미의 동성애에 대해 “정열적이고, 순수하고, 감미롭지만 조금은 고통스러운 것”이라 평가하며 그 마음을 헤아려준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지”라며 죽은 두 사람을 위로한다. 그리고 “엄마의 삶의 방식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고 읊조리며,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모두(冒頭)에서 밝혔듯이, 본 작품이 발표되었던 2019년에는 동성애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혼인을 금지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해이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이 사회의 음지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발산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관련 담론이 커지고 있는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은 다음 세대인 자녀가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해주는 상황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변화하고 있는 시대와 사회적 인식을 투영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죽음의 압박한 마사쓰구가 작성한 유언장에 마쓰미야의 이름이 인지(認知)<sup>10)</sup>된 것을 보고 처음 자신의 가정사를 알게 된 아야코는 마쓰미야를 찾아 나선다. 그는 마사쓰구가 아내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시기에 만났던 마쓰미야 가쓰코(松宮克子, 이하 가쓰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다. 그런데 가정이 있었던 마사쓰구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지자 남편이자 아버지, 데릴사위인, “본래 그가 돌아가야 할 장소”로 복귀한다. 훗날 마쓰미야의 존재를 알게 되지만, 가쓰코에게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던 날 딱 한 번 만났을 뿐 평생을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인지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죽음 이후 서류상에서만이라도 부자 관계로 남겨지기를 바라는 바람

9) “미스터리란 바로 이런 것” 101번째 소설 낸 日거장의 비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887> (검색일 : 2024.07.30.)

10) 미혼부와 그 자녀에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성립시키는 제도이다.

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은 아야코가 마사쓰구가 생존해 있는 동안 부자(父子)가 상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부모 각자의 ‘사랑’ 그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을 통해 이성 간 연애와 혼인만이 정답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고자 한 시선을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나가기

본 작품에서는 비혈연 가족, 동성애 등 기존에 표준의 범주 밖에 있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 가족을 살펴보았다. 시공간, 경험을 공유한 딸을 사랑하면서도 ‘혈연’이라는 가치를 우선시 했던 유키노부는 가족 형성의 조건이 사회가 줄곧 주장해왔던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자 유대’임을 딸을 통해 깨닫게 된다. 또한 40년 만에 자신의 가정사와 부모의 사랑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아야코는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데, 이는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동성의 사랑까지도 연인, 혼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작품은 상식이자 표준이라고 여겨왔던 것을 따르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시선을 갖는 자식 세대를 보여주며,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이성간 온인’, ‘혈연’을 넘어선 보다 다양한 요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다성사회(多声社会)와 번역자의 역할

-다와다 요코의 「동물들의 바벨(動物たちのバベル)」을 중심으로-

최정기(충남대)

### 1. 들어가기

「동물들의 바벨(動物たちのバベル)」은 2013년 문예지 『스바루(すばる)』 8월호에 처음 발표되었고, 2014년 간행된 작품집 『헌등사(献灯使)』에 수록된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 1960~), 이하 ‘다와다’라고 함)의 회곡이다. 다와다는 국제 바벨 프로젝트<sup>1)</sup>에 참여하기 위해 이 회곡을 창작하였다. 작품은 2013년 연극으로 초연<sup>2)</sup>되었고, 그녀는 공동 연출자로 각색 및 연습 과정을 함께 하였다. 이처럼 다와다가 회곡 창작과 작품의 연극 공연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대를 ‘다성사회(多声社会)’<sup>3)</sup>를 반영하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성사회는 문자 그대로 ‘복수의 소리(複数の声)’ 및 ‘복수의 언어(複数の言語)’가 울려 퍼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복수의 소리 및 언어는 현실적으로 종종 서로 조화되지 않고 불협화음을 낳으며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부조화 속에서 다양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다성사회의 모습은 현실 세계의 반영이다. 따라서 다성사회에 대한 다와다의 관심은 현실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회곡 「동물들의 바벨」에도 다성사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갈등 해결과 소통을 위해 번역자를 선출하는 서사가 전개된다.

「동물들의 바벨」의 선행연구로 일본의 독문학 연구자들의 논문이 몇 편 있는데, 고시카와 에리(越川瑛理)<sup>4)</sup>는 작품의 독일어본과 일본어본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시미즈 도모코(清水知子)<sup>5)</sup>는 타자로서의 동물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였고, 다니구치 사치요(谷口幸代)<sup>6)</sup>는 동일본대지진 및 이후의 피재지(被災地)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한편 일문학계의 작품 연구는 드문 편으로, 다와다가 언급한 다성사회의 관점에서 주목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발표는 다성사회가 현실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동물들의 바벨」에 나타난 다성사회의 모습과 번역자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1) [http://www.gekidandora.com/kako/hanna\\_no\\_kaban/cast\\_staff](http://www.gekidandora.com/kako/hanna_no_kaban/cast_staff) 참조. 국제 바벨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의 연출가인 모니 요셉(Moni Yosef, 1957~)에 의해 제창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초안으로 하여, 다른 나라 극작가나 배우들의 참여와 창작을 유도하고 있다.

2) 「동물들의 바벨」은 2013년 8월 도쿄 료코쿠(两国)의 씨어터 카이(シアターX)에서 연극으로 초연되었다.

3) 多和田葉子(2021) 「多声社会としての舞台」, 『多和田葉子の＜演劇＞を読む一切拓かれた未踏の地平』, 論創社, pp.129~145. 참조.

4) 越川瑛理(2016) 「『越境文学』を望む—多和田葉子の Mammalia in Babelと『動物たちのバベル』」, 『日本独文学会研究叢書』 113号, 日本独文学会, pp.52~66.

5) 清水知子(2018) 「動物と亡霊—破局の時代の生存のエクリチュール」, 『ドイツとの対話 <3・11>以降の社会と文化』, せりか書房, pp.55~76.

6) 谷口幸代(2021) 「多和田葉子の戯曲『動物たちのバベル』を読む」, 『多和田葉子の＜演劇＞を読む一切拓かれた未踏の地平』, 論創社, pp.77~95.

## 2. 「동물들의 바벨」에 나타난 다성사회(多声社会)

‘다성사회’는 2021년 발간된 「다성사회로서의 무대(多声社会としての舞台)」<sup>7)</sup>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다와다가 사용한 표현이다. 코로나 시기 낭독회나 작품 공연이 취소되어 베를린 자택에 칩거하게 된 다와다는 연극이나 오페라의 녹화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오페라 무대 공연에서 조화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가수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와다는 이런 모습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현재의 세상을 투영한 것이라고 느끼게 되고 자신이 예전부터 다성사회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새삼 자각<sup>8)</sup>하게 된다. 즉, 무대 위에서 구현되는 다성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상을 비춘 것이고, 국가나 민족 및 집단의 이권과 이기심으로 빠져터져가는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세상의 반영이다. 따라서 다성사회에 대한 다와다의 관심은 현실 세계에 대한 관여적 관심, ‘커미트먼트’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성사회적 현실에 대한 다와다의 커미트먼트가 명징하게 드러난 것은 3.11을 계기로 집필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는데, 「동물들의 바벨」도 그중 한 작품이다. 이 희곡은 전체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막에서는 대홍수 후 살아남은 개, 고양이, 다람쥐, 여우, 토끼, 곰의 여섯 마리 동물들이 등장하여 절멸한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비판한다. 2막에서는 바벨탑 건설에 협력하고자 다시 모인 동물들이 인간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 자신들도 점점 인간화되어가는 모순을 발견한다. 마지막 3막에서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데, 보스가 아닌 번역자를 선출한다. 그리고 객석에서 멸종한 줄 알았던 인간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만약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역사의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은지 인간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막을 내린다. 현재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에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다와다는 희곡이라는 장르를 통해 독자와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다성사회를 드러내는 복수의 소리 및 복수의 언어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본다면 ‘언어의 상반되는 이중적 모습’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반적 기능이 있어 복수의 소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동물들의 바벨」에 나타난다. 바벨탑 건설에 협력하기 위해 작품 2막<sup>9)</sup>에서 동물들은 다시 모이는데, 이들을 유인한 것은 정부에 의해 제작된 팸플릿이었다. 팸플릿에 적혀 있는 말, 즉 언어는 동물들을 현혹한다. 이 팸플릿에는 “도호쿠(東北) 방면에 새로 요새를 건설하는데, 이곳은 방사능을 통과시키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쓰여 있다. 덧붙여 요새는 “전염성의 이데올로기(伝染性の

7) 전계서, 多和田葉子(2021)

8) 전계서, 多和田葉子(2021), p.134. これだ。調和しない複数の音楽が同時に聞こえてくると脳がぞくぞくする。それは、今の世の中がわたしの耳にそんな風に響いているからなのだ。不協和音をなすだけでなく、リズムも統制されていないポリフォニーをそっくりそのまま響かせる..... わたし自身、一つに調和されない複数の声というテーマにはかなり前から関心があったようだ。意識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が、今振り返るとそんな気がする。(밑줄은 인용자에 의함)

9) 多和田葉子(2014) 「動物たちのバベル」、『献灯使』、講談社、pp.231~250. 참조

イデオロギ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또 “건설에 협력한 자는 나중에 요새 안 주거지에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팸플릿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위험한 장소에 세우는 요새이므로 안전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위험한 장소는 특별히 안전하다”라는 어불성설을 말한다. 동물들은 요새가 정말로 안전한지 논쟁을 하는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게 위험하다고 느낀다. 안전과 관련하여 팸플릿에 적힌 말과 전문가의 언급은 진실을 가리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조작된 언어에 미혹 당하는 동물들의 모습은 3.11과 관련하여 안전 신화에 기만당한 인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나 관객들에게 현실의 문제에 대해 각성하게 하는 커미트먼트적 작용을 한다.

한편 언어에는 성찰을 통해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존재한다. 「동물들의 바벨」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요새 건설에 협력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 동물들은 처음에 급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노동은 포인트로만 누적되고 10번에 1번의 포인트가 공짜라 마치 그들이 이득을 얻는 것처럼 기만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서서히 간파한다. 노동의 대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동물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으며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 가려진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물들은 자신들이 멸종한 인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 작정이었으나, 어느새 인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이 가능했던 이유는 동물들이 서로가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다른 동물의 대답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품에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언어의 성찰적 면모가 또 다른 복수의 소리로서 울려 퍼지고 있다.

### 3. 「동물들의 바벨」에 나타난 번역자의 역할

바벨탑의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동물들은 스스로 바벨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구심점으로서 보스를 뽑자는 의견을 낸다. 그러자 다람쥐는 보스라는 권력자가 있었기에 인간이 멸망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수직적 권력관계 상에서 상사인 보스 대신 수평적 관계에서 평등한 번역자(翻譯者)를 정하자고 다람쥐는 제안한다. 다람쥐가 생각하는 번역자는 “자신의 이익을 잊고, 모두의 생각을 모으며, 그때 생기는 부조화를 하나의 노래로 작곡하고 주석을 붙이고 붉은 실을 찾아 공통되는 소원에 이름을 붙이는”<sup>10)</sup>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번역자의 역할은 다성사회의 통일되지 않는 복수의 소리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불협화음 속에서도 공통되는 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자가 번역자이다. 다른 동물들도 보스 대신 번역자를 뽑는 것에 동의한다. “연설이 뛰어난 자, 연상이고 경험이 풍부한 자, 유명하고 사랑받는 자, 머리가 좋고 혼자 원자폭탄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과학자를 번역자로 하자”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나 모두 반대에 부딪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한

10) 전게서, 多和田葉子(2014), p.253. 自分の利益を忘れ、みんなの考えを集め、その際生まれる不調和を一つの曲に作曲し、注釈をつけ、赤い糸を捜し、共通する願いになまえを与える翻訳者。

방법이 제비뽑기(クジ引き)다. 그리고 제비뽑기에 의해 번역자로 선정되는 동물은 다람쥐이다. 다람쥐가 번역자로 뽑히고 난 후, 동물들은 바벨탑을 모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우자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각각의 동물이 원하는 건축 형태와 방법이 다르다. 야생동물이며 동면을 하는 곰이 원하는 것, 애완동물이 된 개와 고양이가 원하는 것, 초식동물인 토끼가 원하는 것, 또 여우가 원하는 것이 달라 좀처럼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되지 않는다. 현재 다와다가 거주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이민이나 난민의 유입으로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섞이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섯 마리 동물들은 “다양한 이민”<sup>11)</sup>의 비유라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동물의 요구는 다성사회적 현실의 복수의 소리를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성사회의 불협화음을 조정하는 번역자로 뽑힌 다람쥐는 사실 누구보다 적임자였다. 교묘한 언어로 진실을 은폐한 팸플릿의 설명을 제대로 읽어낸 것도 다람쥐였고, 곰과 여우가 개와 싸우려고 할 때 중재한 것도 다람쥐였다. 다람쥐는 뽑히기 전부터 이미 번역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다와다는 “현대의 인간은 복수의 언어가 서로 변형을 가하면서 공존하는 장소이며, 그 공존하는 언어와 (변형으로) 일그러진 언어를 없애는 것은 무의미하다”<sup>12)</sup>라고 자신의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녀는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복수의 소리 및 복수의 언어가 혼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아의 내·외를 막론하고 무수한 다성사회적 현실과 마주칠 수밖에 없기에, 번역자의 역할을 맡아 소통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작품 중반부 막을 내리기 전, 천정에서 무대 위로 수많은 사전이 떨어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지문에 의하면 이 사전들은 귀가하는 관객들에게 배부되는데, 사전이 번역에 필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희곡 마지막 부분에 사전을 천정에서 떨어지게 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배치함으로써, 다와다는 관객들에게 다성사회적 현실 세계에서 언어에 대해 성찰하게 하며, 동시에 번역자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 4. 나가기

본 발표에서는 다와다가 언급한 다성사회가 현실 세계의 다양한 복수의 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성사회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현실에 대한 커밋먼트적 관심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와다의 작품 「동물들의 바벨」을 통해 다성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복수의 소리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아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번역자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그녀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문학 평론가 누마노 미쓰요시(沼野充義)는 그녀를 동시대의 “언어과 작가이자 커밋먼트의 작가”<sup>13)</sup>로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11) 전게서, 谷口幸代(2021) p.90.

12) 多和田葉子(2003), 『エクソフォニー、母語の外へ出る旅』、岩波書店、p.90.

13) 沼野充義(2021) 「『あの日』を越えて—私たちはみな震災後への亡命者である」 『世界文学としての〈震災後文学〉』、明石書店、p.54.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 작품은 사회와 집단에서 배척되지 않기 위해 권력의 압박 속에서 침묵만을 유지한 채 그들이 벌이는 왜곡을 회피해 온 자국민의 양상을 작품 속 노인과 같은 도시 내부인의 모습과 문지기 등 다양한 인물 설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4. 나가며

현 일본 사회의 폐쇄성은 기득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보다 강화시키고 비리나 문제를 가리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때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 권력의 행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인식함에도, 사회 권력이 도모하는 목적에 반하는 의견을 쉽사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현 일본사회의 민낯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대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 사회에 만연한 문제점에 눈을 맞추고, ‘이야기가 가진 힘’을 믿으며 사회적 메시지를 오랫동안 발신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하루키가 펜데믹 시기에 약 40년 전에 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개작한 이유에는 분명 동시대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일본 사회의 병폐를 폭로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 속 높은 벽으로 둘러쌓여 외부와 일절 소통이 차단된 도시의 모습,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감정을 가지지도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며, 집단 내에서 배척되지 않고자 만들어진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폐쇄성이 짙어진 현 일본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왜곡과 뒤틀림 속에서 정부의 부조리한 행태를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면하고 있는 현 일본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키는 동 작품 출간 인터뷰에서 “세계가 불안정해지면 좁은 세계로 숨고,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번 작품의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벽에 둘러쌓인 환상적인 도시’와 같이. 이 장소는 좋은 장소일수도 나쁜 장소일 수도 있다<sup>10)</sup>”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완벽한 사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에, 자신이 속한 세계가 어떤 장소일지 스스로 판단해보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자세가 결여된 일본 사회 구성원에게 던지는 자성의 메시지였다고도 볼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중심으로 최근 하루키의 작품이 우익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여론이 통제되고 진실 왜곡이 만연한 일본 현대 사회에 비판을 가하며 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규명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하루키의 작품이 동시대의 기록물이자 견제자로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음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동 연구가 하루키 문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0) BuzzFeed(2023.04.13.) 「『残』の人生、いくつ長編を書けるだろう」村上春樹が70歳を超えて考えるようになったこと, <https://www.buzzfeed.com/jp/harunayamazaki/haruki-murakami-2304>(검색일: 2023.04.15.)



# 완벽함을 표방한 폐쇄적 사회의 환영, 그 이면에 대한 고찰

-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街とその不確かな壁)』을 중심으로 -

이혜인(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1. 들어가며

동 연구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1949~, 이하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街とその不確かな壁)』(2023, 新潮社)을 중심으로, ‘올바른 장소’를 표방하고 있는 폐쇄적 사회야말로 그 완전함을 유지하고자 불편한 진실을 지우는 ‘왜곡’이 만연하다는 우려의 메시지가 작품에 내재되어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펜데믹시대를 거치며 여론 차단, 정보 통제 등으로 한층 더 폐쇄성이 짙어진 일본 사회를 조망해 온 하루키의 동시대적 비판의식이 동 작품에 투영되어 있음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2023년 3월 발표 이후 2달 만에 38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이 작품은, 일본에서 상반기 종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sup>1)</sup>. 근년 펜데믹 사태의 불안감으로 집단적 공허감에 빠졌던 이들에게 하루키의 소설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동 작품이 화제를 모은 또 다른 이유로는, 하루키가 약 40년 전 발표한 이래 공개하지 않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街と、その不確かな壁)」(1980.09, 『文学界』)을 리라이트(rewrite)한 작품이기 때문이었다<sup>2)</sup>. 다만 이전에도 한 차례 이 작품이 가필된 바 있는데, 바로 하루키의 전형적 세계관인 두 세계의 구조가 그려진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世界の終わ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1985, 新潮社)이다.

신작 출간 이후 과거작과 비교한 서평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져 나왔고, 발간 후 약 1년 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다소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작품이 펜데믹이라는 동시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두 번째는 과거 작품 대비 동 작품의 결말을 더 나은 형태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종합하면 작품의 사회적 메시지가 기대보다 희박하여 작품 성향이 초기작의 특징인 디테치먼트로 역행하였고<sup>3)</sup>, 기존 작품의 소재를 ‘집대성’한 것에 불과하며<sup>4)</sup>, 코로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역병’이라는 말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으나, 작가가 제시한 할 뿐 이를 원만하게 풀어내가지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sup>5)</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이 작품이 한층 더 발전된 하루키만의 커미트먼트를 보여주고 있음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두 번이나 개작된 작품이 그려낸 세계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폐쇄적 도시’를 하루키가 현 시점에 재차 그려낸 이유에는 오랫동안 주시하던 일본 사회의 폐

1) 時事通信(2023.06.01.)村上春樹さん新作が「1位」=書籍上半期ベストセラー, <https://sp.mjiji.com/article/show/2955110>(검색일: 2023.06.02)

2) 2023년 발표된 작품은 총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의 원형이 되는 1980년 발표된 중편작품,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의 내용은 제1부에 반영되어 수록되었다. 타이틀은 기존 중편 타이틀에서 엄표 한 개가 빠진 형태로 변경되었다. 또한 1985년 발표된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는 ‘세계의 끝’ 챕터에 초기 중편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3년 작품에는 제1부와 제2부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

3) 船所武志(2023) 「村上春樹『街とその不確かな壁』を読む: 「分身」と「既視感」に着目して」『日本文学』72(9), 日本文学協, pp.50-53. 水上文(2023) 「文芸季評 たまに私」私の部屋で: 2023年4月6日 閉ざされた壁の中(村上春樹『街とその不確かな壁』他)『文芸』62(3), 河出書房新社, pp.514-521, 福島亮大(2023) 村上春樹による村上春樹の「マスター」は成功したのか——『街とその不確かな壁』評, [https://realsound.jp/book/2023/04/post-130772\\_3.html](https://realsound.jp/book/2023/04/post-130772_3.html)(검색일: 2023.04.27.)

4) 小川哲(2023) 「『集大成』なのか『再生産』なのか」『新報』120(6), 新潮社, pp.138-141, real sound(2023.06.14.) 村上春樹『街とその不確かな壁』に見る老いの想像力 円堂都司昭 × 藤井勉 × 三宅香帆 鼎談, [https://realsound.jp/book/2023/06/post-1348397\\_2.html](https://realsound.jp/book/2023/06/post-1348397_2.html)(검색일: 2023.07.01.)

5) 大川恵実・小長光哲郎(2023) 「村上春樹の「深化」: 6年ぶりの長編小説『街とその不確かな壁』を読む」『Aera』36 (20), 朝日新聞出版, pp.17-19.

쇄성이 팬데믹을 거치며 강화되었고 그 위험성을 감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작품에 구현된 도시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는 도시인들의 양상 등에 주목하여,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견제자로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는 의의있는 작품임을 최종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왜곡된 진실’로 대중을 통제하고 선동하는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도시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높은 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어떤 자연재해도, 어떤 강력한 무기로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벽 안의 ‘도시’는 완벽한 폐쇄적 세계를 지향한다. 이 벽을 쌓아 올린 이유는 이른바 외부세계의 ‘역병’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작품에서 역병의 씨앗은 슬픔, 두려움, 고뇌, 절망 등 ‘사람의 감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림자가 제거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사람의 감정이나 호기심 등이 도시의 와해를 불러일으키는 ‘무용하고 해로운 것’으로 치부되기에, 이 세계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마음’을 의미하는 ‘그림자’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다. 작품 속 주인공 ‘나’는 도시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림자가 완전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감정이 제거된 채 도시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도시가 추구하는 완전한 폐쇄감에 이질감을 느끼고 “이 도시를 신뢰해도 괜찮은 것인지(『街』, p.65)” 의문을 품는 인물로 그려진다.

작품 초반 주인공은 도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내고자 도시 경계를 따라다니며 지도를 작성해보고자 하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한 ‘나’의 행동은 무의미할 뿐이다. 높고 견고한 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도록 시시각각 변화하며 주인공의 노력을 무위로 돌려버렸기 때문이다. “벽이라는 압도적 존재 앞에서는 나의 매일 같은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街』, p.80)”는 ‘나’의 읊조림에서 무력감마저 느껴지는데, 이러한 설정은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해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권력의 횡포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도시는 ‘벽’이라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이 장소만이 유일한 안식처라는 사상을 효과적으로 주입하고자 ‘공포’라는 심리적 울타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조종한다. 외부세계에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역병이 만연하다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괴소문, 또한 남쪽 벽 앞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웅덩이’가 있어 많은 이들이 행방불명되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도시에 퍼져 있다는 것이 그 일례이다. 즉 도시는 거짓 정보를 유포해 공포를 조장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희망을 제거할 뿐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인 웅덩이로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이는 사회 권력이 대중을 효과적으로 조종하고자 공포와 불안, 즉 ‘인포데믹(Infodemic)’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포데믹은 가짜뉴스, 고의로 유포된 허위정보 등이 만연해 어떤 정보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온라인, SNS 등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며 전지구적 규모로 발생한 현상이다. 특히 팬데믹 시기, 세계적으로 전파된 바이러스만큼 빠르게 전파된 가짜뉴스는 소수자, 아시아인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을 가시화하여 비방의 목소리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했다<sup>6)</sup>.

6) 동아사이언스(2020.12.02.) [코로나 시대 혐오]⑤ 팬데믹만큼 무서운 인포데믹은 어떻게 편견·혐오를 조장했나,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2006>(검색일: 2021.03.09.)

하루키가 동 작품에서 도시를 통해 인포데믹 문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은, 거짓된 정보를 저지해야 할 입장에 선 국가(정부)가 오히려 이를 선동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을 직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인포데믹 현상을 저지하고자 ‘루머를 앞선 팩트’ 캠페인을 권장했다. 반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포데믹 현상을 적극 활용해 왔다. 코로나19 소극적 대응과 후쿠시마의 높은 방사능 수치로 올림픽 개최 강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아베(安部) 정부는 올림픽을 성사시키고자 전세계를 향한 불분명한 정보를 제공했다. PCR검사를 축소해 확진자 수가 적다고 포장했고<sup>7)</sup>, 원전사고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제염을 통해 방사능이 완전통제되었다는 허언을 내뱉었으며,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가 서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sup>8)</sup>. 즉 안전은 외면한 채 선택적인 정보공개로 자국민마저 속이며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포데믹을 조장하는 행위를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벌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 권력이 거짓 정보를 주입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통제하고 선동하는 양상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의 폐쇄성이 짙은 도시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야말로 동시대 일본 사회 권력층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이 피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작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엿보인다. 일본의 사회 권력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릇된 포퓰리즘(populism)이 팽배해져가는 것을 우려한 하루키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거짓을 진실로 왜곡하는 ‘극우의 부상’이며,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시기가 왔다<sup>9)</sup>”며 작가로서의 책무를 밝힌 바 있다. 즉 일본 사회에 만연한 진실 왜곡의 양상을 오랫동안 주시해온 하루키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사회 권력의 횡포가 있음을 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루키가 40년 만에 다시 한번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통해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폐쇄적 도시를 구현시킨 것에는, 폐쇄성이 짙은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집단적 지배구조’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일본 사회구성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던 작가의 사회비판적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3. 진실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비판

원전 사고 수습 불가, 복구 지연, 오염수 배출,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 무모한 올림픽 개최 등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지지율이 급락할 때도 있었으나,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집권에 성공하며 여전히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올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체계가 바뀌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일본 속담인 ‘長い物には巻かれる’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역하면 ‘긴 것에

7) 시사인(2020.03.23) 일본,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보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14>(검색일: 2020.03.24)

8) 중앙뉴스타임스(2020.03.23)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아베 정부가 조장하는 인포데믹, 즉각 멈추고 국제사회에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http://www.jnewstimes.com/news/article.html?no=65311>(검색일: 2020.05.01.)

9) Le Monde(2019.11.26.) Haruki Murakami : « Il y a des émotions communes entre l'auteur et le lecteur »

감겨라’는 의미로, 힘 있는 자에게는 반항하지 말고 온순하게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이다. ‘와(和)’라는 이념 하에 정주(定住)성향이 강한 일본인은 강한 권력에 대립각을 세웠다가 집단에서 배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조직의 결정을 따르며 파문히는 것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성향, 그 ‘맹점’을 일본의 권력층은 잘 파악하고 있기에 권력을 위협하는 스캔들,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때에도 정치에 무관심한 자국민의 성향을 이용해 이를 무마시키며 현 체제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도 거짓 정보에 호도되거나, 사건의 진상을 들여다보길 회피하며 침묵하는 자국민의 성향이 도시 사람들에게서 엿보인다. 특히 도시의 진상을 확인하다 열병에 걸린 ‘나’를 간호해주는 노인에게서 이러한 성향이 부각된다. 과거 전쟁 참전 군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노인은 도시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나’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을 그만두는 편이 좋다는 메시지를 피력한다.

전쟁 당시 부상을 당했던 그는 산속 온천마을로 후송되고, 그곳에서 새벽마다 창문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의 망령’을 보게 된다. 그는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잃어도 상관없다고 여길 정도로 달빛 아래 비친 아름다움에 현혹되었다. 결국 부상으로 귀향하게 되었으나, 그녀를 잊지 못했던 그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자가 늘 왼쪽 얼굴만 보여 사람들이 달의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자의 한쪽만 보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이에 노인은 반대쪽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다시 그 여관을 방문했고, 그날 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나타난 여자의 망령과 드디어 마주하게 된다. 이야기를 듣던 ‘나’는 노인에게 그래서 오른쪽 얼굴을 보았냐고 묻는데, 노인은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라고 후회를 내비치며 가려졌던 반대편 얼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봐서는 안 되는 세계의 정경(『街』, p.86)”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어 노인은 ‘나’와 달리 도시 사람들이 진실에 다가서지 않는 이유를 항변하듯, 진실을 보면 두 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그렇기에 우리는 태반이 눈을 감은 채로 인생을 보내는 셈(『街』, p.86)”이라 말할 뿐이다.

즉 이 노인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추악한 진실이 잠재되어 있기에, 이를 마주하길 주저한 나머지 눈을 돌린 채 살아가는 자국민의 양상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래서 그림자를 버리고 이 도시에 온 건가요(『街』, p.86)”라는 ‘나’의 마지막 물음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왜곡이 만연된 사회구조 안에서 문제를 외면한 채 안주만 하며 살아가는 자국민에 대한 작가의 날 선 비판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작품에 등장하는 도시를 지키는 ‘문지기’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가 도시의 실체를 궁금해하는 ‘나’를 못마땅하며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충고, 즉 “머리 위에 접시를 얹고 있을 땐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편이 좋다(『街』, p.76)”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고야말로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 즉 사회나 집단의 횡포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과정에서 해를 입을 수 있기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 작품은 사회와 집단에서 배척되지 않기 위해 권력의 압박 속에서 침묵만을 유지한 채 그들이 벌이는 왜곡을 회피해 온 자국민의 양상을 작품 속 노인과 같은 도시 내부인의 모습과 문지기 등 다양한 인물 설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4. 나가며

현 일본 사회의 폐쇄성은 기득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보다 강화시키고 비리나 문제를 가리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때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 권력의 행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인식함에도, 사회 권력이 도모하는 목적에 반하는 의견을 쉽사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현 일본사회의 민낯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대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 사회에 만연한 문제점에 눈을 맞추고, ‘이야기가 가진 힘’을 믿으며 사회적 메시지를 오랫동안 발신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하루키가 펜데믹 시기에 약 40년 전에 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개작한 이유에는 분명 동시대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일본 사회의 병폐를 폭로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 속 높은 벽으로 둘러쌓여 외부와 일절 소통이 차단된 도시의 모습,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감정을 가지지도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며, 집단 내에서 배척되지 않고자 만들어진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폐쇄성이 짙어진 현 일본 사회의 모순을 투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왜곡과 뒤틀림 속에서 정부의 부조리한 행태를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면하고 있는 현 일본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키는 동 작품 출간 인터뷰에서 “세계가 불안정해지면 좁은 세계로 숨고,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번 작품의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벽에 둘러쌓인 환상적인 도시’와 같이. 이 장소는 좋은 장소일수도 나쁜 장소일 수도 있다<sup>10)</sup>”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완벽한 사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에, 자신이 속한 세계가 어떤 장소일지 스스로 판단해보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자세가 결여된 일본 사회 구성원에게 던지는 자성의 메시지였다고도 볼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중심으로 최근 하루키의 작품이 우익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여론이 통제되고 진실 왜곡이 만연한 일본 현대 사회에 비판을 가하며 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규명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하루키의 작품이 동시대의 기록물이자 견제자로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음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동 연구가 하루키 문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10) BuzzFeed(2023.04.13.) 「『残』の人生、いくつ長編を書けるだろう」村上春樹が70歳を超えて考えるようになったこと, <https://www.buzzfeed.com/jp/harunayamazaki/haruki-murakami-2304>(검색일: 2023.04.15.)





## 日本文学 分科Ⅱ





# 다케다 도시히코의 소설 『레이진소』 연구

-전후 미디어 믹스화 과정과 민법개정을 중심으로-

엄기권(한남대)

## 1. 들어가며

다케다 도시히코(竹田敏彦)(1891-1961)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여러 잡지와 신문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하며 대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던 통속소설작가이다. 가가와현 출신으로 와세다대학을 중퇴하고 『오사카지진신보』와 『오사카마이니치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하며 법률 기사를 주로 담당했던 도시히코는 신문사 퇴사 후 실제 일어난 사건을 취재하여 집필한 ‘실화소설’, ‘실록소설’(지금의 ‘논픽션’) 장르의 작가로 데뷔한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시절 집안이 몰락하여 여러 중노동 등을 일찍 경험한 탓인지 도시히코의 작품에는 부유한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여 금전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내용이 많다. 또한 사법기자 출신으로 법률문제를 소재로 한 일련의 소설을 다수 발표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지위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직업여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와 같은 다케다 도시히코의 소설 『레이진소(麗人莊)』는 조선에서 발행된 『경성일보』에 1938년 7월 16일부터 1939년 1월 17일까지 총 180회에 걸쳐 연재된 신문연재소설이다. ‘사생아(私生児)’문제를 주된 테마로 하는 『레이진소』는 『경성일보』뿐만 아니라, 동시기 내지의 『나고야신문』과 『고베신문』, 그리고 외지의 『대만일일신보』에도 동시 게재되었다. 전후에는 문고판(1948)으로 재발간되었고 영화제작(1949)으로도 이어지는 등 전후 다시 주목을 받았다.

본 발표에서는 『경성일보』에 연재된 『레이진소』와 동시기 내지/외지 신문들을 시야에 넣으며 발표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이 전후 재조명되는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다. 전후 재발간된 단행본에서 작가가 언급한 전후 헌법 개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전전과 전후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작품의 변용과 해석의 확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생아 문제와 『레이진소』

【선행연구1】賴松瑞生「竹田敏彦の通俗小説にみえる明治民法觀」(『法學研究』82卷1号、2009.1, p.1028.)

「竹田が最も強く関心を持ち、その作品を通じて訴えたかったのは、女性や私生児が法的に不利な立場に置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その改善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そうした訴えが、その作品を通じて、人々の共感を呼び、その後の民法改正の動きにも幾分かの影響を与え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

\* e-mail: d-cometrue@hanmail.net

【자료1】「作者の言葉」(『京城日報』1938.7.1)

「道徳を欠いた恋愛が残す最大の罪惡は「私生児」である。罪なくして幼少から日陰の涙に泣く私生児！これこそは重大な社会問題の対照といえよう。小説「麗人莊」は、この問題を揚げて、作者が世に問はんとする涙の物語である。」

【자료2】法学博士 穂積重遠「婚姻の名実(二)」(『朝日新聞』1934.1.4.)

「庶子というのは、父が認知した私生子で、唯の私生子よりは一段昇格しますけれども、結局私生子に外ならず、嫡出子ではないのです。(中略)況んや子が生れても婚姻届を出さずに居ると、その子は実は嫡出子でありながら庶出私生子扱いを受け、社会上法律上幾多の不利益を受けねばなりません。元来私生児なるが故に不利益を受けることは、誠に気の毒な次第ですが、他方婚姻尊重の大義から観て、或程度やむを得ますまい。」

※모자보호법(母子保護法): 1937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로 공포. 1938년 1월 1일부터 시행.

<문고판『레이진소』(1948) 본문 인용>

○「二人の母となった露香の悩みは何よりも、この子供達の籍の問題だった。露香は良家に生まれながら一朝零落の運命に襲われて日陰の生活に陥ったが、二人の子だけは人並に、明るい世間へ出してやりたかった。それには、せめて庶子としてでも、大原家の籍に加えてもらいたい。

「ねえ、男の子なら何といっても、貰っていただく相手次第です。それには戸籍も私生児では、人並みの結婚も出来ないと思いますの……」(p.86.)

○「どのみち踏み迷った私だ。人並の結婚など夢みるのが間違いだった。それより母となって闘おう……そうすれば宮沢との約束もあり、いつかは大原の娘として、この子等の入籍もかなう日があろう……」(p.90.)

○「それは、幾度仰言っても駄目です……今も言う通り若主人の行動は、今後親戚一同の協議で、絶対にご自由にならなくなっているのです。いや、たとえ、いくらお慕いした所で、既に御妻子もおありなさるし、いつかはお別れになる御縁じゃないですか」(p.87.)

→ 소설「레이진소」가 신문에 연재될 당시 일본 사회의 사생아에 대한 인식은 ‘혼인존중’이라는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대중(독자)들의 사생아에 대한 인식은 통속작가 다케다 도시히코의 소설 「레이진소」에서 ‘도덕이 결여된 연애’의 ‘죄악’의 결과물, ‘죄 없는’, ‘음지에서 눈물을 흘리는’ 존재로 공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로카(쇼코)는 어린 딸들을 자신과는 다르게 ‘밝은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결혼’도 가능하도록 오하라의 호적에 입적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3.전후 민법 개정과 문고판 『레이진소』의 각색

【자료3】竹田敏彦「再刊に際して」(『麗人莊』松竹出版部,1948.3.20., p.3.)

「父系家庭主義の封建思想である。「家」という過去の因習に囚われて人間の眞実を無視し、男子の特權下に女子を奴隷視した法律の欠陥がそれである。一方を暴君とし、一方を奴隷として、何うして男女の正しい結合があり得よう。「妾」「庶子」「私生児」——限りない屈辱と、罪惡と、悲劇が、その頑な、差別意識から生まれて已まない。この社会的欠陥を指摘して、法の改正を促し、そして兩性關係の純化と、家庭生活の明朗化へ——既に十幾年、私は作品行動の一端として、それを続けてきた筈である。上述の諸作は、正にその所産である。」

<문고판『레이진소』(1948)에 삽입된 내용>

○「家という封建的な觀念にばかり重点をおいて、人間を忘れた日本の民法の不合理が、そこにあるのです。」(p.102.)

○「それとも、今度の事件で、私は——神様から、今後の大きな、しかも光榮ある使命を授けられました。それはわが国民法の改正です。今度のようなさまざまな悲劇も、因はみな女子を奴隷視した家本位、男子本位の法律の欠陥から生じたものです。」(pp.312-313.)

【자료4】竹田敏彦「非常時作家報告書10 時勢を感じるアンテナが必要」(『読売新聞』1938.3.1.)

「思いつきですね、新聞記者感覚ですよ。(中略)つまり時勢を感じる作者のアンテナが必要です。アンテナに照してヒントを得るんです。(中略)私は別に文学者として褒められたくない。編集記者(エディター)として褒められたい。私みたいな作家は結局時代が生んだんですね。」

「大衆のパンみたいなものでなければならぬ。それは感情感覚に於て少し従来の「芸術」に煩わせられる必要はない、啓蒙的、指導的なものであればいゝと思う、つまり「新聞」でいゝのだ。」

【선행연구2】浜田章作「戸籍制度論序説」(『鳥取短期大学研究紀要』第51号、2005, p.51.)

「戦後の民法改正に際し、実質的に「家」に代わる機能を営む氏を残すことに対する批判とともに、民法の「家」と相携えて重要な機能を営んだ戸籍についても、「民法改正が強く意識しているはずの家族制度の廃止ということを有名無実にする処がある」として全面改正すべきだとの議論が巻き起こったのは当然である。」

→ 전후 문고판 『레이진소』 재발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케다 도시히코는 남자의 특권을 우선시 하며 여자를 노예화하여 ‘첩’, ‘서자’, ‘사생아’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게 하는 ‘부계가정주의 봉건주의사상’을 사회적 결함이라 비판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작품 재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재발간된 『레이진소』에는 신문 연재 시 내용과는 다르게 각색된 부분

도 볼 수 있다. 특히 작품의 재료에 대해 신문기자의 감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테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대중문학은 ‘신문’처럼 계몽적이고 지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속작가 도시히코의 작품에 시대융합적인 묘사 장면의 배치는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후 재출간된 『레이진소』에서는 이와 같은 묘사 장면은 검열을 걱정한 탓인지 삭제되고 기존의 민법을 비판하며 법 개정의 문맥에 맞는 장면이 재배치된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양성관계의 순화’와 ‘가정생활의 명랑화’를 주장한 도시히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1948년 1월 실시된 새로운 개정법은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4.결론을 대신하여

【자료5】竹田敏彦「再刊に際して」(『麗人荘』松竹出版部,1948.3.20., p.4.)

「麗人荘」は、その意味で、過去の社会の事実<sup>1</sup>に照らして、旧法の欠陥を物語り、新しき法律への誤らない理解をうながす、「温故知新」のよすがとして、敢えて再刊の勧めに応じたものである。」

【자료6】上野一郎「麗人草」(『キネマ旬報』56,1949.4, p.35)

「大船調復活の掛声とこの事実とを合わせて考えると、進歩よりも退歩を予想するのである。大船調の復活——文芸物の映画化——(中略)この映画を見ていると、何だかまるで時代が逆行したような奇妙な印象を受ける。(中略)至って古臭く現代人のセンスにはピッタリ来ないのだから、ただもうおかしくなるばかりである。」

【자료7】田中純一郎『日本映画発達史Ⅲ』(中公文庫,1976.2.10, p.304)

「興行的にヒットするものは少なく、昭和二四年度の配収額は、まだ東宝を凌ぐところまで行かなかった。城戸四郎は、この期間の松竹映画低調の原因<sup>2</sup>をつぎのように述べている。(中略)すなわち、これは明らかに社会常識に反することであった(中略)それと同時に、永年大船調のホーム・ドラマで育てられた松竹の製作者たちには、現実の社会感覚、時代感覚を敏感に感じとる感受性が弱く、既成概念ででき上がっている主人公たちを、文学的にひねって扱う程度の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

→ 1948년에 재발간된 『레이진소』는 이듬해인 1948년 쇼치쿠가 제작을 맡아 영화화 된다.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원작과 비슷하지만 원작의 변호사 아사쿠라가 영화에서는 미국으로 망명한 사상범으로 설정되어 위기에 처한 쇼코 부녀를 도우려 귀국한다는 내용으로 각색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전후 재발간된 『레이진소』에 대해 도시히코는 ‘온고지신’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원작과 큰 차이가 없는 영화 『레이진소』에 대한 평가는 “마치 시대가 역행한 듯한 기묘한 인상”을 주며 “진부해서 현대인의 센스”에 맞지 않다는 혹평을 받았다.

【자료8】高木健夫編『新聞小説史 昭和編 I』,1981.11.25,p.145

「戦前、戦中にかけての言論統制下、新聞小説の読まれ方がむずかしい時代にあって、かれほど、新聞社にとって便利で、有難く、無難な、そして必ず読者に歓迎される連載小説の作者として、各社に重宝された作家はいなかったであろう。」

【자료9】磯田光一『戦後史の空間』(新潮社、1983.3)

「しかし『斜陽』を讀んでいて、いくぶん意外に思われることの一つは、かず子が戦争中に徴用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問題も背景をさぐっていくとき、われわれはいささか意外な現実に直面せざるをえない。というのは、女性の職場進出の前史としては『女工哀史』の現実や、昭和初年の解放されかけたひとときがあったが、総力戦体制にもとづく徴用制度と女学生の勤労働員とは、「陛下の赤子としての平等性」の理念のもとに、やがて戦後憲法の思想を受け入れる基盤をひそかに用意していた一面もあったのである。ついでにいえば「私生児」という用語が民法の文面から消えるのは、戦後ではなく昭和十七年のことである。」

→ 전후 도시히코의 『레이진소』가 전후 재발간되어 영화제작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도시히코의 작품이 여전히 출판사(쇼치쿠)에게는 “편리하고 감사하게도 무난”했고 개정법의 움직임 속에서 전전부터 전후까지 ‘사생아’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던 대중(독자)들로부터 “반드시 환영 받을 연재소설의 작가”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전시체제 하에서 ‘사생아’를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한 것은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는 작가의 안테나”가 머지않아 도래할 “폐하의 적자로서 평등”한 ‘사생아’의 사회적 지위의 변동을 예견했던 것이다.

# 시맨틱 태그 (Semantic Tag)를 활용한 「치료탑(治療塔)」의 다시 읽기

- 오에의 텍스트에 보존된 시맨틱의 차이화를 중심으로 -

조현구(경북대)

## 1. 들어가기

### 1.1 시맨틱 태그

시맨틱 태그 (Semantic Tag)는 포함된 콘텐츠의 특정 의미를 정의하고 목적을 갖는 태그입니다. 기존 HTML <div> 태그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block element이면서 사이트의 구조(레이아웃)을 설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맨틱 태그의 요소로는 <header>, <nav>, <article>, <section>, <footer>, <main>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맨틱 태그 요소는 콘텐츠를 논리적 섹션으로 구성하고 각 부분의 역할과 기능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시맨틱 태그는 HTML의 구조를 설계하는데 있어 태그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웹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https://seo.tbwakorea.com/blog/what-is-semantic-tag/>)

시맨틱(semantic)은 ‘의미의, 의미론적인’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유추해 보면, 시맨틱 태그는 태그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그라고 할 수 있으며, 태그로 구축된 웹 페이지에 그것이 표상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다면, 텍스트 분석에 시맨틱 태그를 구축하면 텍스트 해석을 위한 명시적이면서 직관적인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 1.2 시맨틱 웹(Semantic Web)

시맨틱 웹은 ‘의미론적인 웹’이라는 뜻으로, 현재의 인터넷과 같은 분산환경에서 리소스(웹 문서, 각종 파일,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원 사이의 관계-의미 정보(Semanteme)를 기계(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온톨로지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자동화된 기계(컴퓨터)가 처리하도록 하는 프레임 워크이자 기술이다. 기존의 HTML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가 의미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보다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용이한 시각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자연어로 기술된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em>바나나</em>는 <em>노란색</em>이다.라는 예에서 볼 수 있듯 <em>이라는 태그는 단지 바나나와 노란색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HTML을 받아서 처리하는 기계(컴퓨터)는 바나나라는 개념과 노란색이라는 개념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해석할 수 없다. 단지 <em> 태그로 둘러싸인 구절을 다르게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강조를 할 뿐이다. 게다가 바나나가 노란색이라는 것을 서술하는 예의 문장은 자연어로 작성되었으며 기계는 단순한 문자열로 해석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시맨틱 웹은XML에 기반한 시맨틱 마크업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RDF는 <Subject, Predicate, Object>의 트리플 형태로 개념을 표현한다. 위의 예를 트리플로 표현하면<urn:바나나,urn:색,urn:노랑>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트리플을 컴퓨터가 해석하여urn:바나나 라는 개념은urn:노랑이라는urn:색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맨틱 웹은 이러한 트리플 구조에 기반하여 그래프 형태로 의미정보인 온톨로지를 표현한다. (<https://noeyusmik.tistory.com/entry/>)

이 연구에서는 시멘틱 태그와 시멘틱 웹이라는 테크놀로지적 접근을 활용하여 「치료탑」 텍스트를 방법적으로 의미화하고 기호론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오에 겐자부로 의 소설 방법 안에서 독립적이고 저평가된 「치료탑」에 시멘틱 태그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에 겐자부로가 시도한 유일의 SF소설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텍스트를 포스트 휴머니즘을 예견하는 텍스트 영역으로의 재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이다.

## 2. ‘오에 겐자부로’를 텍스트로 한 다시 읽기

### 2-1 선행연구로부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고, 세세한 부분을 비롯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슬픔’의 감정에 놀랐습니다. 나는 ‘슬픔’이 어린 시절의 내 생활 깊은 곳에 깔린 정서였다는 걸 종종 떠올립니다. 이 작품을 쓸 때 나는 이미 오십대 중반이었지만, 그 무렵 역시, 이미 익숙하고 오래된 ‘슬픔’이라는 근원적인 정서가 표층으로 떠오른 시기였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감정이 어떤 계기로 해소되었는지는, 그런 시기가 오랫동안 거의 계속되었음에도 훗날에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에 겐자부로 저·김난주 역: 2018)

「危険の感覚」という作家の基本態度をとらえつつ、絶えず新しい「小説の方法」を工夫してきた大江の試みは小説のスタイルを持つ『治療塔』を通してより鮮明に実現された・・・(中略)・・・近未来を背景に、死んで行く地球のなかで「再生」に向かって戦い生きていく登場人物たちの姿がえがかれているのであろう。(南嶺貞: 2014)

‘새로운 지구’에서 인류의 생명을 갱신하는 힘을 가진 ‘치료탑’을 경험한 사쿠가 ‘치료탑’을 원폭 돔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사쿠의 ‘치료탑’에 대한 인식에는 또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치료탑’은 인류를 창조한 신의 존재가 그의 ‘마지막 작품’인 인류를 위한 선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제하고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치료탑’은 인류에게 있어서의 원자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이 가지는 양면성, 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 살상의 무기로서의 이용은 “인류를 구제하고 동시에 파괴”하기도 한다는 ‘치료탑’의 양면성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명선: 2021)

〈치료탑〉 시리즈는, 인류와 지구의 ‘재생’이 다름 아닌 과거의 교훈을 통한 우리 모두의 성찰—‘영혼의 치유’를 통한, 지배와 차별 및 폭력의 세계관의 폐기—에 달려 있다는, 오에의 시급한 메시지를 타진하는 소설들이었다. (송인선: 2012)

### 2.2 보존된 시멘틱 태그

#구조주의 #죽음 #핵시대 #생명수 #소공동체(코뮌commune) #에이즈 #가구나 히메

오에의 소설 방법은 인간과 인간이 만든 사회를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 기존의 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초기 전후의 실존주의적 소설 방법을 견지하던 그의 이러한 변화 이유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오에 히카리로부터 촉발되었다. 그는 히카리가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사회는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자기 치유를 위해 ‘다시 쓰기’한 에크리튀르 과정에서 자각했다. 히카리를 마주한 초기에는 「히로시마 노트」 등에서 보이는 절망

속에서의 인간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결국 그것 역시도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문단의 평가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 모색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의 시도는 인간이 가진 본성은 측은지심惻隱之心 보다 이기심利己心이 더 앞서는 것,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슬픔’을 자기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해결이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새로운 가치 즉 인간 이외의 존재와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방법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텍스트를 구축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전통에 대한 이해 역시 이항 대립적인 구도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였다.

### 3. 보존된 시네틱 테그와의 차이

#### 3.1 SF소설

휴고 긴스백 “과학적 사실과 예언적 비전이 뒤섞인 멋진 로맨스” 로버트 하인라인 “미래 일어날 일들에 관한 현실적인 추측” 다르크 수빈 “인지적으로 낯설게 하기” 세릴 빈트 “기술적으로 포화한 사회의 문학”	오에 겐자부로 “앞날에 대한 예감이야말로 SF”
--	----------------------------

SF소설을 정의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정의한다고 하는 것에 물음표를 더할 뿐이다. SF소설에 대한 각각의 논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공통점은 결국 독자들에게 낯선 일상을 던지고 그 낯선 일상에서 가능 현실을 체험하는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게 한다는 점은 공유 가능하다.

반면, 오에는 그러한 SF소설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상대화하면서 구조주의적 소설 방법론인 ‘낯설게 하기’를 ‘예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자신만의 SF소설을 구축하였다.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불가능의 영역이 시간의 앞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핍을 넘어서기 위해 데이터를 통한 예측을 시도하였고 이것이 과학적 사고이다. SF소설은 결국 영감을 통한 상상력의 영역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픽션을 가능 현실의 영역으로 가지고 온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러한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한 미래의 모습이 이야기 구조의 기본이다. 하지만 「치료탑」은 ‘남은 자’의 일상과 ‘선택받은 자’들의 ‘새로운 지구’에서의 일상,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의 ‘오래된 지구’로의 귀환 후 벌어지는 일상이 반복된다. 일상을 영유하는 주체의 변화만이 변주되고 있는 이야기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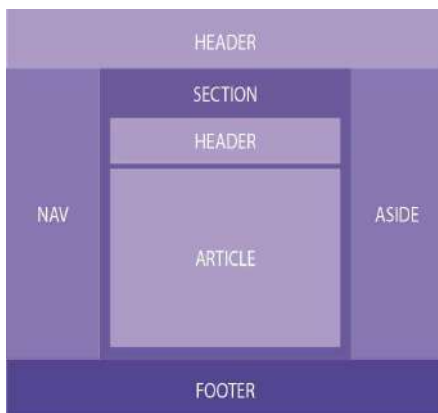
『治療塔』は、「近未来SF」と銘うって出版したのですが、わが国の本格的な文学の草分けの安部公房さんと会ってその話をしましたらね、一きみ、あれはSFではないんじゃないの?という冷たい対応でした。(大江健三郎: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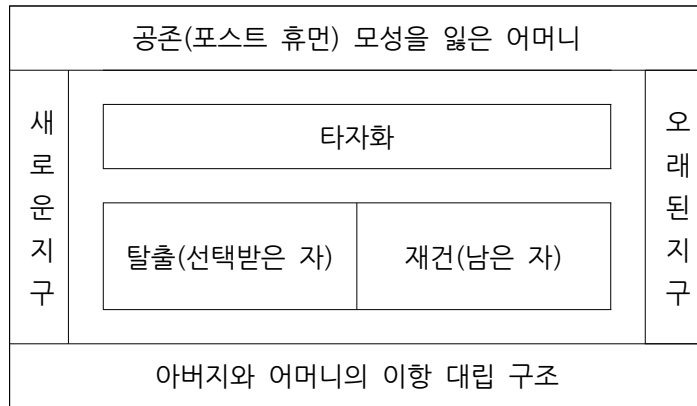


### 3.2 「치료탑」의 시멘틱 태그-과학적 사고가 아닌 ‘예감’의 일상이라는 측면에서

- # 리쓰코의 이야기-처음 시도한 여성화자라는 측면에서의 새로움은 아니다. 오히려 이항대립적 구조의 전복이라는 측면에서 보존된 시멘틱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예감’을 통한 일상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 # ‘치료탑’의 불완전성-대선단을 꾸려 ‘새로운 지구’로 갈 정도의 과학기술이라면 인간의 신체를 대신할 의학 기술 역시 충분한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한다면, 치유와 대체의 구분이 모호하다.
- # 세계종교-종교의 본질은 인간이다. 신을 위한 사회 구축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지속성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겨진 자’들의 세계종교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 # 재건 방식의 프로세스 - ‘KS시스템’과 ‘장애수용이론’의 기시감
- # ‘새로운 지구’에서의 귀환 과정-‘선택받은 자’들 대부분은 ‘치료탑’을 통해 새로운 육체를 얻었다. 하지만 신념에 따라 ‘치료탑’을 통한 육체개조를 거부한 무리가 생겨났고 이들은 ‘반란군’이 되었다. 이후 선택받은 자들은 새로운 지구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견디며 살아 가는 것 대신, ‘치료탑’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육체를 가지고 오염된 기존의 지구에서 살아갈 것을 결정하고 귀환한다. 반면 ‘반란군’은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지구’에 머문다.

### 4.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멘틱 태그 구축





### 【参考文献】

소명선(2021) 「오에 겐자부로의 치료탑과 치료탑 후성론-핵시대의 상상력의 출발점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회구」

『일본근대학연구(72)』 한국일본근대학회, pp.74-75

송인선(2012) 「<치료탑>이라는 예게」 『일본문화학보(52)』 한국일본문화학회, p.265

오에 겐자부로 저· 김난주 역(2018) 『치료탑행성』 에디토리얼, p.495

大江健三郎(2001) 『大江健三郎・再発見』 集英社、p.212

南 徹貞(2014) 「近未来の「危険の感覚」：大江健三郎『治療塔』論」 『言語・地域文化研究 20』 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総合国際学研究科、p.235

<https://seo.tbwakorea.com/blog/what-is-semantic-tag/>

<https://noeyusmik.tistory.com/entry/>

## 2000년대 한일SF 패러디 연구

- 이토 게이카쿠와 김보영을 중심으로 -

이상혁(충남대)\*

### 1.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2000년대 후반 이토 게이카쿠의 등장 이후 소위 ‘SF문학의 겨울’이 끝나고 부흥을 맞이했고, 한국에서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장르문학, 특히 SF문학이 많은 독자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학을 포함하여 SF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형식에 대한 연구, 특히 SF문학에서 보이는 패러디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2. 이토 게이카쿠

이토 게이카쿠의 SF문학은 기본적으로 언어-문자-문학에 대한 형식 실험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는 주제적 측면에서 인간(개인)이 사회문화적 토대로부터 구성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개인)이 언어나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같은 외부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인간(개인)이 변화하기 위해 이 외부적 요소들(소설가로서는 특히 언어 및 문자)을 설정할 수 있는가, 라는 소설적 실험을 하게 된다.

더불어 기존의 토대들이 바뀌어야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면 기존 토대의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들과의 접촉이 중요한 소재가 된다. 때문에 SF는 전통적으로 프랑켄슈타인 등 소위 ‘괴물’(=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토 게이카쿠의 소설에서도 낯선 타자와의 접촉 및 그로 인한 정동이 표출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토 게이카쿠의 SF문학에서는 실제 학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론뿐만 아니라 서브컬처의 캐릭터명 등이 사용되고 있다. 사피아-윙프 가설 등은 주제와 연결되며 상당히 중요한 모티프로써 소설 속에서 이용되는 반면, 캐릭터명의 차용 등은 일종의 작은 재미-농담 이상의 의미를 띠지는 않는다.

### 3. 한나 렌, 토비 히로타카

이토 게이카쿠의 사후(젊은 나이의 요절 후), 일본 SF문학계에서는 그를 기리며, 그의 영향력을 가리켜 ‘이토 게이카쿠 이후’라고 명한다. 『SF매거진』의 특집호에서 ‘이토 게이카쿠 이후’라는 타이틀로 여러 기사를 게재하는데, 그중 젊은 SF작가들이 스스로 이토 게이카쿠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도 실려 있다. 한나 렌은 이렇게 이토 게이카쿠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가 중 한 명으로 보인다.

한나 렌의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에는 「미아하에게 건네는 권총」이 실려 있다. 이 단편 소설은 ‘미아하’라는 이름부터가 이토 게이카쿠의 소설 『하모니』의 주인공이 떠오르고 소설의

마지막에 ‘권총’이 중요한 소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모니』에 대한 패러디, 혹은 오마주라고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나 렌은 이토 게이카쿠의 트리뷰트 소설집에서도 이토의 『죽은 자의 제국』(완성은 엔조 도가 했지만)의 패러디 소설을 게재하며, 토비 히로타카의 『자생의 꿈』에 대한 해설에서 토비 스스로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Ito Project(이토 게이카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미아하에게 건네는 권총」에서는 반전 이후 소설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으며 계속해서 반전을 한다. 이 ‘반전의 반전의 반전’은 그 자체가 패러디라는 것이 가진 모방-복제의 측면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 언어나 문자가 가진 기표의 미끄러짐의 형식을 가진다. 더불어 이토의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이 가진 세상에 대한 증오-반항과 그 소녀들의 사랑(?)이 그려지는 반면, 한나 렌의 소설에서는 한 명의 개인에 대한 증오와 남녀의 사랑이 그려진다. 이런 변주는 사회 구조적 측면, 토대와 외부적 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토에 비해 후속 작가들로 오며 좀더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서브컬처에서 언급되는 ‘세카이계’적 특성이 문학 내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박서련

반면 한국의 SF 작가들은 패러디를 어떤 의미-효과로 사용하고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박서련과 김보영을 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박서련이 ‘마법소녀’ ‘태권V’(『프로젝트V』) 등을 모티프로 가져온, 패러디한 소설을 썼다는 점, 그리고 김보영이 한국 SF 문단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스스로 역사로부터 상상력을 발휘하는 법을 만화가 김진의 『바람의 나라』를 통해 배웠고, 그렇게 쓰여진 『진화신화』는 역사의 문구, 설정을 가져오 변주했다는 점에서 패러디적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박서련의 『프로젝트 V』는 태권V라는 마징가Z의 한민족적 변주를 가져오면서도 민족적-내셔널리즘적 측면은 소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히려 박서련의 작품에는 신자유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생존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마법소녀 은퇴합니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서브컬처의 하나의 상징인 ‘마법소녀’를 가져오지만 이를 신자유주의 하의 한국에 대입한다. 물론 이때 한국이라는 민족적-국가적 경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현실의 보이지 않는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이다.

#### 5. 김보영

#### 6. 끝맺으며

가설적 단계에서 결론을 지으면 이토 게이카쿠 이후의 일본 작가들은 외부 토대에 대한 변

화를 포기한 채 개인의 자그마한 관계를 강조하는 세카이계적 특징을 보인다. 외부 토대에 대한 외면은 그 자체가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토 게이가쿠의 문학과는 극명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때문에 ‘무의미’ 속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내용(반전의 반전), 개인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청춘이라는 라이트노벨적-하이틴 문화적 요소들의 차용 등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SF패러디에서는 역사적, 민족적 문맥이 소거되는 경향,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신자유주의라는 토대 위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보인다.

이토 게이가쿠는 개인을 구성하는 토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문자-문학이 가진 가능성에 대한 형식 실험을 보였던 것에 비해, 이후의 SF작가들은 외부-형식이 가진 가능성에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의미’나 ‘토대’ 그 자체에 대한 부정과 외면의 산물처럼도 보이며, 모티프-패러디로 ‘원작’(이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시대이지만)을 가져오면서도 좀더 개인적 영역으로 변주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 한국 SF의 경우에는 형식 그 자체에는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현실적 토대(외부)에 강하게 결부되면서 좀더 추상적 차원에서 토대가 갖는 가능성(힘)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 『雪国』における「蛾」

## 一雪国の女たちの生を中心に一

柴田葉子(충남대)・尹惠暎(충남대)

### 1. はじめに

本稿は、川端康成(1899～1972、以下、川端)の『雪国』(1948、創元社)における「蛾」の描写に注目し、その役割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従来の「蛾」の研究は、「死」の象徴、またはヒロインに関連づけて論じたものがある。前者は、「網戸」や「窓の金網」、また壁に止まったまま死んで落ちてくる「蛾」や「枯葉のやうに散つてゆく蛾」という描写に注目している。これらは「人間はみんな死ぬという意識を呼びたせ」<sup>1)</sup>、蛾と人間の生死の共通点の暗示だと論じている。後者は、「六七匹の玉蜀黍色の大きい蛾」、「胴の太い蛾」、「羽が透き通るような薄緑」をした「蛾」に注目している。これらの「蛾」の描写は作中に登場する「物売りのロシア女」や「年増の芸者」だけでなく、結果的に「駒子のあり方に繋がる」<sup>2)</sup>と論じている。これに同意し、「六七匹の蛾」は、宿の外で群がっていた「六七人の芸者たち」<sup>3)</sup>の暗示であると付け加える論もある。このように、川端は、作中の女たちのイメージを「首の付け根」や「腹のまわり」が太っているとか、「脂肪が乗る」という表現をすることで、女たちの容姿と「蛾」のイメージとを結び付けている。さらに、「羽が透き通るような薄緑」をした「蛾」について、「ぱらりと落ちて、落ちる途中から軽やかに舞ひ上つた」という様子から「駒子の再生」<sup>4)</sup>だと主張した論があり、それとは反対に、駒子が「胴の太い蛾」であるため、「薄緑の蛾」は、「葉子でしかあるまい」<sup>5)</sup>と断定する論がある。また、最近では「生と死の美学を強調する効果」<sup>6)</sup>があるという論も出てきている。

また、駒子と葉子に関するこれまでの研究は、一貫として、両者の分身説、または一体説が大部分である。二人はその出身や生い立ちなどが「非常に酷似した存在で、ほとんど分身的象徴」<sup>7)</sup>であり、「葉子は駒子のうちに潜在する分身」<sup>8)</sup>のような存在として論じたものが挙げられる。また、葉子が常に駒

1) 金采洙(1984)『川端康成文学作品における＜死＞の内在様式』、教育出版センター、p.221.

2) 羽鳥徹哉(1985)「雪国における自然」『『雪国』の分析研究』、教育出版センター、p.91.

「こうした蛾の性格は、すぐ直後に出てくる物売りのロシア女、この温泉を引く年増芸者などと重なりながら、ヒロイン駒子のあり方につながってくる。(中略)白粉が濃く、首のつけ根が太り、死と凋落の季節のイメージと重なり、しかし、そのまま消滅へ向かうわけでもなく、初雪の時の駒子は、「軽やかに舞い上る」ように再生の姿を見せたことになる。」

3) 鈴木宣行(2008)「小説『雪国』における象徴表現としての自然(昆虫・鳥・植物)と作中人物」『創価大学別科紀要』第19号、創価大学、p.56.

4) 前掲書、羽鳥徹哉(1985)、p.91.

5) 前掲書、鈴木宣行(1997)、p.57.

6) 유옥희(2023)「『설국』에 나타난 나뭇잎의 이미지와 고마코」『일본어문학』, 일본어학회, p.305.

7) トーマス・E・スワン(1978)「川端の『雪国』の構成」『川端康成—現代の美意識』、明治書院、p.21.

8) 大久保喬樹(2004)『川端康成—美しい日本の私—』、ミネルヴァ日本評伝選、p.118.

子を「刺すやうな目」で監視している様子から、葉子は「駒子の本質を見抜く鏡」<sup>9)</sup>のような役割をしているという論などがあるが、これらの論も、「もともと二人は一人で、互いに切り離しては考えられぬ存在」<sup>10)</sup>だという一体説とさほど差はなく、本稿も同様な視点である。

作品の舞台である新潟県は、昔から由緒ある越後縮の産地であり、近代からは蚕糸業が発展した織物と関連深い地域である。この地域を背景として駒子と葉子の「生」も繰り広げられている。本稿は、「蛾」を中心に、ヒロインの関係が切り離せ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究明し、また二人を含めて雪国の女たちの生について探してみたい。

## 2. 雪国で生きる女の「生」と蚕糸業

『雪国』の舞台である新潟県は、世界一の豪雪地帯でありながらも、「世界のどこを見てもこれほどの豪雪地帯にこれほど多くの人々が住んでいる」<sup>11)</sup>ところは、ほぼ見られないと言われる。この地域で昔から由緒ある越後縮が発展した要因として、雪国の女たちの「冬季の余剰労働」<sup>12)</sup>が挙げられている。これと関連して、この作品にも縮の織物についての記述が見える。

子供のうちに織り習つて、そして十五六から二十四五までの女の若さでなければ、品のいい縮みは出来なかつた。年を取つては、旗面のつやが失われた。娘達是指折りの織り子の数に入ろうとしてわざを磨いただろうし、旧暦の十月から糸を積みはじめて明くる年の二月の半ばに晒し終わるという風に、ほかにすることもない雪ごもりの月日の手仕事だから念を入れ、製品には愛着もこもつただろう。(p.371)<sup>13)</sup>

上の記述から、雪国の若い織り子たちが、良質の縮織を織るため、技を磨き念を入れて織る様子がわかるが、実際は、この織り子達の労働は「過剰」なものであると知られており、「雪ごもり」の時期は外に出られない。このような織り子の労働のおかげで、越後の縮織は発展していったのである。

この地域の織物の技術は、近代の機械化につれ、さらに発展し蚕糸業という重要な産業となった。「安政の開港は蚕糸業の発展にとって画期的な条件であった」<sup>14)</sup>し、1869年に開港した新潟港はその拠点の一つになった。しかし、その後の「世界恐慌の影響により、1930年には、繭、生糸の価格が急落し、蚕糸業は困難な状況を呈することとなり、繭、生糸の生産は停滞状況となり、特に1941年には、破滅状態となった」<sup>15)</sup>ため、この地域も相当な打撃を受けた。しかし、その悪条件の蚕糸業を支えてきたのは、重労働を強いられてきた女工たちなのである。下の引用文から見ると、葉子も昔この地域に生れていたら、織り子や女工のように冬の間、機を織る羽目にな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

9) 上田渡(1985)「雪国における駒子の神性」『「雪国」の分析研究』、教育出版センター、p.191.

10) 林武志(1982)「雪国」『鑑賞日本現代文学15川端康成』、角川書店、p.48.

11) 高橋実(1985)『鈴木牧之-雪国の風土と文化-』、新潟県教育委員会、p.1.

12) 前掲書、高橋実(1985)、p.17.

13) 本稿の引用は、川端康成(1969)「雪国」『川端康成全集』第五巻、新潮社によるものであり、以後頁のみを記載する。

14) 荒木幹雄(1996)『日本蚕糸業発展とその基盤』、ミネルヴァ書房、p.18.

15) 前掲書、荒木幹雄(1996)、p.211.

ところが葉子が湯殿で歌つてみた歌を聞いて、この娘も昔生まれてゐたら、糸車や機にかかつて、あんな風に歌つたのかもしれないと、ふと思はれた。葉子の歌はいかにもさういう声だつた。(p.372.) (下線:引用者)

葉子は昔の雪国の女たちとは違った特殊な職業である芸者や女中に従事しながら、新しい時代の雪国の女に変貌した「生」を生きている。これは、蚕糸業の衰退後、この地域の産業が観光を中心とした産業に変化し、新潟の温泉に「大正から昭和初期にかけて、旅行をする人が増えてきた」<sup>16)</sup>ため、それに伴い芸者や女中も増えてきた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

### 3. 「蛾」を通してみるヒロインの関係性

ヒロインの名前には、雪国の特性である織物と関連がある。まず、駒子の「駒」という漢字の辞書的な意味は、馬の子、または小さい馬、乗馬、そして将棋の駒や三味線の駒<sup>17)</sup>など多様である。その「駒」という漢字の意味の多様性により駒子は、三味線を弾く芸者として、また馬のように活発に生きる女性としてイメージ化されている。しかし、「駒」には「糸を巻く工の字の道具」<sup>18)</sup>の意味もあり、これから転じて「糸車」に通じる点があることに注目したい。「糸車」と「糸」は互いに切り離せない関係であるため、駒子の名前はこの地域の特性を生かしたものであると言える。

次に、駒子の住む家とその成長過程には、「蚕」が「蛾」になる成長過程が投影されている。駒子が16才で東京に売り出され、再び雪国に戻った後は、三味線と踊りの師匠の家に住んでいたが、その家の駒子の部屋は、「お蚕さんの部屋」と呼ばれた。島村はその部屋の様子から「まるで蚕のように透明な体」の駒子を想像する。しかし、その後、師匠の息子である行男が死んだ後、駒子は、行男の病院費の借金を抱え、「お蚕さんの部屋」を出たのち、正式に置屋に入り、本格的に芸者として働きはじめる。

この駒子の成長と事情の変化は、「蚕」がカイコガになる過程を暗示するものである。蚕は生糸を口から出し繭を作り、その中で成虫になる準備をする。成虫になった蚕は、繭を破りカイコガとして飛び立つ。従来の研究でも、「駒子と蚕を重複させる例は無数」<sup>19)</sup>にあると指摘している。そして、駒子は師匠の家で、師匠と師匠の息子である行男と3人で暮しており、さらに行男の看病のために葉子がこの家に常に出入りしていたため、駒子と葉子はこの家で共に同居するとも言える。この家に束縛されている駒子と葉子の様子は、まるで繭の中に籠ったまま、そこ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蚕の表象に通じるのである。しかし、行男が死んだ後、駒子は師匠の家を抜け出し、行男の病院費の借金を抱えたまま置屋で芸者として働きはじめる。このような駒子の「お蚕さんの部屋」からの脱出は、繭の中に籠っていた「蚕」が、繭から脱皮したことになる。よって、駒子はこの時から「蛾」の表象になる。その駒子を暗示した「蛾」の様子は次のようである。

16) 白川秀一(2005)『新潟県における温泉開発の歴史』『新潟応用地質研究会誌』63号、新潟大学リポジトリ、p.42.

17) 新村出編集(1991)『広辞苑第四版』、岩波書店、p.964.

「こま【駒】①馬の子。小さい馬。倭名類聚抄11「駒、和名、古万、馬子也」②転じて、馬。特に乗用の馬。馬と同義になってからは、歌語として使われることが多い。万葉集14「足あの音せずゆかむ—もが」③双六に用いる具。象牙・水牛角で円形に造り盤上に運行させるもの。④将棋に用いる山形に尖らせた五角形の小木片。「飛車」「金将」などと書いてある。転じて、戦力となるもの。「—が足りない」⑤三味線・バイオリンなどの胴と弦との間に挟んで弦をささえるもの。」

18) 上掲書、新村出編集(1991)「⑥刺繍用の糸を巻くのに用いる工字形のもの。」、p.964.

19) トーマス・E・スワン(1978)『川端の『雪国』の構成』『川端康成一現代の美意識』、明治書院、p.21.



蛾が卵を産み付ける季節だから、洋服を衣桁や壁にかけて出しつばなしにしておかぬやうにと、東京の家を出がけに細君が言つた。来てみるといかにも、宿の部屋の軒端に吊るした装飾灯には、玉蜀黍色の大きい蛾が六七匹も吸いついていた。次の間の3畳の衣桁にも、小さいくせに胴の太い蛾がとまつてゐた。(p.323)

上の「胴の太い蛾」から駒子の「首のつけ根が去年より太つて脂肪が乗つて」いる様子が連想できるため、「胴の太い蛾」は駒子の暗示として描くための設定であると言える。また、その「胴の太い蛾」が宿の衣桁に卵を産み付ける様子は、あたかも駒子が島村に付きまとう態度が映し出されている。

一方、葉子の名前と「蛾」の関連性については、「葉」に「落ちる」というイメージがあることが挙げられる。作中では、葉子と「蛾」が「葉」のように落ちる様子が描かれている。具体的には、「羽が透き通るやうな薄緑」をした「蛾」において、「葉のやうにぱらりと落ちた」と表現された点や、また、雪中火事の現場で繭倉庫の二階からまるで木の葉のように「仰向けに落ち」、「下に落ちて音も音がしな」かったという表現から、葉子は「蛾」の表象であると考えられる。葉子はまた駒子と同じように「蚕」の表象でもある。葉子が二階から落ちる様から「死を感じられず」、「内生命が変わつた」とあえて表現されたのも、葉子に「繭の中で煮られて死んだ蚕」を写し出すための設定だからである。そして、熱湯で煮られて繭の中で死んだ「蚕」は、繭から抜き出した「糸」の表象へと転換する。よって、葉子は、繭から出られず「糸」になる蚕を表していると言える。しかし、葉子は、駒子とは違った「蛾」、つまり落ちてしまう「蛾」であり、潰し殺された「蛾」である。

葉子の目頭に涙が溢れて来ると、畳に落ちてゐた小さい蛾を抱んで泣きじやくりながら、「駒ちゃんは私が気ちがひになるといふんです。」と、ふつと部屋を出ていつてしまつた。(p.360)

上のように、葉子は島村と話しているうちに、泣きながら畳に落ちていた「蛾」を握りつぶしてしまう。このような彼女の行動は、繭を破って「蛾」になる機会を逃した「蛾」、つまり「蛾」への拒絶を暗示していると言える。結論として、駒子と葉子は、各々「糸車」と「糸」の表象として、両者は一つであり、切り離せない関係があると言える。

#### 4. おわりに

以上、『雪国』における「蛾」の描写を通して、ヒロインの密接な関係と雪国で生きる女たちの「生」を考察してみた。「蛾」は、駒子と葉子を含めた雪国の女たちの「生」を表すのに効果的なキーワードとして、重要な役割を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この作品の舞台である新潟県では、昔から織り子や女工たちが「過剰労働」をしながら、蚕糸業を支えてきた。作品の中でのヒロインたちは、過去の雪国の女たちと違った芸者や女中のような特殊な仕事に従事し、新しい時代の雪国の女として、苛酷なありさまで生きている。川端は、ヒロインの名前に、この地域の特性を生かした「糸車」と「糸」という切り離せない関係を暗示させ、雪国の女たちの「生」を描いたのである。つまり、両者は、繭の中から抜け出した「蛾」と、繭の中で死んだ「蚕」、つまり、握りつぶされた「蛾」の表象として、それぞれそのイメージにふさわしい歩みをしたのである。







## 근대 부산과 서일본 지역신문의 조선 <지역판> 연구

- 『후쿠오카일일신문』을 중심으로 -

임상민(동의대)

### 1.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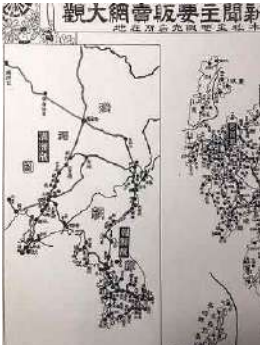

본 발표에서는 식민 해역도시 부산과 ‘서일본’ 지역을 단순히 식민과 피식민, 중앙과 지방, 일본 내지와 식민지 외지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내셔널과 트랜스 내셔널이 상호 공존하는 문화접촉지대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근대 초기부터 서일본에서 발행되어 부산 경남권으로 배포된 서일본 최대 일간지 『후쿠오카일일신문』의 조선 <지역판>을 중심으로, ‘서일본’ 지역을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관계들이 유동적으로 상호 교섭하는 공간으로 재인식함으로써, 기존의 제국주의 비판에서는 누락되어 온 일상 생활사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문 연구는 주로 조선에서 발행된 일본어신문과 피식민자인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경성일보』(일본어)와 『매일신보』(조선어), 그리고 조선인이 경영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부산 지역신문 『부산일보』와 『조선시보』 등이 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 ‘내지’에서 발행된 신문이 조선을 비롯한 일본 ‘외지’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시각이다.

<資料1>編集部「南東部も日刊紙時代へ」(『西日本新聞百年史』西日本新聞社, 1978年, p.141)

메이지 30년대는 전국적으로 볼 때, 파란성쇠를 거듭하고 있던 지방 신문 업계에 각 현을 대표하는 신문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구축해 가는 경우가 점차로 증가하고, 각 현 단위의 신문 분포도가 일단 완성된 시기이다. (중략)야마구치현을 살펴보면, 시모노세키시의 「바칸물가일보(馬関物価日報)」는 일조 무역의 경유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조선 방면으로 판매망을 확장시켰고, 38년(1905) 5월에 「시모노세키실업일보(下関実業日報)」로 제호를 변경했다.

<표1> 『후쿠오카일일신문』의 조선판 발행과 조선 판매 대리점

조선 외지판 발행(1905)	조선 판매 대리점 현황(1906)
	

또한, 조선에서 유통된 일본어 신문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대부분이 1910년 한일합병 이후의 일제강점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선 근대 초기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서일본 지역에서 발행되어 부산 경남지역으로 배포된 신문에 대한 연구는 누락되고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후쿠오카일일신문』을 식민도시 부산과 서일본 지역의 ‘문화접촉지대’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초국가적인 독자층의 특수성을 중층적인 관계망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후쿠오카일일신문』과 조선 배포 자매지

◆ 『후쿠오카일일신문』 조선 배포 자매지 현황→→→1931년 8월 25일 『관문매석신문(関門毎夕新聞)』 광고에는 “기존에 남선 방면으로 배포되었던 후쿠오카일일신문에는 관부마이니치(関釜毎日)를 첨부했지만, 사정에 따라 동월 15일부터 관문매석신문으로 변경, 남선판을 개설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광고는 관부마이니치와 동일하게 취급하오니 조선지사(부산부 대청정 1, 전화 2350번)로 신청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듯이, 『관부마이니치신문』이 부록으로 조선으로 배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資料2> 「釜山記者団 十日会組織」(『関門毎夕新聞』1931年1月16日)

(부산)재부산 신문 동업 각 회사는 지난 10일 미나미하마(南浜) 빌딩에서 회합을 갖고 다음과 같은 선언서에 기초해 협의를 진행하고, 16일에 정식으로 공표했다.

선언서

우리들은 사회의 추세를 되돌아보고 동지연맹 10일회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인문의 발달, 진보 사회의 한 기관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통치의 대강령은 황송하게도 메이지 대제국의 병합 즉 취지에 입각하여 운용은 밝고 당당하기를 기하며, 산업의 융달 조장, 선거권의 획득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무익하게 천하의 공기를 조롱하며 간섭하는 것을 배격하며, 보도기관 본래의 사명에 기초하여  
엄정하고 공평한 입장에 입각하여 회원의 결속을 도모하고 자성을 통한 기량 향상을 도모한다.

쇼와 6년 1월 10일

조선상공신문, 조선민보, 대구일보, 남선일보, 원산매일신문, 관부마이니치신문, 관문매석신문, 관문호  
치, 대조선사, 바칸마이니치신문사 각 부산지국

<資料3>編集部「福日、九日の姉妹紙」(『西日本新聞百年史』西日本新聞社, 1978年, p.333)

규슈 신문업계도 오사카 신문의 규슈 진출(모지에서 첨부된 신문인 서부마이니치, 규슈아사히를 인  
쇄·발행) 이후에, 보도와 판매 경쟁은 점점 격화되어 전국시대적 양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경  
쟁은 교통망의 정비에 따라 전 규슈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지방의 유력 신문들 사이에서도 성쇠와 격차  
를 낳기 시작했다. 후쿠니치(후쿠오카일일신문의 줄임말)는 새로운 판매 강화책으로써 쇼와 4년(1929)  
말부터 제차 지방 자매지로 체결해서 후쿠니치 본지에 무료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후쿠니치는 자매지  
의 독자를 흡수할 수 있었고, 지방 독자는 신문 하나의 요금으로 후쿠니치와 지방 신문 두 개를 읽을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된다. (중략)이들 자매지는 사세보민우의 조건 이외에는 모두 석간 4페이지이며,  
후쿠니치 본지 조건 석간 14페이지와 합하면 18페이지가 되어서 전국 최고의 페이지 수를 자랑했다.  
후쿠니치는 이들 8개의 자매지를 합쳐서 서일본신문연맹을 결성하고, 서일본지역에서의 본지 세력의  
침투를 도모했다. 이어 9년(1934) 7월에는 관문지국에 인쇄기를 설치하고, 관문특별석간(関門特別夕刊)  
을 발행해서 기타규슈, 오이타, 중국, 만주, 조선에까지 배포했다.

◆『관문특별석간』→→→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총람』(일본전보통신사, 1927년-1936년)에  
서도 동 신문명은 누락되어 있고, 『관부마이니치신문』 역시 소개되고 있지 않다.

### 3. 조선 지역판 <경성전보>의 서지적 정보

발행일	지면	지역판	발행일	지면	지역판
1905.10.01	2	한국소식(韓国だより)	1905.11.03	1	경성전보, 부산전보
1905.10.08	3	부산통신	1905.11.05	1	경성전보, 부산전보, 경성전보(3)
1905.10.13	1	부산전보, 한국통신(5)	1905.11.07	1	경성전보, 경성전보(3)
1905.10.24	1	경성전보	1905.11.08	1	경성전보
1905.10.25	1	경성전보	1905.11.09	1	경성전보, 부산전보
1905.10.26	1	경성전보	1905.11.10	1	경성전보, 부산전보
1905.10.27	1	경성전보, 부산전보	1905.11.14	1	경성전보
1905.10.29	1	경성전보, 한성통신(5)	1905.11.17	1	경성전보
1905.10.31	1	경성전보, 부산전보, 한성통신(5)	1905.11.18	1	경성전보

경성전보(1905.11.19, 1면)	도쿄전보(1905.11.19, 1면)
徹宵の御前会議	日韓交渉決定
大使館の懇談	韓大臣と我公使
公使館の談諭	大使以下の盡瘁
反対意見強硬	日韓新協約に就て
取計を辞す	御警衛軍艦
往来頻繁	俘虜搭載船
小学生徒の質問	警厳令と避難民
博覧会計画	避難民収容
	騒憂と揚漕貨物
	露国財政危機

<資料4> 「関釜連絡船（二）」（『福岡日日新聞』1905年 9月 16日）

釜山の日本居留民は日清戦役当時五千に過ぎざりしもの今は一万三千余に達せり尚は駸々として増殖中にあり諸般交通機関の設備に伴い釜山の発達将来著大なるべきは疑を入れず京釜鉄道の草梁釜山間の延長は同社に於て既に設計を為し本年中に着手の予定（中略）韓国内地に於る水害は非常にして殊に農作の損害著しく概して昨年に比し約二割減ならん。本邦人の農業にして著大の損害を蒙り打撃を受けたるもの少からず然れどもこの実例は農業目的の本邦渡韓者に寧ろ好教訓を与えるものにして彼の韓人が平地の耕作地を捨てて顧みざる者の如く山腹以上に居住を構えるは唯此水害あるが為にして洪水は毎年非ざるも概して三年に一回と見ば大差なからん。されば今日に於て農業を営む者は此水害の参考を肝要とすべく大体韓国の農業を安全にし収利の大を計らんには大規模の治水工事を緊要とすべしと蓋し至言と云うべし。



## 일본유학체험 작가의 형상화된 여성상의 미학

길미현(우송대)

###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체험이라는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김동인, 김문집 작품에 나타나 있는 죽은 어머니에 대한 사모를 통해 에로티시즘의 미학의 메카니즘은 어떠한 내적, 외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죽은 어머니에 대한 사모를 통해 에로티시즘 세계를 묘사하고 미의식을 형상화한 작가는 谷崎潤一郎이다. 谷崎문학에서 일관되어 있는 미의식의 묘사는 어머니에 대한 사모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동경과 페티시즘이 연결되어 여체(女体) = 美라고 하는 도식의 여성상이 생성되고 어머니의 눈, 얼굴, 표정, 피부에 집착하는 谷崎의 이와 같은 병리학적인 요소는 크라프트 에빙(Krafft-Ebing)의 도착성(倒錯性)이 투영된 미의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인과 김문집은 일본 유미주의 대표작가 谷崎潤一郎에 대해서 언급한 유일한 작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두 작가의 문학과 谷崎문학과의 연관성 및 시대적 배경, 특히 영향관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김동인, 김문집의 죽은 어머니에 대한 사모를 통한 미의식의 발로는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谷崎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谷崎와 서양문학과의 연관성 연구는 중요하며, 그 결과를 김동인, 김문집 문학에 접목시켜 죽은 어머니의 사모를 통한 미적 모더니티의 영향관계를 분석, 검토하여 谷崎潤一郎, 김동인, 김문집문학에 나타나 있는 에로티시즘의 미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 상경(上京)하는 괴이(怪異)

- 아즈키 료(亜月亮)의 『도쿄도시전설』(東京都市伝説)을 중심으로 -

이문호(전주대)

### 1. 아즈키 료와 『도쿄도시전설』

아즈키 료(1970-, 이하 아즈키)는 1993년 데뷔 이래 소녀만화잡지 『리본(りぼん)』(集英社)과 『마가렛(マーガレット)』(集英社)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여성 소녀만화가이다. 스스로를 호러영화 매니아라고 칭하는 그녀는 다수의 소녀만화 풍 도시전설만화를 발표했는데 그중 『도쿄도시전설(東京都市伝説)』 시리즈는 웹잡지 『호러 실키(ホラーシルキー)』(白泉社)에 2019년 11월호(스토리1)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스토리24)인 가장 최근작이다.

『도쿄도시전설』 시리즈는 “잠들지 않는 도시”(眠らない都市) 도쿄에 위치한 편의점을 배경으로, 유명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 야가미 고키(八神光輝, 이하 야가미)와 야가미의 대학교 동기이자 아르바이트 동료인 시무라 겐토(志村建人, 이하 시무라), 영능력자 여고생 나나시마 아즈(七嶋あず) 등이 다양한 도시전설 속 괴이를 힘을 합쳐 퇴치해 가는 이야기이다.

본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발상한 도시전설 <핫샤쿠사마>(팔척귀신, 八尺様)를 다루고 있는 스토리1<sup>1)</sup>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인터넷괴담(ネット怪談)의 생성과 증식 그리고 변용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괴담 <핫샤쿠사마>와 상경의 문제

<핫샤쿠사마>는 본래 2ch(현재는 5ch로 바뀜)에 2008년 8월 26일 투고된 체험담 형식의 괴담으로, 1990년대 후반 고3이 되기 직전의 봄방학에 자신의 집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큰 집(농가)에 혼자 놀러갔던 투고자의 경험을 적은 것이다. 투고자에 따르면 큰집 마당에서 쉬고 있는데 ‘포포포’(ぽぽぽ) 하는 목소리가 들려와 산울타리(生垣) 쪽을 바라보니 울타리 위로 하얀모자가 보였고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로 하얀 원피스의 여성이 보였다. 산울타리가 2미터 가량이었으므로 여성의 키는 2미터(210=팔척)가 넘어 보였다. 그 이야기를 조부모에게 하자 조부모는 당황하며 투고자가 본 것은 핫샤쿠사마라는 요괴(厄介なもの)이며, 투고자가 핫샤쿠사마에게 홀렸다고 했다. 또 핫샤쿠사마는 보는 이에 따라 연령과 용모가 달리보이고 마을 경계에 있는 지장보살에 의해 봉인되어 있어 지구(地区)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나 홀린 사람은 수일내에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었다. 조부모와 마을 주민들에 의해 투고자는 창문이 가려지고 부적과 소금이 준비된 방에 갇혀 하룻밤을 보낸 뒤 뺨에 태워져 마을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감으로써 목숨을 건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투고 시점(2008년 8월 26일)에 조모에게서 연락이 와 핫샤쿠사마를 봉인한 지장

1) 亜月亮(2019) 「story01」 『東京都市伝説』 白泉社、pp.5-40.

보살 중 투고자가 살고 있는 방면의 길에 있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어 핫샤쿠사마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에서 마무리된다.<sup>2)</sup>

『도쿄도시전설』의 첫 에피소드인 스토리1(2019년 11월호)에서는 주인공 야가미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 어느 날 요괴 핫샤쿠사마가 찾아온다. 야가미는 핫샤쿠사마가 편의점에 나타나자 “마음의 스위치를 꺼두면 이것들은 그냥 지나쳐 갈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핫샤쿠사마는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고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데, 야가미는 보통이라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간의 세계와 이것들의 세계” 즉 “다른 세계 간”의 “물질이 실제로 왕래하는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 그때 편의점에서 우동을 먹고 있던 아즈가 자신도 야가미가 본 핫샤쿠사마를 보았다고 “나한테도 보여. 저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괴이한 것이. 아까 것은 아마 핫샤쿠사마야. 원래 동북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요괴라고 하던데, 인터넷의 도시전설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난 뒤 도쿄에서도 목격정보가 늘어나고 있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야가미가 “인터넷에서 널리 퍼졌다고 요괴가 상경해 올까요?”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아즈는 “그게 아니라 내 견해로는 본래는 우리들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 저런 괴이한 것들이 사는 세계는 차원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조우하는 일은 없어. 하지만 ‘도시전설’이라는 모양으로 인간계가 그 괴이를 강하게 의식함으로써 두 개의 세계가 이어져 버리는 일이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서로의 세계에서 물질의 교환이나 물리적 간섭이 가능해져”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즈의 이 설명이 단순한 만화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이른바 네트로어의 등장과 확산, 소비라는 일련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핫샤쿠사마의 상경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일본에서 ‘무서운 이야기’의 유행을 이끈 것은 인터넷상에 무명의 사람들이 투고한 ‘샤레코와’(洒落怖)로 불리는 인터넷 괴담이었다. ‘샤레코와’란 2ch내 오컬트판(オカルト板)의 스레드(スレッド) ‘죽을 만큼 심각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 보지 않을래?’(死ぬ洒落にならない怖い話を集めてみない?)의 약칭으로, 자신의 실제 체험담이나 전해들은 이야기, 소문, 전설, 창작 등, 장르나 진위를 불문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 게시판상에 공유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샤레코와’는 점차 투고자가 자신의 창작 괴담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투고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성격이 강해졌다. 인터넷 공간상에서 탄생한 ‘허구’의 괴담은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증식하며 마침내 도시전설화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쿠네쿠네>(くねくね), <핫샤쿠사마>(八尺様), <고토리바코>(コトリバコ), <스기사와무라>(杉沢村), <키사라기역>(きさらぎ駅), <이누나키무라>(犬鳴村) 등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생성된 도시전설을 가리켜 전통적인 구승, 서승(書承)에 의한 설화와 구별되는 전자매체를 통한 설화(電承説話), 즉, ‘네트로어’(ネットローア=インターネット+フォークローア)라는 표현도 등장하게 되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네트로어들이 괴담의 리얼리티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민속학

2) ASIOS+広田龍平(2022) 「八尺様」 『謎解き「都市伝説」』 彩図社、pp.170-171.참조

(民俗学), 내지는 토속(土俗)적 설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핫샤쿠사마의 신체성에 관해 논한 이토 료헤이(伊藤龍平)는 오컬트작가 야마구치 빈타로(山口敏太郎)가 핫샤쿠사마에 대해 “이 현대의 요괴전승은 민속학적인 에센스도 가미되어있고 잘 만들어진 캐릭터 설정도 매력적이다”라고 말한 바를 인용하며 “달리 말하면 네트로어에는 ‘전통’을 가장하고 싶어하는(装いたがる)이야기가 있다. 핫샤쿠사마의 네이밍자체가 민속신을 가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핫샤쿠사마도 쿠네쿠네도 종래의 민속학자가 주된 정보제공자로 삼아왔던 시골의 노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통속적 민속학 이미지가 상상력을 환기하는 작용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sup>3)</sup> 한편 시골이라는 네트로어의 장소와 관련하여, ‘민속학적 호러에 영향을 미친 샤레코와’에 관해 언급한 오컬트연구가 요시다 유키(吉田悠希)는 샤레코와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무서운 이야기를 쓴다면 이런 포맷이죠? 귀신이 나온다면 시골이죠”라는 식의 인식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sup>4)</sup> 민속학자인 이이쿠라 요시유키(飯倉義之)도 “쇼와의 끝 무렵까지 있었던 ‘시골 사람이 도회지에 나와서 도시사람이 된다는 회로’는 이미 기능하지 않고 도회지에서 수세대를 지나고 있으니까 경험이 없는 시골 쪽이 무서워진 것이죠. 요코미조 세이시의 시대에는 시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시골에는 이상한 놈들이나 이상한 풍습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였던 것이 이제는 ‘시골은 무섭다’로 쉬프트되어 있는 것이죠. ‘시골은 마을 전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실화괴담의 포맷에서는 ‘시골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외부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sup>5)</sup> 실제로 키사라기역(이세계)을 제외하고는 앞서 열거한 네트로어들의 공통점은 모두 시골(田舎) 즉 지방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마을 전체가 괴이에 관한 인습이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도시를 배경으로 했던 도시전설 <인면견>이나 <입찢어진 여자>와는 다른 민속학적 착장의 네트로어와 시골이라는 장소(토포스)의 상관관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이쿠라는 네트로어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일본에서 도시민속학이라는 것을 말하던 것이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였으나 그 후 도시민속학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미 도시가 아닌 곳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며 지리적으로는 좀 외진 곳이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원 스마트폰을 쓰고 티비로 메이저리그 생중계를 보며 오타니를 응원해 더 이상 도시란 지리적으로밖에 차이가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sup>6)</sup> 요시다도 “시골에 있다고 여겨져 왔던 격리된 뒤틀린 인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딱히 도회지에 있어도

3) 伊藤龍平(2016) 「八尺様とネットの身体について」 『ネットロア ウェブ時代の「ハナシ」の伝承』 青弓社、p.102.

4) 吉田悠希(2024) 「汲めども尽きぬ「民俗ホラー」という土壌」 『ジャパン・ホラーの現在地』 集英社、pp.159-160.

5) 吉田悠希(2024)의 전개서, pp.161-162. 한편 일본의 대표적인 2차창작물 SNS인 픽시브백과사전에 따르면 도시전설이란 현대에 생겨난 근거가 불명확하고 애매한 소문이야기의 총칭으로 여기서 말하는 도시란, 도회지의 의미가 아니라 도시화 이후 즉, 현대라는 시기적인 한정의 표현이므로 도시전설의 무대가 농촌이나 시골 등 도시 이외에도 문제는 없다고 정의되었다.

6) 吉田悠希(2024)의 전개서, p.178.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점점 도시의 쪽으로도 무대가 옮겨가는 흐름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시골의 인습마을 같은 것이 나오지만 도시 쪽으로도 침식해와서 도시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흐름이 있”7)다고 분석하였다. ‘동북지방의 전승’을 ‘가장’한 핫샤쿠사마의 상경 배경에는 이러한 2000년대 이후 네트로어의 전개과정이 전경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 3. 괴이의 변용과 해석

그렇다면 아즈가 말한 “도시전설’이라는 모양으로 인간계가 그 괴이를 강하게 의식함으로써 두 개의 세계가 이어져 버려 물질의 교환이나 물리적 간섭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트로어의 변용과 괴이의 해석을 의미한다.

편의점에 출현했던 핫샤쿠사마에 홀린 시무라는 그녀와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시무라의 눈에는 핫샤쿠사마가 하얀 피부의 미녀로 비춰진다. 시무라는 그녀를 ‘핫짱’(八っちゃん)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하지만 야가미와 아즈의 도움으로 잡아 먹히기 직전 요괴의 본모습을 보게 된다. 일단 물러난 ‘핫짱’은 시무라에게 문자를 보내 밤2시에 편의점으로 만나러 가겠다고 한다. 아즈는 “도시전설의 영향으로 ‘괴이’에 변화가 생긴거야” “정확히는 어제의 핫짱도 원래의 동북(지방)의 요괴와는 다른 것(別モノ)이라고 생각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됨으로써 인간의 호기심과 공포심이 ‘괴이’에 힘을 부여해 로리타웃이나 묘한 울음소리, 스마트폰까지 쓰는 등 다양한 설정이 부가된 새로운 도시전설이 된거야”라고 분석한다.

아즈의 이러한 분석은 네트로어가 겪는 변용(独)歩(독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핫샤쿠사마>의 경우 다른 네트로어와는 다르게 인간형, 그것도 여성형의 요괴라는 설정 때문에 캐릭터화되어 다방면에서 소비되었다. 이렇게 호기심과 공포심으로 ‘괴이를 강하게 의식’하는 행위(소비)가 오타쿠 취향의 설정을 부가한 새로운 도시전설 즉 ‘핫샤쿠사마’가 아닌 ‘핫짱’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것은 아즈마 히로키가 주장한 일본 서브컬처의 캐릭터소비와 데이터베이스 소비에 가까운 것으로 특히 핫샤쿠사마는 외모적 특징으로 인해 이야기의 각색이나 변형이 늘어나기 보다는 다수의 2차창작에서 성적(性的)으로 대상화되었다. 또 오네쇼타화(おねショタ化)<sup>8)</sup>되었는데 시무라와 핫짱의 데이트 장면은 이러한 핫샤쿠사마의 오네쇼타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야가미와 동료들은 ‘핫짱’을 물리치기 위해 편의점에 불경을 들고 진열된 물품들(도쿄의 소금, 향, 제취스프레이, 초, 액막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복합기로 출력한 부적)등을 동원한다. 특히 핫샤쿠사마를 봉인하는데 쓰였던 지장보살은 새로 출시된 지장보살 쿠키로 변용되어 쿠키를 먹음으로써 몸속에 결계를 친다는 설정으로 바뀐다. 그러나 막상 ‘핫짱’이 나타나자 편의점 유리창에 금이가며 위기를 맞이한다. 이미 알려진 핫샤쿠사마 퇴치법은 변

7) 吉田悠希(2024)의 전계서, p.181.

8) 오네쇼타란, 연상의 여성과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한 젊은 남성(소년)이 여성이 주도권을 쥐는 형태로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을 주제로 한 장르이다. ASIOS+広田龍平(2022)의 전계서, p.176.

용된 ‘핫짱’에게는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 야가미는 아즈의 분석을 바탕으로 “아즈의 이론대로 이 핫샤쿠사마가 도시전설의 신종(新種)이라면 종래의 요괴와는 다를 거야. 로리타 복장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쓰고 전에 편의점에 왔을 때 산 것도 여자가 좋아할 법한 달달한 것(スイーツ)이었어.” “이 핫샤쿠사마의 본질(中身)은 아마도 보통의 여자아이다. 보통의 여자아이가 환멸할 만한 일을 해서 싫어하게 만든다면”이라며 ‘핫짱’을 해석해 버린다. 결국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그라비아 잡지를 펼쳐 ‘핫짱’에게 보여주며 “이게 시무라가 매월 사는 애독지입니다”라고 외치자 핫짱은 “저질!! 말도 안돼.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대로 사라져 버린다.

인터넷상에서 네트로어를 해석(의식하는)하려고 하는 행위를 상기시키는 야가미의 ‘핫짱’ 정체 밝히기=괴이의 해석은 필연적으로 괴이의 퇴치법 발견으로 이어진다. 통상 괴이는 해석됨으로써 비일상(저 세계)에서 일상(이 세계)으로 변환되어<sup>9)</sup> 생명력을 잃고 만다. 예를 들어 <쿠네쿠네>와 같이 해석되기를 거부하며 해석(정체 밝히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광하게 만들어 괴담으로서의 공포와 생명력을 유지하는 괴담도 있다. 반면 <핫샤쿠사마>와 같이 무수한 변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괴담의 경우 반대로 해석(괴이를 강하게 의식함)으로써 비일상과 일상이 겹쳐지는(교차)하는 지점이 발생)되기를 ‘갈망’하는 괴이라고 볼 수 있다. <핫샤쿠사마>의 생명력은 무수한 변용과 해석을 통해 괴이가 지속적으로 인간 세계와 더 많은 접점을 가지려고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괴이가 ‘상경’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sup>9)</sup> 伊藤龍平(2016)의 전개서, p.36.

## ‘라인야후’ 사태를 바라보는 한일 언론 보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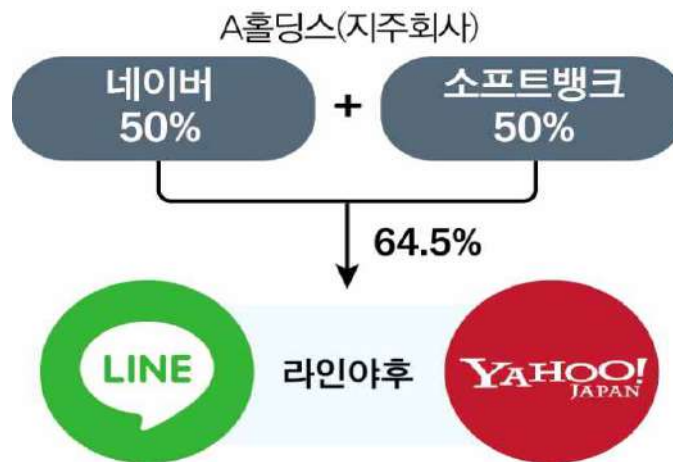
- 양국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

윤희각(부산외대) · 이충호(부산외대)

### 1. 들어가기

2021년 10월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3년 임기를 채운 9월 30일 퇴임한다. 두 나라 관계에서 누가 총리인지와 상관없이 두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을 빚어 왔다. 기시다 총리 재임 시절에도 두 나라는 역사 교과서, 독도,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군수정보보호협정 결정, 북핵,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2024년 또 하나의 갈등 이슈가 발생했다. 2023년 11월 라인야후에서 약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뒤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이다. 일본 정부는 대주주인 네이버에 크게 의존한 자본관계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이라며 네이버를 압박한 것이다.



<그림 1>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얹혀 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라인야후 사태가 앞으로 일본 정부의 지속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한국의 주요 IT 대기업인 네이버의 해외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어 자국내 플랫폼 기업을 독립하려는 의도, 즉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꺼지지 않을 불씨가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림 2> 네이버 일본사업 매출과 라인 이용자. 출처: 이데일리

이러한 배경으로 이 연구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두 나라의 주요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라인야후 사태 발생 이후 두 나라 언론 보도를 체계적,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는 데다, 기업 이슈에 대한 양국 언론 보도의 특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것이 기업의 문제라하더라도 외교적 사안이 걸린 언론 보도는 단순 사실 보도를 넘어서 해당 국가의 여론과 국익에도 민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언론이 양국 간 갈등을 둘러싼 이슈에서 사실관계 보도, 해설, 대안 제시 등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공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갈등 이슈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양국 언론의 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2.1 연구문제

앞서 서술했듯이 기시다 총리에서 발생한 또 다른 갈등 이슈인 라인야후 사태는 그동안 갈등 현안인 역사, 외교, 북핵과 달리 경제에 대한 이슈다. 이런 점에서 경제와 기업 갈등 이슈에 대한 두 나라의 언론 보도 분석은 연구 내용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이 연구는 양국의 전반적인 보도 행태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세 가지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1: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한국 주요 신문들의 보도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주요 신문들의 보도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양국 언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2.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양국 간 새로운 갈등 이슈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두 나라 언론의 보도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언론사 기사 수집은 한국 신문의 경우 종이지면으로 최종 보도된 기사를 분석했다. 일본 신문은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지면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즉, 온라인 기사가 아니라 종이지면 기사를 분석했다.

이 연구의 한국신문 분석 대상은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진보신문인 한겨레신문, 경제신문인 매일경제신문을 선택했다. 일본신문의 분석 대상은 보수신문인 요미우리신문, 일본 내 진보신문인 아사히신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택했다. 자료 수집은 2024년 1월부터 9월로 잡았다. 자료 검색은 ‘라인야후’ ‘행정 지도’로 했다. 그 결과 각 신문사별 기사(사설 포함)는 △조선일보 20건 △한겨레 20건△매일경제 19건이었다. 일본 신문은의 경우 △요미우리신문 6건 △아사히신문 14건 △니혼게이자이신문 7건으로 조사됐다.

### 3. 분석 결과

#### 3.1 한국 신문 분석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한국신문은 신문사 정파성에 따라 약간의 수위 차이만 보일 뿐 대체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안일한 대응을 보이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일본 내에서 네이버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경제신문할 것 없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한국 야당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고 있는 논조를 보였다. 세 신문의 59개 기사 가운데 주요 보도 행태는 아래의 <표 1, 2,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체명	날짜	제목	내용
조선일보	2024.4.26 (사설)	日 정부는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건가	일본정부가 한국 대표 기업에 경영권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적성국이라고 선언하는 꼴이다. 한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겨레	2024.5.14 (사설)	‘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빌미로 자국의 중요 사회 인프라로 자리잡은 라인으로부터 한국자본의 영향력을 일으킨 사건이다.(중략) 일본도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매일경제	2024.5.14. (오 피 니 언)	라인야후 사태와 포켓몬 카드	일본에서는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정부 눈 밖에 나면 철저한 ‘이지메’가 뒤따른다. 일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를 갖고도 라인야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표1>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력 관련 보도

매체명	날짜	제목	내용
조선일보	2024.5.11. (1면)	네이버 밀어내는 日,, 뒤늦게 나선 정부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부당한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난 지 약 6개월,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 첫 행정지도를 내리며 지분 재조정을 요구한 지 두 달여만이다
한겨레	2024.5.4 (사설)	‘라인사태’ 선넘는 일본, 윤 정부 대일 ‘저자세 외교’탓은 아닌가	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정지도를 하게 된 배경에 그동안 취해온 대일 ‘저자세 외교’의 영향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매일경제	2024.5.1	韓정부 안일한 대응에 비판 목소리	네이버가 일본의 압박으로 라인야후의 공동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우리 정부가 안일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표2>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 관련 보도

매체명	날짜	제목	내용
조선일보	2024.5.9	‘라인 아버지’ 배제,, 네이버 지우기 나선 日	네이버 지분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기술협력을 사실상 모두 끊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중략)이사회 멤버 중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CPO의 사내이사직 퇴진도 이날 발표했다. 네이버 출신인 신 CPO는 13년 전 라인을 일본에 세운 뒤 줄곧 운영을 책임져온 인물로 라인의 아버지라 불린다.
한겨레	2024.5.9	라인야후 ‘탈 네이버’ 공식 선언	네이버가 13년 동안 성장시킨 일본 국민 메신저인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라인야후’가 탈 네이버를 본격화하고 있다.
매일경제	2024.6.17	협상 앞둔 라인야후, 도넛은 네이버 지우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공동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탈네이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400만 사용자를 보유한 라인페이를 2025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페이페이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표3> 일본의 네이버 지우기 관련 보도

한국 신문의 경우 보수-진보-경제신문이 공히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일본 정부’를 제시했다. 세 신문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으며,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갈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이를 안일하게 대응한 한국 정부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 언론은 갈등 해결의 주체로 네이버의 공식 입장 및 향후 처리 과정에서의 분쟁 없는 합의, 라인 직원 고용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 데이터 주권 강화에 대한 대응 등을 주문하는 등 이 사안을 비교적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3.2 일본 신문 분석

일본에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비판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을 ‘발표 저널리즘’이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평가를 하고 있다(2024, 최민재 이홍천). 선행연구에서처럼 일본 보수, 진보, 경제매체를 분석했더니 일본 총무성 혹은 관련 기업인 소프트뱅크 발표 위주의 스트레이트 기사, 한국 특파원 발 한국 정부 혹은 네이버의 입장 표명 기사, 사태의 주원인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매체명	날짜	제목	내용
読売新聞	2024.3.5	個人情報流出、総務省がLINEヤフーに行政指導…委託先の監督強化と再発防止策の徹底求める	無料通信アプリ「LINE」利用者の個人情報が不正アクセスで流出した可能性がある問題で、総務省は5日、運営するLINEヤフーに対し、行政指導を行った。業務委託先の監督強化と再発防止策の徹底を求めた。
朝日新聞	2024.5.8	「甘く見過ぎ」怒りの総務省 迫られたLINEヤフー、委託ゼロ表明	LINEアプリの利用者情報が流出した問題で、運営するLINEヤフーは8日、流出の原因となった韓国IT大手ネイバーへの業務委託を「ゼロ」にすると表明した。総務省による2度にわたる異例の行政指導に追い込まれたかっこうだ。だが、総務省が求める資本関係の見直しの実現は見通せていない。「相当に強い依存関係が存在していた」 LINEヤフーへの行政指導で、総務省が繰り返し問題視したのがこの点だった。LIN
日本経済新聞	2024.5.9	LINEヤフー資本関係 ソフトバンク社長「見直し進める」	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の国内通信会社、ソフトバンクが9日開いた2024年3月期の決算説明会で、宮川潤一社長は子会社のLINEヤフーとの資本関係について「我々の事業戦略という観点で何が良いのかを真剣に議論し、資本の見直しも進めたい」と述べた。総務省は情報漏洩が相次いだLINEヤフーを行政指導した際、ソフトバンクに資本関係の見直시를口頭で要請していた。

<표4> 일본 정부 발표 기사

매체명	날짜	제목	내용
読売新聞			
朝日新聞	2024.5.14	韓国野党、LINEヤフー問題で批判強める 日本政府や尹政権を非難	LINEアプリの利用者情報などが流出した問題で、韓国の野党が日本政府や尹錫悦(윤석열)政権への批判を強めている。LINEヤフーをめぐる問題と、領有権をめぐる対立や日本の植民地支配を絡めて、政治問題化する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日本は)独島を自分の領土だと

			主張し、LINEを奪おうとしている」。進歩（革新）系野党・祖国革新党代表の曹国（チョグク）元法相は13日、日韓が領有権を主張する竹
日本経済新聞	2024.5.10	韓国ネイバー、LINEヤフー問題巡り「株式売却含め協議」	【ソウル=松浦奈美】LINEヤフーの情報漏洩問題を受け、韓国ネット大手ネイバーは10日、LINEヤフーに出資する中間持ち株会社の株式を売却する可能性について初めて言及した。合併相手であるソフトバンクと協議を進める考えを示した。 LINEヤフーに64.4%を出資する中間持ち株会社のAホールディングス（HD）は、ソフトバンクとネイバーが折半出資する。会社法上の親会社はソフトバンクで、ネイバーは大株主..

<표5> 한국 정부 혹은 네이버 發 발표 기사

매체명	날짜	제목	내용
読売新聞	2024.2.24	システム開発・運用「韓国依存」、LINEの情報漏洩…元親会社に委託	今や日本の生活インフラともいえるLINEヤフー（LY）。だが、昨年発覚したLINEアプリ利用者の情報漏洩ろうえい事件を通じて見てきたのは、驚くほどの「韓国依存の体質」（関係者）だった。旧LINE社は親会社だった韓国IT大手・ネイバーに重要なシステムの開発や運用を委ねてきたが、「親」を外部委託先として適切に管理できるのか。実はこうした懸念は2021年、海外でのデータ取り扱いが問題となった際も指摘されていた。（編集委員 若江雅子）
朝日新聞	2024.4.10	（社説）LINEヤフー個人情報保護徹底を	「新時代のインフラ」を掲げ、幅広いサービスの手段に利用されている通信アプリで、個人情報の保護がないがしろにされる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運営者は、重い責任を自覚し、管理体制を強化すべきだ。昨年秋に発覚したLINEアプリでの個人情報流出をめぐる、運営するLINEヤフーが先月、総務省から行政指導を受けた。個人情報保護委員会からも管理の不備を是正するよう勧告された。情報の流出は、業務委託先の韓国
日本経済新聞	2024.5.10	総務相「報告内容を確認」LINEヤフーの委託終了表明	・松本剛明総務相は10日、LINEヤフーの情報漏洩問題を探り「委託先管理が適切に機能するのが重要」と述べた。同社は8日に再発防止策の一環で大株主である韓国ネット大手ネイバーへの開発委託をやめると表明していた。松本総務相は、7月に予定する「報告をしっかりと確認していきたい」と強調した。 総務省はLINEヤフーの情報漏洩を受けて2024年3月に行政指導した。LINEヤフーは4月に再発防止策を盛り込んだ報告書を提出したが、総務省は「不十分」として2度目となる行政指導をしていた。同省は少なくとも1年間は四半期に1度の報告を求めており、LINEヤフーは7月1日までに再度、再発防止策を報告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표6> 사태 원인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기사

앞서 설명했듯이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서 주요 일본 신문들은 지나칠 정도의 받아쓰기 저널리즘, 즉 발표 저널리즘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보다는 일본 총무성의 발표, 행정 지도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분석 대상 세 신문 모두 네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본 관계 재검토와 보안 강화와의 연관성 부족,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한일투자협정을 위반할 가능성 등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분석 기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 4. 나가며

어떻게 보면 단순한 두 나라 기업 간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핵심 사안에 일본 정부가 끼어있다는 점에서 라인야후 이슈는 정치적, 경제적 갈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연구는 라인야후 사태에서 양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한국 3곳, 일본 3곳의 언론사의 보도 행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주요 보수-진보-경제신문은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주원인으로 일본 정부를 꼽고 있으며, 두 나라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일 주요 갈등 사안에서 양국 언론은 국수주의적 보도를 취한 적이 많았다. 이번 사안에서 한국언론은 갈등의 진단, 갈등의 원인, 갈등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주요 보수-진보-경제신문의 보도는 매우 국수주의적 보도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앞선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신문들은 일본 정부의 발표를 지지하는 형태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며, 사태의 원인과 진단, 해결책보다는 네이버의 개인정보유출 문제만 부각해 보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한 사안을 둘러싸고 한국 언론 보도는 자사의 이데올로기, 특정 정치적 목적에 편향된 경향성이 두드러졌으나 라인야후 사태에서 이러한 편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일본 언론 보도 역시 발표저널리즘의 형태이긴 하나 이데올로기, 정치적 목적과 관계없이 라인야후 사태에서는 친정부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민감한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양국 언론은 주로 대안 제시보다는 피상적인 보도 행태가 보이며, 국익에 우선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된 만큼 양국 언론의 보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 【参考文献】

최민재 이흥천(2024) 「라인야후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각」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브리프 pp.1-5.  
조동현(2024) 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발톱’ 드러낸 일본, 속내는 따로 있다. 매경이코노미





## 日本文化 分科 I





## 에도 3대 기근과 비정상 체험

홍성준(단국대)

### 1. 머리말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진, 화산, 태풍, 홍수, 기근, 역병, 화재, 다리 붕괴 등 각종 재해가 많았다. 여기에서 '재해'란 우리 인간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자연적인 재앙인 '천재(天災)'와 인위적인 재앙인 '인재(人災)'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천재와 인재가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두 가지 형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sup>

천재, 즉 자연재해는 현재에도 일본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 열도는 지리적인 특성상 지진, 화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세 에도시대(1603~1868년)에는 기근(飢饉)도 자주 발생하여 일반 서민 계층뿐만 아니라 무사 계층까지도 굶주림과 질병에 노출되던 시기가 있었다. '기근'은 '흉작으로 인해 식량이 결핍되는 일<sup>2)</sup>'을 뜻하는데,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농작물 피해로 인한 아사(餓死)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기근'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대흉작(大凶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3)</sup>

에도시대에는 큰 규모의 대기근이 네 차례 발생하였다. 농작물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량이 부족하고 굶주림에 따른 영양실조, 그밖에 각종 질병으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그동안 막부 체제 하에서 평온하게 지내온 사람들이 비일상(非日常)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을 의미하였다. 당연히 생각되었던 식량 공급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를 비일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동안 정상적인 범위로 간주되던 어떠한 사실이 비정상성(非正常性)을 띠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었다.

본 발표에서는 에도시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는 에도 3대 기근의 원인과 문제를 살펴보고,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인이 체험한 비정상성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 2. 에도 3대 기근의 원인과 문제

#### 2.1. 에도 3대 기근의 원인

일본 열도의 지리적인 특성상 지진과 화산은 오랜 옛날부터 대표적인 재해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밖에 태풍, 가뭄, 폭우, 폭염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본에 피해를 입혔고, 이는 작물 수확량에

---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1) 菊池勇夫(2023)『江戸時代の災害・飢饉・疫病―列島社会と地域社会のなかで―』、吉川弘文館、1쪽 참조.

2) 『日本国語大辞典』의 '飢饉' 항목 참조.

3) 菊池勇夫(2023) 앞의 책, 2쪽.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 부족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즉, 농작물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소위 말하는 기근(飢饉)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름	시기	피해 지역
교호의 기근 (享保の飢饉)	1732	서일본 지역
덴메이의 기근 (天明の飢饉)	1782-1788	전국 (특히 도호쿠 지방)
덴포의 기근 (天保の飢饉)	1833-1839	전국 (특히 도호쿠 지방, 무쓰노쿠니(陸奥国)·데와노쿠니(出羽国))

에도 3대 기근

기근 현상은 농작물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실질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농작물 수확을 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보면 대체로 자연재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30년부터 1640년에 걸쳐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17세기까지 지속된 소빙하기(小氷河期, Little Ice Age, 약 1300-1850년)의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 현종 재위 기간인 1670년부터 1671년까지의 경신대기근과 숙종 재위 기간인 1695년부터 1696년까지의 을병대기근은 조선의 전국적인 흉작을 원인으로 하는 대기근이다. 이는 소빙하기의 영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630년에 중국에서도 매서운 추위와 가뭄을 겪었다고 한다.

교호의 기근의 원인으로는 냉해(冷害)를 들 수 있다. 1731년 여름에도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하였고, 1732년에는 장마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며 냉하(冷夏)를 맞이하였다. 게다가 해충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벼농사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기록적인 대기근 현상이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덴메이의 기근 역시 냉해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발생한 아사마 산(淺間山)의 분화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고, 각지에서 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폭발하여 잇키(一揆)와 같은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덴포의 기근의 첫 번째 원인으로 역시 냉해를 꼽을 수 있으며, 그밖에 폭풍우와 같은 자연재해도 피해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농작물의 수확량이 평균의 3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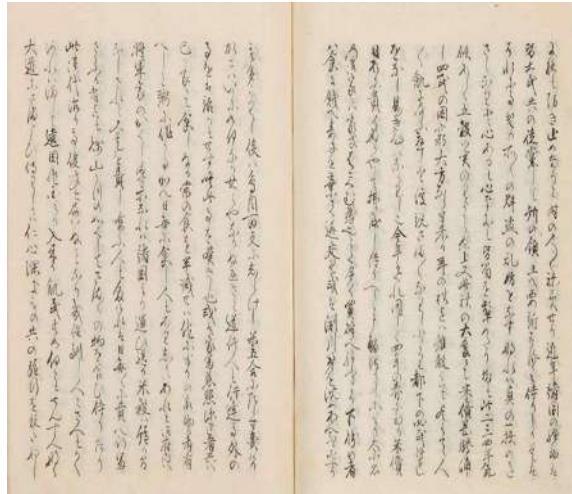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에도의 3대 기근의 원인이 냉해라는 점을 보면, 이들은 지구가 전반적으로 소빙하기에 접어들어 기온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2. 에도 3대 기근과 사회 문제

소빙하기에 접어들어 있던 지구의 전체적인 저온 현상에 따른 냉해가 에도 3대 기근의 원

인인 것처럼 대기근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기후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대기근이 일본 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식량 부족이 야기되어 아사자(餓死者)와 영양실조에 걸린 자가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에 편찬된 에도 막부의 공식 역사서인 『도쿠가와 실기(徳川実紀)』(1844년 완성)에 교호의 기근으로 97만 명에 가까운 아사자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노치미구사(後見草)』(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한, 난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의 『노치미구사(後見草)』(1787년 성립)<sup>4)</sup>에는 덴메이의 기근의 피해를 입은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약 2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쓰여 있다. 이렇듯 당시 편찬된 서적을 통하여 대기근으로 인한 아사자가 수만 명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작물 수확량이 줄고 식량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기아(飢餓)와 궁핍에 내몰린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스레 영양실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에도시대에는 일반적인 식습관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일본의 기본적인 식사 메뉴는 현미밥과 미소시루(味噌汁, 일본식 된장국), 채소와 생선 반찬이었는데, 서민들 사이에서 식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가가 고루 섭취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에도의 무사 계층이나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백미(白米)를 먹는 습관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비타민B1 결핍으로 이어져 각기병(脚気病)과 같은 병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의 각기병을 일본에서는 ‘에도 와즈라이(江戸わづらい)’라고 부른다.<sup>5)</sup> 이렇듯 영양 밸런스가 무너진 식습관이 영양실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대기근으로 인한 식재료 부족 현상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려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위생 상태가 위협

4) 스기타 겐파쿠의 『노치미구사』는 1657년에 발생한 메이레키 대화재(明暦の大火)를 비롯한 각종 천재 지변과 큰 이변,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등을 기록한 서적이다. 대기근과 관련해서는 덴메이의 기근 때 먹을 것을 찾아 해매던 사람들이 인육(人肉)을 먹고, 인육을 개고기라고 속여서 판매했던 당시의 참혹한 실정이 기록되어 있다.

5) 『農林水産省』, 「脚気の発生」 <https://www.maff.go.jp/j/meiji150/eiyo/01.html> (검색일: 2023.9.8)

받게 되자 자연스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였다.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따른 전염병 창궐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팬데믹(pandemic)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역(飢疫)이라고 한다. 근래 전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도 대표적인 팬데믹인데, 이는 굶주림이나 영양실조와 관계없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서 사람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킨 질환이다.<sup>6)</sup>

일본 역사에서는 덴포의 기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역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sup>7)</sup> 기근이라는 용어도 막말유신기(幕末維新期)를 전후하여 흉작(凶作)으로 대체되었다. 위생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고 의료 기술도 발달되면서 에도시대의 대기근과 같은 전국적인 기역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지구적인 이상 기후가 매년 이어지는 현대에 기근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세 번째로, 일본 사회에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즉, 사회적 불안이 점점 고조되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식량과 자원이 풍부해야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는데,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불안감이 감도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잇키(一揆)라고 하는 일종의 농민 반란과 우치코와시(打ちこわし)라는 폭동으로 표출되었다. 덴메이기(天明期; 1781-1789)에 에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30여 곳에서 대규모의 우치코와시가 발생하였고, 이는 대표적인 우치코와시이자 훗날 간세이의 개혁(寛政の改革; 1787-1793)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치코와시는 대체적으로 농민을 중심으로 한 도시 빈민층의 불만 표출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그 원인으로 물가상승, 쌀값 폭등과 쌀 부족 현상을 들 수 있다. 대기근 이후에 쌀값을 안정시키려는 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 보니 상인들의 쌀 사재기를 막지 못하고 그대로 매점매석으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농민 봉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부유한 계층에 대한 폭동으로 비유할 수 있다.

### 3. 대기근과 불평등 문제

#### 3.1. 계층 구조에 따른 불평등 문제

대기근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바로 무사 중심의 계층 구조와 그에 따른 식량 분배의 불평등 문제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가 에도 막부를 설립하고 무사는 나라의 지배 계층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에도시대의 신분 제도는 크게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나뉘고, 지배 계층은 사(士), 피지배 계층은 농(農)·공(工)·상(商)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에

---

6) 에도시대의 팬데믹은 콜레라, 홍역, 천연두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콜레라는 음용수의 청결 여부 및 배수 처리와 같은 수질 문제, 홍역과 천연두는 감염 바이러스의 유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인해 발생한 기근은 또다른 팬데믹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7) 菊池勇夫(2023) 앞의 책, 182-183쪽 참조.

도시대 초기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조닌(町人)의 신분이 상승하면서 전통적인 계층 구조에 변화가 생겨 동일한 상인 계층 안에서 다시 계층이 구분되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이는 에도, 교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조닌의 경제적인 성장과 맞물려 변화된 사회 현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본래 지배 계층이던 무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평민과 동등한 피지배 계층이던 상인들도 막강한 권한을 누리면서 식량을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평민(농민)은 자신이 속한 영지(領地) 안에서 부여받은 역(役)의 임무를 다하고 영주로부터 고정된 수입과 양식을 지급받아 생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지배 계층인 무사뿐만 아니라 상인들까지도 식량을 독점하는 상황이 되자 평민들은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아울러 대기근이 발생한 이후에 참근교대(參勤交代)와 같은 행사로 인한 막대한 비용 지출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가 불안정해졌다. 참근교대 시에 도쿠가와 쇼군에게 바치는 선물의 비용, 행렬 참가자의 복장이나 소지품 등의 비용 등 제반 비용 지출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물론 참근교대 행렬이 지나면서 지역 사회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에 이 제도가 평민들에게 나쁜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었지만, 대기근을 겪고 난 이후 일반 민중들은 굶주림에 지쳐가는 가운데 지배 계층은 호화로운 행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막부나 번에서 치르는 각종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지 않다 보니 일반 민중들의 부담이 배가되었던 것이다.

### 3.2.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大塩平八郎の乱)

덴포의 기근으로 많은 민중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때 관리들은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바빴다. 덴포의 기근은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이지만, 이를 함께 극복해야 할 영내(領内) 지배 계층들이 신분과 계급으로 차별을 두어 자신들이 다스리는 영민(領民)들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드는 바람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1837년의 도쿠가와 이에요시(徳川家慶, 1793-1853)의 제12대 쇼군 취임식은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이 발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쌀 부족으로 인하여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하여 민중들의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쇼군이 취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 취임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는데, '가이마이(廻米)<sup>8)</sup>'라고 불리는 쌀이 문제가 되었다. 취임식을 개최하려면 많은 양의 쌀이 필요했는데, 대기근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막부 행사를 위하여 쌀을 확보하는 일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심지어 이런 쌀 부족 현상 속에서 오사카의 조닌들이 쌀을 사재기하기 시작하였다. 쌀값 상승과 높은 이윤 추구, 즉 매점매석을 노린 행위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

8) '가이마이'는 에도시대에 사용된 용어로 쌀을 산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는 일을 뜻하는데, 특히 에도나 오사카로 수송된 쌀을 가리켰다. 또는 막부에 바친 연공미(年貢米)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한편, '가이마이(廻米)'를 '가이마이(買米)'라고 한자를 달리하여 '에도시대에 막부가 쌀값 인상을 위하여 조닌에게 강제적으로 쌀의 매입을 명령하는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막부가 쌀값 저하를 막기 위하여 조닌들로 하여금 가격 조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매입 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말도 있으나,<sup>9)</sup> 어찌 되었든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쌀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오시오는 민중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생활에 대한 불안을 등에 업고 부유한 상인의 저택에 대포와 불화살을 쏘며 진격하였다. 하지만 오시오가 주도하는 우치코와시라고 볼 수 있는 이 행동은 관리들의 저지를 받게 되어 반나절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오시오와 그의 아들 가쿠노스케는 한 달 넘도록 도망을 다녔고, 앞서 언급한 대로 3월 27일에 막부군에 발견되자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다.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은 반나절만에 진압되었지만, 오사카는 도시의 약 20% 가량이 불에 타버렸다. 당시 오사카 시내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화재의 발생 원인은 오시오 일행이 불을 질렀기 때문이었다. 이를 '오시오야케(大塩焼け)'라고 부른다. 반나절만에 진압된 민란이었지만 이 불로 인하여 오사카 시에 큰 피해를 안겨 주었다. 당시 발행된 정보지인 가와라반(瓦版)에 따르면, 요도가와(淀川) 강을 따라 많은 가옥이 불에 타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화재 기사와는 달리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절 쓰여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소동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0)</sup>

우치코와시의 일종인 이번 소란으로 인하여 오사카 시는 많은 부분이 불에 탔으며 막부와 일부 부유한 상인들의 쌀 사재기와 쌀값 조정으로 인한 일반 민중들의 분노가 겹쳐서 확인되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상인들의 저택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의 집도 불에 탔지만, 이를 주도한 오시오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막부의 정책과 일본 사회에 만연해 있던 사회적인 불만이 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은 반나절 만



'오시오야케(大塩焼け)'를 그린 그림  
『大阪府郷土史談』(1894년 간행)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9) 『日本国語大辞典』「買米」항목 참조.

10) 森田健司(2015) 『かわら版で読み解く江戸の大事件』, 彩図社, 108-109쪽 참조.

에 진압되었지만, 그 영향을 받아 일본 전역에서 1837년 2월의 비고 미하라의 잇키(備後三原の一揆), 6월의 에치고 가시와자키(越後柏崎)의 이쿠타 요로즈의 난(生田万の乱), 7월의 셋쓰 노세(摂津能勢)의 야마다야 다이스케(山田屋大助)의 잇키 등 광범위한 민란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다.

#### 4. 맺음말: 대기근과 비정상성

'비정상'이란 '정상이 아님'을 뜻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인간적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장에서는 부녀자를 납치하거나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가 자행된다. 전쟁에 동원되는 군인들도 전쟁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게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정상성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에도시대의 가이마이(廻米)는 본래 대량의 쌀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가리켰는데, 막부의 명령에 따라 주로 에도나 오사카로 수송하였다. 이렇게 옮겨진 쌀은 연공미(年貢米)로 바쳐지거나 에도나 오사카의 상인들에 의해 고가에 판매되어 이른바 매점매석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여겨졌다. 또한 가이마이는 막부에서 중요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쌀의 확보 방법이기도 했는데, 지배 계층인 무사계층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에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봉건제도가 엄격한 신분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최상위 계층에 자리하고 있는 무사 계층은 가이마이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이묘나 무가(武家)의 경제적 능력도 고쿠다카(石高, 영지 내 쌀 수입)라고 하여 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쌀이 지니는 상징성은 매우 컸다. 그런 가운데 막부의 행사 때 이루어진 쌀의 수송은 그 자체로서는 정상성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기근이라는 재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전염병이 도는 등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태가 지속되자 그동안 비정상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가이마이가 비정상성을 띠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837년의 도쿠가와 이에요시의 제12대 쇼군 취임식이었다.

잇키와 같은 농민 봉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는 있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쇼군 취임식을 화려하게 하기 위한 가이마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기근이라는 비일상적인 재해를 겪고 난 후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게 되었다. 당장 먹고 살 궁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민중들 입장에서는 고위층의 취임 행사에 대량의 쌀이 투입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려웠다. 또한 일부 부유하고 권위있는 상인들의 배만 불리는 가이마이를 용납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재난으로 인하여 정상성을 띠고 있던 가이마이가 비정상성을 띤 행위로 바뀐 것이었다.

#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활용한 도시활성화 정책의 방향성과 의미 연구

박희영(국립한밭대)

## 1. 들어가며

-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모든 도시를 획일적인 발전모델로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각 도시는 고유한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그 도시만의 개성과 매력을 상실
- 지역 도시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인구집중 등은 지역소멸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지역도시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세계 대부분의 지역과 도시들이 이전의 고속성장시대에 통하였던 도시 확대 지향형 경제 발전에 한계를 느끼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
-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도시들은 ‘문화’를 활용한 공간조성과 ‘문화’를 통한 지역 주민 혜택 제공 등을 기획하며 정책적 전략 방안 제시
-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과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에 주목하여 한국 정부에서 선정하고 있는 ‘문화도시’와 일본의 문화청 주도의 ‘창조도시’ 전략에 대한 최근의 정책의 방향성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지역중심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도시활성화 전략’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함

## 2. 문화도시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사례

### 1) 유럽문화도시사업

- 문화적 도시 재생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유럽의 산업도시들이 도시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방식으로 유럽인들은 문화유산의 보족과 유럽의 문화 통합에 기여하는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개발하자는 논의를 시작
- 생산성 중심의 도시공간이 주거/휴식/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전환(도시공간이 소비공간에서 시민의 문화공간의 전환)
- 대표적 활동이 그리스 문화장관인 멜리나 메르쿠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유럽문화도시, 아테네를 시작으로 진행된 유럽문화도시사업은 1999년 유럽문화수도사업으로 전환되어 도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진행, 성장중심의 도시를 문화/사람/역사 등이 융합된 창의적 문화도시로 탈바꿈

### 2)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UCCN: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는 2004년에 발족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창조성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략적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는 도시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
-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각 도시는 우량 사례를 공유하고 창의성과 문화산업을 촉진하는



- 파트너십을 구축해 문화적 생활 참여를 강화하고 도시개발계획에 문화를 통합
-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는 7개의 창조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음식문화,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



### 3) 동아시아 문화도시

#### 4.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 사항에 따라 한중일 3국 정부가 각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또는 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1-2곳씩 선정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및 3개 도시 간 교류 행사를 추진
-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상호이해와 연대감 형성을 촉진하고 역내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은 각 도시의 문화적 개성을 살리고 문화예술, 크리에이티브 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
-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도시들은 해당연도가 지난 이후에도 한중일 문화교류 및 청소년교류를 계속해서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각국 내에서 다른 연도의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를 강화하고, 아세안 문화도시 및 유럽문화수도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 동아시아 문화도시			
구 분	대한민국 (KOREA)	중국 (CHINA)	일본 (JAPAN)
2014년	광주광역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
2015년	청주시	칭다오시	니가타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닝보시	나라시
2017년	대구광역시	창사시	교토시
2018년	부산광역시	하얼빈시	가나자와시
2019년	인천광역시	시안시	도시마구
2020년	순천시 (순연)	양저우시	기타큐슈시 (순연)
2021년		샤오싱시, 톈광시	
2022년	경주시	쑤저우시, 지난시	오이타현
2023년	전주시	청두시, 메이저우시	시즈오카현
선정현황 (총 31개 도시)	9개 도시	13개 도시	9개 도시

### 3.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의 추진배경과 방향성

#### 1)추진배경

-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 성장 사다리이자, 지역 고유문화를 토대로 도시가 성장하는 모멘텀으로 ‘문화도시’ 필요
- 지역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영역으로 ‘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가 1위 차지,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문화불균형’ 해소 절실
- 기존 문화도시가 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단·추진해 나가는 ‘지역주도형’ 가치는 발전시키되, 문화를 통한 실질적 발전성과가 창출·확산되는 ‘선도모델’ 필요
- 지난 4년간 24개 문화도시 지정, 지역주도형 문화정책 촉발, 문화균형발전 기반 조성, 지역 문화 역량 강화 등에 기여

#### 2)문화도시 추진 현황

- 문체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고, 202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의 조성계획을 승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1년간의 상담과 예비사업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

#### 3)문화도시 방향성

- (자유) 지역중심 특화발전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적 도시브랜드 창출로, 도시의 경제적 발전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 도모
- (연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육성으로 문화균형발전 선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역별 문화도시를 집중육성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와의 연계·네트워킹 강화로 문화균형발전 선도 ~~~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방향>

- ◆ 대한민국 문화도시 2대 정책가치(자유, 연대)에 기초, 6대 추진 전략을 실현하는 도시 지정
- \* 6대 전략 ①문화창조 ②문화누림 ③문화혁신 ④사람연대 ⑤정책연대 ⑥지역연대

- 창의적 문화를 창출하는 도시,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도시, 문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선도, 지역문화발전 선도, 지역문화 동반성장 선도
- 누구나 문화도시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 지역만의 특화 문화로 도시 발전 이끌어, 인구감소지역에서 문화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신

#### 4. 일본의 창조도시 방향성과 흐름

##### 1) 일본의 창조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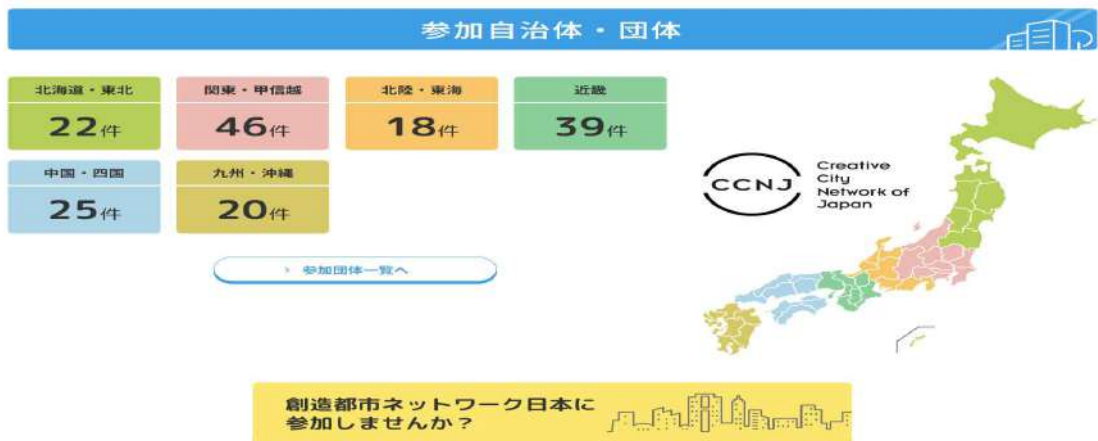
- 창조도시(Creative City)란, 세계화와 지식 정보 경제화가 급속히 진전한 21세기 초에 어울리는 도시의 본연의 자세의 하나로, 문화예술과 산업경제와의 창조성이 풍부한 도시
- 산업공동화와 지역황폐화로 고민하는 구미의 도시에서 1985년에 시작한 ‘유럽 문화 수도’ 사업 등 ‘예술 문화의 창조성을 살린 도시 재생의 시도’가 성공을 거둔 이래, 전세계에서 다수의 도시에서 행정, 예술가나 문화 단체, 기업, 대학, 주민 등의 연대 아래 진행

##### 2) 일본의 문화청 지원

- 문화청에서는, 문화 예술이 가지는 창조성을 지역 진흥, 관광·산업 진흥 등에 영역 횡단적으로 활용해, 지역 과제의 해결에 임하는 지방자치체를 ‘문화예술 창조도시’라고 자리매김하여, 문화청 장관 표창의 문화예술창조도시 부문(2007년도-), 창조도시추진사업(2009년도-), 창조도시모델사업(2010-2012년도) 등에 의한 창조도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창조도시네트워크일본’(CCNJ)을 통한 국내의 문화예술창조도시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시작해 정책 연구나 의견 교환 등의 지원

#### 創造都市ネットワーク日本(CCNJ)とは？

創造都市ネットワーク日本（CCNJ）は、創造都市の取組を推進する（または推進しようとする）地方自治体等、多様な主体を支援するとともに、国内及び世界の創造都市間の連携・交流を促進するための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わが国における創造都市の普及・発展を図ることを目的として、平成25年1月13日に設立されました。



## 이세계 전생물 유행에 관한 일고찰

홍성목(울산대)

### 1. 서론

최근 일본 만화·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세계 전생물異世界転生物’이다. 예전에도 등장인물이 이세계로 전생 또는 전이하는 작품은 있었지만 단편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뿐 붐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근래 10여 년 사이의 이세계 전생물에 대한 대중의 인기는 대단하다. 2020년에는 전 작품이 이세계 전생물로 이루어진 전자잡지 ‘주간 이세계 매거진 수요일의 시리우스『週刊異世界マガジン 水曜日のシリウス』’(고단샤講談社)가 창간될 정도이다.

이러한 인기는 일본에 그치지 않고 ‘전생하면 슬라임이었던 건轉生したらスライムだった件’ ‘오버로드オーバーロード’ ‘이세계 유유자적 농가異世界のんびり農家’등 많은 작품들이 애니메이션 방영 등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까지 그 인기가 확대되고 있다. 영어권에서 ‘전생’은 ‘reincarn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장르적으로는 일본어 그대로의 ‘Isekai’로 통용되며 비속어 사전인 Urban Dictionary에 따르면 ‘Isekai’는 동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트릭에 치여 이세계로 전생하는 행위.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액션’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5~6년 전부터 일본의 이러한 이세계 전생물 붐이 건너와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 많은 작품이 투고되고 있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sup>1)</sup>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일본 사회에서 ‘이세계 전생물’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을까.

### 2. 이세계 전생물의 유행

‘이세계 전생물’은 사고나 병환 등을 계기로 등장인물이 태어나고 자란 세계와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작품이다.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 ‘전생’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그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전이’하는 경우도 있다. 전생, 전이된 세계는 유럽 중세풍인 경우가 많고 주인공은 신 또는 세계시스템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게서 다양한 능력을 부여받는다. 과거 많은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이세계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세계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고, 애초에 이세계로 환생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 만화로는 1970년대에 우메즈 카즈오榎岡かずお의 ‘표류교실漂流教室’이 인기를 끌었고 데즈카 오사무手塚治虫의 ‘불의 새火の鳥’ 시리즈에도 과거와 미래로 날아가는 에피

---

1)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아멜라이드. 황자, 네 무엇이 되고 싶으냐? 레이디 베이비. 정령왕 엘 퀴네스. 황태자 약혼녀로 살아남기. 칼과 드레스. 아이리스 - 스마트폰을 든 레이디. 나는 이 집 아이. 악녀의 정의. 먹은 건 당신밖에 없어요. 귀환자의 마법은 특별해야 합니다. 블러디 메리지. 빛과 그림자. 아도니스. 왕의 공녀. 레이디 비스트. 황제와 여기사. 왜 이러세요, 공작님!. 치트라. 구경하는 들러리양. 뜻대로 하세요. 해골병사는 던전을 지키지 못했다. 시카 울프. 뮈엘라의 수사관.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사표내고 이계에서 힐링합니다. 어느 마법사의 식당. 이세계 캠핑으로 힐링라이프. 역대급 영지 설계사 등.

소드가 다수 등장한다. 이세계는 아니지만 1976년부터 지금까지도 연재되고 있는 호소카와 치에코&후민細川智栄子あんど芙～みんの ‘왕가의 문장王家の紋章’은 20세기에 태어난 소녀가 고대 이집트로 전이되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이세계 관련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히와타리 사키日渡早紀의 ‘나의 지구를 지켜줘’『ぼくの地球を守って』, 히카와 료코ひかわきょうこの ‘저편에서’『彼方から』, 와타세 유우渡瀬悠宇의 ‘후시기유기’『ふしぎ遊戯』 등이 있다.

소설로는 역사 속 특정 시대로 현대인이 타임슬립하는 작품인 오노 후유미小野不由美의 ‘십이국기 시리즈’『十二国記シリーズ』, 시노하라 치에篠原千絵의 ‘하늘은 붉은 강변’『天は赤い河のほとり』, 한무라 료半村良의 ‘전국 자위대’『戦国自衛隊』 등이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이세계 전생물’이 본격적으로 붐을 일으키는데 시발점이 된 것은 온라인 소설 투고 사이트 ‘소설가가 되자’『小説家になろう』<sup>2)</sup>에서 연재된 소설로 보고 있다. 작가이자 문학평론가인 오하시 타카유키大橋崇行은 “웹소설의 주류가 「Arcadia」에서 「소설가가 되자」로 옮겨가는 가운데 이치제로 시대(2010년대 : 필자 주)에 게임 속 세계의 자신이 만들어 키운 캐릭터로 전생하여 활약하는 ‘소드 아트 온라인’이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하며 그 주인공 키리토와 같은 이른바 ‘나 엄청 강해!俺TUEEEEEEE!’ 주인공이 패턴화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sup>

‘이세계 전생물’의 인기는 소설 판매량과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부가가치 창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라이트 노벨 역대 판매랭킹 중 1000만부 이상 발매된 작품 자료이다. 이세계 전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전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방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                                  |               |
|-------|----------------------------------|---------------|
| 【1位】  | 転生したらスライムだった件：45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2位】  | 葉屋のひとりごと：3800万部                  | -만화 제작-       |
| 【3位】  | とあるシリーズ：31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4位】  | ソードアート・オンライン：30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5位】  | 魔法科高校の劣等生：25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6位】  | 涼宮ハルヒシリーズ：20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6位】  | スレイヤーズ：20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8位】  | とある魔術の禁書目録：18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9位】  | ダンジョンに会いを求めるのは間違っているだろうか：17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10位】 | 無職転生～異世界行ったら本気だす～：1485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11位】 | オーバーロード：14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12位】 | Re:ゼロから始める異世界生活：13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13位】 | 魔術士オーフェン：12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14位】 | フルメタル・パニック！：115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15位】 | 本好きの下剋上：11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 【15位】 | 盾の勇者の成り上がり <sup>4)</sup> ：1100万部 | -TV 애니메이션 제작- |

2) <https://syosetu.com/>

3) 현대 비즈니스 2021년 2월 21일 기사. <https://gendai.media/articles/-/80375?page=2>

【17位】ゴブリンスレイヤー：1000万部 -TV 애니메이션 제작-  
 【17位】この素晴らしい世界に祝福を！：1000万部 -TV 애니메이션 제작-  
 【17位】フォーチュン・クエスト：1000万部 -가정용 콘솔 게임 제작-  
 【17位】やはり俺の青春ラブコメはまちがっている。：1000万部 -가정용 콘솔 게임 제작-  
 【17位】ロードス島戦記：1000万部 -TV 애니메이션 제작-

【표1】라이트 노벨 판매부수4)

그렇다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온라인 소설 투고 사이트인 ‘소설가가 되자’ 「小説家になろう」와 ‘카쿠요무’ 「カクヨム」<sup>5)</sup>의 현황은 어떠할까. 다음은 「小説家になろう」와 「カクヨム」의 인기 누계 순위인데 이세계 전생물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小説家になろう」	「カクヨム」
1位 とんでもスキルで異世界放浪メシ	1位 転移したら山の中だった。反動で強さよりも快適さを選びました。
2位 転生したらスライムだった件	2位 異世界でチート能力(スキル)を手にした俺は…
3位 無職転生 - 異世界行ったら本気だす	3位 転生七女ではじめる異世界ライフ
4位 魔導具師タリヤはうつむかない	4位 物語の黒幕に転生して～進化する魔剣とゲーム知識ですべてをねじ伏せる～
5位 ありふれた職業で世界最強	5位 ゲーム世界転生 〈ダン活〉～
6位 ヘルモード ～やり込み好きのゲーマーは廃設定の異世界で無双する～	6位 極振り拒否して手探りスタート！
7位 蜘蛛ですが、なにか？	7位 金属スライムを倒しまくった俺が【黒鋼の王】と呼ばれるまで
8位 葉屋のひとりごと	8位 生活魔法使いの下剋上
9位 陰の実力者になりたくて！	9位 悪人面したB級冒険者…
10位 Re：ゼロから始める異世界生活	10位 誰にでもできる影から助ける魔王討伐
11位 聖女の魔力は万能です	11位 豚公爵に転生したから、今度は君に好きと言いたい
12位 本好きの下剋上 ～司書になるためには手段を選んでいられません～	12位 デーモンルーラー～定時に帰りたい男のやりすぎレベリング～
13位 お気楽領主の楽しい領地防衛 ～生産系魔術で名もなき村を最強の城塞都市に～	13位 魔法使いと愉快な仲間たち…
14位 シャングリラ・フロンティア～クソゲーハンター、神ゲーに挑まんす～	14位 極めて傲慢たる悪役貴族の所業
15位 異世界のんびり農家	15位 いずれ最強に至る転生魔法使い
16位 デスマーチからはじまる異世界狂想曲	16位 凡人転生の努力無双～赤ちゃんの頃から努力してたらいつのまにか日本の未来を背負ってました～
17位 ループ7回目の悪役令嬢は、元敵国で自由気ままな花嫁生活を満喫する	17位 たらいつのまにか日本の未来を背負ってました～
18位 魔術師クノンは見えている	18位 底辺冒険者なおっさんの俺…
19位 神達に拾われた男	19位 自力で異世界へ！～優しい仲間と一緒に異世界生活を満喫します～
20位 ハズレ枠の【状態異常スキル】で最強になった俺がすべてを蹂躞するまで	20位 クラス最安値で売られた俺は、実は最強パラメーター

【표2】「小説家になろう」와 「カクヨム」의 종합순위

4) <https://ln-news.com/page/circulation>

5) <https://kakuyomu.jp/>

다음으로 TV(민방포함)에서 방영된 이세계 전생 관련 애니메이션 작품 수를 확인해보자. 이세계물이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방영된 시기는 2013년으로 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 수가 점점 증가하여 2019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b>2013년 6편</b> 春 はたらく魔王さま! 春 アラタ カンガタリ〜革神語〜 春 翠星のガルガンティア 秋 アウトブレイク・カンパニー 秋 ログ・ホライズン 冬 問題児たちが異世界から来るそうですよ? <b>2014년 1편</b> 春 ノーゲーム・ノーライフ <b>2015년 3편</b> 夏 GATE(ゲート) -自衛隊 彼の地にて、斯く戦えり- 夏 オーバーロード 夏 バケモノの子 <b>2016년 6편</b> 春 Re:ゼロから始める異世界生活 春 エンドライド 秋 ドリフターズ 秋 ボッピンQ 冬 この素晴らしい世界に祝福を! 冬 灰と幻想のグリムガル <b>2017년 6편</b> 春 Re:CREATORS(レクリエイターズ) 夏 ナイツ&マジック 夏 異世界はスマートフォンとともに。 夏 異世界食堂 冬 幼女戦記 冬 この素晴らしい世界に祝福を! 2 2018년 7편 春 異世界居酒屋～古都アイテリアの居酒屋のふ～ 夏 異世界魔王と召喚少女の奴隷魔術 夏 百鍊の覇王と聖約の戦乙女 秋 転生したらスライムだった件 秋 CONCEPTION 冬 デスマーチからはじまる異世界狂想曲 冬 オーバーロードⅡ <b>2019년 14편</b> 春 賢者の孫 春 異世界かるてっと 夏 ありふれた職業で世界最強 夏 魔王様、リトライ! 夏 異世界チート魔術師 夏 コップクラフト 夏 通常攻撃が全体攻撃で二回攻撃のお母さんは好きですか? 夏 グランベルム 秋 本好きの下剋上 司書になるためには手段を選んでいられません 秋 慎重勇者～この勇者が俺TUEEEくせに慎重すぎる～ 秋 私、能力は平均値でって言ったよね! 秋 旗揚げものみち 秋 超人高校生たちは異世界でも余裕で生き抜くようです! 冬 盾の勇者の成り上がり <b>2020년 11편</b> 春 ハ男って、それはないでしょう! 春 乙女ゲームの破滅フラグしかない悪役令嬢に転生してしまった… 春 社長、バトルの時間です! 夏 Re:ゼロから始める異世界生活 2nd season 夏 巨人族の花嫁	夏 魔王学院の不適合格者～史上最強の魔王の始祖、転生して子孫たちの学校へ通う～ 夏 モンスター娘のお医者さん 秋 神達に拾われた男 秋 くまクマ熊ベアー 秋 100万の命の上に俺は立っている 冬 異種族レビューーズ <b>2021년 25편</b> 春 スライム倒して300年、知らないうちにレベルMAXになってしまった 春 聖女の魔力は万能です 春 戦闘員、派遣します! 春 転生したらスライムだった件 転スラ日記 春 異世界魔王と召喚少女の奴隷魔術Ω 夏 精霊幻想記 夏 月が導く異世界道中 夏 現実主義勇者の王国再建記 夏 迷宮ブラックカンパニー 夏 チート薬師のスローライフ～異世界に作るドラッグストア～ 夏 100万の命の上に俺は立っている(第2シーズン) 秋 最果てのバラディン 秋 世界最高の暗殺者、異世界貴族に転生する 秋 進化の実～知らないうちに勝ち組人生～ 秋 異世界食堂2 秋 真の仲間じゃないと勇者のパーティーを追い出されたので、辺境でスローライフ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冬 無職転生 - 異世界行ったら本気だす - 冬 蜘蛛ですが、なにか? 冬 転生したらスライムだった件 第2期 冬 異世界ビクニク 冬 ログ・ホライズン 円卓崩壊 冬 装甲娘機機 冬 たとえばラストダンジョン前の村の少年が序盤の街で暮らすような物語 冬 回復術士のやり直し 冬 俺だけ入れる隠しダンジョン <b>2022년 23편</b> 春 盾の勇者の成り上がり Season 2 春 乙女ゲー世界はモブに厳しい世界です 春 処刑少女の生きる道 春 RPG不動座 春 バリバ孔明 春 骸骨騎士様、只今異世界へお出掛け 春 勇者、辞めます 夏 異世界おじさん 夏 異世界薬局 夏 オーバーロードⅣ 夏 黒の召喚士 夏 本好きの下剋上 司書になるためには手段を選んでいられません(第3期) 夏 転生賢者の異世界ライフ～第二の職業を得て、世界最強になりました～ 夏 異世界迷宮でハーレムを 夏 ダンジョンに出会いを求めるのは間違っているだろうかⅣ 新章 迷宮篇 秋 陰の実力者になりたくて! 秋 転生したら剣でした 秋 農民閥連のスキルばっか上げてたら何故か強くなった。 冬 異世界美少女受肉おじさんと 冬 リアデイルの大地にて 冬 失格紋の最強賢者 夏 ありふれた職業で世界最強 2nd season 冬 賢者の弟子を名乗る賢者
---	---

※2023년 19편 제작·방영

【표3】 2013년 이후 TV 방영 이세계 전생 관련 애니메이션

### 3. 이세계 전생물 유행에서 보이는 일본의 사회상

많은 ‘이세계 전생물’ 작품이 현세에서도 별 볼일 없는 삶을 살던 주인공이 이세계로 전생(또는 전이)하여 갑자기 크게 활약을 하면서 인기를 끌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세계 전생을 주제로 한 만화, 애니메이션, 라이트노벨은 대형 출판사 매출의 큰 부분을 책임질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왜 일본에서 사람들이 이세계를 꿈꾸고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발표자는 일본에서 과거에 실시된 유토리 교육에 원인의 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 유토리 교육(ゆとり教育)이란 일본에서 2002년도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고등학교는 2015년 3월 졸업생까지) 실시된 여유로운 학교를 지향하는 교육을 말한다. 주입식 교육으로 불리는 지식량 편중형 교육정책을 시정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에 중점을 둔 경험중심형 교육정책으로 학습시간과 학습내용을 줄여 여유로운 학교를 지향하는 교육이었으나 심각한 학력저하로 인하여 2011년 폐지되었다.<sup>6)</sup>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사회로 나오는 시기와 이세계물 유행 시기가 거의 겹침.

※경쟁을 의식하지 않고 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방침은 사회경쟁력 저하, 사생활 중시, 서투른 인간관계로 나타남.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의 위안처로 이세계물이 유행.

※ 초기 이세계 전생물의 주인공은 대부분 ①사회에 적응하지 못함. ②친구가 없음. ③고정 직업이 없거나 블랙 기업에 근무. ④이세계 전생 후 치트를 가지면서 활약.

---

6) 筒井勝美・中原猛(2020) 「ゆとり教育と日本の科学技術の衰退」 『Journal of quality education』 vol.10、国際教育学会、pp.95-107. 참조



## 영화 「HOKUSAI」와 우키요에

윤승민(동의대)

### 1. 들어가며

1867년 대정봉환이 이루어지고 에도 막부는 멸망하고 일본은 메이지 천황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대정봉환은 1867년 11월 10일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막부가 천황에게 국가 통치권을 돌려주기 전인 1867년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제2회 파리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에도 막부는 도자기와 차, 부채, 우키요에 등을 유럽에 소개하면서 유럽에서는 일본의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포니즘」<sup>1)</sup>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광적인 일본 문화에 대한 예찬의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한 장의 종이였다. 1865년 프랑스 화가 브라크몽이 한 인쇄소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도자기가 깨지지 않도록 상자 안에 넣은 포장지를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이에 브라크몽은 이를 친분이 있던 자들에게 소개하는데 이 종이가 바로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만화였다. 기존의 유럽에서 유행하던 사실적 화풍과는 전혀 다른, 거침없이 자유로운 선과 표현, 원근법, 공간법 등은 유럽 화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사실 우키요에 화집들은 1853년 일본이 개항하기 이전에 유일하게 교역하던 네덜란드를 통해 유럽에 소개되었으며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네덜란드 전시관에서 일본 미술품이 전시 및 거래되었는데 이후 우키요에에서 보여진 과격적인 구성과 간결함, 화려한 색채는 당시 사실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던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고흐, 모네, 마네 등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우키요에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자신들의 작품에 우키요에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였다.



(그림 좌로부터 : 가쓰시카 호쿠사이 「호쿠사이 만화」, 드가 「踊り子たち、ピンクと緑」, 고흐 「탕기엄감의 초상」, 모네 「기모노를 입은 여인」)

1) 1892년 프랑스의 미술비평가인 필립 뷔르티는 일본 미술품이 유럽 예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현상을 「자포니즘」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자포니즘」의 원동력이 된 가쓰시카 호쿠사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호쿠사이의 일생을 다룬 영화 「HOKUSAI」를 통해 호쿠사이의 삶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또한 작품의 의도와 실제 호쿠사이의 삶과의 유사성과 상이점을 알아보고 이러한 자료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생애와 영화 「HOKUSAI」

가쓰시카 호쿠사이(1760?~1849)는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 화가로, 전 생애를 거쳐 3만 4천 점 이상의 작품을 남긴 인물이다. 우키요에 뿐만 아니라 기묘시, 요미혼, 교카본 등의 그림도 담당하는 등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호쿠사이는 당대를 풍미하던 우키요에 화가인 가쓰카와 순쇼(勝川春章) 하에서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가쓰카와 순로(勝川春朗)라는 이름으로 1779년 데뷔하여 약 15년간 가쓰카와 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 호쿠사이는 기본적으로는 가쓰카와 일문으로 우키요에를 배우고 있었지만 왕성한 호기심으로 인해 중국 회화를 비롯한 우키요에 이외의 표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가쓰카와파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가노파(狩野派)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 때문에 가쓰카와 일문에서 파문당했다는 일설도 있다. 이후 1795년에서 1804년까지 9년간 3대 다와라야 소리(俵屋宗理)를 습명하여 이 시기를 소리 시대라 부르는데 호쿠사이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시킨 시기이다. 호쿠사이의 학습 열망은 그칠 줄 몰랐는데 쓰쓰미 도린에게서 한화(漢画, 중국화)를, 스미요시 히로유키에게서 도사파의 화풍을, 시바 고칸에게서는 서양화와 동판화를 배워 일본, 중국, 서양의 화풍을 모두 습득하여 이를 가쓰시카파로 완성하였다.

스스로 모든 삼라만상을 그리겠다고 공언하였고 실제로 풍경, 인물, 풍속, 사물을 넘나들며 다양한 소재의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그는 어딘가에 안주하는 것을 싫어한 탓에 평생 호를 30번 이상 바꾸었고 93번이나 이사를 다녔으며 어떤 날은 하루에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전해지는 등 기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대표작은 「후가쿠 36경(富嶽三十六景)」 등이 있는데 특히 「가나가와의 높은 파도 아래(神奈川沖浪裏)」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쿠사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미술가뿐 아니라 「달빛」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곡가 드뷔시는 「가나가와의 높은 파도 아래」를 보고 교향시 「바다(La Mer)」를 작곡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영화 「HOKUSAI」는 이러한 우키요에 작가 호쿠사이의 일생을 치밀하게 그린 작품으로 2020년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1년 5월 개봉되었다. 청년 시절의 호쿠사이를 야기라 유야가, 노년 역은 다나카 민이 맡아 더블 주연으로 영화는 진행되고 에도 시대 유명한 우키요에 화가인 기타가와 우타마로, 도슈사이 사라쿠를 각각 다마키 히로시, 우라가미 세이슈가 맡았으며 우타마로와 사라쿠를 배출한 회대의 출판인 쓰타야 주자부로 역에는 아베 히로시가, 만년의 호쿠사이가 삽화를 그려주는 고칸 작가 류테이 다네히코 역은 에이타

가 연기하였다. 한국에서는 2023년 7월에 개봉되었으나 총 관객 수가 불과 339명에 그치고 말아 흥행에는 대실패하였다. 영화는 총 129분의 러닝 타임으로 총 4장 구성으로 제1장과 2장은 청년 시절의, 그리고 제3, 4장은 만년의 호쿠사이의 삶을 그의 변화와 성장을 분기점으로 전 생애를 조망하고 있다. 사실과 허구가 적절히 혼재된 전체적으로 호쿠사이의 성장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소년이 물가에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바로 에도 시대 막부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유키요에, 게사쿠 등의 초년 문화를 탄압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스토리는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에도 시대의 대표적 한모토였던 쓰타야 주자부로(蔦屋重三郎)이다. 주자부로는 「경서당(耕書堂)」을 운영하며 우타마로 및 샤라쿠를 발굴해 낸 인물이기도 하다. 영화에서는 호쿠사이에게 자극을 주어 그의 예술관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든 인물로 그려져 있다.

츠타야 주자부로를 통해 우타마로, 그리고 샤라쿠를 만난 호쿠사이는 처음에는 그들의 예술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만을 고집하게 된다. 유곽에 거주하며 여성의 그림만을 그리는 우타마로와의 대면에서 우타마로가 호쿠사이의 그림에 대해 「눈앞에 있는 걸 그대로 그렸을 뿐」「겉만 그럴듯하고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혹평을 한다. 이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우타마로가 그리는 그림을 지켜보는데 이 때 완성된 그림이 우타마로 최고의 걸작이라 평가받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여인(姿見七人化粧)」이라고 영화에서는 전개된다. 이후 호쿠사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우타마로의 것보다 더 잘 그렸다면 이를 주자부로에게 보여주지만 주자부로는 오히려 호쿠사이에게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묻는다. 호쿠사이는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닌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그림이었다고 대답하는데 주자부로는 그런 시시한 이유로 화가라 되려 했다면 그림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호쿠사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자신의 세계만이 최고라 생각하는 아직은 미성숙한 청년기의 호쿠사이를 그럴 의도로 보여진다.

이후 주자부로는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고 그의 재능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가 바로 도슈사이 샤라쿠이다. 9개월 간의 짧은 활동기간 동안 145점의 우키요에를 출시한 후 홀연 사라진 미스터리한 인물인 샤라쿠를 발굴해 낸 인물이 바로 주자부로인데 영화에서는 자신과는 달리 샤라쿠의 그림을 높이 평가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 주자부로의 안목을 비난하는 호쿠사이의 모습도 보인다. 영화 중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주자부로는 주최한 샤라쿠를 위한 연회이다. 호쿠사이, 우타마로까지 한 자리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샤라쿠에게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는데, 이 자리에서도 호쿠사이는 샤라쿠의 그림에 대해 얼굴도 손도 크기가 제멋대로 표정 역시 우스꽝스럽다며 이것을 과연 그림이라고 할 수 없냐고 샤라쿠의 그림을 높이 평가하는 주자부로의 안목을 비난한다. 샤라쿠는 이에 대해 자신은 그림을 붓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즐겁게 그림을 그릴 뿐이라고 답하는데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호쿠사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에피

소드 역시 우타마로 장면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화가라는 프라이드만 있고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호쿠사이의 변화 전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연출한 장면으로 보인다. 영화 전반부에서는 쓰타야 주자부로를 매개로 당대의 최고 우키요에 작가인 호쿠사이, 우타마로, 샤라쿠를 등장시키며 이들의 관련성을 그려내고 있다. 주자부리가 우타마로 및 샤라쿠를 발굴하고 키웠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젊은 시절의 호쿠사이와 관련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주자부리와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잘 알 수 없고, 영화에서처럼 주자부리를 매개로 호쿠사이와 우타마로, 샤라쿠가 서로 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설정은 우키요에 작가를 한 곳에 모아 흥미를 끌려고 한 영화의 설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1799년, 1800년, 그리고 1815년 쓰타야 주자부로<sup>2)</sup>에 의해 발간된 호쿠사이의 서적이 보이므로 친분관계는 있었다고 하겠다.

현실적 고증과 허구적 상상력의 결합으로 영화 「HOKUSAI」는 진행되는 데, 샤라쿠와의 대면에서 자극을 받은 호쿠사이가 이후 방랑의 길을 떠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껍질을 깨고 나와 보다 자유롭고 기발한 발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전개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바킨(馬琴)과 류테이 다네히코(柳亭種彦)와의 관계성도 그려지는데 특히 다네히코의 작품에 끌려 그의 작품의 삽화를 그리면서 친분을 이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중반부 이후 비중 있게 그려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만년의 호쿠사이의 예술혼을 그리고 있는데 돌풍 속에서 갑자기 착안하며 「호쿠사이 만화」가 완성되는 과정 및 막부에 의한 탄압으로 다네히코의 죽은 후 그에 대한 추모와 그를 죽인 막부에 대한 분노로 「生首の図」를 그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86세의 호쿠사이가 그렸다고 알려진 (1845년) 「男浪図」, 「女浪図」는 젊은 호쿠사이와 말년의 호쿠사이가 함께 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 3. 우키요에 학습용으로서의 영화

드라마틱한 호쿠사이의 인생을 영화는 시간적 전개에 따라 당시 시대상의 철저한 고증에 따라 그리고 있다는 점이 영화 「HOKUSAI」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발표자는 2024년 1학기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본문화론」이란 수업에서 우키요에에 대해 수업하고 마지막에 본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우타마로, 샤라쿠, 호쿠사이 등 수업시간에 배운 인물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므로 이에 대한 정리 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단 문제는 영화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었다는 점이다. 영화 칼럼리스트 옥선희는 「일본 우키요에를 대표하는 화가 영화답게 미술이 압도적이다. 키타가와 우타마루가 거하는 고급 기방은 천정에서 벽까지, 온통 붉은 색을 기조로 기선을 제압하는 커다란 공작 그림으로 뒤덮였고, 의상도 화려하다. 그에 반해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청

2) 발표문에서 계속 언급한 쓰타야 주자부리는 1797년에 사망했고 이후 대를 이어 제4대 쓰타야 주자부로까지 존재하였다. 호쿠사이의 서적이 발간된 것은 쓰타야 주자부리의 사망 이후이다.

년기의 호쿠사이, 그리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말년의 호쿠사이는 회색조로, 호쿠사이가 거니는 바다, 산길, 대숲, 작은 내가 흐르는 산 속 초막 등 모든 곳에 지극히 일본스러운 미감이 넘쳐난다. 모두 4장으로 나누어 각 장의 색감, 카메라 움직임도 다르게 함. 3, 4부가 다나키 민이 주연이니, 그 움직임과 얼굴 표정이 광기에 가까운 건 당연하다 하겠다. 눈이 정말 즐거운 영화고, 거기에 호쿠사이와 경쟁했던 화가들, 우키요에를 탄압하는 막부 시대상까지, 무엇보다 호쿠사이의 창작 근원을 상상해보게 한다.」며 높은 평가를 했다. 본 발표자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 자체는 호쿠사이의 예술혼을 최대한 끌어올려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 관객의 시점에서 본 영화평은 그다지 높지 못하다. 「映像がとても綺麗で魅入ってしまいました」와 같은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名作一步手前かな?」

「ほぼフィクションの青年期パートが冗長」「北斎を全くわからないまま見たら、全然わからなかった」「変な」「がっかり」와 같은 혹평이 더 많았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 풍경, 독창적인 작품을 지닌 예술가의 삶, 에도 시대 말기 일본의 분위기, 새로운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봉건 사회와 막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이 영화를 가치있게 만든다」「등장인물들은 모두 똑같아 보이고, 속도는 매우 느리고, 이야기는 결국 다소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이전에 호쿠사이와 에도 시대 일본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지 않고서는 연대기가 분리되어 있는 이 영화를 실제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영화 속도가 매우 느려 실망스럽다」 등 다양한 반응이 있다. 발표자의 감상 역시 전반부의 호쿠사이가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에 당위성을 부여하려 하다 보니 너무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말년의 호쿠사이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너무 작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학생들의 반응도 감상문에서 호쿠사이의 작품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는 일반적 코멘트가 대부분이었지만 작품이 너무 난해해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다. 본 발표를 통해 이러한 장단점을 수업시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日本文化 分科Ⅱ





## 외교문서 속의 모국방문단\*

-초기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이재훈(동의대 동아시아연구소)

### 1. 들어가며

재일동포 모국방문은 제목 그대로 일본에 거주하던 1975년도부터 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 동포들을 단오, 한식, 신정, 구정, 추석에 맞추어 주로 성묘를 명목 삼아 국내에 초청한 정책들을 말한다. 이 정책 뒤에는 평화 노선을 표방하며 뒤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전개하던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 숨어 있었다. 1769년의 닉슨독트린은 당시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박정희 정권은 그때까지의 노선을 바꿔 1970년의 '8·15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고, 2년 뒤인 1972년 남북공동성명,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74년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라는 평화 정책을 차례로 발표해 나갔다.<sup>1)</sup> 이 같은 평화 정책 속에서도 뒤에서는 끊임없이 북한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평화와 인류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과는 달리 모국방문은 그러한 대북 견제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모국방문 운동에는 1.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의 전개의 촉진을 위해 북한적십자사 측이 문제 삼은 한국의 내정문제가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지장을 주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고 2. 60년대 이후의 경제건설과 새마을운동 전개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의 조국방문에 대한 자신감 획득과 3. 일본에 있는 동포들의 절반에 달하는 조총련계 교포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반한활동을 체험으로서 극복케 하려는 목적이라는 배경이 있었다.<sup>2)</sup> 이 결과는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였고 그로 인해 조총련이 와해가 되는 단초로 보거나<sup>3)</sup>, 조총련과 민단의 대립 상황에서 열세에 놓여있던 민단이 우세의 길을 걷게 되는 분수령<sup>4)</sup>으로 보기도 한다.<sup>5)</sup>

\* 본 요지문은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편저 『해방이후 재일한인 외교문서 해제집 제7권: 1975~1980』중 pp.447~452를 토대로 일부를 수정·가필한 것이다.

1) 평화 정책 전개와 동시에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졸저(2024) 『1974년 대한민국 정부의 대민단 인식 외교사료관 소장 문서철 『재일본민단확대 간부회의 개최 계획』을 토대로, 『일본근대학연구』83, 한국일본근대학회, pp.167-182.』를 참조.,에서 다룬 바 있다. 정부의 평화 정책에 관해서는 '제성호(2022))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재조명』북한학보47-1, 북한연구소, pp.5-46'를 참조하였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해외동포 모국방문』

3) 뉴스매거진(2022.03.18.) 『조총련(朝総聯) 와해의 단초 만들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4) 중앙일보(1992.08.14.) 『모국초청 조총련계 재일교포 민단우세 “분수령”』

5) 기타 유삼열(1993)의 '조총련의 민단파괴공작에 대한 가장 충격적이고 성공적인 한국의 대응', 김태기(2000) '조총련계 재일한국인에 대한 포용정책', 김한상(2008) '재일 조선인들을 민단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유일한 매력이자 무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성희, 2011 중 p.4)

실상 굉장히 큰 이벤트였음에 비해 본 사건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극히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서만 진행되어 왔다. 관련 연구로는 김성희(2011)가 가장 상세하다고 생각하는데,<sup>6)</sup> 김성희는 모국방문 사업을 ① 1970년대의 국제정세에 맞춘 일종의 '인도주의적 의사표시', ② 한국정부가 재일조선인을 재외국민으로 포섭하려 한 정책 실험, ③ 근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사회통합 방안, ④ 재일조선인 사회와 한국 사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정치적 이벤트'로 그 성격을 분류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본 사안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확하게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 아래 전개된 것으로서 본 발표에서는 외교사료관 소장 외교사료 속에서 이를 다시 재조명하고 이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1975년 사업의 시작과 전개 과정에 관해 사료를 토대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 2. 모국방문의 시작

일반적으로 1975년도에 모국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1972년부터 매우 은밀하고 소수의 인원만 한해 모국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 당시 기자였던 최덕수 박사가 1973년도부터 중앙정보부의 협조 아래 조총련 간부를 상대로 은밀히 이를 진행시켰다는 기사도 나온 바 있는데<sup>7)</sup> 1992년도 8월 14일자 중앙일보 기사 중 당시 모국방문을 최초로 공개 석상에서 주장하였던 오사카 총영사 조일제 씨의 인터뷰는 아래와 같다.

75년의 공개사업 이전에도 조총련계 인사들을 비밀리에 모국에 불러들이는 사업은 있었습니다. 기업가들을 선별해 설득, 남한의 고향을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산업시찰을 주선하는 일들이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일을 공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엄청난 정책변화를 의미합니다. 그쯤되면 이미 정보부장 선에서 내릴 결정이 아니고, 최고통치자의 재가가 있어야 했지요. 또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부가 문책 당할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런 사업을 기안해 올리기는 매우 힘든 분위기였습니다.<sup>8)</sup>

본 내용을 보면 이전에도 은밀하게 재일 조선인 인사의 방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만을 갖고 추정하자면 재일교포 중 기업가로 나름 성공한 사람들에게 산업

6) 김성희(2011) 「1970년대 재일동포모국방문사업에 관한 정치사회학적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외에도 관련 논문이 수점 있으나 모국방문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성격 규명보다는 그 결과론적인 측면이나 이를 활용한 표상 등의 관찰에 주목하고 있어 본 발표에서는 이들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7) 뉴스매거진(2022.03.18.) (주3의 기사)에서는 '1972년 최덕수 박사가 첫 노력을 하였다.'고 하며 그의 노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최덕수 박사는 우연히 알게 된 조총련계 재일교포에게 조국 방문을 주선하였다. 본 기사에서는 조일제 씨의 아이디어, 기획국장 김영광의 보고, 최덕수 박사의 주선으로 그 공을 돌리고 있다.

8) 중앙일보(1992.08.14.) 「모국초청 조총련계 재일교포 민단우세 “분수령”」

시찰을 시켜 주고 고향방문을 시켜주어 전향을 도모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sup>9)</sup> 그러던 와중에 75년 3월에 조일제 씨가 본인의 오카사 총영사 취임식 날(3.18.)에 ‘조총련계 동포들도 원한다면 고향(남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변안전 등 왕래에 따른 제반 문제도 내 직책을 걸고 보장하겠다.’<sup>10)</sup>고 말했고, 이 폭탄선언을 교포신문인 ‘통일일보’가 1면에 실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고 한다.

외교문서상에서 상훈의 의미로 모국을 방문하는 내용(주로 민단체)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나, 외교문서 상에서 조총련계 재일 조선인의 모국방문단의 실질적인 방문은 신문 스크랩(신문사 미상, 4.11.)으로만 등장하는, 3월 25일~4월 4일까지 한국에 머물렀던 조총련계 유력 상공인 지병렬 씨를 꼽을 수 있다. 신문기사에는 같이 골프를 즐기던 일본인 친구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조총련의 선전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여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기사가 나오고 3일 후에 1975년 4월 14일 가나가와현 조총련 간부 김뢰석 외 16명 일행의 방문이 이루어진다.(9007, YOW-0404, 75.4.14.) 이 문서는 한국 도착일을 알리는 문서로 외교문서 상에는 그들이 오게 된 경위나 그 밖의 자세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sup>11)</sup> 다만 비슷한 시기에 신문에 기사가 나온 것은 이 방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자세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이에 비해 방한 계획만 따진다면 가장 빠른 것은 4월 1일 오사카 총영사관이 오사카 지부 민단의 추천으로 조련계에서 전향하여 국민등록을 필한 민단 가입자 32명에 대해 본국 단체 방문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9003, 오오사카(영)725-1167, 75.4.1.)을 꼽을 수 있다(다만, 이들의 실제 방한은 4월 15일). 오사카 총영사였던 조일제 씨가 공언한 대로 본인의 계획을 바로 실행시켰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sup>13)</sup>

이 방문은 우선 민단의 추천이라는 배경과 방문인의 명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기 두 건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성 인원에서 보면 전기의 건이 재력가나 조총련 간부임에 비해 오사카 총영사관 건의의 건은 ‘조련계의 주요 역직을 지낸 자가 없’었다. 달리 말하면 상기 두 건은 실질적인 모국 방문에 넣기 어려운, 비밀스럽게 행해오던 작업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 공문(오오사카(영)725-1167)에는 그 방문의 목적을 ① 조총련 선전의 허위성을 각성시키고, ②조국발전상을 직접 보아 완전한 전향을 촉구하고, ③

9) 첫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3)의 기사의 경우 당시 20억엔을 들고 한국에 들어갔다고 한다.

10) 주7의 기사

11) 다만 신문사설이 하나 스크랩되어 있는데, 조선일보(1975.4.19.) 사설-「진실을 알고 살자\_재일조총련계 인사들의 모국 방문」 사설에서는 ‘그동안 조총련의 선전이 허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며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겠다.’고, 또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임을 깨달았으며 일본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가 뚜렷해졌다.’는 인터뷰를 했다고 쓰여 있다.

12) 다만 이들은 후술할 「조총련계와 중립계 재일동포의 성묘를 위한 모국방문 허용 기획(안)」에서는 같은 테두리에 묶여 있다. 그러나 분명 그 성격은 상이하다.

13) 물론 계획이 문서상으로 등장한 것이 남아 있을 뿐이지, 당시의 절차를 생각하면 앞선 4월 14일자 방문의 계획은 훨씬 이전부터 세워졌을 것이다. 재일 조선인의 경우 일본 재입국은 일본 법무성과의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었다.

귀일 후 민단원으로서 활약 기대라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 도착하여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시내를 관광한 후에 하룻밤을 묵고 경복궁과 박물관을 방문하고 오후 들어 경주로 출발하였다. 경주에서는 시내를 관광하고 석굴암, 불국사, 첨성대, 박물관을 방문하고 경주 시내를 관광하였다가 오후에 포항에 가서 종합제철소와 현대조선소를 견학하고 울산으로 공업단지를 견학한 후에 이튿날 부산으로 내려가 용두산 공원, UN묘지 등을 견학하고 자유 여행을 한 후에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오사카로 돌아갔다.<sup>14)</sup>

그리고 5월 22일 조총련계와 중립계 재일동포의 성묘를 위한 모국방문 허용 기획(안)에 관한 협조문(9007, 교일725-123, 75.5.22.)이 외무부 내부에서 작성되고, 이튿날에 중앙정보부장과 7국장에게 동일 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9007, 교일725-, 75.5.23.)이 발송된다. 그리고 이 문서들에는 「조총련계 및 중립계 재일교포의 성묘를 위한 모국방문 허용 계획(안)」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전의 문서들의 경우에는 오사카 모국 방문 건(오오사카(영)725-1167)을 제외하곤 제대로 기록도 남아 있지 않고 통고식이었음을 보면 기존의 사업 자체가 외무부의 소관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며, 이는 곧 중정의 지휘 아래 행해졌으리라 짐쳐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기획안이 이제야 비로소 외무부 내에서 작성되었음은 외무부의 지휘 아래 본격적으로 모국방문이 시작되려 함을 알 수 있게 만든다.

### 3. 외무부 주도 아래의 모국방문

영사교민국에서 작성한, 본 첨부 문서(「조총련계와 중립계 재일동포의 성묘를 위한 모국방문 허용 기획(안)」)을 보면 모국방문단의 목적은 ‘재일교포로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조총련계 및 중립계 교포들에게 고향을 방문, 친척 상면 및 성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총력안보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체적 총력안보 체제의 공고화란 곧 ‘① 이산가족의 재회 및 성묘 및 기회 부여라는 정부의 인도적 조치를 널리 홍보하여, 이를 반대하는 북한의 처사를 규탄함으로써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시키고 ② 조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게 하여 조국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북한 선전 허구성의 실감을 통한 조총련 세력의 약화’를 도모하여 조총련을 통한 북한의 대남 활동을 분쇄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정치적, 사회적 장단점을 들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거론되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적극 권장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문서에서 ‘특’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내외에 홍보, 일본 언론의 대한민국 보도 자세 시정(문세광 등의 극렬분자가

<sup>14)</sup> 단 이는 (희망)으로 실제 일정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불가. 그렇지만 이후의 모든 방한 일정은 이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있음에도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모습, 7.4 공동성명 준수, 성묘를 반대하는 북한에 대한 비판 유도), UN 총회에서 대한민국 태도 호전 기대,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 조성 등을 꼽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재일동포 사회의 융화단결 기대, 재일동포 사회의 모국 유대 강화, 민단 육성 등을 꼽고 있다. 물론 북한의 비방 공작 격화, 안보 침투 우려 등의 문제도 우려되긴 하였으나 ‘득’이 ‘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성묘를 위한 모국방문 기회 부여로 그 틀을 잡고, 적절 시기를 성묘를 위한 방문을 준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추석(09.20.) 2개월 전으로 방문 계획을 설정한다. 이로서 모국방문단의 기본적인 틀이 잡히게 된 것이다. 이후 외부무는 각 부처에 의견을 물어보는데 약간의 우려는 있었으나 모두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때를 맞춰 민단에서는 7.4 공동성명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모국방문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선언하며 이에 대한 성명서(七·四共同聲明 三周年에 즈음하여 朝總聯傘下 同胞 여러분께 呼訴합니다.)를 발표한다.<sup>15)</sup> 그리고 익월 발행된 주일대사관 공문(일본(영)725-5557, 1975.8.21.)을 보면, 상기 기자회견이 끝나고 7.15-16. 민단 지방본부 단장, 사무국장 및 중앙산하 단체장 합동회의를 개최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국방문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급 민단 간부들에게 권유책임제(각자 1명 이상 포섭, 도합 5천 명)를 실시하고 활동 결과를 매월 5일까지 보고하게끔 조치를 내린다. 민단은 내부적 분열을 극복하고 정부 일방향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더군다나 각 인원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회유할 필요가 있는 이 같은 작업을 정부 부처에서 해 내기에는 애초에 인력적으로 무리가 따랐다.

그리고 드디어 9월 15일~24일까지 771명이 방문할 것임을 알리며 편의를 제공해 주길 요청하는 주일대사 발신의 공문(9007, 착 JAW-09300, 1975.9.10.)이 도착한다.<sup>16)</sup> 때마침 중정에서 보내온 공문(9007, 중대보400-, 1975.9.9.)에서도 ‘한국을 직접 보고난 후 그들의 선전이 허위임을 깨닫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민단으로 전향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재일교포들의 한국방문 개방정책을 과감히 시행토록 추진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문구가 실려 있어 모국 방문 운동은 언뜻 브레이크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인다.

① 가나가와 현에서는 방한 예정자 집마다 4명씩 배치되어 출발을 방해, 뒷문으로 빠져 나왔음.

15) 한국일보(1975.7.4.) 「조총련계 동포 방한 추진\_윤 재일민단장 성명, 자유롭게 추석 성묘할 수 있게」, 조선일보(1975.7.4.) 「조총련계 모국 방문 환영\_민단성명, 추석 계기...편의·안전보장」, 경향일보(1975.7.4.)⑦ 「조총련계 동포들에 추석모국방문 권장」(외무부 문서 중 마치 민단이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마치 민단이 알아서 건의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하는 문서가 간혹 발견된다. 본건도 시기적으로 지나친 우연이 굉장히 의심스럽긴 하나 아직 정확한 물증은 찾을 수 없었다.

16) 단, 이는 예정으로 실제 일정과는 다름(실제로는 9.13.-9.29., “722명 조총련 전향 및 방한 현황”)

- ② 니가타 현에서는 방한 예정자 4명을 납치
- ③ 동경에서 부인을 통해 남편이 방한을 하면 이혼한다고 협박을 하게 종용
- ④ 오사카에서는 조총련 청년 40여 명이 나와 한국에 가면 못 돌아온다고 야유.
- ⑤ 오사카에서는 한국에 가면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

물론 이 모국 방문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자 격에 해당하는 조총련 측의 방해 공작도 이에 맞추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sup>17)</sup> 첫 방문이 행해지는 한창인 9월 19일, 외무부는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들여 조총련의 방해 공작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이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는데, 이 면담 가운데 조총련 방해 공작의 실례를 신문 기사를 들어 항의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 운동이 눈에 띄는 성과를 냈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sup>18)</sup> 외무부에서 작성한 문서 「조총련 전향 및 방한 현황」을 보면 전향자는 75년 1월부터 8월말까지 3,363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주일대사관에서 650명 규모의 제 2차 모국방문단(1975.11.1.-15.) 구성을 알리는 공문(9007, 일본(영)725-6810, 1975.10.21.)을 보내온다.

#### 4. 나가며

17) 서울일보(1975.9.17.)⑦ 「조총련서 방해 공작\_오사카 교포들 협박 뿌리치고 모국방문」

18) 다만 김성희(2011)의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전향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를 들어 이것이 곧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 식민초기 경찰잡지의 어휘분석을 통해서 본 위생정책 연구

- 『경무회보』의 1910년대 위생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

이이슬(부산외대)·이충호(부산외대)

## 1. 들어가기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 연구에서 언론 매체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찰 기관지인 ‘경무회보’는 상대적으로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조선총독부 경무국 산하 조선경찰협회 기관지인 ‘경무회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위생경찰제도의 시행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위생 관련 기사에 주목하여, 경무회보가 담고 있는 일제의 위생 담론과 정책의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경무회보’에 대한 어휘분석 방법론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위생정책과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양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시기별 주요 어휘의 변화 추적을 통해 일제의 위생정책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전염병 관련 어휘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해당 시기 방역 정책의 강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사용된 어휘의 성격 변화 분석을 통해 조선 사회의 위생 인식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과학적 용어의 점진적 증가는 근대적 위생 개념의 확산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셋째, 어휘의 빈도 변화 분석을 통해 위생정책의 중점 사항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 대상을 1910년대로 제한하여 식민 초기 위생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향후 시대별 어휘분석과 비교를 통해 단순한 텍스트 분석을 넘어 일제강점기의 위생정책의 변화 양상에 대한 다각적인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초기(1910년대) 경무회보에 게재된 위생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고빈도로 등장하는 어휘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사 내 주요 어휘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고 그 용례를 확인함으로써 총독부가 경무회보를 통해 알리고자 했던 위생정책의 방향을 유추하고자 한다.

우선 어휘 빈도 분석을 위해 KH Coder<sup>1)</sup>, AntConC<sup>2)</sup> 등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코퍼스 분

1) ‘KH Coder’는 Koichi Higuchi가 개발한 형태소분석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언어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법도 무척 간단하다. 최근까지는 무료로 공개되었으나, 현재는 일부 기능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필요한 경우 유료로 사용 가능)

식 도구를 활용하여 초기 테스트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MeCab과 Python을 연동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MeCab은 일본어 형태소 분석에 특화된 오픈 소스 도구로, Python과의 결합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경무회보의 1910년대 기사 중 제목에 ‘위생’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선별하여 해당 원본을 수집하였다. 경무회보의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sup>3)</sup>에서 PDF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어휘분석을 위해 이를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광학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근대 일본어의 특성상 한국 및 중국식 한자 표기가 혼재되어 있고, 현대 일본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표기법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수의 오탈자와 누락이 발생하였다. 이에, 변환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교정 작업을 수행하여 오탈자 및 누락된 문자를 보완하였다. 교정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단어의 출현 빈도를 계산하고, 의미 없는 단어나 품사(조사, 지시어, 접속사 등)는 불용어(stop words)로 처리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형용사, 형용동사 등의 경우 근대 일본어의 표현과 표기법으로 인해 정확한 품사 태깅이 어렵고,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3. 어휘분석 결과

일제강점기 초기 경무회보에 게재된 위생 관련 기사의 현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1910년대의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위생 관련 기사는 주로 위생조합과 위생 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목을 포함하여 전체 기사의 길이는 8,000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행 년도	권	제목	키워드
1913	1	京畿道開城に於ける衛生組合の活動一班 = 52	위생 조합
		鳥魚獸肉の衛生検査 = 27	식 위생
		咸北鍾城に於ける衛生組合 = 49	위생 조합
1915	4	衛生法規類集出版 = 72	위생 행정
		朝鮮人の縲虫病と食肉衛生の關係(続) / 井野場久次	식 위생

2) ‘Antconc’는 일본 와세다대학의 교수 Laurence Anthony에 의해 개발된 형태소분석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비롯하여 한국어, 일본어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휘 빈도, 연어 정보, 키워드 추출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3)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郎[警務總監部獸醫務囑託] = 71 衛生組合取扱ニ関スル件(大正四年八月十七日訓令甲第四十一号) / 警務部 = 21	위생 조합
1916	5	京城鍾路警察ニ於ケル健康診断成績 = 53	위생 행정
1917	7	明治三十三年法律第三十号第五条ノ療治料ノ件(大正五年十二月二十八日朝鮮總督府令第百四号) = 19	위생 행정
		面予算中衛生警備ニ関スル部分通報方ノ件(大正六年八月二十一日官通牒第百四十四号内務部長官ヨリ各道長官宛) = 29	위생 행정

표 1 경무회보의 1910년대 위생 관련 기사 목록

어휘분석 결과, ‘組合’, ‘衛生’ 등의 단어가 현저히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으며 상위 20개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축소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범위 설정의 근거는 20위 이하의 단어들의 경우 출현 빈도 간 차이가 미미하여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순번	단어	빈도수	순번	단어	빈도수
1	組合	102	11	警察	8
2	衛生	33	12	牛肉	7
3	組合長	30	13	議員	7
4	囊虫	28	14	補助	6
5	評議員	23	15	屠殺	6
6	豚	20	16	規約	6
7	方法	10	17	販売	5
8	伝染病	9	18	豚肉	5
9	役員	9	19	鳥類	5
10	條虫	8	20	血液	5

표 2 경무회보의 1910년대 위생 관련 기사의 어휘빈도수 분석표

위생 관련 기사의 빈도 분석 결과, ‘組合(102회)’이 ‘衛生(33회)’보다 더욱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해당 조합의 사업 중 주된 것을 들자면<sup>4)</sup>,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위생조합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취급할 것<sup>5)</sup>과 같은 용례를 통해, 당시 일제가 위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며 이를 통해 위생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위생조합이 일제의 식민 통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견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組合長’, ‘評議員’, ‘議員’, ‘規約’ 등의

4) 該組合の事業中其の主なるものを挙げれば,「京畿道開城に於ける衛生組合の活動一斑」,『警務彙報』,1券

5) 感染病予防令施行規則第十二条ニ依リ設置セシムヘキ衛生組合ニ付テハ左記各号ニ依リ取扱フヘシ,「衛生組合取扱ニ関スル件」,『警務彙報』,4券

어휘도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어휘들 역시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6)’, ‘조합원 중 빈곤하여 규약의 수행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서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면제하고 또한 조합 비용으로 보조할 것7)과 같이 앞서 언급한 위생조합 관련 규정을 선전하는 기사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囊虫’, ‘豚’, ‘伝染病’, ‘牛肉’, ‘條虫과 같은 어휘의 출현도 주목할 만하다. ‘조선산 소, 돼지의 낭충 상황을 설명하고8)’, ‘조선에서 돼지의 낭충 즉 유구조충의 발견은 비교적 결코 적지 않으며9)’, ‘어족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입히는 등10)과 같은 용례를 통해, 당시 총독부는 조선에서 식재료로 흔히 사용되는 육류, 어류의 기생충이 인체에 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감염 경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사슴 고기는 소 고기에 비해 지방이 적으며 또한 그 색이 옅다.11)’와 같은 설명은 「鳥魚獸肉の衛生検査」라는 기사에서 나타나는 식재료의 위생 검사에 관한 정보이다. 위생 검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일반 시민이 아닌 위생 검사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관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제가 경무회보를 통해 단순히 위생정책을 선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했음을 시사한다.

#### 4. 나가기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초기 경무회보에 게재된 위생 관련 기사의 어휘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일제의 위생정책의 방향과 그 의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무회보의 1910년대 위생 관련 기사의 어휘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식민초기 일제의 위생정책 및 인식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제는 위생 조합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위생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어휘분석 결과 ‘組合’이라는 단어가 ‘衛生’보다 더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이는 1910년대가 위생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선전에 특히 중요한 시기였음을 나타낸다. 둘째, 전염병의 감염 경로에 대한 다각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일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 경로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조선 사회에 새로운 위생 담론을 도입

6) 副組合長ハ組合長ヲ補佐シ組合長事故アルトキハ其ノ職務ヲ代理ス, 「衛生組合取扱ニ関スル件」, 『警務彙報』, 4券

7) 組合員中貧困ニシテ規約ノ履行ヲ為シ能ハサル者ニ對シテハ評議員會ノ決議ヲ經テ之ヲ免除シ又ハ組合ノ費用ヲ以テ補助ヲ与フルコトヲ得, 「衛生組合取扱ニ関スル件」, 『警務彙報』, 4券

8) 朝鮮産牛豚に於ける囊虫の状況を説明し, 「朝鮮人の絛虫病と食肉衛生の關係(統)」, 『警務彙報』, 4券

9) 朝鮮に於ける豚の囊虫即ち有鉤絛虫は発見比例決して尠からざるなり, 「朝鮮人の絛虫病と食肉衛生の關係(統)」, 『警務彙報』, 4券

10) 魚族伝染病に罹つたため人体に害を及ぼす等, 「鳥魚獸肉の衛生検査」, 『警務彙報』, 1券

11) 鹿肉は牛肉に比し脂肪乏しく且其色は濃いのである, 「鳥魚獸肉の衛生検査」, 『警務彙報』, 1券

하고 이를 통해 조선인의 위생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였으며 위생 검사와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사용 어휘분석 외에도 주변 어휘 연관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요 사용 어휘분석에 집중하여 일제강점기 초기 위생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친 위생 관련 기사의 주요 어휘분석을 통해 시대별 위생정책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세밀한 주제별 어휘분석과 기사 내용 분석을 통해 일제의 위생정책이 지향한 바를 더욱 심층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위생정책이 실제 조선인의 생활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수용 양상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警務彙報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 미즈사키 린타로의 수성못 증축 연구

최장근(대구대)

### 1. 미즈사키 린타로의 수성못 축조 예산

수성못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성못의 연원에 대해 궁금해한다. 수성못 인근 산기슭에는 수성못을 축조했다고 하는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水崎林太郎)의 묘가 있다. 수성구청에서 세운 안내문에는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가 수성못을 축조했다고 하는 공적을 기록하고 있다. 미즈사키 린타로의 묘는 잘 관리되어 있고,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해지는 미즈사키 린타로의 공적에 대해 살펴보자.

“수성못이 생기기 전에 수성구 일대의 농민들은 신천으로부터 농업용수를 가져다 썼다. 그런데 대구부에 일본인들이 점유하여 신천의 물을 상수도로 사용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위해 이전에도 있었던 둔동제라는 저수지를 증축한 수성못을 만들었다. 그런데 마치 미즈사키 린타로가 수성못을 처음 만들었다는 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즈사키 린타로는 “일본 기후(岐阜)현 가노쵸(加納町)(현 기후시)의 촌장이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일본 기후(岐阜)현의 “말단 공무원 출신으로 중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가산을 탕진해 가족과 함께 1915년 개척농민 자격으로 대구로 건너와 정착했다.”고 한다. 미즈사키 린타로는 제5회 동양척식회사 이민자로서 대구 수성면에 정착했다. 1915년 당시 미즈사키는 대지주가 아니었다. 소유재산은 “소 한 마리, 닭 세 마리, 돼지 두 마리, 증축하지 않은 집, 헛간 등”이었다. 이주 후 농업경영에 집중하여 미즈사키 린타로는 달성군 수성면의 대표적인 일본인 대지주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연 4만 석 가량 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쌀생산지역인 수성면에 주목하여 1920년대 수성면은 산미지정면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동양척식회사는 수성면 범어동에 이주민회사, 소작인, 일반농민을 대상으로 「수성면지방개량조합」을 설립하여 농사 개량, 부업 부흥 계획, 근검저축 등 일체의 농업정책을 장려하였다.” 미즈사키는 일체의 농업정책에 편승하여 수성면 개척사업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다.

미즈사키는 수성들 일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미즈사키 농원”이라는 대규모 화훼농장을 운영하여 꽃 재배 등에서 성공했다. 만주까지 꽃을 수출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현지에 황무지가 많았고, 게다가 일본인들의 이민정책으로 급작스럽게 대구인구가 증가하여 상수도와 농업의 용수가 부족해졌다. 미즈사키 린타로는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 도평의원을 지낸 진희규(秦喜葵)를 포함한 조선인 4명과 함께 수성수리조합(水利組合)을 결성하고 토지개량조합장이 되었다. 조선총독부를 찾아가 저수지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등 저수지 축조를 추진했다.”라고 한다.

수성못을 개축을 위한 수성수리조합 설립 이유는 “한편 일본인의 급격한 이주로 식민도시 대구부에서는 수도를 부설하여 이전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신천이 물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수성면에서는 농업용수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대구부에서는 수도 시설 확충으로 부족한 수도상수원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수성못 축조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재와 조선총독부의 지원금(1만 2천 엔, 현재 10

억 엔 상당)”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자신의 사재”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 조합장은 진희규이고, 미즈사키는 부조합장이었다. 조합장은 사재를 내지않고 부조합장이 사재를 내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축조기간에 대해서는 “수성못은 1924년 5월 26일 인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27일에 착공에 들어가 3년 후 1927년 4월 24일 완공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착공 10년 만인 1927년 완공됐다.”라고 하기도 한다. 착공 1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3년이지만, 1915년 대구 정착 이래 줄곧 수성못 증축을 위해 10년간 노력했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수성지구에서 1,2등을 다투는 대지주였던 서수인(徐壽仁)과는 수성못과 논(水田)을 힘을 합쳐 만든 평생의 친구이며, 린타로(1868년생)는, 자신보다 20세 가까이 젊은 서수인씨와 형제처럼 친하게 교제했다. 서수인과 의논하면서 수성못을 완성시켜 수성못의 농업용수로 250만평을 넘는 광야를 미답으로 바꾸었다. 서수인(徐壽仁)씨의 3남 서창교(徐彰敎:1932년생)씨는 로타리회장이자 한일친선 교류회 회장을 역임되고 있으면서 지금도 린타로(林太郎)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 해방이후 미즈사키 린타로의 묘가 잘 정비되어 있었던 것은 린타로의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대지주 서수인의 셋째 아들 서창교가 관리했기 때문이다.

미즈사키 린타로의 사망에 대해서는 “1939년 12월까지 수성못을 관리하다 임종을 맞이하였는데 유언으로 ‘조선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수성못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묻어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의 뜻에 따라 수성못 남쪽 수성구 두산동 산 21-8번지에 조선식 무덤에 안장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성못이 가까이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아래 그의 묘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인 관리인은 서창교였고, 현창비를 세우고 추모식을 거행한다고 하는 것은 린타로의 공적이 위대하여 한국사회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린타로의 공적을 오래오래 기억하자는 의미이다. 우선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묘역을 관리하는 서창교씨가문이고, 현창비를 세우고 추모식을 거행하는 단체로는 한일친선교류협회이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일제강점기에 친일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서창교가문의 생각이다.

이처럼 미즈사키 린타로는 수성못을 축조하여 조선인들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었던 주역이라고 하여 한일친선교류 차원에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성못 관리에 대해 “수성못이 만들어지면서 농민은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완공 이후에도 미즈사키 린타로는 줄곧 수성못 관리인으로 일했다.”라고 하여 린타로가 물관리를 잘 하여 한국인들을 이롭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값비싼 물세를 납부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농업정책에 의해 착취당하였던 것이다.

## 2. 수성수리조합 결성과 미즈사키 린타로

1910년대 이후 일본인 농업이민정책으로 일본인들이 대지주로 성장하였다. 경상북도 달성군은 농업이 발달하여 동척·기타 이민도 많이 수용되었다. 수성수리조합이 설치되는 수성면은 달성군 내에서도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었다.

일제 강점기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성군에 3개의 수리조합

을 만들었다. 수성 수리조합(壽城水利組合)·동부 수리조합(東部水利組合)·해안 수리조합(解顔水利組合) 등이 있었다. 달성군의 3개 중 두 개가 존폐 위기에 놓인 만큼 일제의 수리조합을 통한 미곡 증산이라는 거대한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수성수리조합은 산미증산계획 초기 1924년 5월 26일 인가를 받아 경상북도에서 세 번째로 대구부윤·달성군수·경상북도지사뿐 아니라 한인 대지주와 일본인 등이 비밀리에 추진하여 3년에 걸쳐 1927년 4월 24일 수성못이 준공하였다. 당시 수리조합들이 설치되면서 반대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수성수리조합은 비밀리에 추진하였기 때문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원 466명 중 276명은 동의하였지만, 190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수성수리조합 물리면적 389정보 중에 78.6%에 해당하는 소유 면적 306정보가 동의하였다. 달성군 56.0%, 대구부 43.0%의 거주자가 동의하였다.

수성수리조합은 표면적으로 강석회(姜錫會)·서화춘(徐和春)·정재학(鄭在學)·진희규(秦喜葵) 등 한인 대지주와 동척이민자인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水崎林太郎)가 설립 위원이었다. 이들 창립위원들은 수성면과 대구부에 거주하는 조선인 대지주들로 수성면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성수리조합 창립위원들 중에 조선인 대지주 정재학은 개령군수와 순흥군수를 지냈는데, 경제적 부를 매개로 군수가 될 수 있었고, 관직은 부의 축적을 지속화할 수 있는 안정된 자리였다. 수성수리조합의 설립은 동척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평의원 1명이 동척이었다.

특히 대구부는 일본인들이 동척을 통해 이주하여 일본인 중심의 식민도시가 되었고, 상수도 문제가 심각해졌다.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천의 물을 사용했고, 농업 관개용수 사용하던 신천의 물 대신에 수성못 개축을 위해 수성수리조합을 설립했다.

수성수리조합은 “수성 봉화산 비탈에 약 15정보[14만 8760㎡]의 저수지를 만들어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수성수리조합은 달성군 수성면 8개동(상동, 식산동, 중동, 하동, 신천동, 황청동, 범어동, 파동)과 가창면 1개동 소재의 약 370정보[366만 9421㎡]의 논을 관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수성수리조합의 저수지는 처음부터 상수원 해결과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준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주된 업무는 농지에 필요한 물이었고, 수도관리와 유원지 조성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수성못 “저수지 총공사비는 16만 원으로 국고 보조 5만 원, 지방비 3만 원, 대구부 3만 원, 민간 물리 지주 6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주 6만원을 제외하면 모두 일제가 관리하는 관공서에서 충당하였던 것이다. 수성못은 일제라는 공관 주도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즈사키가 사비를 들여 만들었다고 하는 미즈사키 애찬은 사실이 아니었다.

수성못은 “저수지의 넓이는 16정[15만 8678㎡(4만 8000평)]이고, 수심은 26척[788cm]이었으며, 대구부에서는 수성수리조합 저수지의 둘레와 주변을 길을 내고, 나무와 꽃 등을 심어 유원지로 만들었다.”

“수성수리조합의 총면적 가운데 한인 소유가 3.11km<sup>2</sup>, 일본인 소유가 0.40km<sup>2</sup>, 프랑스인[천주교] 소유가 0.16km<sup>2</sup>였다. 수성수리조합의 조합원은 모두 436명이었다. 이들은 한인 414명, 일본인 21명, 프랑스인 1명으로 구성되어 수성수리조합 토지 소유자는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설립 당시 수성면의 부호인 진희규가 수성수리조합 조합장,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가 수성수리조합 부조합장을 역임하였다. 미즈사키 린타로는 수성면 거주 일본인의 이권을 보호하

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성면지방개량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수성수리조합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인 水崎林太郎 수성수리조합 부조합장이 되었다. 미즈사키가 부조합장이고,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성못을 미즈사키 개인이 개척하였다는 말은 옳지 않다. 조합장의 역할은 컸고, 일제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일본인 미즈사키를 전면에 내세워 이용하였 것으로 생각된다. 수성면은 조선인 대지주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주소작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수성수리조합 설립 후 구역 내 일본인 소유 토지가 늘어났다.

일제는 진회규가 수성면과 대구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수성수리조합 조합장이 되었고, 水崎林太郎는 수성면 내 토지 소유가 매우 적었지만 동척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동척의 이주민으로서 이주일본인의 대표로 부조합장이 되었다. 일제는 이들 중심인물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대구부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수성수리조합의 주요 사안은 수성수리조합규약에 따라 평의원은 조합원으로서, 상당한 자산가만이 가능한 ‘조합비 연액 10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구성된 평의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조합 직원도 평의원이 겸직하였다.

동척이 수성수리조합 설립부터 1943년 합병 때까지 평의원으로 계속 참여하였기 때문에 동척의 매우 영향력이 컸다. 그리고 평의원들은 소작을 통한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금융, 각종 회사 등을 운영, 경영에 참여하였다. 미즈사키 린타로가는 동척이 내세운 일본인 운영자 역할을 했다.

이처럼 수성못이 개척된 이후 대구부의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적으로 좋아졌고, 상수도문제가 해결되어 대구부의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조선인 대지주들이 농업수익을 토대로 농업 이외에 사업을 다각화되었다. 지주가 소작인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어 소작문제가 발생했고, 이러한 과정에 일본인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

### 3. 미즈사키 린타로 예찬에 대한 신중론 대두

대구 수청구청에서 세운 미즈사키 린타로 묘역에 세운 공적을 설명한 안내판을 통해 그의 공적만 부각된 경향이 없지 않다. 이처럼 일방적인 예찬에 대해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대구 수성구는 친일 시비 논란으로 수년 전부터 추도식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강민국 수성구 기초의원은 2014년 구정질의에서 영조 시절 서적을 보면 이때도 수성못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수성못이 일제 때 처음 생긴게 아닐 수도 있고, 미즈사키 린타로도 단순히 돈벌러 온 개척농부였을지 모르니 그를 기념하는 관련 행사는 좀 더 검토해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일본은 이조시대 수성못을 증축하고 조선인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할 목적으로 1924년 5월 수성수리조합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하기도 한다. 또 “미즈사키 추도식을 문제 삼는 이들도 있다. 수리조합이 수성못 공사비를 17년 만에 다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세(물값)를 농민들로부터 받았다는 걸 지적하기도 하고, 수성못 축조의 이익이 ‘소수의 친일 지주’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수성수리조합의 전체 조합원 436명 중 조선인은 414명으로 압도적인 다수였다. 일제의 비호를 받은 일본인 대지주의 특혜로 만들어진 다른 수리조합의 경우와는 좀 달랐다는 얘기다. 이에 맞서 수성못에서는 수세 징수 등을 둘러싼 조합원의 분쟁이나 반대운동이 한 번도 없었고,

해방 후에도 그의 묘가 잘 보전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에 대한 평판을 짐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수성못을 축조했다고 하는 미즈사키 린타로의 공적에 대해 찬반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입장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 4. 들어가면서

본연구는 미즈사키 린타로의 업적으로 칭송되는 수성못 개축의 의의를 탐구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저수지 축조에 관해 고찰하였다. 그 연구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수성구 주민들은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가 한국사회를 위해 수성못을 축조했다고 격렬하게 예찬해왔다. 그러나 수탈을 위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에 수성못이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 지주들은 소작인으로부터 수확료를 받아서 지세와 수세를 당연히 납부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의 횡포로 소작인들이 수세를 부담했다고 하는 애환을 논하지 않고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다.

“미즈사키 린타로와 수성못”에 관해서는 해방 이후 미즈사키에 대한 일방적인 예찬만이 존재했다. 미즈사키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했고, 지금까지 미즈사키가 지주로서 불의하게 소작인을 착취했다고 단정할 만한 연구는 없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저수지 축조 자체가 일본국가의 번영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수성못에서 농지로 흘러보내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세를 징수한 것은 분명하다. 당시 많은 소작인들이 지주들의 횡포로 부당하게 수세를 납부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미즈사키 린타로가 수성못의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지주가 내어야할 수세를 소작인으로부터 거두어들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식민지 토지정책상 지주가 소작인을 착취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수탈을 목적으로 조선을 병합한 일제강점기의 산미증산계획 아래 수성못을 증축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애당초부터 미즈사키 린타로가 한국인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미즈사키 린타로는 자신이 죽으면 수성못이 보이는 곳에 한국식 무덤으로 매장해달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일본의 매장문화는 불교식으로 화장하여 절에서 관리하는 가족묘에 안치된다. 한국식의 무덤을 유언한 것은 너무나 한국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성못을 증축한 자신의 업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1939년 임종 당시로서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의 지원과 사적 재산으로 수성못을 축조하여 한국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고 전해지는 미즈사키 린타로의 예찬은 실제의 사실과는 다른 피상적인 것에 대한 착오일 수 있다.

오늘날 대구시나 수성구가 미즈사키 린타로에 대해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만 믿고 무비판적으로 한일교류의 좋은 사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매년 행해지는 추도행사 등 일방적인 예찬은 재고되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 朝鮮美術展覧会と在朝鮮日本人美術家に関する考察

李尚珍(山梨英和大)

## 1. はじめに

筆者は、これまでに1910年代前半に朝鮮に移住した浅川伯教・巧兄弟の朝鮮での生活や朝鮮伝統工芸の研究活動等に注目し、共同研究者である白樺派・柳宗悦の民藝運動への影響に関する分析に取り組んできた。そのなか、植民統治政策の影響を受けながらも、一方では1922年から開催された朝鮮美術展覧会（以下、朝鮮美展という。）に出品し続け、審査委員長による「推薦」（1935年第14回より施行）と「作品の監査及審査事務の補助」を担う「参与」（1937年第16回より施行）に選ばれていた浅川をはじめ在朝鮮日本人美術家達の朝鮮美展との関りを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不安定な立場で葛藤しながら活動を続けた彼らがいかなるものを示そうとしたのかを明確に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し、一次資料の収集と分析を進めている。

本研究発表は、これまでの考察をもとに、2023年度韓国日本文化学会第64回国際学術大会での研究発表「在朝鮮日本人美術家に関する考察」を修正・加筆したものである。特に一次資料の朝鮮美展の図録（朝鮮総督府刊行）第1回から第18回までの18年間分と『朝鮮美術展覧会記事資料集』（韓国美術研究所編、1999）を丹念に調べて、筆者が注目している在朝鮮日本人美術家達の出品状況を明確にした。発表では彼らの作品を紹介しながら、作品にみられる「朝鮮」の表象の特質について考察する。

## 2. 在朝鮮日本人美術家達の朝鮮美展の参加活動

1900年代初め頃の在朝鮮日本人美術家の活動として確認できているのは、1904年に横山崋山の画風を継承する清水東雲が京城に移住し、画会で学生を指導したことと、1907年に岡倉天心の門下生で東京美術学校で勤めていた天草神来が京城に移住し、朝鮮人美術家との交流や作品の展示と販売を目的とした「丹青会展」の開催に関わった活動であるが、その後も、以下のように東京美術学校の卒業生達や加藤松林、堅山坦のような美術家達が朝鮮に移住し、朝鮮美展が開催されると出品活動を続け、「推薦」「参与」としての参加活動もできるようになった。

- ・1909年－日吉守(京城中学校赴任)－1回目より出品、14回目より推薦、18回目より参与
- ・1921年－遠田運雄(龍山中学校赴任)－1回目より出品、14回目より推薦、16回目より参与
- ・1923年－山田新一(京城第二高等普通学校赴任)－3回目より出品、14回目より推薦、16回目より参与
- ・1927年－佐藤九二男(京城第二高等普通学校赴任)－7回目より出品
- ・1929年－石黒義保(龍山中学校赴任)－7回目より出品
- ・1913年－浅川伯教(山梨師範学校卒業、京城府立南大門公立尋常小学校赴任)－1回目より出品、14回目より推薦、16回目より参与
- ・1915年－高木背水(本名は高木誠一、背水は雅号)－1回目の西洋画の部の審査委員、2回目より出品
- ・1917年－加藤松林(本名は加藤俊吉、松林は雅号)1回目より出品、14回目より推薦、16回目より参与
- ・1923年－堅山坦－3回目より出品、14回目より推薦、17回目より参与

【朝鮮美展の図録(第1回～18回)と韓国美術研究所編(1999)『朝鮮美術展覧会記事資料集』を参考に筆者作成】

開催回	第1部東洋画の部	第2部西洋画の部／彫刻の部	第3部書の部 (1回～10回) 四君子の部 (3回～10回) 工藝品の部 (11回～24回)
1回1922. 6. 1-21	<b>三等:</b> 加藤松林「秋光揺染」  <div>全81作入選</div>	<b>入選:</b> 日吉守「溪流」、高木誠一「春の日」「朝日影」、遠田運雄「金剛山秋景」 <b>二等:</b> 遠田運雄「ギタルラ」、 <b>三等:</b> 日吉守「二村洞」 <div>全77作入選</div> 、* 彫刻11作入選：浅川伯教「雲雀」	全50作入選
2回1923. 5. 11-31	<b>入選:</b> 浅川伯教「残照」 加藤俊吉「残照」 <b>三等:</b> 加藤俊吉「砂丘」  <div>全61作入選</div>	<b>入選:</b> 多田毅三「椿咲く頃」、遠田運雄「風景」、日吉守「部落の午後」 <b>三等:</b> 遠田運雄「裸婦」、 <b>四等:</b> 日吉守「孔德里」 <b>前審査員:</b> 高木誠一「斜陽」 <div>全76作入選</div> * 彫刻0作入選 浅川伯教「ハラボク」「児三相」	全53作入選
3回1924. 6. 1-21	<b>入選:</b> 加藤俊吉「杏花春日」「南鮮の春」 <b>四等:</b> 堅山坦「静物」  <div>全38作入選</div>	<b>入選:</b> 遠田運雄「温井里附近」、多田毅三「樊忠壇附近の風景」「詩集を持てる女」、山田新一「金魚とリラ」、浅川伯教「花と水滴」 <b>三等:</b> 山田新一「花と裸女」、遠田運雄「丘」 <b>四等:</b> 日吉守「風景」 <div>全104作入選</div> * 彫刻全0作入選 <b>四等:</b> 浅川伯教「感寒病家」	全57作入選 四君子の部(新設) 全17作入選

4回1925. 6. 1-21	<p><b>入選:</b> 加藤俊吉「黒扇」</p> <p><b>三等:</b> 加藤俊吉「春の室内」、堅山坦「黄昏」</p> <p><b>全36作入選</b></p>	<p><b>入選:</b> 遠田運雄「風景」、多田毅三「鮮婦人像」、高木誠一「鐵の光」「鶴見山の朝」「婦人像」、山田新一「エミヤんと僕」、日吉守「眞晝」</p> <p><b>三等:</b> 日吉守「春光」、山田新一「美しきリユーシャ」、遠田運雄「静物」、多田毅三「青い静物」</p> <p><b>全105作入選</b>、*彫刻全9作入選</p>	<p>全52作入選</p> <p>四君子の部全34作入選</p>
5回1926 . 5. 15-6. 4	<p><b>入選:</b> 浅川伯教「壺と小供」</p> <p><b>無鑑査:</b> 加藤俊吉「雪のタぐれ」「春」、堅山坦「廃苑」</p> <p><b>全46作入選</b></p>	<p><b>入選:</b> 浅川伯教「静物」、山田新一「S嬢の像」「李嬢の像」「午後の屋上庭園」、堅山坦「静物」、遠田運雄「少女の像」、多田毅三「梨と桃の花」「フルーツ」、高木背水「朝化粧」「習作裸体像」「秋景」</p> <p><b>特選:</b> 遠田運雄「静物」、多田毅三「和さんの像」、浅川伯教「李朝の焼物」、日吉守「風景」</p> <p><b>全160作入選</b>、*彫刻全7作入選</p>	<p>全38作入選</p> <p>四君子の部全19作入選</p>
6回1927 . 5. 25-6. 14	<p><b>入選:</b> 浅川伯教「めんたい」、加藤俊吉「白けし」</p> <p><b>特選:</b> 堅山坦「丘の夕暮」、加藤俊吉「冬景」</p> <p><b>無鑑査:</b> 堅山坦「竹」</p> <p><b>全52作入選</b></p>	<p><b>入選:</b> 遠田運雄「桃の咲く風景」、多田毅三「婦人圖」「牡丹」、高木誠一「斜陽」「春雨将晴」「春の夕景」、山田新一「静物」「青きリボンの少女」、浅川伯教「李朝の壺」「徳利」「静物」、日吉守「酒幕」</p> <p><b>特選:</b> 石黒義保「早春」、遠田運雄「婦人座像」、日吉守「風景」、多田毅三「記者M氏の像」、山田新一「卓に凭れるリユーシャ」</p> <p><b>全177作入選</b>、*彫刻全9作入選</p>	<p>全54作入選</p> <p>四君子の部全20作入選</p>
7回1928. 5. 10-30	<p><b>入選:</b> 浅川伯教「壺中小景」</p> <p><b>無鑑査:</b> 加藤俊吉「峠の五月」「金剛山の所見」</p> <p><b>全47作入選</b></p>	<p><b>特選:</b> 多田毅三「仁王山を望む風景」、日吉守「教会堂風景」、佐藤九二男「T夫人」、遠田運雄「花冠」、石黒義保「夏日」</p> <p><b>入選:</b> 佐藤九二男「テラスにて」、多田毅三「杏花婦人像」「花」</p> <p><b>無鑑査:</b> 日吉守「温室」、遠田運雄「若き楽人」「冬日暮景」、多田毅三「杏花婦人像」「花」、石黒義保「静物」</p> <p><b>全162作入選</b>、*彫刻全6作入選、<b>特選:</b> 浅川伯教「鈴木先生」</p>	<p>全55作入選</p> <p>四君子の部全20作入選</p>
8回1929. 9. 1-30	<p><b>特選:</b> 堅山坦「熱国沼辺」</p> <p><b>入選:</b> 堅山坦「緑苑」、加藤俊吉「秋郊」、浅川伯教「ダリア」</p> <p><b>全46作入選</b></p>	<p><b>無鑑査・特選:</b> 石黒義保「薄暮」、遠田運雄「春」、佐藤九二男「楽室小憩」</p> <p><b>無鑑査:</b> 佐藤九二男「紫丁香花」「唐菖蒲」、日吉守「東床塵」「支那町の午後」、石黒義保「静物」「夏意」、多田毅三「静物」「山の手風景」、遠田運雄「京風」「秋」、高木背水「春の陽」「夏の朝」</p> <p><b>全161作入選</b>、*彫刻全9作入選</p>	<p>全60作入選</p> <p>四君子の部全23作入選</p>

9回1930 . 5. 18-6. 7	<b>入選:</b> 加藤俊吉「紅葉の溪」「残照」、堅山坦「農村余情」 <b>全45作入選</b>	<b>入選:</b> 石黒義保「桐」「水田」、高木背水「花」「秋の山」、多田毅三「鮮女像」「金魚鉢のある静物」、佐藤九二男「CARMEN」「鳳梨果」「明装」 <b>全200作入選</b> 、*彫刻全10作入選	全55作入選 四君子の部全21作入選
10回1931 . 5. 24-6. 13	<b>入選:</b> 加藤俊吉「晴れたる庭」、堅山坦「朝寒む」 <b>特選:</b> 加藤俊吉「魔苑」、堅山坦「林投樹のかげ」 <b>全53作入選</b>	<b>入選:</b> 山田新一「椅子に凭れる」、多田毅三「庭園の舞子園」、石黒義保「S子」 <b>無鑑査:</b> 高木誠一「南仏風景」「花」「冬の富士山」 <b>特選:</b> 山田新一「花束」 <b>全224作入選</b> 、*彫刻全15作入選	全67作入選 四君子の部全26作入選
11回1932. 5. 28-6. 18	<b>無鑑査・特選:</b> 堅山坦「霜の開成」、加藤俊吉「木の間の秋」(朝鮮総督賞)、 <b>無鑑査:</b> 加藤俊吉「白秋」 <b>全70作入選</b>	<b>特選:</b> 山田新一「ベランダ」 <b>無鑑査:</b> 高木誠一「南仏海岸」「南仏風景(一)」「南仏風景(二)」、山田新一「足を拭ふ」「シャボードパージュ」 <b>全276作入選</b>	工芸部全24作入選
12回1933. 5. 14-6. 3	<b>無鑑査:</b> 堅山坦「谷の流れ」「夕映」 <b>無鑑査・特選:</b> 加藤俊吉「静物二題芍薬秋果」 <b>全58作入選</b>	<b>入選:</b> 遠田運雄「薔薇」「子供」「雲のある風景」、石黒義保「石段」「石人」、堅山坦「昌慶苑」、山田新一「ベランダの三人」、高木誠一「雲間ノ光」「海辺ノ家」「古城新緑」 <b>特選:</b> 山田新一「N嬢ノ像」 <b>全224作入選</b>	工芸部全37作入選 <b>入選:</b> 浅川牧栄「蠟燭テーブル掛」
13回1934. 5. 25-6. 9	<b>入選:</b> 堅山坦「幽明」「静物」 <b>無鑑査:</b> 加藤俊吉「金剛山二題」 <b>全70作入選</b>	<b>特選:</b> 山田新一「憩ふ二人」(昌徳宮賜賞) <b>入選:</b> 堅山坦「静物」、多田毅三「タコの樹の林」「初秋」、高木誠一「山路(日光)」「椿花」、山田新一「女とアネモネ」 <b>全176作入選</b>	工芸部全60作入選
14回1935. 5. 20-6. 10	<b>入選:</b> 石黒義保「うらら」、加藤俊吉「春光二題光州川」「春光二題水原街道」、堅山坦「丘」 <b>特選:</b> 堅山坦「風景」 <b>全75作入選</b>	<b>入選:</b> 高木誠一「風景」「七里ヶ濱」「雪」、山田新一「スングリーの漕手達」 <b>全176作入選</b>	<b>入選:</b> 堅山坦「抜絵花模様扁壺」、浅川牧栄「刺繍」 彫塑部全13作入選 工芸部全57作入選
15回1936. 5. 17-6. 6	<b>推薦:</b> 堅山坦「門外風景」(朝鮮総督賞)、加藤俊吉「山麓の村」 <b>全70作入選</b>	<b>推薦:</b> 日吉守「平洞風景」、山田新一「白いコスチューム」、遠田運雄「山を配せる子供」 <b>入選:</b> 高木誠一「白耳義の町」「水辺桜花」「菊花」 <b>全165作入選</b>	<b>入選:</b> 浅川牧栄「松とつる」(刺繍) 彫塑部全13作入選 工芸部全57作入選

16回1937. 5. 16-6. 5	<b>推薦:</b> 堅山坦 「旅路」、加藤松林 「朝鮮名勝四趣」 <div>全52作入選</div>	<b>推薦:</b> 山田新一 「晩春の西小門附近」、遠田運雄 「ほんちま」 <b>無鑑査:</b> 高木誠一 「牡丹」「富士の朝」 <div>全153作入選</div>	<b>特選:</b> 浅川牧栄 「ことり」 (刺繍) 彫塑部全22作入選 工芸部全72作入選
17回1938. 6. 5-25	<b>入選:</b> 加藤俊吉 「扶餘所見」 <b>参与:</b> 堅山坦 「廣壮里風景」 <div>全55作入選</div>	<b>推薦:</b> 遠田運雄 「好日」、日吉守 「江畔の午後」、山田新一 「丹装」 <b>無鑑査:</b> 高木誠一 「雨の晴れ間」「静物」 <div>全152作入選</div>	<b>特選:</b> 浅川牧栄 「めじろ」 <b>入選:</b> 浅川牧栄 「朝鮮刺繍枕屏風」 彫塑部全14作入選 工芸部全72作入選
18回1939. 6. 4-24	<b>参与:</b> 堅山坦 「峠ノ雨後」、加藤 俊吉 「門」「金剛山三題」 <div>全82作入選</div>	<b>参与:</b> 山田新一 「紅衣少女」、遠田運雄 「吟詠旅人」、日吉 守 「月尾島風景」、加藤俊吉 「金剛山三題」 <b>入選:</b> 高木誠一 「雨後の山」「静物」、石黒義保 「梨花」 <div>全193作入選</div>	<b>無鑑査:</b> 浅川伯教 「茶碗十二月」 「茶入」 彫塑部全5作入選 工芸部全78作入選

### 3. おわりに

近年、展覧会《近代の東アジアイメージ—日本近代美術はどうアジアを描いてきたか》（豊田市美術館、2009年）、《東京・ソウル・台北・長春—官展にみる近代美術》（福岡アジア美術館、府中市美術館、兵庫県立美術館、2014年）、《日韓近代美術家のまなざし—「朝鮮」で描く》（神奈川県立近代美術館葉山、新潟県立万代島美術館、岐阜県美術館、北海道立近代美術館、都城市立美術館、福岡アジア美術館、2015～16年）の開催によって、朝鮮美展で活躍した在朝鮮日本人美術家達の作品が数点確認できた。一次資料の収集と分析を進めて、彼らが不安定な立場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だけではなく、朝鮮における生活者として、美術家として自負心をもって「朝鮮的な美術」を表現し続けたことと、その特質を明確にしていきたい。

### 【主な参考文献】

金周英(2000) 「일제시대의 在朝鮮일본인화가연구-朝鮮美術展覧会입선작가를 중심으로-」 ソウル大学大学院碩士学位論文。  
 李尚珍(2011) 「朝鮮美術展覧会の実相に関する一考察—新聞報道を手掛かりに—」 『日本文化研究』第40輯, 동아시아일본학회。  
 안현정(2012)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전람회』 (주)이학사。